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The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 Welfare Service Provision

김미숙 · 김유경 · 김안나 · 김효진 · 성수미

연구보고서 2011-27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발행일	2011년 12월
저자	김미숙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	예원기획
가격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803-0 93330



머리말

세계는 점차 다문화 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국인 100만명시대로 접어들었다. 다문화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념적 가치관 측면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다문화인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문화적 차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다. 결혼이주 여성의 적응상의 어려움은 어머니와 가장 밀착된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피부색으로 인하여 인종적 차별을 받고 있고, 주변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외국인 출신 어머니에 대해서는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어려서는 언어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학교중퇴율이 높고 상급학교 진학률은 낮아지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가족관계 문제나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및 자립에 초점을 맞추었고, 국제결혼을 통한 자녀의 적응양상 문제를 다룬 연구는 최근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한 측면에서의 적응을 초점을 두고 연구하여 총체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제를 접근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둘러싼 생태체계별로 적응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 가족, 학교, 지역사회 적응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욕구를 진단하여 보다 총체적인 시각에서 사회적응실태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력 제고를 통한 한국사회의 사회통합도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증가할 다문화가족 아동 및 외국 근로자 자녀, 통일 후 북한 아동을 위한 건실한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IOM 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 실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박사, 한국교육개발원 이재분 선임연구위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전경숙 실장께 사의를 표하고, 아울러 FGI에 협조해 주신 다문화가족 아동 관련기관 실무자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보고서의 원고 검독을 통해 질적 향상 제고에 일조해 주신 본 원의 김승권 선임연구위원과 박세경 연구위원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23
제2절 연구내용	24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의 흐름도	26
제4절 실태조사 개요	27
제2장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에 대한 이론적 고찰	33
제1절 다문화가족 아동 및 사회적응의 개념	33
제2절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 이론	37
제3절 선행연구 고찰	44
제4절 연구분석틀	60
제3장 국내외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정책 고찰	63
제1절 다문화가족 아동현황 및 추이	63
제2절 국내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69
제3절 독일의 다문화지원정책	78
제4절 일본의 다문화지원정책	101
제5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114

제4장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응 실태	119
제1절 다문화가족 아동의 일반 특성	119
제2절 다문화가족 아동 정서실태	127
제3절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지지 실태	136
제4절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5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47
제5장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생활적응 실태	153
제1절 가족의 양육환경	153
제2절 부모자녀관계	180
제3절 가족응집력 및 가족갈등	188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201
제6장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실태	207
제1절 학교생활 적응 정도	207
제2절 학교생활 전반	218
제3절 학교생활의 어려움	221
제4절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4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226
제7장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실태	231
제1절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 정도	231
제2절 다문화가족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236
제3절 일반아동의 다문화개방 정도	241
제4절 다문화 적응 및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9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255

제8장 다문화가족 아동의 복지욕구 실태	259
제1절 다문화가족 아동의 복지욕구실태 비교	259
제2절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욕구	265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271
제9장 기관실무자 FGI 결과	275
제1절 조사개요	275
제2절 조사결과	276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296
제10장 결론 및 정책제언	301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301
제2절 정책제언	307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322
참고문헌	323
부 록: 조사표	337
부록 1. 2011년 다문화부모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339
부록 2. 2011년 사회적응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다문화아동)	347
부록 3. 2011년 사회적응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일반아동)	355

표 목차

〈표 1- 1〉 실태조사 표본수	28
〈표 1- 2〉 다문화 부모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29
〈표 1- 3〉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29
〈표 3- 1〉 시·도별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족 아동 비율(2010년) ..	64
〈표 3- 2〉 시·도 및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가족 아동 현황(2010년) ..	65
〈표 3- 3〉 연도 및 학령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변화 추이	67
〈표 3- 4〉 연도 및 시·도별 다문화가족 아동 변화 추이	68
〈표 3- 5〉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2010) ..	74
〈표 3- 6〉 생애주기별맞춤형 서비스	75
〈표 3- 7〉 2006년 기준 독일 거주 외국인 및 거주기간	82
〈표 3- 8〉 독일 이주민 가족 자녀지원 사업	90
〈표 3- 9〉 독일인과 외국인의 학력 비교	93
〈표 3-10〉 일본 다문화공생플랜의 주요 시책	107
〈표 3-11〉 다문화공생의 도도부현, 시구정촌, 국제교류협회추진체제와 역할분담	111
〈표 4- 1〉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일반 특성	122
〈표 4- 2〉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부모 및 가구 특성	123
〈표 4- 3〉 다문화가족 아동 어머니의 출신국 및 의사소통 실태	125
〈표 4- 4〉 다문화가족 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126
〈표 4- 5〉 정서 관련 척도	128
〈표 4- 6〉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의 주요 고민거리	129
〈표 4- 7〉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의 고민의논 대상	129
〈표 4- 8〉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 아동의 우울 차이	130
〈표 4- 9〉 다문화 여부에 따른 우울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	131

〈표 4-10〉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특성에 따른 우울	131
〈표 4-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	132
〈표 4-12〉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 아동의 자아존중감 차이	133
〈표 4-13〉 다문화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 ..	133
〈표 4-14〉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	134
〈표 4-15〉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135
〈표 4-16〉 사회적 지지 관련 척도	136
〈표 4-17〉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족지지 차이	137
〈표 4-18〉 다문화 여부에 따른 가족지지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 ..	137
〈표 4-19〉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족 지지 차이	138
〈표 4-20〉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지지	139
〈표 4-21〉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친구지지 차이	140
〈표 4-22〉 다문화 여부에 따른 친구지지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 ..	140
〈표 4-23〉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특성에 따른 친구지지 ...	141
〈표 4-24〉 다문화가족 아동의 친구지지	141
〈표 4-25〉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교사 지지 차이	143
〈표 4-26〉 다문화 여부에 따른 교사지지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 ..	143
〈표 4-27〉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교사 지지 차이	144
〈표 4-28〉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사지지	144
〈표 4-29〉 어머니 및 가족환경 특성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146
〈표 4-30〉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146
〈표 5- 1〉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형태 및 동거가족 규모	154
〈표 5- 2〉 다문화가족 아동 부모의 일반적 특성	155

〈표 5- 3〉 다문화가족 아동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158
〈표 5- 4〉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	160
〈표 5- 5〉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건강상태	161
〈표 5- 6〉 여성 결혼이민자 특성별 한국말 실력 정도	162
〈표 5- 7〉 부모특성별 배우자와 대화 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	164
〈표 5- 8〉 특성별 자녀와 대화 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	165
〈표 5- 9〉 부부관계 만족도의 문항	166
〈표 5-10〉 부모특성별 부부관계 만족도	167
〈표 5-11〉 자녀양육태도 척도의 문항	168
〈표 5-12〉 특성별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한 인식: 애정적 태도	170
〈표 5-13〉 특성별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한 인식: 거부적 태도	171
〈표 5-14〉 특성별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한 인식: 자율적 태도	173
〈표 5-15〉 특성별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한 인식: 통제적 태도	174
〈표 5-16〉 부모특성별 자녀 양육 담당자	176
〈표 5-17〉 특성별 자녀 양육 어려움(1순위)	178
〈표 5-18〉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의 문항	180
〈표 5-19〉 특성별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181
〈표 5-20〉 부모와의 애착 척도의 문항	184
〈표 5-21〉 특성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185
〈표 5-22〉 특성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186
〈표 5-23〉 가족생활 응집성 척도의 문항	188
〈표 5-24〉 특성별 가족생활 응집성: 가족간의 몰입	190
〈표 5-25〉 특성별 가족생활 응집성: 가족간의 의사소통	192
〈표 5-26〉 특성별 가족생활 응집성: 가족원의 적응력	194

〈표 5-27〉 가족갈등 정도의 문항	197
〈표 5-28〉 부모특성별 가족간의 갈등	199
〈표 6- 1〉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208
〈표 6- 2〉 다문화 및 일반아동의 교사관계	208
〈표 6- 3〉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사관계	209
〈표 6- 4〉 다문화 및 일반아동의 친구관계	210
〈표 6- 5〉 다문화가족 아동의 친구관계	211
〈표 6- 6〉 다문화 및 일반아동의 학교수업	213
〈표 6- 7〉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수업	214
〈표 6- 8〉 다문화 및 일반아동의 학교규칙준수	215
〈표 6- 9〉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규칙준수 정도	216
〈표 6-10〉 다문화 및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	217
〈표 6-11〉 다문화 및 일반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219
〈표 6-12〉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220
〈표 6-13〉 다문화가족 아동의 숙제 및 준비물 챙겨주는 사람	222
〈표 6-14〉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	222
〈표 6-15〉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223
〈표 6-16〉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	224
〈표 6-17〉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225
〈표 7- 1〉 아동의 문화 적응정도	233
〈표 7- 2〉 다문화적응 유형별 적응정도	235
〈표 7- 3〉 다문화가족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237
〈표 7- 4〉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분석	238
〈표 7- 5〉 모의 특성별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239

〈표 7- 6〉	모의 특성별 본국문화 몰이해 스트레스 정도	240
〈표 7- 7〉	일반아동의 다문화 개방성 정도	242
〈표 7- 8〉	일반아동의 다문화 개방성 정도에 대한 요인분석	243
〈표 7- 9〉	일반아동의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성정도	244
〈표 7-10〉	일반아동의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수용성정도	245
〈표 7-11〉	일반아동의 다문화 학생과의 친밀도	246
〈표 7-12〉	일반아동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지 한국인여부)	247
〈표 7-13〉	일반아동의 해외여행 경험	248
〈표 7-14〉	일반아동의 해외거주의향	249
〈표 7-15〉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1)	251
〈표 7-16〉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253
〈표 7-17〉	일반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254
〈표 8- 1〉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율 비교	260
〈표 8- 2〉	아동복지서비스 필요율 비교	261
〈표 8- 3〉	아동복지서비스 기관 이용율 비교	263
〈표 8- 4〉	아동복지서비스 기관 필요율 비교	264
〈표 8- 5〉	결혼이주여성 자녀대상 복지서비스 이용율	266
〈표 8- 6〉	학령별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복지서비스별 필요율	267
〈표 8- 7〉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서비스 이용율도	269
〈표 8- 8〉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서비스 필요율	270
〈표 9- 1〉	FGI 실시 일시 및 내용	276

그림 목차

[그림 1- 1] 연구흐름도	27
[그림 2- 1] Berry의 문화적응양상	38
[그림 2- 2] 연구분석틀	60
[그림 3- 1] 시·도별 전체 아동 대비 다문화가족 아동 비율	64
[그림 3- 2] 시·도별 다문화가족 아동 비율(2010년)	65
[그림 3- 3] 부모출신국별 다문화가족 아동 현황(2010년)	66
[그림 3- 4] 연도 및 학령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변화 추이	67
[그림 3- 5] 연도 및 시·도별 다문화가족 아동 변화 추이	69
[그림 3- 6] 이주배경을 가진 독일 인구 현황	79
[그림 3- 7] 1950년 이후 독일 거주 외국인 수	81
[그림 3- 8] 2006년 기준 독일 거주 외국인의 거주기간 (BMI, 2008)	83
[그림 3- 9] 국적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BMI, 2008)	85
[그림 3-10]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수 및 비율	102
[그림 3-11] 일본의 국적별 외국인등록자수 추이(1984-2009)	103
[그림 5- 1]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자녀양육관	175
[그림 5- 2]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별 자녀양육관	175
[그림 5- 3]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부모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182
[그림 5- 4]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별 부모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183
[그림 5- 5]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자녀의 부모애착도	187
[그림 5- 6]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별 자녀의 부모애착도	187
[그림 5- 7] 모의 국적별 다문화가족의 응집도	195
[그림 5- 8] 모의 거주기간별 다문화가족의 응집도	196
[그림 6- 1] 다문화 및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	218

[그림 8- 1]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율 비교	260
[그림 8- 2] 아동복지서비스 필요율 비교	262
[그림 8- 3] 아동복지서비스 기관 이용율 비교	263
[그림 8- 4] 아동복지서비스 기관 이용율 비교	265
[그림 8- 5] 결혼이주여성 자녀대상 복지서비스 이용율	266
[그림 8- 6] 결혼이주여성 자녀대상 복지서비스 필요율	268
[그림 8- 7] 결혼이주여성 복지서비스 이용율	269
[그림 8- 8] 결혼이주여성 복지서비스 필요율	270



Abstract

The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 Welfare Service Provision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adjustment is divided into four areas, namely psychological adjustment, familial adjustment, school adjustment, and cultural adjustment. Face-to-face survey is conducted to 386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ir 334 mothers, and 410 Korean children all of whose grades are from 3rd grade to 10th grade. Social workers from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interviewed to detect the limitations of current policies and to devise future policy measures.

In respect of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levels of self-esteem and familial support of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lower than those of their Korean counterparts.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self-esteem was significant. The familial support of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s fluctuated according to their father's education and their mother's country of origin. The lower their father's education is, the smaller the support from their family.

In terms of familial adjustment, families of the multicultural

background suffer from child care, as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mothers is as high as 72%. There is a big gap in education between parents, which also can cause family conflict. Even though the degree of mother-child intimacy is slightly higher than the mid-point, much more time needs to be spent for family leisure activities to boost their intimacy and communi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The family cohesion level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slightly over the mid-point and that of mothers is higher than that of their children.

At school, the adjustment level of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s a little lower than that of their Korean school-mates. In particular, their class adjustment scores are lower than those of Korean children. They are less likely to satisfy with their school lives and have more difficulties in studying.

In community, they are better adjusted to the Korean culture than their mother country culture, and the adjustment scores of the two cultures are much higher than the cutting point. Meanwhile, Korean children reveal high openness toward other cultures and low closed mindedness in accepting other culture.

Based on th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요약

I.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세계는 점차 다문화 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국인 100만명 시대로 접어들어 다문화사회가 되었음.
- 다문화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념적 가치관 측면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국내 결혼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결혼취약남성과 이혼 가족이므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음.
 - 결혼이주 여성의 적응상의 어려움은 어머니와 가장 밀착된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됨.
 -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70% 이상이 피부색으로 인하여 인종적 차별을 받고 있고, 각종 심리적 어려움과 낮은 학업성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그동안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 중 국제결혼을 통한 자녀의 적응양상 문제를 다룬 연구는 최근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했음.

□ 연구의 목적

-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 가족, 학교, 지역사회 적응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욕구를 진단하여 보다 총체적인 시각에서 이들의 사회 적응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

-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에 대한 개념과 기존의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 둘째,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국내외 지원정책을 살펴봄.
- 셋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 실태를 생태체계적으로 파악한 뒤(사회심리측면, 가족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 문화적응측면)
- 이들의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함.

□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위해 문헌고찰, 실태조사, FGI, 정책간담회를 수행하였음.
 -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 부모, 아동 및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실시
 - 조사대상: 국내 다문화가족 부모, 아동 및 일반아동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함.
 - 조사내용: 부모의 경우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자녀양육 및 가족생활, 학교생활, 문화적응 및 심리적응, 복지욕구 등이며, 아동의 경우 심리사회적응, 가족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다문화 수용 정도, 서비스 수혜경험 및 필요정도, 사회적 지지 등
 - FGI는 다문화가족 아동 담당교사, 민간 센터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알아보았음.
 - 3회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내용, 방법, 정책대안을 검토함.

2.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다문화가족 아동 및 사회적응의 개념

- 다문화가족 아동의 개념 및 범위
 - 다문화가족 아동이란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기존 구성원인 내

국민과 결합하여 형성된 가족의 자녀로 정의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범위를 외국인 어머니와 한 국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으로 규정함.

○ 사회적응의 개념 및 유형

- 사회적응이란 사회환경에 대해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며 그 사회규범에 동조하면서 순응해 가는 과정을 말함.
- 사회적응의 차원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학적 이론을 근거로 개인심리적 적응, 가족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지역사회(문화)적응의 차원으로 보고자 함.

□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 이론

○ 문화적응유형과 척도

- Berry에 의하면 새로운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 문화적응유형(동화, 분리, 통합, 주변화)이 있음.
- 이를 바탕으로 한 CRM 이중문화적도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양문화적응 정도를 살펴보았음.

○ 이중문화성과 건강성

- 이중문화를 통해 교육적 성취, 삶의 질, 사회인지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보호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중문화로 인한 문제행동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함.
- 문화적응 시 사회심리적 및 기타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음.
-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유형별 정신건강 및 사회적 성취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임.

3. 국내외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정책

□ 다문화가족 아동 현황

○ 다문화가족 아동현황

- 다문화가족 아동의 규모는 30,040명이고 초등학생 23,602명, 중학생 4,814명, 고등학생 1,624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족 아동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음(78.6%).
- 지역별에 따르면 광역시 30.0%, 도지역 70.0% 분포를 보이며, 시도별 아동분포는 경기도, 서울, 전남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부모 출신국별 아동 분포는 일본이 36.4%로 가장 높고 중국 한족, 필리핀, 중국 조선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다문화가족 아동추이

- 연도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6년(18,778명)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30,040명)까지 5년간 3.8배 급속히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275.6%임.
 - 학년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중, 고등학생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지역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6~2008년까지 3년간 광역시 1.7배, 도지역 5.8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각각 74.3%, 483.6%로 도지역이 광역시에 비해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국내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정책

○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법 및 아동 관련법

- 국내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법 중 다문화가족과 자녀에 대해 다루고 있는 현행 법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으로 다문화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국내 지원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이들을 위한 신분보장, 취약보육을 실시하고 있음.

○ 부처별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정책 현황

- 국내 중앙정부의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을 지원정책을 마련함.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중심으로 교육지원 계획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그 자녀를 정책에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외국의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정책

○ 독일

- 독일 아동을 위한 보편적 지원을 동일하게 다문화가족 아동에도 지원하고 있음.
 - 취학 전 단계에서의 언어교육을 강조하며, 미취학 아동 및 유아를 포함하는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함.
 - 이주민가족 자녀의 모국어 능력 강화를 위해 미취학 아동 시기부터 이중언어 교육을 매우 체계적으로 실시함.
 - 이주배경을 지닌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를 교육 관련 직종, 행정 및 사회복지 업무 등에 보다 많이 채용하고 있음.

○ 일본

- 저출산·인구고령화 문제해소의 일환으로 다문화공생정책을 수립하여 지자체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정책 시행하고 있음.
 - 일본어 습득 위한 각종 지원정책 마련 통역 및 교육기획 강화
 - 학교 탈락자에 대한 지원 강조함.
 -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미허가 학교설립 지원 및 세제지원

- 보조교사, 자원봉사인력 등 인력지원 실시.

4.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

□ 다문화 가족 아동의 정서실태

- 다문화 아동과 일반아동의 우울은 공변인 분산분석결과 다문화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공변인 중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차이를 주는 변인으로 나타남.
 - 다문화 아동내에서는 학년과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다문화 아동의 우울은 차이를 보임.
-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일반아동보다 낮았으나 단순히 다문화 여부에 따른 차이에 따른 결과라 단정할 수 없음.
 - 공변인 분산분석결과 다문화여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년과 경제적 수준이 오히려 다문화 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차이를 주는 변수로 나타남.
 - 다문화 아동내에서는 어머니의 출신국가, 아버지의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를 보임.
-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아동,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아동, 다른 출신국에 비해 소수만이 한국내 거주하여 살고 있는 국가의 출신이 어머니를 가진 아동을 정서지원의 집중적 대상으로 삼아야 함.

□ 다문화 가족 아동의 사회적 지지 실태

-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가족지지는 다문화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다문화 여부에 따른 차이에 따른 결과라 단정할 수 없음.
 - 공변인 분산분석결과 다문화 아동과 일반 아동의 가족지지의

차이는 다문화 여부보다 학년과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다문화 가족 아동내에서도 부모의 출신국과 부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나타냄.

- 따라서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동남아시아인 경우와 경제적 수준과 부의 학력이 낮은 다문화 가족의 가족지지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다문화 가족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특성 중에서는 어머니의 출신국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수국 출신의 다문화 아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 가족, 친구, 교사 모든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가족과 더불어 학교에서의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임.
 - 이러한 점에서 아동이 맺고 있는 어느 한 사회적 관계와 지지만을 별개로 떼어내어 지원하는 것보다 총체적으로 접근하면 다문화 아동의 전체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5.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생활 적응

- 가족의 자녀양육환경은 가족돌봄의 공백이 예상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신분이 불안정하고 부부관계 만족도는 중간정도이나 권위적인 측면이 많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전한

자녀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안전망 자치가 요구됨.

- 다문화가족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보통을 상회하나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및 취업유무 등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남.
 - －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부관계의 균형적 개선을 위한 각종 사회적 지원이 요구됨.
- 한편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약 70%로 높은 편이나 고용상태가 임시·자영업 등으로 불안정하였고,
 - － 다문화가족의 과반수 정도는 비수급가구로 나타나서 빈곤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와 애착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볼 때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차별적인 요인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는 보통 이상부터 대체로 만족까지 분포하였으나 자녀가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정도나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 참여는 낮게 나타남.
-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와 애착도는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및 고용상태, 가구소득 그리고 가족형태 등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적응 증진을 위해 부모자녀관계 정립을 위해 가족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전문적 프로그램이 요구됨.

□ 다문화가족에서 일부 발견되는 거부적 및 통제적 양육관은 아동의 가족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문화가족 전문기관 및 자조모임 등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이 요구됨.

- 가족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가족응집과 밀접한 가족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함.
- 가족응집력을 조사한 결과 모가 아동보다 응집도가 높았고, 모와 아동 모두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높았음.
 - 가족응집력 제고를 위해 가족특성을 반영한 가족관계 향상과 함께 가족응집과 관련이 높은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6.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비교적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적응력이 약간 낮음을 알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의 이상으로 적응하고 있음이 파악됨.
-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 친구관계, 학교규칙준수에 대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은 가장 낮게 나타남.
 - 아동의 거주지역별에 따른 차이가 가장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도시의 아동들의 적응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에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에 있어서는 비교적 평균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아동특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저학년일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거주지역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역시 존재하였으며 대도시의 아동보다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느끼는 학교생활만족이 더 낮음을 알 수 있음.

□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알아본 결과, 다문화가족 및 일반아동 모두 학교공부에 대한 부담, 숙제 및 준비물을 챙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적응 정도에서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도가 제일 낮은 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음.

— 특히 학교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일반아동에 비해 다문화가족 아동의 비율이 꽤 높음.

○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의 이유도 학업부담 및 스트레스가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향후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학업에 대한 지원 및 숙제, 준비물을 챙기는 것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본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성, 학년, 모의 한국어 실력,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일반아동의 경우 학년, 거주지역,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친구지지가 가장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판명되었음.

—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친구의 지지 및 또래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생활의 적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다문화가족 및 일반아동 모두 고학년의 학교생활적응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음.

— 아동의 연령별에 따른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특히 고학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정책이 필요함.

7.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

- 문화적응에 있어서 어머니나라 문화에의 적응보다는 한국문화에의 적응도가 더 높음.
 - Cortes, Rogler and Malgady의 이중문화 척도(Bicultural Scale)에 의하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아동은 어머니나라 및 한국문화 모두 적응도 높은 이중문화유형을 보이고 있음.
- 다문화가족 아동의 모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이들의 한국 거주기간이 90%이상이 10년 이상인 상황이어서 한국문화에의 적응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일반아동은 비교적 다문화에 대해서 긍정적 수용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부정적 태도는 낮게 나타남.
 - 그러나 일부 측면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성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
 - 외국문화에의 노출이 문화개방성에 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음. 고학년이 될수록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외이주의향도 높음.
-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일반아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8. 다문화가족 아동의 복지욕구

-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은 복지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의 이용도가 낮았음.
 - 일반아동은 다문화가족 아동에 비해서 복지서비스 이용율이 낮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은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율이 낮았음. 즉, 양자는 다른 측면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필요도는 양자 모두 높은 편으로 파악되어, 서비스 이용과 필요 간에 갭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일반아동의 복지에 대한 필요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으로 파악되었음.

9. 기관실무자 FGI 결과

- 대상 및 방법
 - 다문화가족 아동 관련기관 실무자 5명 초점집단 인터뷰
- 다문화가족 아동의 주요 문제
 - 심리사회적 적응
 - 심리적 위축이나 우울감 및 문화적 충돌과 정체성 혼란, 정서적 지지부족 등의 결핍 등
 - 가족생활적응
 - 부모의 역할 및 양육기술 부족으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
 - 학교생활적응
 - 교사 및 일반아동의 다문화 수용 및 인식부족,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녀의 학교 준비도 부족 및 교사 및 학부모들과의 소통의 어려움

- 문화적응
 - 역차별,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고립화 및 혼란 경험
- 이에, 향후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생태체계별 적응과 관련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을 지원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 사회적 자원 및 지원 예산의 부족, 민간센터로서의 지원/역할의 한계성, 사업실행기관 사이의 네트워크의 부족, 복지의 사각지대 현상 발생, 다문화의 인식부족, 문화차이로 인한 개입의 어려움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여부: 지역사회자원과 네트워크 여부 및 방법
 - 일부 기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복지서비스의 자원으로 활용 및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었음.
 -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실행기관 사이의 네트워크가 부족하며 지역사회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향후 자원 연계와 네트워크망이 좀 더 효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각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별 적극적인 협조 및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정책 및 서비스의 한계 및 개선방안
 - 현 다문화가족 아동과 관련한 정책의 개선 및 보완, 사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예방적 접근, 전달체계 확립 및 네트워크 형성, 부모교육 및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음.

10. 정책제안

□ 정책의 기본방향

- 첫째, 다문화사회에서 통합적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적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이 필요함.
- 둘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지원은 생애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셋째,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지원은 모의 출신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사업은 중심축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도 제고방안

- 다문화 아동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취약한 집단을 판별하여 우선적·집중적 지원하여야 함.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를 출신국별 세분화하고 소수출신국의 어머니들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야 함.
- 언어발달 및 학업지원 프로그램 위주에서 벗어나 자아존중감 향상 등 사회심리적 적응력 및 개인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지원함.
 - 특히,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높은 고위험군 다문화 아동을 선별하여 전문적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함.
- 다문화 부모를 대상으로 언어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아동이 느낄 수 있는 가족지지를 높임.
- 다문화 아동의 사회적 배경 등 개인별 특성 및 욕구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는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친구 및 학교의 지지를 제고해야 함.

□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생활관련 정책적 대안

- 다문화가족 아동의 의사소통 지원 및 이중언어 활용도 제고
 - － 다문화가족간 올바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맞춤형 언어교육서비스 제공
 - － 언어교육서비스의 홍보·안내를 통한 인지도 제고
 -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중언어 교육 제공
-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성 제고를 위한 심리정서 강화
 - － 전문가상담 및 치료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적응력 제고
 - － 다문화가족간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지지 자원 확대
-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정립 및 부모애착도 향상 방안
 - － 부모자녀관계 정립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 도입 및 가족 및 아동 개인 특성별 차별적 지원
 - －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국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자긍심 향상프로그램 확대
 - － 부모자녀간 안정된 애착형성을 위한 지원
 - 문제해결능력 향상 및 스트레스 관리 지원 및 프로그램 제공
- 다문화가족 관계증진 및 가족지지를 통한 가족응집력 제고
 - － 다문화가족 관계증진을 위한 상담 개입 및 가족프로그램 지원
- 맞춤형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체감 확립
 - － 다문화 이해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제공

□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 제고방안

-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 서비스의 통합 및 전달체계의 효율화
 - －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 서비스를 통합, 재정비

-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여 정책의 사각지대 계층 해소화
 - 다문화가족 아동의 개인특성별, 가족특성별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배려 필요
 - 다문화가족 아동이 처한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별에 따른 정책 지원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보다 이들이 처한 특성별에 따른 지원의 차등화 필요
 - 다문화 중·고교생을 위한 특화정책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 거점학교 운영 확대(중·고교)를 통한 특화정책 마련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학생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습방법과 자료 활용: 영상매체를 활용한 활동 중심 학습, 교과와 언어학습의 통합
 - 학교 내 다문화 담당 전문 상담가 배치: 진학 및 취업 지원 등
 -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지원 확충 및 사례관리의 체계화
 - 부모의 출신국별, 아동의 연령별에 따른 지속적 사례관리 및 개입
 - 아동의 욕구를 파악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 부모·자녀 관계 및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
 - 결혼이주여성 출신국별 특성을 반영한 자녀관계 및 상호작용 등 부모의 역할 고려 및 가족 내 학습지원 및 학교 준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 수용 및 인식 교육필요
 - 교사 및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에 대한 수용 및 인식 교육 제공
-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도 제고방안
-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력 제고
 -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정책보다는 일반아동과 같은 맥락에서의 지원 필요

- 지역사회 기관의 경우는 결혼으로 이주한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실시
 - 특히, 아동 개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지원, 상담, 특기적성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서 제공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제공
- 국가차원에서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중학생을 위한 기관 확충이 필요
- 이중언어 습득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모국어 배울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 구축 방안 마련

○ 모의 사회적응 제고방안

-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부관계 만족도를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직업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응력 제고
 - 부부관계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부부간의 문화차 및 연령차 극복방안, 부부갈등 해소방안 제공, 부부상담 확대, 다문화여성 자조모임 활성화 등 제공
- 둘째, 현재 각종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이 주로 초급자를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어 고학력 및 장기체류자를 위한 고급 한국어 교육이 필요
 - 이를 위해 한국어강사수를 늘리고 지역의 주부와 같은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 한국인과의 교류의 장도 확대
 - 국공립 도서관에서는 다문화를 위한 코너를 마련하고 독서지도 등의 프로그램 고려

- 셋째, 고학력 여성이 본국 문화를 한국인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학력 여성을 배려한 정책이 필요

-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만이라도 다국어 통역사를 두어 다문화여성들이 어려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배려

○ 일반아동의 문화수용 교육

- 고학년 아동에게는 문화개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
-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친화적 교육이 필요
- 한민족에 범주에 대한 교육도 필요
- 다문화가족 아동과의 접촉경험을 높이기 위한 통합교육 필요
- 상급학교에서의 다문화관련 교육의 확대

□ 복지서비스 강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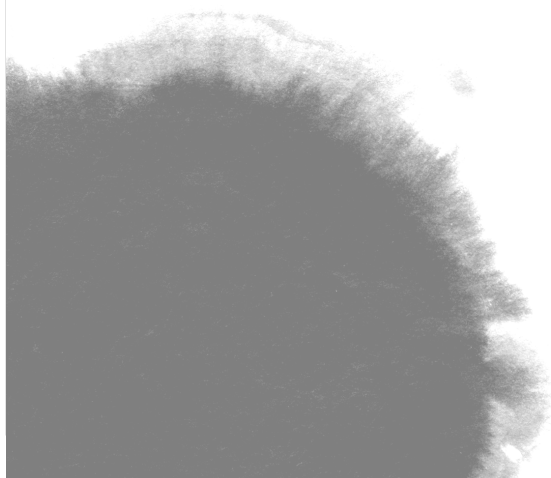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 기초교육 학습기회 제공이 필요
- 결혼이주여성이나 가족의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
-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및 복지제공기관 확충 필요

□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 주기적으로 전국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일반아동의 경우는 부모 조사를 하지 못하였는데, 향후에는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다문화가족과의 차이를 검토
- 본 연구에서 중도입국아동과 외국인근로자 아동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는데, 후속과제에서 다루어야 하겠음.

01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세계는 점차 다문화 되어 가고 있다. 이주노동자, 난민, 역이민 등으로 다양한 인종들이 한 사회에 공존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100만명시대로 접어들어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다문화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념적 가치관 측면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 및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특히 문화적 차이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국내 결혼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결혼취약남성과 이룬 가족이므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다. 결혼이주 여성의 적응상의 어려움은 어머니와 가장 밀착된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주민은 출신국에서 가지고 있던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소원해지고, 익숙하지 않은 사회체계에서 경제적으로 생존하는 문제를 가지게 되고 이는 새로운 문화체계에서의 적응문제로 이어진다(Merrich et al., 2009). 이로 인해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적응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은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Merrich et al., 2009).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바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이동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70% 이상이 피부색으로 인하여 인종적 차별을 받고 있고, 주변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어머니에 대해서 수치

스럽게 생각하고, 어려서는 언어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학교중퇴율이 높고 상급학교 진학률은 낮아지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가족관계 문제나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및 자립에 초점을 맞추었고, 국제결혼을 통한 자녀의 적응양상 문제를 다룬 연구는 최근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해도 그동안은 자녀의 연령이 어려서 주로 언어습득문제, 자녀양육문제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학동기 연령의 아동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문화적응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가 활발해 지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한 측면에서의 적응을 초점을 두고 연구하여 총체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제를 접근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 가족, 학교, 지역사회 적응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욕구를 진단하여 보다 총체적인 시각에서 이들의 사회적응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에 대한 개념과 기존의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둘째,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국내외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셋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적응 실태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이들의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7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개념 및 이들의 사회적응 개념을 살펴본 뒤, 사회적응 이론

을 알아보았다. 사회적응 이론에는 양문화(bi-culturalism) 가설,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아울러 선행연구를 주제별로 정리하였는데, 이를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심리적응, 가족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문화적응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둘째, 국내외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정책을 고찰하였다. 우선 다문화가족 아동현황 및 추이를 본 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여러 부처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해 효과적 인 정책을 펴고 있는 독일과 일본사례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일자리 및 교육 등을 위해 이주해온 터어키인들은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일본은 남아메리카로 이민갔다가 자녀 세대 때 역이민 온 일본인에 대한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 2 국가의 주요 정책과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셋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응 실태를 파악하였다. 아동의 고민거리, 우울증 정도, 자존감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되 일반아동과 비교 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아동의 사회적지지를 가족, 친구, 학교로 나누 어서 살펴보았고, 복지욕구도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과 기관 이용여부 및 필요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넷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생활적응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친밀감, 애착정도, 대화정도 등), 자녀 양육태도 및 가족생활(가족응집력) 등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실태를 파악하였다. 학교생활 적응도 및 만족도,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 어려운 과목, 학교생활 준비를 해 주는 사람 등을 파악하였다.

여섯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 실태를 파악하였다. 아동의 문화 적응정도와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일반아동의 문화개방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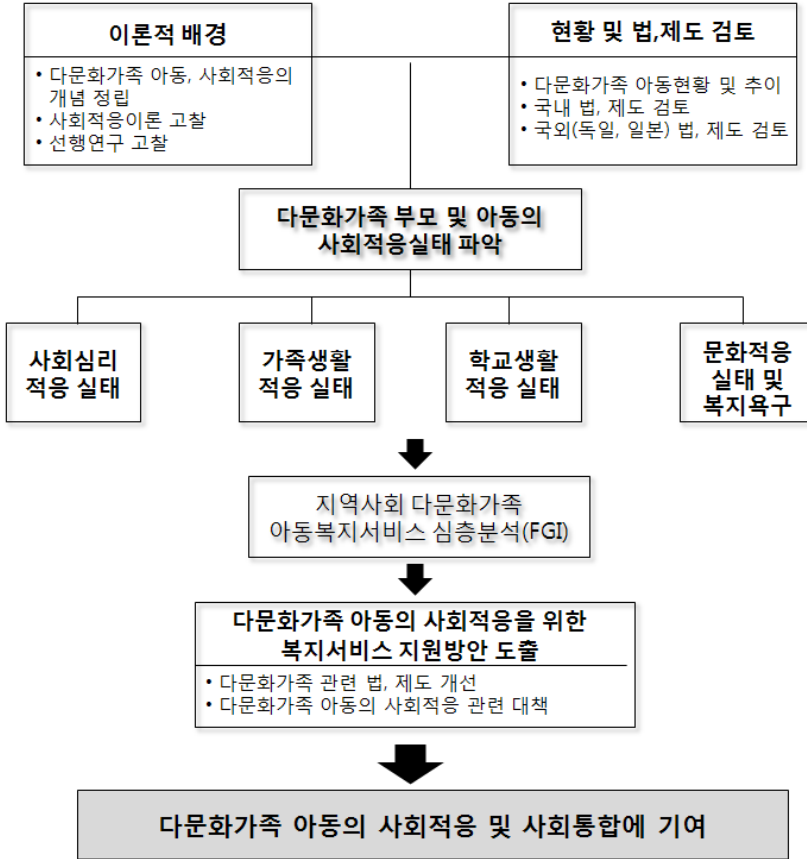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적응차원을 생태체계를 기반으로 4유형으로 나누어서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앞에서 분석한 사회심리적적응 제고, 가족생활적응 제고, 학교생활적응 제고, 문화적응제고 방안이 포함된다.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의 흐름도

본 연구를 위해서 문헌고찰, 실태조사, FGI, 정책간담회를 수행하였다. 문헌고찰은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사업을 고찰하였다. 외국의 경우는 일본과 독일 사례를 분석하여 역이민 자녀와 외국인 이주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 아동, 부모, 그리고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해 다문화가족 아동이 밀집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서 조사하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다음 절에 소개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과 관련된 교사, 민간 센터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작, 중간 및 종료 단계에서 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연구방향, 목적, 설문지 내용, 정책제언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의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제4절 실태조사 개요

1. 표본 추출 및 표본수

실태조사는 국내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통하여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 아동이 있는 학교를 선정하여 다문화가족 부모 및 아동, 그리고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가족특성별, 지역별 및

아동의 학년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한국인 아버지와 결혼이주여성
의 어머니를 둔 국내 7개지역(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의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내 다문화가족 아동으로 초 3~6학년,
중 1~3학년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비교집단으로 다문
화가족 아동의 학년과 동일하게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에 전체 7개 지역 내 37개 학교 중 다문화 부모 351, 다문화가
족 아동 407명, 일반아동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최종적
으로 다문화 부모 334명, 다문화가족 아동 386명, 일반아동 410명의
응답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부모와 아동의 응답(부모국적, 나
이, 전화번호, 학생이름 등)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 아버지가 외국인인
국제결혼가족 아동 혹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근로자 가족 아
동을 제외한 최종 결과이다(표 1-1 참조).

〈표 1-1〉 실태조사 표본수

		지역수	학교수	다문화부모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전체 회수		7지역	37개교	351명	407명	410명
최종 분석		7지역	37개교	334명	386명	410명
회수율 차이발생 사유	전체	-	-	17명	21명	0명
	사유1	-	-	3명	3명	-
	사유2			9명	10명	
	사유3			5명	8명	

주: 사유 1) 부모와 아동 data 불일치 (부모 국적, 나이, 전화번호, 학생 이름 불일치), 사유 2) 모는 한국인이나 부가
외국인인 경우(부국적: 미국, 일본, 필리핀, 한국, 파키스탄, 이란, 조선족) 사유 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부
모 모두 조선족, 한족 6명/ 부가 미국인 모는 일본인 1명)

조사 내용은 다문화 부모의 경우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자녀양육
및 가족생활, 학교생활, 문화적응 및 심리적응, 복지욕구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다문화가족 및 일반아동의 경우 심리사회적 적응, 가족생활
적응 학교생활적응,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 서비스 수혜경험 및
필요정도, 사회적 지지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표 1-2, 표 1-3 참조).

〈표 1-2〉 다문화 부모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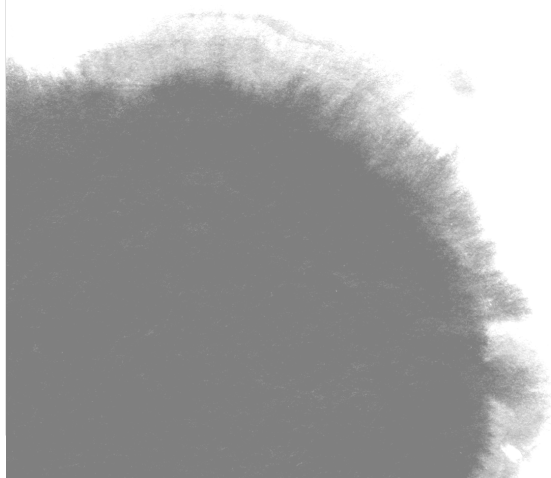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구분	조사내용
가구일반 사항	결혼 전 국적, 한국에 거주기간, 국적취득 여부, 응답자 연령, 배우자 연령, 결혼상태, 응답자의 교육수준, 배우자의 교육수준, 응답자 취업 여부,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배우자의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적 수준, 종교, 가족유형, 총 자녀수, 해당자녀의 출산 여부, 해당자녀의 출생국가, 해당자녀의 입국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부부관계	남편과의 관계, 남편과의 갈등 경험 정도, 배우자와의 사용 언어
부모-자녀관계	해당자녀와의 관계,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인식, 자녀와의 사용 언어
자녀양육 및 가족생활	자녀 양육태도, 자녀의 주양육자, 자녀양육문제 해결자, 자녀의 양육문제와 관련하여 부부간의 의견 일치 정도, 자녀 양육 시 어려움, 가족생활에서 느끼는 점
학교생활	해당자녀의 학교준비물 및 학교숙제 도와주는 사람, 자녀의 학교준비물 및 학교숙제를 도와주는 데 느끼는 정도,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부모의 활동 정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 자녀의 집단 따돌림 경험 여부
문화적응 및 심리적응	응답자의 자아존중감 정도, 응답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
복지욕구	해당자녀의 학습지도, 특별활동 등 복지서비스 이용여부, 필요여부 자녀의 희망 학교 유형, 부모교육 등 복지서비스 관련 이용여부, 필요여부

〈표 1-3〉 다문화가족 이등 및 일반아동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아동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	다문화	성별, 학년, 생년월일, 신체특성(키, 몸무게), 사는 지역, 형제관계, 종교, 어머니국가, 내가 태어난 국가, 어머니연령, 아버지 연령, 어머니 직업, 아버지 직업, 부모님 학력, 가족의 경제적 수준 인식 정도,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 정도, 어머니와의 대화 시 사용 언어
	일반	성별, 학년, 생년월일, 신체특성(키, 몸무게), 사는 지역, 형제관계, 종교, 어머니연령, 아버지 연령, 어머니 직업, 아버지 직업, 부모님의 학력, 가족의 경제적 수준 인식 정도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학교생활 응집도, 학교생활 만족 정도,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있었던 이유, 학생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 숙제를 봐주거나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는 사람	
가족생활 적응	가족생활 응집도,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	
심리적 적응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 고민 의논상대, 우울정도, 자아존중감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	다문화	문화적응 정도
	일반	다문화학생의 수용 정도, 한국가주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문화수용 정도, 타국가 출국 경험, 한국에 국외 거주 희망 여부
서비스 수혜경험 및 필요정도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여부 및 필요여부(공부방, 예체능/특기 및 취미교실, 독서지도서비스 및 무료 도서대여, 아동상담 프로그램, 견학/문화체험/캠프 등의 문화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이용여부, 필요여부(사설학원, 초등학교 내 방과 후 학교, 공부방, 상담기관, 복지관, 문화센터/체육관, 도서관 등)	
사회적 지지	친구지지 정도, 가족지지 정도, 교사지지 정도	

02

다문화가족 이동의
사회적응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2장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 절 다문화가족 아동 및 사회적응의 개념

1. 다문화가족 아동 개념 및 범위 정립

가. 다문화가족 아동 개념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가족’과 ‘가정’은 사회적 단위로는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나 사전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가정’은 가족의 생활공동체로써 환경적 의미를 내포하며 ‘가족’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한 집단 또는 구성원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라는 내용을 말할 때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이재분·김혜원·변종임·채재운, 2009).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국제결혼가정, 이중문화가정, 혼혈인 가정 등을 지칭하는 의미를 가졌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는 광의개념과 협의개념으로 구분된다. 광의개념은 자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하며 협의 개념은 가족 중 한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최근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

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한다(오경석, 2007; 김희정, 2007; 황정미 외, 2007).

다문화가족은 정부 정책이나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광의와 협의 개념이 혼용되어 적용되고 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좁은 의미의 다문화가족, 국제결혼가족만을 의미한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최소한 한 사람의 가족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한정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 실제 학교 현장과는 대응되지 않아서 광의의 개념의 다문화가정의 개념이 요구되어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 정책대상에 근거해 국제결혼 가정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가족생활을 포함하여 학교생활, 문화, 사회심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사회적응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도출코자 하는 연구로 급속히 확대되는 다문화시대에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결혼이민자와의 사회통합 관점에서 협의의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적용코자 한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과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개념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만을 포함코자한다. 이에 근거해 다문화가족 아동이란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 국적의 여성 배우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결합함으로써 형성된 가족의 자녀를 말한다. 즉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기존 구성원인 내국인과 결합하여 형성된 가족의 자녀로 정의한다.

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범위

본 연구에서 정의한 개념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범위는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비되는 일반아동이란 부모 모두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을 말한다.

2. 사회적응의 개념 및 유형

적응이란 주어진 환경조건에 맞추어 자신을 변용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개인의 주체적 의지와 능동성이 강조된 개념이다(김귀옥, 2000). Adams(1972)에 의하면 적응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고, 이 능력에 따라 개인의 생존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은 사회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응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연환경, 사회환경, 문화환경에서 생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적응과정에서 인간이 일방적으로 환경에 대응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능동적 주체로서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Lazarus(1976)는 적응은 일방적인 아니라 쌍방적이라고 하였다. 적응은 환경에 인간이 자신을 맞추는 과정일 뿐 아니라 인간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존 및 욕구 충족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응능력은 따라서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Redfield, Linton, Herskovits(1936; 정진경, 양계민, 2004에서 재인용)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지속적이고 직접적 접촉을 하게 될 때, 원래 문화적 행태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가지게 된다고 하고 있다. 즉 새로운 문화가 도입되면, 원래의 문화도 동시에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이를 최근 우리나라의 다문화현상에 적용해 보면, 다양한 국가로부터

터 외국인이 유입됨에 따라서 그들만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변화를 겪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에게 환경적응 중 중요한 것은 ‘사회적응’(social adjustment)이다. 사회적응이란 ‘사회환경’에 대해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며 그 사회규범에 동조하면서 순응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김수연, 2010). 사회적응은 한 집단의 문화적 태도, 가치, 역할 등을 학습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인간은 사회적 환경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일생동안 변화시킨다(김수연, 2010). 변시민(1988)은 사회적응은 내적·심리적 욕구와 외적·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못 하면 좌절감이나 불안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응의 개념을 다문화가족 아동과 관련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은 어머니의 출신국가와 소속한 한국사회의 두 개 다른 사회에의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Berry는 미국사회 이주민을 관찰하면서 이중문화에 노출된 이주민들의 적응양상을 분석하였다. Berry(1990)에 의하면 이민자나 소수민족은 사회문화 적응과정에서 2가지 문제를 직면한다. 첫째, 자신의 고유문화를 문화를 어느 정도 유지하나? 둘째, 지배문화에 얼마나 동화되고 있나? 이러한 2개의 이슈는 문화적응에서 4가지 유형을 초래한다. 이는 동화(Assimilation, 주류문화와 동일시), 통합(Integration, 양문화를 모두 수용), 분리(Segregation, 자신의 문화와 동일시), 주변화 (Marginalization, 두 문화 모두 배척) 등이 그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루었다.

사회적응의 차원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학적 이론을 근거로 하여 아동을 둘러싼 생태체계인 개인심리적 적응, 가족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지역사회(문화)적응의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제2절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 이론

1. 문화적응유형

가. Berry의 문화적응유형과 척도

유네스코(2002)에 의하면 문화란 한 사회나 사회내 한 집단의 영적, 물질적, 지적, 감정적 특성이다. 문화에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 등을 포괄한다. 또한 일상적인 삶의 특성과 행동도 포함된다. 문화적 정체감은 자존감, 기능성 효능성, 정신건강, 삶의 질, 질병인식 등에 영향을 준다(e.g., Triandis 1972; Torres-Matrullo 1980; Cuellar and Roberts 1997; Mehta 1998; Finch et al. 2000; Cabassa et al. 2007; Viruell-Fuentes 2007; Mezzich et al., 2009에서 재인용). 소속감과 삶의 의미는 조상, 지역 사회에 의해서 형성되고 이러한 과정은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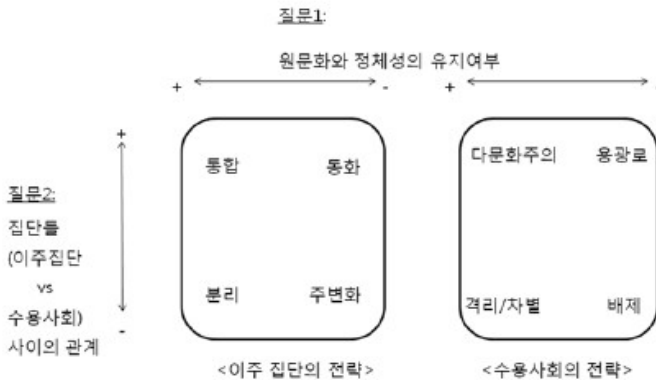
문화적응은 소수집단과 다수집단 모두에서 중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Berry(1990)는 실제적으로는 두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변화를 유도하는 의미로 문화적응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Berry(2001)에 의하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이주민들은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주류사회와 얼마나 접촉하고 주류사회의 규범과 문화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대답에 따라 네 가지 문화적응태도-동화, 분리, 통합, 주변화를 선택할 수 있다(그림 2-1의 왼쪽 참조).

동화(Assimilation)는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의 유지에는 관심이 없으며 새롭게 속한 주류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집단이나 개인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접하여 변화하는 과정이다

(Redfield, Lenton, & Herskovits, 1936). 이는 중요한 심리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류 문화에 동화했을 때, 아동의 학업 성적이 향상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Buenning & Tollefson, 1987; Gonzales & Roll, 1985; Lopez et al., 2002에서 재인용).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이러한 경향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e.g., Vázquez, 1990; Lopez et al., 2002에서 재인용). 그러나 연구 결과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으므로 해석시 주의를 요한다.

분리(Separation)는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나 주류사회에의 친밀한 상호작용은 거부하는 것이다. 통합(Integration)은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류사회에 대한 관여도 지속하는 것이며, 주변화(Marginalization)는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도 부정하고 주류사회와의 상호작용도 거부하는 것이다(Berry, 2001: 객금주, 2008 재인용).

〔그림 2-1〕 Berry의 문화적응양상



자료: Berry(2001).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Vol.57. No.3. pp615-631. p618
(객금주 2008. 다문화가정아동의 발달과 적응.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발표논문에서 재인용).

Berry의 이론은 실제적 측면에서 인간이 문화적응을 할 때 이 네 가지 전략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진경 외,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의 문화적응을 유형화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의 적응양상을 설명할 때 유용한 개념이 된다. 이를 전체 사회의 적응양상으로 도식화 하면 [그림 2-1]의 오른쪽과 같다. 주류문화를 중심으로 한 것이 용광로(melting pot)이고, 주류문화와 다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다문화주의, 다문화인을 인정하지만 주류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만의 사회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격리/차별로 볼 수 있고, 다문화인들이 주류사회로부터도 소외되고 자신들의 문화로부터도 소외된 유형은 배제라고 할 수 있다.

Cortes와 그녀의 동료들(1994)은 주류 미국문화와 소수인이 가진 다문화(푸에르토리코)를 구분하는 척도를 만들었다. 이는 언어, 음식, 명절, 사회관계와 관련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각 항목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를 Mezzich et al., (2009)은 CRM-BS(Cortes, Rogler, and Malgady's Bicultural Scale)라고 명명하였다. 척도는 총 20개인데, 10개 지표는 소속한 문화에 대한 정체감에 대한 질문이고, 나머지 10개 지표는 주류문화에 대한 정체감 정도를 묻는다(Mezzich et al., 2009). 10개의 지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삶의 주요 가치, ② 명절을 지내는 방식, ③ 자녀양육방법, ④ 소속문화/본국문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편안함, ⑤ 소속 집단/본국인에 대한 자긍심, ⑥ 소수문화/본국문화 언어를 즐겨 사용함, ⑦ 소수문화/본국문화 TV 프로그램을 즐김, ⑧ 소수문화/본국문화 음식을 즐김, ⑨ 소수문화인/본국인은 친절하고 관대함, ⑩ 자녀가 소수문화인/본국인과 사귀는 것을 장려함.

지표는 크게 언어(④ ⑥), 가치(① ③ ⑤ ⑨ ⑩), 오락과 음식(② ⑦ ⑧)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는 1점에서 60점으

로 분포된다. 척도를 활용하여 Mezzich와 그녀의 동료들(2009)은 다음과 같이 Berry가 제시한 4 집단의 기준점을 설정하였다.

- ① 주변적: 소속문화 점수가 15점 미만, 주류문화 점수가 15점 미만
- ② 전통적: 소속문화 점수가 15점 이상, 주류문화 점수는 15점 미만
- ③ 동화: 소속문화는 15점 미만, 주류문화는 15점 이상
- ④ 이중문화적(통합): 소속문화 15점 이상, 주류문화도 15점 이상

본 연구에서도 이 척도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 정도를 살펴보았다.

나. 이중문화성(Biculturalism)과 건강성

문화적응정도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단선모델과 다선모델로 나뉜다. 단선모델(Unidirectional Model)에서는 이민자가 점차적으로 주류문화에 동화되고 자신시 소속한 문화적 정체감¹⁾을 잃어버린다고 보고 있다(Park, 1928; Padilla, 1980). 즉, 단선적 모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개념을 탄생시킨 ‘동화의 불가능’과 관련된 틀이다. 이중문화성이 초기 연구에서는 심리적인 어려움, 불안 등을 준다고 나왔고, 이로 인해 아동은 인지발달과 학습성취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고 있다.

기존의 단선차원모델과 달리 양차원모델(Bidirectional Model)은 2개의 독립된 차원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자신이 속한 문화와 거주하는 주류문화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LaFromboise et

1) 인종적 자아정체감은 자아개념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Cheng and Lively, 2009). 인종적 자아정체감은 집단 경쟁, 갈등, 편견과 관련된 개념으로 개인은 인종적 자아정체감을 갖고서 집단내 성원과 집단 밖의 성원간의 경계를 짓는다. 이로써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이러한 인지적 경계선은 집단성원의 행동패턴과 심리적 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내부 집단성원에 대한 “우리”의식이 부족하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다문화란 소수의 분산된, 그리고 잠재적으로 낙인을 가질 수 있는 집단이고, 다문화인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소외되고 낙인감을 가지게 되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강화된다.

al. 1993: Mezzich et al., 2009에서 재인용). 즉 인간이 주류사회문화와 자신의 출생문화를 모두 수용할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잠재 능력도 많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Integration)은 자신의 출생문화를 거부하는 과정을 겪게 되므로 부정적 건강행동과 정신건강에 위험요소가 된다는 것이다(LaFromboise et al. 1993: Mezzich et al., 2009에서 재인용).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중문화성과 이중언어성이 지적발달과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다(e.g., Bialystok, 1999; Carringer, 1974; Peal & Lambert, 1962; Tran, 1994). 이중문화적인 개인이 반드시 언어적 혼란을 겪거나 정체감의 혼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2개의 문화와 접촉하여 갈등을 내면화하지 않는 한 두 문화와의 접촉은 유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e.g., Benet-MartiLnez & Haritatos, 2005; Padilla, 1994; Phinney & Devich-Navarro, 1997). Ogbu와 Matute-Bianchi(1986)는 인간이 서로 다른 2개의 문화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고, 2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목적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정체감은 소속문화에의 정체감과 동시에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주의의 도래로 개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정체감을 포괄하는 것이다.

Benet-MartiLnez and her colleagues(2006)는 양문화 정체감통합(Bicultural Identity Integration: BII)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 개념은 양문화적 사람들이 주류문화와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감을 통합되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립적이고 통합하기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BII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a) 두 개의 문화로 부터의 문화적 신념과 가치에 대한 지식 (b) 2 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c) 이중문화적 효능감 (두 문화 모두

에 있어서 자신감 있다는 신념 개발, (d) 의사소통 능력 (주류집단의 언어와 비언적패턴 습득); (e) 다양한 역할 수행 (다른 문화집단과 상황에 적절한 행동양식 확장); (f) 안정성 (Groundedness,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약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연계망 형성).

양문화 정체성(Bicultural Identity Integration: BII)은 두 문화를 상호 배타적이거나 반대 및 갈등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Chen과 그녀의 동료들의 연구(2008)에 의하면 이중문화 정체성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수준이 높았다고 하였다. 반면, 양문화 정체성이 낮은 양문화성은 두 문화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울러 Lopez et al., (2002)에 의하면 이중문화적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이처럼 두 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활력, 효과성, 성취가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Szapocznik et al. 1980; Vega et al. 1983; Rashid 1984; Cortes et al. 1994; Mezzich et al., 2009에서 재인용). LaFromboise et al(1993)은 양문화 능력을 개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체감, 언어, 지식과 행동의 영역에서 이중문화적 기술을 개발한 개인들은 더 나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중문화(Biculturalism, assimilation)를 통해서 교육적 성취, 삶의 질, 사회인지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보호요인이 될 수도 있다. 즉, 이중문화적 기술은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 개입법이 될 수 있다 (Bacallao and Smokowski, 2005; Mezzich et al., 2009에서 재인용).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은 단일문화 출신 아동보다 더 많은 행동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heng과 Lively(2009)은 “주변인”의 개념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보는 대상은 심리적인 어려움이 더 많고, 반면 단일문화 청소년보다 사회 상호작용과 참여가 더 활발하다고 가정하였다. 원

래 주변인 이론은 Park(1931)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의 이론에 기반해서 학자들은 주변인이란 2개 이상의 생활세계에 사는 개인이 양면적인 인식을 발달하고, 편견과 문화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주변인은 주로 혈통적으로 2인종 이상인 경우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부모의 인종별로 고유한 문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변인은 주류인종에 속하기 원하나, 동시에 이에 대한 반감도 가지게 되어 내적인 양가감정이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인은 서로 다른 전통과 권력, 특권 등을 가진 2 사회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소속감을 적게 느끼고,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더 민감하며 심리적 혼란을 더 많이 겪는다. 이로 인해 다문화인은 불안, 과민성, 불안정 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적 자아정체감을 갖는 경우가 단일 문화적 자아정체감을 갖는 경우보다 더 많은 행동 및 심리적인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Choi et al. 2006; Milan and Keiley 2000; Udry et al. 2003; Whaley and Francis 2006; but see Campbell and Eggerling-Boeck 2006; Cheng and Lively, 2009에서 재인용). 그러나 일부 다문화적 자아정체감은 사회적인 성취를 제고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Cheng and Lively, 2009).

이러한 심리적인 부적응은 사회적 유대관계 및, 인종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이는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국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다(McRoy and Freeman, 1986). 그러나 다문화가족 아동은 매우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아정체성 통합은 다양한 정체감 영역에서 분석되어졌다. 여기에는 인지적, 행동적, 정신건강적 측면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Cheng, Sanchez-Burks, and Lee (2008; Chi-Ying and Lee, 2009에서 재인

용)은 높은 양문화 정체성 통합도를 보이는 아시아계 미국인은 요리에서 창조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성정체감과 전문인으로의 정체감을 모두 높게 갖는 여성 엔지니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더 창조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중문화 적응 스트레스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류문화와 소수문화에 적응함에 있어서 초래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LaFromboise et al., 1993; Romero & Roberts, 2003; Romero et al. 2007에서 재인용.). 수직적 문화동화론(Orthogonal models of acculturation)에 의하면 인간은 1개 이상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고, 다문화인은 동시에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다(LaFromboise et al., 1993; Oetting & Beauvais, 1990 -91; Romero et al. 2007에서 재인용.). 이 모델이 암시하는 것은 개인은 주류문화 뿐 아니라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적응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적응 시 사회심리적 및 기타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적응유형별 정신건강 및 사회적 성취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

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 적응 실태

2005년부터 2010년 발간된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연구 동향을 분석한 최정혜(2010)의 연구²⁾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별, 학년수준, 주변인, 학교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다고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개념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유아의 연령, 한국거주기간이 많을수록, 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한글 및 자녀교육지식이 많을수록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적 적응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낮을수록, 학교·친구·개인·가족의 지지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문화 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다(신혜정, 2007; 안은미, 2007; 김순규, 2011, 재인용).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최근에는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을 비교하는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박주희와 남지숙(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불안, 과잉행동,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다문화가족 아동이 사회심리적 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주희와 남지숙의 연구는 가족환경요인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로 다문화 여부변인이 고유한 차이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반면에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사이에 사회심리적응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 노충래와 홍진주의 연구(2006)에서도 전반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경숙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적 적응 관련 분석대상 논문은 총 11편이다.

외(2008)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은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반가족의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불안정도에서도 다문화가족 아동보다 일반가족의 아동이 더 자주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전히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며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여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의 차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이 어린시기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정서발달의 토대를 형성하며 이시기의 긍정적 발달이 이후의 성격이나 사회적 능력,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와 부모의 정서, 도구적 지지만족도가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가족환경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도 연관이 깊을 것이다(박주희, 남지숙, 2010). 더군다나 국제결혼가족은 주로 사회의 약자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점은 아동에 대한 가족의 지원수준이 또래와 비교하여 더 열악할 것이며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미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들이 한국생활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생활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박주희, 정진경, 2007; 이혜경, 2005, 하핑타이, 2005; 한진수, 2006; 박주희, 남지숙, 2010 재인용). 이러한 국제결혼 가족의 어려움들은 이들의 부모 효능감이나 양육행동에 반영되고 이것이 자녀와의 애착,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경자, 김송이, 2007).

다문화 가족의 부모가 경험하는 언어 및 문화적 스트레스 등 다문화적 환경은 가족간의 갈등을 겪게 하며 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쉽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박명숙(2010)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매개요인이 되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다른 하나로는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 가족 자녀는 단지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들에게 차별대우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강신임, 1999). 김명숙(1994)은 부모나 교사 친구들과 같이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지를 많이 제공한다고 지각할 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적게 발생하여 적응 수준이 높음을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사회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발달 수준을 우려할 수 있다(박주희, 남지숙, 2010).

2.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생활 적응

가족은 아동에게 있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되기 위한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생활에서의 적응은 개인이 속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위치, 개인을 둘러싼 가족공동체 및 환경과의 조화 나아가 그 사회가 가진 규범이나 질서에 대하여 부합되고 일치된 행동을 함으로써 개인이 자기의 생활을 원만히 영위하는 행동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강희순, 2010).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이 서로

다른 이중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정체성의 혼란과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혼란은 사회 속에서도 가족과 다른 문화와 부딪히게 될 경우 이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부모의 이중 언어 사용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움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언어습득 지체현상도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임경혜, 2004), 이와 동시에 외국인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아동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도 한다(남윤주 외, 2009).

한편 강희순(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변인(학력, 소득, 사회적지지), 심리적 변인(자아존중감), 가족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다문화 가족생활적응에 있어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이 가족 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다문화 가족생활적응을 위해 가족 내 소득 및 학력과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및 남편의 가족생활 적응에 관한 박재규(2009)의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는 가족생활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인 남편은 경제적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배우자 문제, 친부모 및 처가부모 문제, 자녀문제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와 남편의 가족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결혼형태, 교육수준, 부부싸움 등의 요인이 가족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Rumbaut(1997)에 의하면 최근의 다문화가족 아동의 발달과 관련한 아동의 연구에서 이주 아동의 성공적 적응의 보호요인으로 가족응집성을 꼽고 있다. 새롭고 낯선 환경으로의 이주는 아동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고 정착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성된 긴밀한 가족관계는 아동에게

심리적 지지 및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학업적 성취에 있어 높은 기준을 부여하는 부모의 가치는 긴밀한 가족관계를 통해 아동에게 빠르게 내면화된다. 이에 아동은 학업적 성취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어, 위험한 행위에 빠지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곽금주, 2008).

3.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가. 학교생활적응 및 실태

학교는 아동 개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전인격적인 발달을 돕는 곳으로 아동에게 있어서 학교생활적응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기 때문에(Bates, Luster and Vandenbelt, 2000)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은 아동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이 주로 가족 내 어머니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성격을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하게 되지만 이후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아동의 생활중심은 가족에서 학교로 옮겨지게 된다. 이는 아동에게 있어서 중요한 발달적 과도기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아동이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이 잘 이루어진다면 학업성취와 학교과업수행 등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쉽다(Entwisle&Alexander, 1998; Schweinhart et al., 1993; 정윤정, 2007; 박계란 외, 2011).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Bierman(1994)은 학교생활적응을 고정된 구성개념이 아니라 구성된 간 상호평가에 의한 역동적 과정이라고 보았다. 즉,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

시키는 반면,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다(차유림, 2000). 김정남(2007)은 학생이 학교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환경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변화시키는 학생과 학교환경간의 역동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학생이 학교 내의 주체적인 존재로써 학교 환경 내에서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활용하며,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고 나아가 학생 자신이 능동적으로 학교환경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학생과 학교와의 상호작용적 과정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국내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실태를 알아본 결과, 전 경숙(2008)의 경기도 지역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일반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 조사 연구 결과,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교생활 만족도는 연령별 차이가 있었으며, 다문화가족 학생이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학교공부를 따라가기가 힘들다’(38.5%), ‘숙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20.8%)의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학업중단 충동을 경험한 비율은 27%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낀 가장 큰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서(50%)이고 그 다음은 공부가 어려워서(42%)라는 결과를 볼 때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결국 학업중단 충동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놀림이나 차별 및 따돌림 경험에서는 ‘엄마나 아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36%) 라는 결과를 보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류윤석(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겪는 문제로 정체성 혼란, 낮은 학업 성취도, 집단따돌림이 있다고 밝혔으며, 정기선 외(2007)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어머니 역시 자녀양육의 문제로 사교육비 부담(45.8%)과 숙제 도와주기(35.8%)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한국생활 적응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서 주로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09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 적응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학습부진(4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관계(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아동의 학교에서의 차별에 대한 경험을 질문한 결과, 응답한 아동의 28%가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차별한 대상은 ‘학교친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차별경험의 이유로는 ‘엄마가 외국인이라서(18%)’ 라는 응답이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467명을 대상으로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응답한 어머니는 전체 17.6%로 그 이유로는 ‘엄마가 외국인이라서(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20.7%) 등을 지적하였다(설동훈 외, 2005). 이상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전반적으로 학교공부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부모 양육태도, 가족응집성, 부모-자녀관계), 사회적 지지(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자기효능감) 등이 연구되어 왔으며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 외에도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계란 외, 2011).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에 대해 다룬 선행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변수로 성별, 학년, 어머니의 언어능력과 본인의 언어능력, 경제적 수준, 어머니의 출신국, 어머니의 출신국에 대한 관심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은선경, 2010).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조사한 양순미(2007)의 연구에서는 또래수용이나 가족지지와 같은 사회심리 및 관계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김기덕 외(2009)의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 지역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지지 중에서도 교사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선경(2010)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특성의 변인으로 한국어 수준과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고, 가족기능의 변수 중 가족의 정서적 관여는 주효과로서 영향을 미치는 않았으나 조절효과를 갖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능력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박계란(2011)의 연구에서는 성별, 가족형태, 다문화적응, 친구지지, 교사지지 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

가. 문화적응

다문화가족 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주사회에 대한 문화적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문화적응의 개념을 정의하고,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문화적응에 대한 개념정의는 사회학자인 레드필드, 린튼과 힐스코비치(왕비비, 2009)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문화적응을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구성된 집단이 직접 접촉하고, 이 때문에 어느 한 문화나 두 집단 모두의 원래 문화 패턴에 변화가 있

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 학자들의 관점에 의하면 문화적응은 접촉으로 인한 결과인 문화 변화의 한 측면으로 보이고 동화(assimilation)라는 개념과 분리되었다.

사회과학연구협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왕비비, 2009에서 재인용)에서 정의한 문화적응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문화체계가 만남으로써 발생하는 문화적 변화이다.” 문화적응으로 생기는 새로운 문화가 직접 전달됨으로써 발생하기도 하지만, 접촉한 두 문화들에 내재한 비문화적 요인 즉, 생태학적 또는 인구학적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한 변화는 이주민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특성이나 행동유형을 스스로 수용함으로써 일어나는 내적인 적응처럼 변화가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다. 또한 적응을 통한 변화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역동은 가치체계에 대한 선택적 적응, 통합과 문화의 과정, 변화가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역할을 결정하는 요인이나 성격특성의 작용 과정 등으로 나타난다.

Gibson(2001)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자신이 속했던 사회에서 벗어나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또 다른 사회로 들어가는 경우, 집단적인 문제(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변화)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그런가 하면 Redfield 등은 문화적응을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구성한 집단이 직접 접촉하고, 이 때문에 어느 한 문화나 두 집단 모두의 원래(original) 문화 패턴에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Ward(1999; 장준희, 2009에서 재인용)는 사회문화적 적응에 있어서 문화 학습적 접근에 의하여 문화기술의 습득, 변화를 시도하는 행동차원의 적응·이문화간 상호작용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반면에 Lin(최금혜, 2006에서 재인용) 등은 문화적응을 새로운 정착지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미묘한 문화적 기준, 새로운 가치방향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에서 적응의 의미는 구조이론에 근거하여 개인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적 과정을 중시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치부한다.

이상의 문화적응 개념을 살펴볼 때, 문화적응은 이주민 가족의 적응과 발달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국내 다문화 가족이 확산됨에 따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위한 문화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개인/내적 측면과 사회적/외적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내적 측면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적 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문화습득 및 적응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고 본다. Berry and Kim(1987)의 한국인 이민자와 동남아시아 단기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민자의 교육적 수준은 이주문화습득의 어려움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교육적 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문화에 대한 정보와 사전경험의 가능성이 높아 이주문화습득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지적 및 경제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문화습득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Berry and Kim, 1987; 최혜지, 2009 재인용).

사회적/외적 측면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는 원문화와 이주문화 사이의 유사성을 결정하여, 이주여성의 이주문화습득에 영향을 미친다(Berry and Kim, 1987). 또한, 이주문화와의 상호작용은 이주여성의 이주문화습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토착민들과의 대화, 사교모임 참여, 스포츠 모임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이주문화습득의 어려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and Blodel, 1982; Berry and Kostovik, 1983; Mok, 1985; 최혜지, 2009 재인용).

5.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아동의 적응

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의 변화는 한 개인이 속한 지역공동체의 이동을 넘어 개인이 속한 사회의 신념체계뿐만 아니라 나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동과 사고를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Berry(1970)는 이러한 문화 간의 계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생긴 변화를 문화적응(accultur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소래, 1997; 박형원, 2010에서 재인용).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련의 스트레스 뿐 아니라 차별의 측면을 함께 내포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주민 자신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능력, 개인적 관계와 심리적 만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안녕을 대변하는 개념이며(Searle & Ward, 1990; 이소래, 1997; 박형원, 2010 재인용), “문화적응의 경험에 근거한 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반응”으로 정의될 수 있다(Berry, 1997). 한편 McClurg(2007)는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여 적응과정에서 야기되는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와는 달리 Oberg(1960)는 ‘문화충격(cultural shoc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체류자들이 새로운 문화 환경으로 진입하면서 보이는 심리적인 반응을 묘사한 것이라 정의하였으며. Guthrie(1975)는 초조함, 우울, 식욕상실 등 이주민의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문화피로(culture fatigue)’라고 하였다.

Chen과 그의 동료들(2008)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차별경험, 언적 및 문화적 스트레스, 문화적 소외감)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규명하였다.

Sandhu와 Asrabadi(1994)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문화적응과정 중에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특정한 행동 및 정서유형으로 정의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으로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증오심, 두려움, 문화적 충격, 죄책감, 정체성의 혼란이나 주변화의 7가지 하위차원들을 포함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안준희 외, 2011 재인용).

국내 선행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on stress)란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으로 기후, 영향, 심리, 문화상의 갑작스럽고 과도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긴장, 즉 스트레스원(原)을 의미하기도 하며 스트레스원의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조한숙, 2010).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민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이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불안감이나 우울, 소외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 높은 신체화 증상, 정체감 혼란과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Williams & Berry, 1991; 박형원, 2010).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새로운 한국문화에의 적응과정에 있어서 사회심리적인 외로움과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적응에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이재분 외, 2009). 외국인 며느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조한숙(2010)의 연구에서는 결혼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가족 간의 갈등,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부재, 사회적 관습, 차별, 자녀양육과 교육, 경제적 어려움, 원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병 등으로 인해 표면화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나.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erry(1998) 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주국의 특성, 난민/원주민/민족/일시체류자로 구분 되는 문화적응 집단의 유형, 문화적응유형 요인(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개인적 특성(인구학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 등), 사회적지지 등을 제시하였다.

정진영 외(2004)는 문화적 적응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 관련되는 변인으로 개인의 성격, 사회적 지지, 대처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소유여부, 문화적응의 방식, 그리고 문화적응을 하게 되는 위치 및 인구학적 변인이라고 언급하였다.

안준희 외(2011)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우울, 대처전략), 가족관계 및 사회적 지지망, 통합적 문화적응으로 구분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은선경(2009)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사람은 가족의 지지가 있기 때문임을 발견하였다.

이 밖에도 문화적 스트레스 완충요인으로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즉 가족의지지, 사회적지지,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과 수입, 자존감 및 대처능력, 만화 및 언어에 대한 지식, 미래에 대한 기대, 주류사회 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관용 등을 들고 있다(Hovey 2000, 영옥경·김연수, 2007).

다.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새로운 문화로의 진입과 동시에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결국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자녀에게 더 짜증을 내며 이는 다시 아동의 공격적인 반응을 증가시킨다(Patterson, 1983; 이유진, 2006; 박형원,

2010).

곽금주(2008)의 연구에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특성과 어머니의 문화 적응차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반응적이고 민감하며 과제를 적절히 구조화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국의 문화와 한국문화를 동시에 유지하고 수용하는 통합 수준이 높았던 어머니들이 아동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양육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아동과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적응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문제도 부담이 되고 있다. 즉 이들은 한국에 이주하여 한국사회에 문화적·심리적 적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가족의 어머니처럼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가진다(이재분 외, 2008; 김이선 외, 2007).

Coll&Patcher(2002)는 가족체계에 미치는 문화적응의 영향력을 강조 하면서, 가족의 문화적응 수준과 방식은 자녀의 발달에 대한 기대,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먹이기, 돌보기 및 가족의 역할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전은애(2008) 연구에서도 결혼이주가족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은 부모-자녀관계, 부모-아동간의 상호작용 및 양육행동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어머니의 문화적응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에도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Kim, Han 및 McCubbin, 2007).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이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다문화가족 아동의 복지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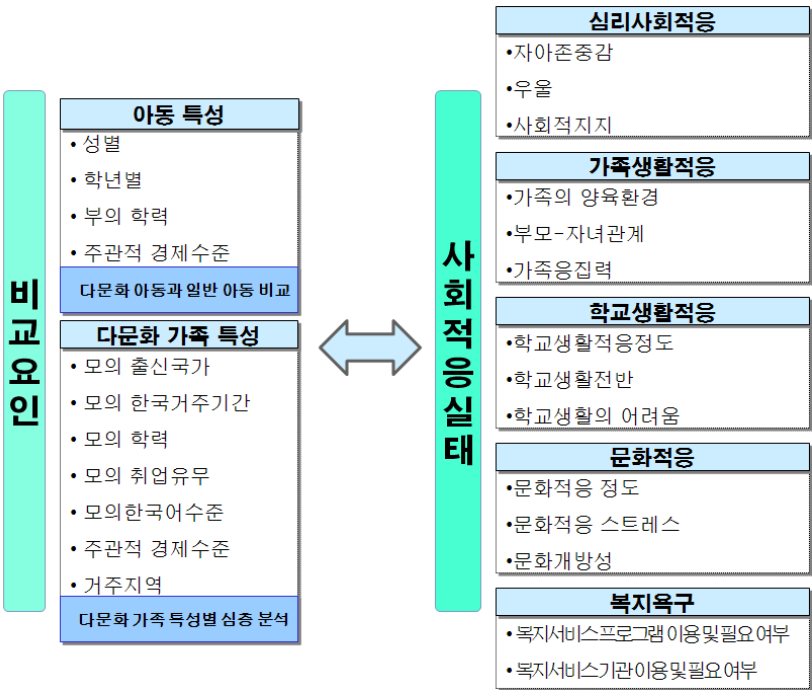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아동은 빈곤, 불평등, 인종차별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더 노출되기 쉽다(Kazdin, 2003; Kazdin & Weisz, 1998; Jackson, 2009에서 재인용).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 아동 문제 개입시 문화적인 것을 고려한 개입(CSI: Culturally Sensitive Intervention)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Soler, Braithwaite, Ahluwalia, Butler(2000)는 다문화인의 인종 및 문화적 특성, 경험, 규범, 가치, 행동양식 및 신념 및 다문화인의 역사적, 환경적 사회적 힘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달하고 평가하는데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아동복지제도 안에서 아동의 문제를 파악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TANF의 지원을 받는 아동은 학업 성적이 낮았고, 고등학교 중퇴율이 높았고, 친구나 교사, 부모로부터 거절당하고, 일탈과 약물중독될 확률이 높아는 것이다(Moon et al., 2009). 영유아기에 빈곤을 경험했을 때가 6-15세에 빈곤을 경험했을 때보다 학업중단율이 높다는 결과가 있다(Duncan et al., 1988; Moon et al., 2009에서 재인용). 저소득층 아동은 감염율이 높고, 머릿니, 결식, 시력 및 치과문제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1세에서 7세까지의 소수문화 아동의 3분의 2는 학대율이 높고 사회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Thompson and Massat, 2005; Moon et al.,에서 재인용). 그러나 오직 소수의 다문화가족 아동만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와 같이 소수민족들은 빈곤과 소수민이라는 이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제4 절 연구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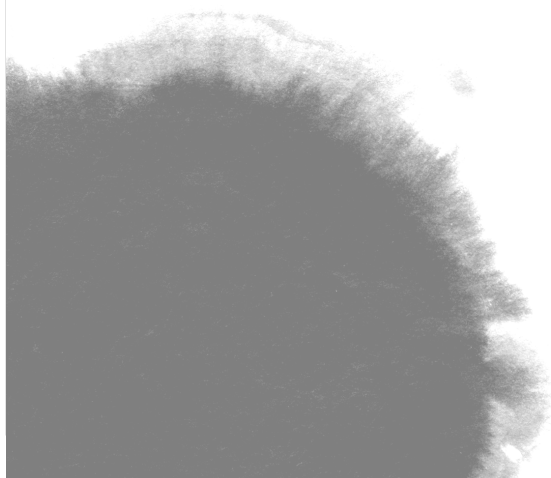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은 연구분석틀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2-2] 연구분석틀



03

국내외 다문화가족 이동 지원정책 고찰



제3장 국내외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정책 고찰

제1 절 다문화가족 아동현황 및 추이

1. 다문화가족 아동현황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의에 근거하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기준 다문화가족 아동 규모는 30,040명으로 그 중 초등학생 23,602명, 중학생 4,814명, 고등학생 1,624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족 아동 중 초등학생이 78.6%를 차지하였고, 중학생 16.0%, 고등학생은 5.4%로 미미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은 전체 우리나라 아동 중 0.42%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령별로는 전체 초등학생 중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0.72%, 중학생은 0.24%, 고등학생은 0.0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6대 광역시의 다문화가족 아동규모는 9,024명, 9대 도지역은 21,016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족 아동 중 광역시에 30.0%, 도지역에 70.0%가 분포하였다. 시도별 아동분포는 276~6,688명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전남, 경남, 충남, 전북, 경북, 강원, 인천, 충북,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순으로 많았다. 학령 및 시도별 분포는 초등학생은 227~5,029명, 중학생은 34~1,144명, 고등학생은 15~515명으로 전체와 유사하였다.

전체 아동 중 다문화가족 아동의 비중은 0.20~1.07%로 전남이 가

장 높았고, 다음은 강원, 전북, 충남, 충북,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서울, 제주, 광주, 부산, 대전, 울산, 대구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지역별 다문화가족 아동 분포와 전체 아동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표 3-1〉 시·도별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족 아동 비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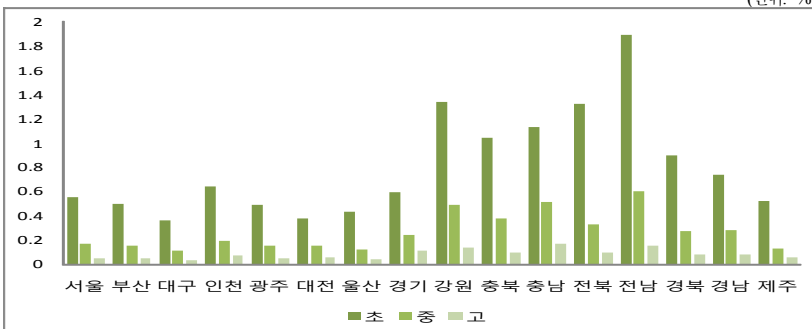
(단위: 명, %)

	전체 학생수				다문화가족 아동수				전체 학생 중 다문화가족 아동 비율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전국	3,299,094	1,974,798	1,962,356	7,236,248	23,602	4,814	1624	30,040	.72	.24	.08	.42
서울	566,149	345,413	362,466	1,274,028	3,108	584	196	3,888	.55	.17	.05	.31
부산	197,397	129,285	136,665	463,347	978	197	70	1,245	.50	.15	.05	.27
대구	167,548	108,082	109,300	384,930	606	115	30	751	.36	.11	.03	.20
인천	183,262	112,142	113,247	408,650	1,171	209	82	1,462	.64	.19	.07	.36
광주	115,827	70,352	67,750	253,929	567	104	34	705	.49	.15	.05	.28
대전	109,013	65,904	64,794	239,711	409	98	36	543	.38	.15	.06	.23
울산	81,678	52,213	52,424	186,315	349	62	19	430	.43	.12	.04	.23
경기	848,135	482,170	461,461	1,791,766	5,029	1,144	515	6,688	.59	.24	.11	.37
강원	99,797	58,408	56,711	214,916	1,341	289	77	1,707	1.34	.49	.14	.79
충북	105,026	63,120	60,897	229,043	1,089	241	62	1,392	1.04	.38	.10	.61
충남	138,404	78,580	76,857	293,841	1,565	399	129	2,093	1.13	.51	.17	.71
전북	126,869	76,583	75,708	279,160	1,674	250	75	1,999	1.32	.33	.10	.72
전남	123,912	74,251	72,493	270,656	2,337	449	106	2,892	1.89	.60	.15	1.07
경북	164,230	97,491	97,767	359,488	1,475	262	75	1,812	.90	.27	.08	.50
경남	227,813	135,600	130,009	493,422	1,677	377	103	2,157	.74	.28	.08	.44
제주	44,035	25,204	23,807	93,046	227	34	15	276	.52	.13	.06	.3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자료 &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2010); 전경숙 외(2010),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p.44에서 재인용

〔그림 3-1〕 시·도별 전체 아동 대비 다문화가족 아동 비율

(단위: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자료 &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2010); 전경숙 외(2010),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p.44 표 참조하여 그래프로 제시하였음.

부모 출신국별로 다문화가족 아동 분포를 보면 일본출신이 3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국 한족, 필리핀, 중국 조선족 순으로 많은 편이었으며, 나머지 베트남, 대만, 몽골, 태국, 러시아 출신 등은 미미하였다. 지역별로도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가족 아동분포는 전체와 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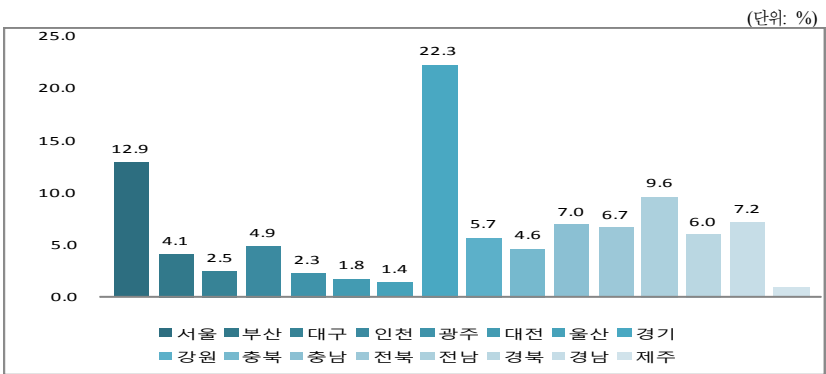
〈표 3-2〉 시·도 및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가족 아동 현황(2010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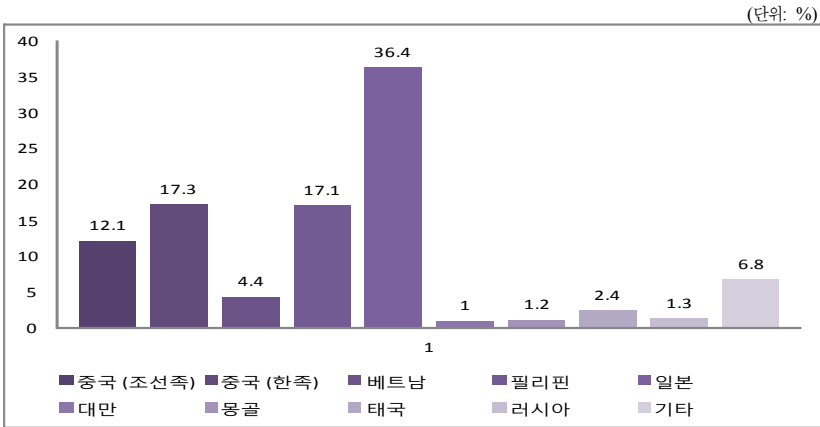
시·도	부모출신국별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	몽골	태국	러시아	기타
전체 (비율)	3,649 (12.1)	5204 (17.3)	1,306 (4.4)	5,142 (17.1)	10,937 (36.4)	286 (1.0)	361 (1.2)	727 (2.4)	379 (1.3)	2,049 (6.8)
서울	446	794	138	401	1,432	72	88	74	72	371
부산	177	202	53	183	358	16	4	19	64	169
대구	82	155	49	120	250	16	1	15	8	55
인천	200	284	82	209	417	27	28	33	27	155
광주	43	144	28	154	275	4	7	11	3	36
대전	71	86	23	46	211	6	6	13	17	64
울산	59	60	40	61	148	10	8	3	6	35
경기	620	1,103	297	993	2,584	70	134	193	117	577
강원	243	240	49	368	687	7	4	51	12	46
충북	192	220	53	256	531	15	19	44	11	51
충남	274	479	98	325	769	10	11	42	11	74
전북	319	351	54	479	682	4	15	33	10	52
전남	237	456	100	815	1,109	3	15	87	4	66
경북	403	258	110	308	56	8	7	57	9	596
경남	258	321	116	373	807	10	14	51	8	199
제주	25	51	16	51	101	8	-	1	3	2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2010. 4. 출신국 포함)

〔그림 3-2〕 시·도별 다문화가족 아동 비율(2010년)



[그림 3-3] 부모출신국별 다문화가족 아동 현황(2010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2010. 4, 출신국 포함)

2. 다문화가족 아동추이

연도별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6년 7,998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 18,778명으로 2.3배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30,040명으로 5년간 3.8배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75.6%로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학령기별로는 초등학생은 2006년에 6,795명에서 2008년에 15,804명으로 2.3배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23,602명으로 5년간 3.5배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47.3%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중학생은 2006년 924명에서 2008년에 2,213명으로 2.4배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4,814명으로 5년간 5.2배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421.0%로 초등학생에 비해 1.7배 빠른 증가를 보였다. 고등학생은 2006년 279명에서 2008년 761명으로 2.7배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1,624명으로 5년간 5.8배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482.0%로 초등학생에 비해 약 2배 빠른 확대를 보였다. 따라서 초·중·고 학령기의 다문화가족 아동 중에서 초등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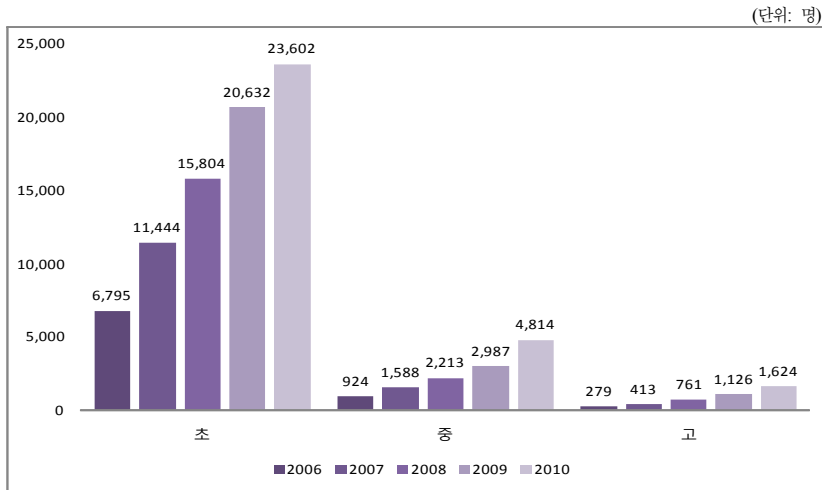
〈표 3-3〉 연도 및 학령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변화 추이

(단위: 명, %)

연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6	6,795	-	924	-	279	-	7,998	-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2009	20,632	30.5	2,987	35.0	1,126	48.0	24,745	31.8
2010	23,602	14.4	4,814	61.2	1,624	44.2	30,040	21.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2010. 4, 출신국 포함)

〔그림 3-4〕 연도 및 학령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변화 추이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2010. 4, 출신국 포함)

연도 및 시도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변화 추이는 2008년 6대 광역시 5,177명, 9대 도지역은 3,601명에서 2010년에는 5대 광역시 9,024명, 9대 도지역 21,016명으로 3년간 광역시와 도지역은 각각 1.7배와 5.8배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각각 74.3%와 483.6%로 도지역은 광역시에 비해 6.5배 빠른 증가를 보였다.

학령기별로 추이를 보면 초등학생은 2006년 6대 광역시는 20,078명, 9대 도지역은 11,532명에서 2010년 광역시는 30,790명, 도지역은

16,414명으로 광역시와 도지역은 각각 1.5배와 1.4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각각 53.4%와 42.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중학생은 2006년 광역시는 2,848명, 도지역은 1,578명에서 2010년 광역시는 6,183명, 도지역은 3,445명으로 광역시와 도지역은 모두 2.2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각각 117.1%와 118.3%로 지역 간에 비슷한 증가 속도를 보였으며 초등학생보다 약 2배 빠른 증가를 보였다. 고등학생은 2006년 광역시는 1,029명, 도지역은 491명에서 2010년 광역시는 2,091명, 도지역은 1,157명으로 광역시와 도지역은 각각 2.0배와 2.4배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각각 103.2%와 135.6%로 도지역이 다소 빠른 증가 속도를 보였으며 광역시는 초등학생보다 약 2배, 도지역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빠른 증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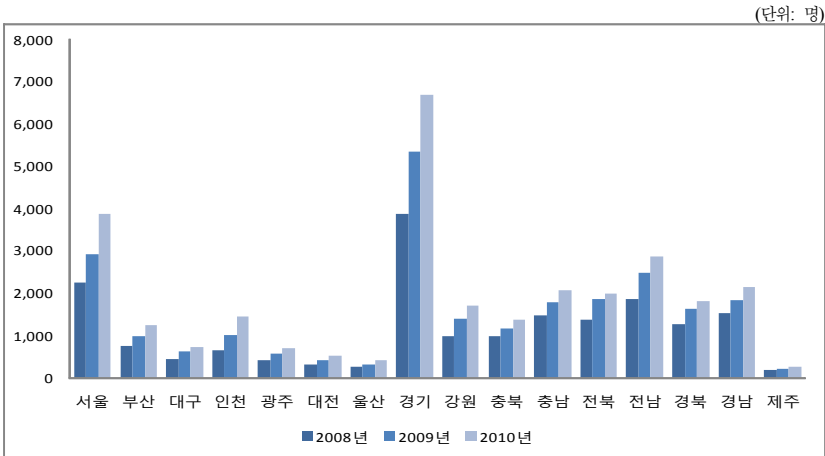
〈표 3-4〉 연도 및 시·도별 다문화가족 아동 변화 추이

(단위: 명)

	2008년				2009년				2010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전국	15,805	2,213	760	8,778	20,632	2,987	1,126	24,745	23,602	4,814	1,624	30,040
서울	1,813	319	127	2,259	2,427	389	125	2,941	3,108	584	196	3,888
부산	634	92	44	770	815	134	42	991	978	197	70	1,245
대구	403	38	15	456	552	53	22	627	606	115	30	751
인천	560	67	35	662	852	116	51	1,019	1,171	209	82	1,462
광주	394	28	17	439	506	57	21	584	567	104	34	705
대전	249	61	17	327	335	68	23	426	409	98	36	543
울산	220	30	14	264	284	45	11	340	349	62	19	430
경기	3,091	576	211	3,878	4,262	725	359	5,346	5,029	1,144	515	6,688
강원	883	95	27	1,005	1,224	150	46	1,420	1,341	289	77	1,707
충북	878	88	28	994	1,011	106	56	1,173	1,089	241	62	1,392
충남	1,235	185	56	1,476	1,468	232	97	1,797	1,565	399	129	2,093
전북	1,235	131	18	1,384	1,607	224	40	1,871	1,674	250	75	1,999
전남	1,675	136	58	1,869	2,173	236	91	2,500	2,337	449	106	2,892
경북	1,150	110	32	1,292	1,397	196	54	1,647	1,475	262	75	1,812
경남	1,239	237	54	1,530	1,533	227	76	1,836	1,677	377	103	2,157
제주	146	20	7	186	156	29	12	227	227	34	15	27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 각 년도

[그림 3-5] 연도 및 시·도별 다문화가족 아동 변화 추이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 각 년도

제2절 국내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본 절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지원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법과 국내 지원정책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족 관련법은 다문화가족과 자녀에 대해 다루고 있는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다루고 있는 현 추진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다문화가족 관련지원법

가. 다문화가족 관련법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다문화가족 아동 관련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족 관련법 내 다문화가족과

자녀에 대해 다루고 있는 현행 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등을 살펴보고, 현재 영유아보육 및 아동과 관련한 법령
등에서 다문화가족 아동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
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
으나,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에서 통합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범위가
너무 축소되었고,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가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외국인근로자나 북한이주민 등 문화적으로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지 못
한 점 등이 한계점이다. 이에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을 목
표로 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이들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함
으로써 재한외국인이 국내의 적응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
아가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
중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범위의 측면에 있어 ‘재한외국인’을 국내 합법적인 체류자
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인권옹호의 문제, 가족결
합권과 관련된 외국인 자녀의 국내입국 문제, 사회보장에 대한 일반적
인 입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보다 국가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서해정 외, 2009).

나. 다문화가족 아동 기타 관련법

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족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에 관한 보육은 제3조와 제26조에 제시되어 있다. 제3조에서는 보육의 대상에 있어서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 26조에서는 보육실시에 대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 이념)

-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2)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은 제3조와 제4조에서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기본 이념)

-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개정 2006.9.27>
-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2. 부처별 다문화가족 이동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다문화가족 이동지원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이동지원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과 동일하게 다문화가족 자녀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그 자녀를 정책에 포함하고 있다(전경숙, 2010).

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급증하는 다문화가족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조기 적응·교육적 성취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및 연계·활용 강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 및 다문화가족의 강점 발굴 지원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여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및 다문화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콘텐츠 개발, 다문화가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을 하였다. 그리고 예비교사 등의 다문화 이해를 위해 ‘다문화교육 강좌’를 개설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족 학생 멘토링,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 관련 자료가 축적되었고 학교 단위의 활동 등이 증가하였으며, 더 나아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공동으로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 중장기방안이 마련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러한 배경 하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언어·문화적 다양성 등이 급속히 진행하고 다문화가족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배움과 이해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20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계획은 이전과는 달리 정책 대상을 유아, 동반·중도입국 자녀 등 취약 분야 교육 지원을 확대하였고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원을 활성화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해볼만하다.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계획의 핵심 과제는 다음의 <표 3-5>와 같다.

〈표 3-5〉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2010)

정책 분야	핵심 과제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거점학교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 국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 국립 교·사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 사립 교원양성대학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유도 -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활용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요원으로 양성 - 학부모 대상 ‘문화교육 강사요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정 유아 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아 교사 연수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지원	-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 -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 -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 역량 있는 학부모의 교육 지원·활용 -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역량 강화 - 지역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0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나. 여성가족부

1) 다문화가족지원 생애주기별맞춤형 서비스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데 의의를 두어 생애주기별맞춤형 단계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다(표 3-6 참조).

〈표 3-6〉 생애주기별맞춤형 서비스

단계		제공 서비스
1단계	입국 전 결혼준비기	-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2단계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3단계	자녀양육 및 정착기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교육 지원
4단계	역량 강화기	-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
전단계	다문화역량 강화	-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자료: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다문화가족 자녀에 관한 지원 내용은 3단계 자녀양육 및 정착기에 해당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교육 지원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해 아동양육 가정방문지도를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언어발달 진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센터 내 다문화 언어교실 개설 및 보육시설 파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사회정서증진 프로그램 등 다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역량을 개발하고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문화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인식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와 관련한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교실 운영 등이 있다.

가)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전문인력인 다문화언어지도사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내방 자녀에 대해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센터 인근 보육시설로 파견하여, 보육시설 원아인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이중언어교실 운영

결혼이민자 주요출신국 언어수업을 통해 초등 및 미취학 아동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재학생(1개반 당 10명 내외) 및 부모를 대상으로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등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한다.

3.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정책의 한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 이외에도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부처는 앞의 2 곳이다. 중앙부처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각종 민간기관에서도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 및 아동을 위한 지원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이 다양한 측면도 있겠으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김미숙 외, 2009, 조현미, 2008, 이창호 외, 2008).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념이 부재하다. 즉,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에 직면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이념적 논의와 방향설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부족하다. 둘째, 현재의 모든 정책은 이중문화에의 적응보다는 한국문화에의 적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중문화에 적응할 때 더욱 건강할 수 있고 아동이 가진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모국문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아동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한국사회에 정착한 가족에 대한 지원보다는 대부분의 지원이 초기입국자 위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정착한 지 오래된 다문화가족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입국시기별 차등화된 문제발견 및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일반인의 편견 및 인식제고 방안이 미흡하여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냉대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홍보와 포용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정책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 위주의 교육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그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는 정책이 부재하다. 중학생이후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아동들이 사회적응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제3절 독일의 다문화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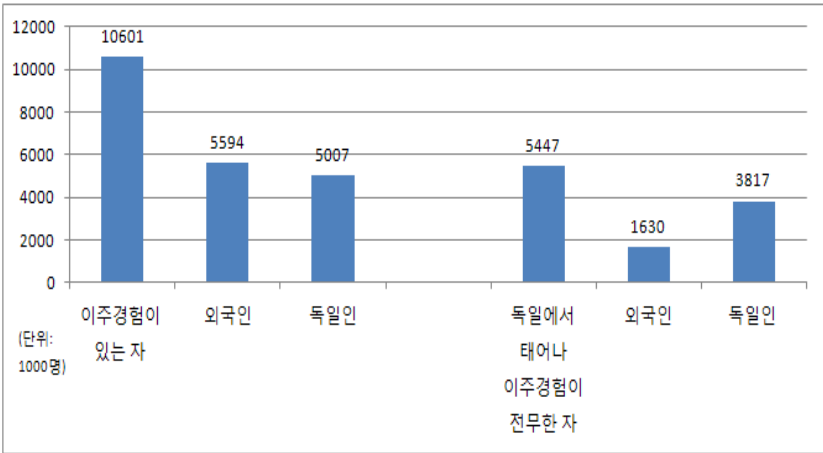
1. 독일의 이주민 개념

세계화의 흐름 속에 수많은 이들이 이주를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국경을 넘고 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독일은 높은 경제적 수준과 안정된 복지정책 및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 관련법 등으로 인해 망명, 귀환, 노동이민, 결혼이민,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이들의 새로운 삶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목적으로 독일의 국경을 넘어 독일사회에 정착한 이들은 2009년 독일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Datenreport 2011). 이주민에는 외국인 뿐만이 아니라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후기귀환민, 이주경험이 없는 이주민의 후속세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포함되어 외국인과 독일인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주민을 개념규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05년부터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³⁾"(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Datenreport 2011). 이에 따라 2009년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는 약 16백만명으로 이들 중 본인의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 중 본인의 이주경험이 있는 인구는 약 65%, 나머지 35%는 독일에서 태어나 이주경험이

3) 독일의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개념은 이주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개념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독일국적을 가진 이들도 포함함으로써, 이주민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태어난 이주민의 2세대, 3세대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전무한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독일국적을 취득한 이와 외국인
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이주배경을 가진 독일 인구 현황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2011)

2. 독일의 이주 현황

20세기 이후 독일 이주의 역사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노동력의 충족을 위해 1950년 대 중반이후 이주민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유럽경제연합국 소속 국가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이주를 허락하면서 스페인, 그리스, 모로코, 포르투갈과의 협정을 통해 노동력의 해외 유입을 가속화한다. 1970년대 초 약 60만명의 터키 노동자들이 독일의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독일 내 가장 큰 이민자집단을 이루게 된다. 이들은 독일 내에서 손님노동자 (Gastarbeiter)라 불리며 독일로 초대받아온 손님 노동자로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진다.

1978년 외국인법의 개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무제한 체류허가 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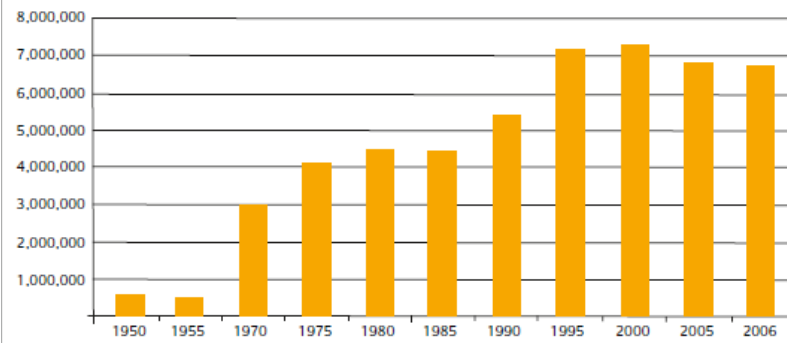
가 5년에서 8년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시장의 상승은 조정된 반면, 1970년대 중반부터 망명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또한 1980년대 말 동유럽의 개방은 서독으로의 귀환이주자들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데, 독일계 후손들의 귀환이주, 체제 붕괴로 망명을 신청하는 난민, 계절 노동자, IT전문가, 간호사 등 전문직 노동이주민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 그룹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⁴⁾. 이러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독일 이주민의 형태를 독일연방이민청은 7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모든 독일 내 이주민들은 이들 7유형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BMI 2008).

-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국민
- 제3국출신의 배우자나 가족에 의한 후속 이민자
- 동유럽과 구소련지역의 독일계 귀환자
- 망명자 혹은 망명신청자
- 비 유럽연합(EU)국가출신의 계절·계약노동자, 임시노동자
- 외국인 학생
- 유대인

이들 중 독일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1951년에 독일 전체 인구 5,081만명의 약 1%(51만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전체인구 8,184만명 중 8.7%(715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내 외국인의 비율은 1995년 이후 전체인구 대비 약 9%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4) 이러한 독일의 다양한 이주그룹에 대한 설명은 이후 독일의 이주유형에서 보다 상세히 접근하고자 한다.

[그림 3-7] 1950년 이후 독일 거주 외국인 수



자료: BMI 2008:26

2006년 12월 기준으로 순위별, 출신국가별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 및 거주기간은 <표 3-7>과 같은데, 단일국가로는 터키가 25.8%(174만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며, 이탈리아 7.9%(53만명), 세르비아 7.1%(48만명), 폴란드 5.4%(36만명), 그리스 4.5%(30만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에 이주해온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략 5명중의 한 명 정도(140만명)로 추정되는 독일에서 태어난 2~3세대 이주민을 포함하는 수치이며, 전체 터키인 중의 34%, 이탈리아인의 30%, 그리스의 28%, 세르비아의 23%, 폴란드의 4%가 이에 해당한다(BMI, 200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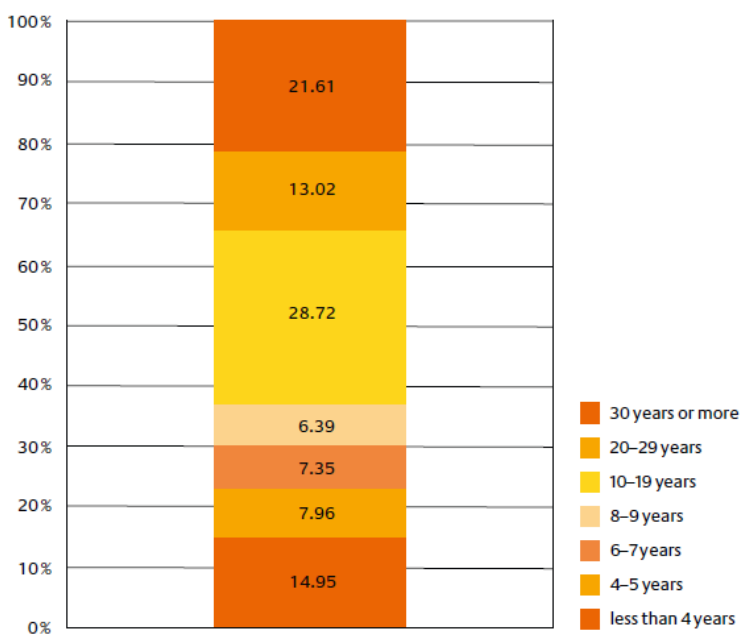
〈표 3-7〉 2006년 기준 독일 거주 외국인 및 거주기간

순위	국적	외국인 수	평균 거주기간(년)
1	터키	1,738,831	20.7
2	이탈리아	534,657	25.1
3	세르비아	480,947	-
4	폴란드	361,696	9.2
5	그리스	303,761	24.1
6	크로아티아	227,510	25.4
7	러시아연방	187,514	6.1
8	오스트리아	175,653	-
9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157,094	18.0
10	우크라이나	128,950	6.4
11	네덜란드	123,466	-
12	포르투갈	115,028	20.0
13	스페인	106,819	26.5
14	프랑스	104,085	-
15	미국	99,265	-
16	영국	95,356	-
17	베트남	83,076	11.7
18	중국	75,733	5.8
19	이라크	73,561	6.5
20	루마니아	73,353	8.4
21	모로코	69,926	14.4
22	마케도니아	62,295	-
23	이란	58,707	12.8
24	카자흐스탄	57,203	5.7
25	태국	52,849	-
26	헝가리	52,347	-
27	아프가니스탄	52,163	9.8
28	미상	43,864	13.8
29	인도	41,497	-
30	레바논	39,380	-
합계		6,751,019	17.3
유럽연합(EU-27)		2,294,620	-
새로운 유럽연합 국가		646,098	-
제3세계 국가		4,456,399	-

자료: BMI. 2008.

독일 거주 외국인의 거주기간(2006년 12월 31일 기준)을 살펴보면, 적어도 8년 이상 독일에 거주한 외국인이 전체의 70%에 가까웠고, 약 35%의 외국인이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반면, 거주기간이 4년 이하인 외국인은 약 15%에 그쳤다. 이는 독일의 오랜 이주역사와 출신국가 별로 거주기간의 차이가 큼을 보여 준다.

[그림 3-8] 2006년 기준 독일 거주 외국인의 거주기간(BMI, 2008)



2005년에서 2009년 동안 독일 원주민들의 인구는 약 1,3백만 줄어든 반면, 독일 내 이주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수는 약 715천명 즉 4.7%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독일에서 출생한 이주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1). 예를 들어 2009년 약 214천명의 이주경험을 가진 독일국적자들이 태어났는데, 이는 전체 출생률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3. 독일의 이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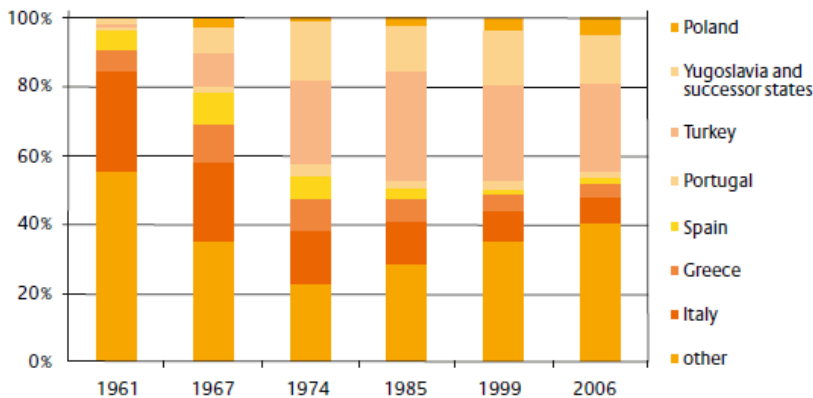
제2차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의 이주 유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상무, 2009; 박재영, 2008; 장미혜 외, 2010). 첫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주도하여 1956년부터 남유럽과 남동유럽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하고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간호사와 광부도 이주노동자로 유입되었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전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중단하였다. 이들은 “손님 노동자(Gastarbeiter)”라고 지칭되며 계약기간 이후 자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고용주들이 숙련도 등의 문제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국의 가족들을 쉽게 독일로 불러 올 수 있었다.

국적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구체적인 현황은 [그림 3-9]와 같은데, 이탈리아(1955년), 스페인과 그리스(1960년), 터키(1961년), 모로코(1963년), 포르투갈(1964년), 튀니지(1965년), 유고슬라비아(1968년) 등과 같은 국가와 일종의 인력모집 협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함으로써 1960년~1972년에 독일인의 고용은 230만명으로 감소하였고, 1960년에 1.3%에 그쳤던 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이 1973년 11.9%로 증가하였다. 초기 외국인노동자들은 주로 20~40세의 남성 위주였으며, 1960년대까지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이탈리아, 스페인 또는 그리스 출신이었으나, 이후에 유고슬라비아와 특히 터키 출신의 노동자가 주를 이루었다. 1973년 기준으로 터키인은 독일 외국인 인구의 10.7%를,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23%를 차지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독일에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

였고, 1973년~1979년 사이의 외국인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1986년~1996년 사이에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80만명에서 730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의 독일 유입에 기인한 것이다(BMI, 2008).

[그림 3-9] 국적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BMI, 2008)



두 번째는 망명신청자와 난민들로 1951년 제네바 협약에 따라 본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실이 입증된 과거 동구권과 제3세계로부터의 정치적 난민이 많이 유입되어 외국인 증가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들의 독일 거주 역시 한시적인 것을 원칙으로 했다.

세 번째는 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의 이주자들로, ‘유럽 시민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1992년 월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에서 자유로이 이주하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 노동자의 이주가 증가하였다. 전체 외국인 인구의 약 32%를 차지하는 유럽연합 국가 이주자들은 독일인과 생김새가 유사하여 터키계나 아프리카계에 비해 인종혐오나 폭력의 피해가 적다. 또한 유럽연합 출범 이후에 노동시장 접근, 정주권 획득, 지방선거 투표권에 있어서 유럽연합 이외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 비해 차별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의 주요 고려대상이 아니다(이용승, 2007).

네 번째는 독일 재외동포들의 후기 이주로서, 1990년대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추방당해 동유럽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다 이주해온 독일인 동포들의 귀환을 수용하였다. 출신국가별 후기귀환민(Spätaussiedler) 현황을 살펴보면, 1950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루마니아, 폴란드, 구소련 등에서 총 140만명 정도가 독일로 이주하였고, 1990년에는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한 해 동안 약 39만명의 후기귀환민이 독일로 유입되었다. 1993년부터 공식적으로 이들을 후기귀환민으로 명명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매 해 할당 인원수를 규정하고 독일어 언어테스트를 의무화함으로써 그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후기귀환민의 수는 35,552명으로 집계되었다(장미혜 외, 2008).

4. 독일 이주민정책의 전개과정

독일의 이주민정책은 크게 세 가지 시기, 즉 노동력 충원을 위한 귀국 위주의 자유방임 시기, 1973년 외국인 노동자 모집중지 조치 이후 귀국 및 독일사회로의 통합을 지원하는 이중정책 시기, 1990년대 후반의 통합위주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김상무, 2010; 이규영·김경미, 2010).

먼저 귀국 위주의 자유방임 시기는 1955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등과 인력모집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인력을 수입하기 시작한 후 1973년 중단한 시기까지이다. 그 당시에 모집한 손님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소위 ‘교체순환모델’(Rotationsmodell)을 활용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통합

정책은 추진되지 않았다.

이중정책 시기는 1973년 비유럽연합국가의 노동자 모집을 중단하기로 한 후, 외국인 노동자의 귀국을 지원하는 동시에 가족과 함께 독일에 살고 있는 이들의 독일사회로의 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수적으로 제한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교회나 사회복지단체 및 기업의 반대와 국제적으로는 우방국에 대한 우호관계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불법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대량의 강제추방은 없었고,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노동자의 장기거주를 가능케 했고, 이들은 가족을 불러들여 외국인 인구는 계속 증가했다. 그 결과 1970년대 말에 학교에서의 외국인 학생 증가는 중요한 사회통합정책의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이주민 문제가 정치·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문제 연방담당관인 쿤(Kühn)은 1979년에 『독일에서 외국인노동자와 가족의 통합 상태와 향후 발전』을 정부에 제출했다. 쿤 보고서는 이주민 가족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위한 통합정책 수립, 2, 3세대에게 귀화에 대한 선택권 부여, 외국인법과 국적취득 방식에 대한 전반적 검토, 노동이주민에 대한 독일사회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1990년 개정된 「외국인법」은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를 제한하는 동시에 장기간 독일에서 거주한 외국인과의 통합에 힘쓴다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 시기까지도 귀국과 통합이라는 이중적인 전략을 사용하면서 독일은 이민국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장미혜 외, 2008; 정윤희, 2010).

1998년 국회에서 제안되고, 2001년 시행된 「국적법」으로 독일 이주민 정책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면서 통합 위주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즉, 혈통주의에 토대를 두고 87년간 지속되어왔던 국적 취득을 속지주의로 전환하여 외국인 2세대들의 독일국적 취득을 완화하면서 다인종·다문화 사회임을 실제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2001년 독일 사회변화에

따른 이주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독립적 이주위원회’는 독일 이 이민국가임을 전제로 하여 이주 및 통합정책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2005년에는 「이민법」 제정을 통해 국적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회통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민법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에 대한 규정, 인권보장에 의한 망명자들에 대한 수용, 이주자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그 중에서도 이주민들이 독일 사회와 노동시장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지식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유럽연합 비회원국 출신의 신규 이주자들은 600시간의 독일어 교육 및 30시간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포함된 ‘사회통합코스’에 참여토록 하였다. 2007년 발표된 ‘국가통합 계획(Der Nationale Integrationsplan)’은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모토 아래 기존의 국적법과 이민법에서 불충분하게 다루어진 사회통합문제를 다시 다루고, 이주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개방하고 동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일은 외국인 증가로 인한 빈부의 격차와 사회범죄에 대한 안전망 구축, 복지정책 및 치안문제에 직면하였고, 사회통합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외국인에 대한 언어교육을 위해 재정적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종교적으로는 이슬람문화의 충돌, 독일인에 비해 낮은 사회적·정치적 참여에 대한 불만이 외국인 2·3세대에 의하여 표출되면서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강희원·강성철, 2010; 한상우, 2010).

또한 2006년 10월 청소년연구 조사결과, 이주청소년 응답자의 63%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또는 “자주” 차별대우를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학교교육, 취업의 기회 등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차별대우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주류사회와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윤선영,

2006).

이상에서 독일의 이주민 개념, 현황, 유형 및 이주민정책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다문화 사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내에서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위험과 갈등을 직면하고 있는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 이주가족 아동을 위한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최근 이주민 통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5. 독일의 다문화가족 아동지원 정책

독일의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은 크게 양육지원, 교육(언어)지원, 사회적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3-8>과 같다. 우선 양육지원으로 부모수당 제공 및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지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육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에서도 아동 양육을 위한 부담을 줄이고 동등한 보육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교육(언어) 지원으로 아동 연령에 따른 이중언어교육,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수준 평가 프로그램, 교사의 다문화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주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밖에 이주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진로지원, 다문화 동아리활동, 후견인 지정 등과 같은 정책 등이 실시되고 있다.

〈표 3-8〉 독일 이주민 가족 자녀지원 사업

구분		대상	내용
양육 지원	부모수당	자녀 출산 후 휴직한 부모	소득대체: 월 소득의 67% 혹은 최고 월 1,800유로 지급
	보육시설 확대	3세 이하 아동	여성취업률 제고를 위한 3세 이하 아동보육시설 확대
교육 (언어) 지원	이중언어교육	1~3세 영아 어머니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부모 교육
		4~6세 유아 및 부모	이주민 가족 아동의 독일어 및 모국어 능력 향상
		초등학생	다중언어구사능력 장려
	언어수준 평가 프로그램	취학 전 아동	각 연방주마다 아동 언어수준 평가 및 지원 여부 진단
사회적응 지원		교사	독일어 교수법 개발/ 보급, 교사 다문화 역량개발 연수전직 교사 이주자를 위한 자격증 취득 등 조치, 이주민교사 양성/ 채용 확대 등
		이주청소년 동반자 없는 난민청소년	연방 정부부처의 재정 지원으로 이주청소년담당(JMD) 운영: 통합, 편입, 적응기회 개선, 진로지원, 이동청소년지원모델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단체 후원이 중심, 후견인 지정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보조비, 주택보조비, 교육비

가. 양육지원

독일은 전통적인 생계부양자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을 유지하면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가족과 자녀가 없는 가족 간의 소득재분배를 정책적으로 유지하여 왔다(Kim & Kurz 2002).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독일의 아동수당(Kindergeld)제도를 통해 구현되고 있으며 부양자녀수에 따른 소득공제혜택과 함께 아동이 있는 가족이 세제혜택과 아동수당 중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대표적 제도인 아동수당외에도 2007년 새롭게 도입된 부모수당(Elterngeld) 및 부모휴가(Elternurlaub)제도는 독

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고 출산율을 증가하기 위한 대표적 제도로 소개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보육시설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육지원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지원에 해당한다.

1) 수당제도

아동수당, 아동양육수당, 모성수당 등 다양한 독일의 양육관련 수당제도는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대체해 주는 제도로 가족이 있는 가족과 가족이 없는 가족 간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중요한 가족정책으로 지켜지고 있다(정재훈 2008). 그러나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심각한 독일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독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촉진을 위해 독일은 2007년 ‘연방부모수당 및 자녀양육시간법’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6년까지 시행되던 아동양육수당(Kindererziehungsgeld)은 2007년부터 부모수당(Elterngeld)으로 전환되어 자녀 출산 후 휴직 시 월소득의 67%에 달하는 급여를 최고 월 1,800유로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취업을 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기존의 아동양육수당의 월 300유로를 지급받을 수 있다. 부모수당의 지급기간은 14개월인데, 부 또는 모가 각각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로 한정하여 부모 중 한명은 최소한 2개월을 휴직하고 아이를 양육하여야 14개월 동안 제도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양육수당과 비교하였을 때 연간 최고 25,200유로까지 더 보장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독일 원주민 뿐만이 아니라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가족에게도 적용된다(이선주 2008).

2) 보육시설 확대

독일 여성 취업률은 전형적인 "M자 곡선"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0~3세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부족에 기인한다. 2006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3세 아동은 전국적으로 285,000명으로 이용률이 낮으며, 지역별 이용률의 차이도 심하게 나타났다. 구서독 지역의 주는 3세 이하 아동 100명 중 8명 정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구동독 지역의 주는 100명당 40명 정도가 보육시설 이용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는 75만명의 3세 이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연립정부는 보육시설 확대 구축 계획을 합의하였다. 총 120억 유로(약 15조 6천억원)이 소요되는 이 계획에 따른 재정 조달 및 운영 방법에 있어 연립정부 내에서 의견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계획의 실천 그 자체는 연방정부의 합의 사항으로 공식화되었다(정재훈, 2008).

나. 교육(언어)지원

1) 사업추진 배경

독일은 이주가족 자녀의 사회 통합과 후원을 위해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외국인 자녀들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독일 학생들과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였고,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독일교육시스템에 통합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범모델을 실시하였다(박성혁 외, 2008). 1970년대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독일의 이주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은 준비반과 특별수업반의 형태로 이루어진 ‘제 2언어로서의 독일어 Deutsch als Zweitsprache 수업’과 제 1언어 Erstsprache인 ‘모국어로 하는 보충수업’으로 구성되어 학교와 사회로의

통합과 적응을 위한 보완조치로써 작용하였다.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이주가족 자녀의 언어 및 문화적 배경이 다름을 인식하면서 언어교육의 새로운 관점이 대두되었고, 학생 개개인의 이중언어 및 다중언어 능력을 자원으로 이해하고 후원하는 방식으로 현실화되었다(성상환·서유정, 2009).

독일에서 25세 미만의 교육대상 연령 인구 중 이주가족 출신 자녀의 비율은 약 27% 이상이다. 그러나 이주가족 출신 자녀들의 교육 불평등 현상은 심각한 수준인데, <표 3-9>에서와 같이 학교졸업 경력이 없는 외국인(19.2%)이 독일인(7.9%)에 비해 약 2.4배 많은 반면, 대학 입학 자격을 가진 외국인(8.9%)은 독일인(24.8%)에 비해 약 2.8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숙 외, 2010).

〈표 3-9〉 독일인과 외국인의 학력 비교

(단위: %)

구분	1989/1990		2002/2003	
	독일인	외국인	독일인	외국인
학교졸업 경력 없음	6.3	22.0	7.9	19.2
전문학교 졸업	27.8	45.9	24.5	41.6
실업학교 졸업	36.0	25.2	41.6	29.1
전문대학 입학자격 있음	0.8	0.5	1.2	1.3
대학 입학자격 있음	29.1	6.4	24.8	8.9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전경숙 외, 2010.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또한 2000년 OECD에서 주최한 국제학력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결과, 독일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32개 참가국 중 20위 이하를 차지하였다. 이에 독일 주정부문화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는 2002년 이주보고서에서 이주청소년의 약 1/3이 읽기능력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였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낮은 학력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독일어 실력향상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모든 주에 출신국가 언어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에 있어 언어교육이 주요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독일 정부는 사회통합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교육 격차와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식하고 교육지원, 특히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이중언어교육

‘이주가정 아동은 이중언어 구사자이다’라는 사실을 전제로(성상환·서유정, 2009) 독일어 구사 능력 향상과 병행하여 아동의 이중언어 습득 능력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언어교육은 아동의 연령대별로 1~3세 대상의 프로그램, 4~6세 대상의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세분할 수 있다.

먼저 1~3세 영아 대상 프로그램인 ‘Griffbereit’은 “걸음마 단계에서 부터 손을 잡고 잘 이끌어준다”라는 의미로, 이주민 자녀의 어머니들을 핵심 대상으로 하여 독일어보다 모국어 습득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이주 가족의 부모는 가족과 교육기관을 연계해주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자녀가 의사소통, 언어놀이에서 모국어를 잘 구사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을 함으로써 향후 다중언어를 습득하도록 유도한다(전경숙 외, 2010).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Rucksack’도 부모를 중요한 교육 파트너로 보고 부모를 프로그램 운영에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아동의 언어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독일어, 터키어, 러시아어, 아랍어, 이탈리아 등 다국적 언어로 된 부모를 위한 교재, 집에서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연습 교재, 아동의 이중언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사용 교재 등 각 대상별로 다양한 교재가 개발되어 있다. 이중언어 수업은 초등과정(1~4학년)에서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 내용 및 방식은 각 주마다 다양하게 진행된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한 반으로 편성하여 학급별 언어 수업이 진행되거나,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학생으로 나누어서 그룹별로 언어를 변경하여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공통점은 각 반마다 독일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동시에 팀티칭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성상환·서유정, 2009; 한상우, 2010). 이는 독일어를 새롭게 습득하는 과정에서 모국어가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체계적인 언어교수법을 통해 학생의 다국어 구사능력을 신장하고, 긍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운영하고 있다(전경숙 외, 2010).

다중언어 구사능력 장려를 위한 방안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1990년대에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와의 만남” 프로젝트, “유럽의 다중언어능력 장려 및 강화를 위한 모국어 개방 수업” 프로젝트, “언어 포트폴리오 Portfolio für Sprachen”을 개발하였다. 언어와의 만남 프로젝트는 개별 학교가 네덜란드어, 이탈리아나 터키어, 자매 결연을 맺은 지역의 언어 또는 영어를 다양한 초등학교 과목의 주제와 연결하여 접촉할 수 있도록 하여 초등학교에 적합한 체계적인 외국어 수업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교사들의 미진한 교수법과 완성되지 못한 교재문제로 인해 프로젝트의 처음 구상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모국어 개방수업 프로젝트는 1990년대 중반에서 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출신국의 모국어를 외국어로 배우고자 하는 아동들을 위

해 해당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모국어 보완수업을 개방한 것이다. 언어 교수법의 개발이 문제시 되기도 하였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며 프로젝트 이후에도 해당 학교는 계속 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하였고, 다른 학교의 참여도 고무시켰다.

언어 포트폴리오 개발은 “유럽언어 포트폴리오 Europäisches Portfolio der Sprachen(EPS)”에 기초한 것으로 유럽의회가 제안하고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개혁안이다. 이를 통해 언어 학습 결과에 대한 국제적 비교가 용이하였으며, 학교 수업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습득할 수 없는 언어능력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다(박성혁 외, 2008; 성상환·서유정, 2009).

3) 언어수준 평가 프로그램

최근 취학 전 아동들의 언어능력 파악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연방 주마다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취학 전에 아동의 언어 수준을 조사하여 학교 정규 수업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언어지원의 필요성을 진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브레멘 주는 1994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4학년)을 대상으로 언어 수준 평가 및 지원여부 진단을 통해 등급 별로 4개의 반으로 차등하여 보충반을 개설한다. 바이에른 주에서도 2004년부터 언어학습반을 위한 프로젝트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4단계 스크리닝 프로그램(언어접촉, 주요 모티브 대화, 그림자료를 이용한 말하기 자극, 놀이터 관찰)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문법, 언어구사의 정확성보다 이해력, 의사소통 행위와 같은 언어 행위에만 초점을 둔다. 베를린 주의 경우 2003년 월부터 이주아동 뿐만 아니라 독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학아동에게 독일어의 문법이나 어휘능력을 평가하여 언어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다.

니더작센 주는 2002년부터 취학 10개월 전에 언어실력 및 이해력, 소통과 표현 능력을 확인하여 취학 반 년 전에 언어 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있다(성상환·서유정, 2009).

4) 교사의 다문화 역량개발 프로그램

이주가족 자녀의 효과적인 이중언어교육 및 인지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독일어 교수법을 개발·보급하고 교사 다문화 역량개발 연수 및 이주자 교사양성, 전직 교사 이주자를 위한 자격증 재취득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다.

먼저 이주민 가족 자녀를 위한 제2언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수법을 개발하여 교사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이수한 교사에게는 특혜가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 학생의 이중언어적 환경의 강점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것을 기본 관점으로 하면서 학생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전경숙 외, 2010).

교사의 다문화적 역량은 이주민 가족 자녀의 잠재 능력과 강점을 발전시켜 학업성취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다문화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한 연수와 재교육에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친 교사에게 필기 및 구술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학급의 다문화적 상황을 파악하고 교사 스스로에 대한 비판적 자세와 타 문화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학급의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다문화 학습을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전경숙 외, 2010). 또한 함부르크 대학과 에센 대학의 경우 정규 교사양성 교육 내에서 터키어 교직과정을 개설하여 대학수업과정에 포함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의 주제를 다

루고 있다(성상환·서유정, 2009).

그 밖에 함부르크 주에서는 독일에서 최소 5년 이상 학교를 다녔고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탁아소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주 여성을 교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의무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헤센 주의 경우 1998년 ~ 2001년까지 출신국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이태리어와 그리스어를 수업했던 교사들에게 독일에서 교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자격증 재취득 조치를 시행하였다(성상환·서유정, 2009).

다. 사회적응 지원

독일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여 성장해온 이주 가족 자녀들이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지원, 다문화 동아리 활동, 후원 및 후견인 지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반자와 함께 이주한 청소년과 동반자가 없는 난민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서로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주청소년

이주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지원으로 이주청소년담당(JMD: Jugendmigrationsdienst), 진로지원, 아동청소년지원모델프로그램(FörMig)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연방 정부 부처(가족, 노인, 부인, 청소년 담당 복지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이주청소년담당은 새로 이주해 온 12세부터 27세 이전의 이주청소년들이 사회, 문화, 정치면에서 참여하도록 하여 언어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생활을 개선해주려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 및 이미 독일 사회에 적응한 이주청소년들과 함께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직업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에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을 병행하도록 후원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은 개인적 후원, 이주청소년과 주류사회 청소년들과의 공유프로그램, 이주청소년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문화 간 교환 프로그램이다(윤선영, 2006).

이주민가족 자녀들의 직업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진로지원으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서는 「Potenziale」(잠재력), 「Neue Wege in den Beruf: Mentoring für junge Frauen mit Zuwanderungsgeschichte」(직업에의 새로운 길: 이주여성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먼저 잠재력이란 명칭은 직업적으로 성공한 이주민 집단을 대표하며, 독일사회에 정착하여 성공한 사람들이 이주민 가족 자녀가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하도록 조언자 및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운영한다. 이들은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출범하였고, 이주민가족 청소년들을 위한 견습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전경숙 외, 2010). 또한 이주민 여학생의 진로 지원을 위해 노동시장 진입에 성공한 이주민 여성과 여학생을 멘토와 멘티로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진로 준비를 돕고 있다. 멘티는 멘토로부터 그들이 경험한 생활 및 직업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전경숙 외, 2010).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과 청소년 지원 모델 프로그램(Modellprogramm Förder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 FörMig)은 2004년 9월부터 5년을 기한으로 진행되어 언어교육과 이에 대한 지원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평가하여 교육계획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김상무 2010). 3년간의 시범실시 이후 ‘진단’과 ‘광범위한 언어교육’이라는 두가지 주제영역 아래 각각의 모듈을 구성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⁵⁾. 이 프로그램은 학교를 중심으로 관공서,

5) 각 주제영역별로 실시된 모듈은 ‘진단’ 주제영역의 경우 언어진단의 도구 다루기와 언어진단 결과에 따른 언어지원 결정 등 2가지의 모듈로 구성되었고, ‘광범위한 언어교육’의

아동보호시설, 학부모단체 등을 연결하여 이를 하나의 기초단위로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기초단위는 하나의 모듈을 중심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초 단위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동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경험을 전달하면서 지역적 상담과 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2009년까지 10개의 독일 주가 성공적으로 참여한 아동 청소년 지원 모델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는 함부르크 대학에 FörMig 교육 센터를 개소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다.

2) 동반자 없는 난민청소년

2004년을 기준으로 독일정부는 공식적으로 망명을 신청한 35,600명 중 약 1.8%(640명)가 동반자 없는 난민 청소년(UMF: Unbegleitete Minderjaerige Fluechtlinge)이라고 밝혔으나, 민간단체들은 16.9% ~ 28.1%(6,000 ~ 10,000명)의 난민청소년이 동반자 없이 독일에 체류하고 있다고 보았다. 동반자 없는 난민청소년은 다른 이주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특별 학급에 배치되는데, 이들의 합법적인 체류허가 및 권리와 권익을 위해서 주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단체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반자 없는 난민청소년은 18세를 기준으로 상이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 18세 이상은 청소년관청의 청소년 보조비(Jugendhilfe)를 받지 못하며, 만 18세가 되면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관청(Jugendamt)에서 보호, 관리 및 후원해준다. 즉 18세 미만의 경우 청소년관청이 후견인을 지정해주거나 나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시설(Kinderheim)과 청소년보호시설(Jugendheim)로 보내지고, 의

경우 일반 언어능력 지원, 문해 능력 개발, 학교와 직업교육에서의 교육언어와 전공언어, 교육과정과 직업정착과정에서의 자원으로서의 다언어능력, 지방과 지역 언어지원 네트워크 개발, 교육단계마다 이전 단계와의 협력적 네트워크화 등 6가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김상무 2008).

무교육에 따른 교육비(Schulgeld)도 매월 지급된다. 청소년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주택보조비(Wohngeld)를 신청하여 지원받으며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청소년 보조비를 받을 수 없는 18세 이상의 난민청소년은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비(Sozialhilfe)의 수혜자가 되어 강제 추방의 제1순위 해당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교육이나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는 생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적응이 어렵게 되는 악순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인 AsA(Ausbildung Statt Ausschabung)는 공인된 직업자격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직업적 안정을 가지고 사회 적응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한다. 노동자 복지협회 이주청소년 담당부서와 연합하여 학교교육과 더불어 개인적인 잠재력을 고양하고, 독일어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언어수업 외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다른 학교 과목 과의까지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윤선영, 2006).

제4절 일본의 다문화지원정책

1. 일본의 다문화사회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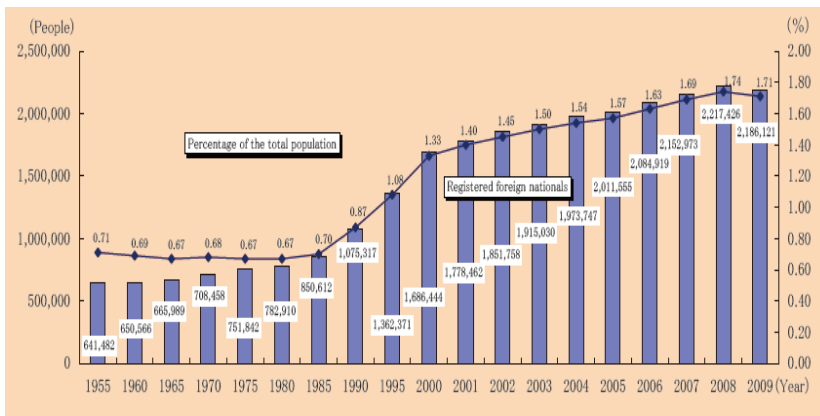
일본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된 이유는 일본사회가 급속하게 다문화·다민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윤선애, 2009).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험한 저출산·인구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노동력이 감소함에 따라서 일본정부는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정미애, 2011). 그 이전에는 ‘단일민족, 단일언어의 일본’을 강

조하였는데, 1980년 중반부터 남미의 일본계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자, 다문화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남미 일본계외국인(닛케이잔: 日系人)에 대해서는 ‘정주자’라는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정주자에 한해서는 노동을 합법화하여 이들을 정식 노동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다문화가 본격적으로 일본사회에서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즉 21세기부터로 최근의 일이다(정미애, 2011).

일본 법무성(2010)에 의하면 일본의 등록외국인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일본의 외국인등록자 수는 2,186,121명인데, 이는 최고 기록을 세운 2008년에 비하여 31,305(1.4%) 감소한 수치이다. 그럼에도 10년 전인 1999년에 비해 외국인수는 1.4배나 증가한 수치이고,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법무성, 2010).

[그림 3-10]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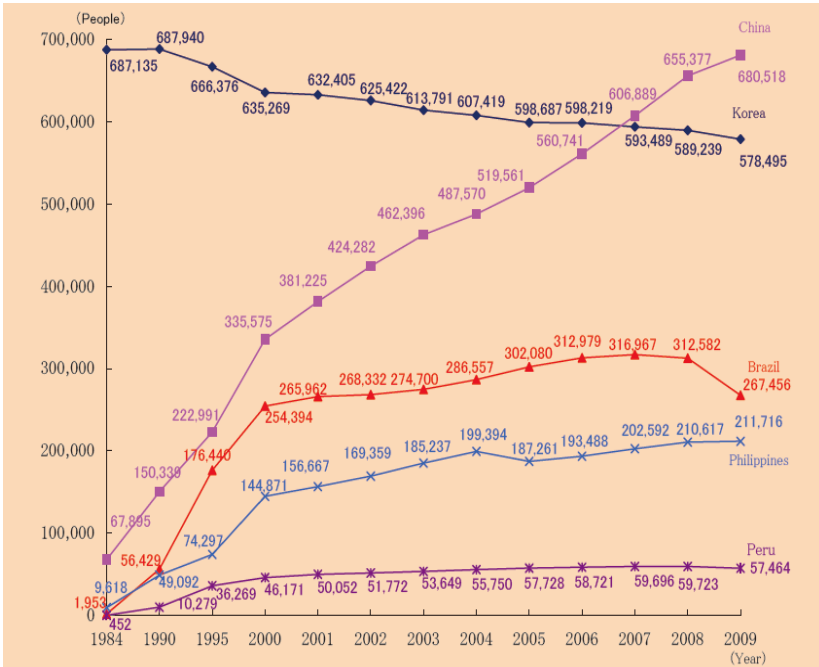
(단위: 명, %)



주: 외국인수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일본인구는 매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인구추계와 인구조사에 기초함.
 자료: 법무성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평성 22년판, 2010년). p22.

[그림 3-11] 일본의 국적별 외국인등록자수 추이(1984-2009)

(단위: 명)



자료: 일본 법무성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 (평성 22년판, 2010년). p23.

외국인등록자 비중은 전체 인구 127,510,000명의 1.71%에 해당한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680,518(29.6%)으로 가장 많고, 남북한인 578,495명(26.5%), 브라질인 267,456명(12.2%), 필리핀인 211,716명(9.7%), 페루인 57,464명(2.6%) 순이다(법무성, 2010). 남북한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중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브라질인도 2007년 이후 감소추세이다.

2008년 일본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약 10만명 정도로 집계된다. 전체 일본학생 대비 초등학생은 0.94%, 중학생 1.10%, 고등학생 0.67%를 차지한다(전경숙 외, 2010). 이중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약 2만 8천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전체 외국인 학생의

4분의 1 이상이 일본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학생의 고교진학률이 98%정도인 데 반해 외국인학생의 고교진학률은 50%에 못 미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

가. 다문화공생정책의 태동과 주요 내용

일본의 다문화 사회 정책은 ‘다문화공생(multicultural coliving, multicultural living-together, multicultural coexistence)정책⁶⁾’이라는 개념으로 추진해왔는데, 2005년 기점으로 다문화공생을 국가적 차원의 주요과제로 설정하면서 주요 시책을 내세워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시행하게 되었다. 여기서 다문화 공생이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일본의 이주민 수가 200만명이 넘으면서 2006년 일본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시행하게 되었다.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은 기존의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공생관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인권보장, 이중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언어자원을 제공하고 거주와 교육, 노동, 의료, 복지, 보건, 방재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면서 이중문화에 대한 주민의 의식계발과 외국인 주민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윤선애, 2009).

일본은 중앙정부가 주요정책의 제안,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실제 사

6) ‘다문화공생’의 영어표기는 정해져 있지 않음.

업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해 외국인을 ‘국제교류원’으로 채용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의 문화나 사회구조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고, 해당 업무 분야와 관련해 외국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 나뉘어진다.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일본으로 온 올드커머(Old-Commer), 또 하나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유입된 뉴커머(New-Comer)에 대한 대응이다⁷⁾. 1990년대 이전에 일본은 외국인에 대해 폐쇄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은 출입국이나 국적 등과 관련한 법제 외에 없었다.

다문화정책의 기초가 되었던 것은 일련의 국제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세계대전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를 위해 외국인을 포용하는 정책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이전까지는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펴고 있었다.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시각은 '외국인등록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인등록법'은 원래 구식민지 출신국의 올드커머들을 본국으로 돌려 보내거나 일본인으로 완전히 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외국인과 일본국민과의 차별을 정당화시켰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뉴커머의 이주가 늘어나게 되자 일본은 '입국관리법'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관리하였다. 국내의 부족한 노동자를 외국인 노동력으로 대체하였다. 그런데 재외 일본인 2세, 3세에게는 정주자격을 부여한 반면, 비일본계 외국인들에게는 엄격한 취업 제한 및 체류

7) 올드커머는 1950년대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으로 넘어와 거주를 시작한 재일 한국인과 중국인 대부분을 일컫고, 뉴커머는 1945년 이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및 결혼 이주여성들을 통칭한다.

기한을 적용하였다(전재호, 2007). 1990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기존의 동화주의의 연장선에서 혈통주의를 결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사회의 다문화화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나. 다문화공생정책의 주요내용

일본의 중앙정부는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지방에 비해 소극적이었다. 2006년 총무성에서 제시한 다문화공생 정책은 크게 커뮤니케이션 지원,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지원, 생활지원, 다문화공생 지역 만들기 등이 있다.

1) 커뮤니케이션 지원 정책

커뮤니케이션 지원정책은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커뮤니케이션 지원에는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미디어에 의한 행정·생활서비스의 제공, 외국인 주민의 생활상담을 위한 창구의 설치, 전문가 양성, NPO등과의 연계에 의한 다언어 정보의 제공, 지역의 외국인 주민 상담원 등 활용, JET(The Japanese Exchange and Teaching) 프로그램의 국제교류원 활용⁸⁾ 등이 있다.

8)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담이나 통역·번역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모국으로부터 일hdsj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초빙하는 프로그램이다(최행연, 2008).

〈표 3-10〉 일본 다문화공생플랜의 주요 시책

구분	시책
커뮤니케이션 지원	-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미디어에 의한 행정·생활서비스의 제공 - 외국인 주민의 생활상담을 위한 창구의 설치, 전문가 양성 - NPO등과의 연계에 의한 다언어 정보의 제공 - 지역의 외국인 주민 상담원 등 활용 - JET프로그램의 국제교류원 활용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지원	- 지역생활 개시시 오리엔테이션 실시 -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기회의 제공 - 관계기관의 노하우 활용
생활지원	- 거주관련정책 - 교육관련정책 - 노동환경정책 - 의료·보건·복지 - 방재 - 기타정책
다문화공생지역 만들기	-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개발 - 외국인 주민 자립과 사회참여

자료: 최행연(2008), 『일본의 외국인 시책과 과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재구성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 프로그램은 커뮤니케이션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의 지자체들은 기본적인 행정정보를 다중언어로 제공하고, 통역 서비스나 모국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일본어 교실의 운영도 많고, 대도시 중심의 대중교통 안내방송도 다국어로 하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다.

2)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지원

학습지원 프로그램에는 지역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기회의 제공, 관계기관의 노하우 활용 등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

3) 생활지원 정책

생활지원정책에는 거주, 교육, 노동환경, 의료/보건/복지, 방재 등 실생활에 핵심적인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거주관련정책에는 정보제공에 의한 입주지원, 주택구입 후 오리엔테이션 실시, 외국인 주민이 입주하는 단지 등에 상담창구 설치 등이 있다. 교육관련정책에는 학교 입학시 취학안내나 취학원조제도의 다언어에 의한 정보제공, 일본어 학습지원, 지역연합 대응, 미취학아동 대응, 진로지도 및 취직지원, 문화공생시각으로 국제이해교육 추진, 외국인학교 법적지위 명확화, 유아교육제도 주지 및 다문화 대응 등이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입학시 취학안내나 취학원조제도의 다언어에 의한 정보제공은 초등학교 입학이나 학교생활 및 취학원조제도, 그 밖에 일본학교제도 전반에 대하여 입학 전 단계부터 외국인 주민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어 학습지원이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고 제2언어로 학습하는 경우 지자체나 NPO, NGO,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국가차원에서 마련된 시책이다. 일본어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의 추가배치 등 정규과정 이외에 자원봉사자를 두어 연계 학습지원이나 모국어에 의한 하습 서포터 등 과외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미취학아동 지원을 위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또는 학교로부터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을 정비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다. 진로지도 및 취직지원은 학생의 장래를 위해 적절한 진로지도를 하되, 고교 및 대학진학 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외국인학교의 법적지위 명확화란 브라질인 학교나 페루인 학교 등과 같은 외국인학교는 무인가 시설이 막고 재정 및 인력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마련된 것이다. 세제상의 조치,

JR 등 교통기관에 의한 통학권 발급도 되어있지 않다. 도도부현 지사가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상황에 따라서 학교 및 준학교법인 인허가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환경정책에는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한 취업환경의 개선, 외국인 주민의 기업지원, 국가차원에서 사회보험 가입상황의 개선 등이 있고, 의료·보건·복지정책에는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병원·약국에 관한 정보 제공, 의료문진표의 다양한 언어 표기, 광역의료통역자 파견시스템 구축, 건강진단, 건강상담 실시, 모자보건 및 보육, 사회보험 가입의 촉진 등이 있다.

방재정책에는 재해 등의 대응, 긴급시 외국인 주민의 파악, 재해시 통역자원봉사자 육성 및 지원, 재해시 외국인에 정보전달 수단으로서 다언어화 등이 있고, 기타 정책으로 전문성 높은 상담체제 정비와 인재 육성, 유학생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 다문화공생 지역 만들기 정책

다문화공생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 인식개발과, 외국인 주민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개발을 위해 다문화공생 거점 만들기, 다문화공생을 테마로 한 교류이벤트 개최 사업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는 국제이해교육보급사업(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다문화공생 학교만들기(요코하마시립 잇쵸소학교)가 있다.

외국인 주민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서 핵심인물·네트워크·자조조직 등의 육성,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지역시책에 반영,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외국인 주민의 표창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예로 다문화공생심포지움사업(기후현 국제교류센터),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가와사키시) 등이 예시되어 있다.

다. 다문화공생정책의 추진체계

일본에서 다문화공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학교 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가장 높은 반면, 중앙정부의 관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05년 6월 총무성에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했다. 여기서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문화공생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몇 개의 선도적인 지자체를 제외하면 아직 다문화공생추진 계획은 답보상태에 있고, 정책들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정미애, 2010). 실제로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나 경제단체 등이 관계 중앙부처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조정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설치할 것 등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다문화공생정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문화공생시책의 주요 담당자는 지자체이다. 지자체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주체로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담당주체인 것이다(정미애, 2010).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제교류협의회, NPO, NGO, 민간단체 등도 역할을 분담하면서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최행연, 2008). 지자체의 주체별 역할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1〉 다문화공생의 도도부현, 시구정촌, 국제교류협회추진체제와 역할분담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기초자치단체(시구정촌)	국제교류협회
기본적 역할	- 시구정촌의 경계를 넘은 광역적 과제에의 대응	-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외국인 주민을 직접 지원	- 지방자치체와 NPO 등과의 중개역할
구체적 역할	- 지침·계획의 책정 - 지역 전체의 사회자원 (인재, NPO, 교재 등)의 조사 - 광역통역자 파견 시스템 구축과 운용 -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의 개발 - 시구정촌 정보의 공유화 체계 만들기	- 지침·계획의 책정 - 외국인주민 상담업무 - 지역주민의 교류기회 제공 - 학교와 NPO 등의 연계촉진 - 지역내 관련단체의 네트워크화 도모	- 지자체와 NPO 등의 연계체계 만들기, 모델사례의 광역적 보급(도도부현 협회) - 다언어정보의 수집과 유통체계만들기(도도부현 협회) - 일본어교실과 모어교실 등의 개최(시구정촌 협회) - 외국인주민에 관한 정보 수집과 발신(시구정촌 협회) - 통역자·번역인재의 발굴(시구정촌 협회)

자료: 총무처.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신고서, 2006년. 3월., p.43 (정미애, 2011에서 재인용).

총무성의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은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의 추진은 해당 지역의 자치체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적어도 현 단계의 일본에서는 한국의 경우처럼 중앙부처가 앞서서 다문화정책 관련 법규를 입안하지는 않고 있다.

일선에서는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공민관이나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여 일본어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또는 지역 내 정보를 수집해 이주민의 상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어 교육과 함께 각종 언어로 상담 가능한 외국인 전용 창구까지 개설해서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통해 핵심 사업에 대한 모델이 발굴, 제시됨으로써 더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아동대상 지원정책 사례

일본은 모든 도시에 외국인 학생 담당 전문 교원이 배치된 학교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통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국인 학생들의 사회적응을 돕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 자녀가 희망하는 경우 일본의 공립 의무학교(초·중학교)에 무상으로 취학이 가능하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인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을 연령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동적으로 취학통지서가 나오는데 취학을 바란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대부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학생 중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지자체 수준에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용 지도자료, 소책자 작성/배포’, ‘일본어 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원의 추가배치’, ‘일본어 지도 등을 담당하는 시간강사 또는 일본어 지도 협력자 배치’, ‘담당교원의 연수 실시’, ‘연락협의회 설치’, ‘일본어 지도교재의 작성/배포’ 등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다음에서는 지자체별 특성화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았다(최행연, 2008).

1) 가와사키시의 다문화공생교육

가) 취학보장과 학습지원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어린이에 취학의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학습환경의 정비에 노력한다. 취학, 학습, 진로 등 교육전반에 관한 상담체제의 충실에 노력한다.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일상어, 학습에 필요한 언어의 습득지원을 시킨다.

나)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

일본인과 외국인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공생교육을 외국인 시민과 함께 추진한다. 사회에서는 소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모국어·모국의 문화를 소중하게 하면서 문화적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의 정비에 노력한다. 외국인학교와의 교류를 추진하면서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노력한다. 교직원에 대하여 인권, 다문화공생에 관한 연수를 한다.

다) 지역의 학습지원

일본어 학습을 비롯한 학습지원에 노력한다. 외국인 시민에 대하여 사회, 제도, 문화에 관한 이해를 도모한다.

라) 가족에의 지원(Support)

외국인 보호자의 상황을 배려한 정보제공이나 지원을 한다. 모국어·모국문화의 중요성의 이해·존중할 수 있도록 가족과 연계에 노력한다.

2) 하마마쓰시 교육위원회의 대응

시교육위원회에서는 귀국 아동, 외국인 아동이 수업에 충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을 이해서는 근본적이면서 장기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 일본어교실: 시내 7개소에 일본어 교실 개설
- 모국어교실: 모국어 유지를 위한 학습이나 모국어를 사용, 기본적인 강화학습 실시

- 귀국·외국인 아동 상담원배치: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나 지도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 취학상담이나 학교방문 등을 실시
- 취학지원요원, 취학 서포터 파견: 외국인 아동이 많은 학교에 일본어 및 교과의 지도보조나 통역·번역 등을 실시
- 일본어 자원봉사자 지원: 외국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일본어교실 지원
- 일본어 자원봉사자 육성: 일본어 자원봉사 육성을 위해 일본어교육학회와 연계하여 연수회 개최
- 하마마쓰시 고등학교에 국제교실 설치: 외국적을 갖고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교실 설치
- 외국인학교 지원: 방재훈련, 교통안전교실, 조세교실 등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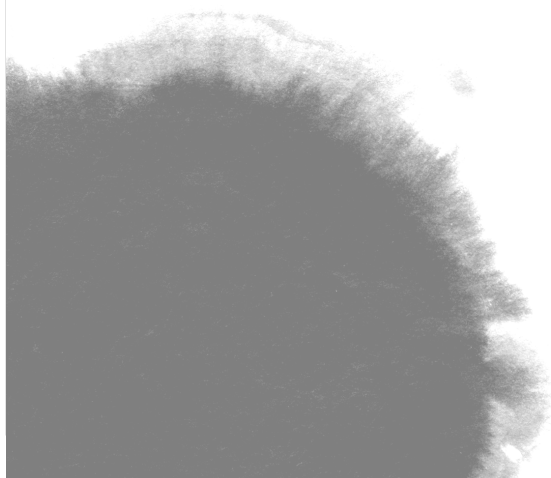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제5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독일의 다문화가족 아동정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독일은 영유아의 언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어려서부터의 언어교육을 통해서 성장 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해서도 독일 아동과 동일한 보편적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복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문화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학력저하를 예방을 강조하는 면을 볼 수 있다. 넷째, 독일에서는 모국어와 독일어 모두를 강조하는 이중언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주민가족 자녀의 모국어 능력 강화를 위해 미취학 아동 시기부터 이중언어 교육을 매우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주배경을 지닌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를 교육 관련 직종, 행정 및 사회복지 업무 등에 보다 많이 채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상으로는 취업 및 진로지도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연령대별로 차등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공공은 물론 민간이 협력하여 청소년의 취업 및 진학을 독려하고 있었다.

다문화공생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사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본어 습득 위한 각종 지원정책 마련. 통역 및 교육기회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도 언어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으로 두고 최대한 일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덜기 위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학교 탈락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다문화가족 아동은 학교 중도탈락율 및 미취학율이 더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아동들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무허가 학교설립 지원 및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은 대안학교 등을 설립하여 일본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있었다. 단, 이러한 학교들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여 학교를 양성화하고자 하고, 아울러 경제적인 부담을 감안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력 측면으로서 보조교사, 자원봉사인력 등을 지원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특히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거나 자원봉사인력을 양성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문화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이다.

04

다문화가족 이동의 사회심리적응 실태

제4장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응 실태

본 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응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정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의 고민거리, 고민을 나누는 대상, 사회심리적 적응을 대표할 수 있는 아동의 우울 정도와 자아존중감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아동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과 환경체계를 가족과 학교로 보아 가족, 친구, 교사에게 받고 있는 지지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적응 실태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 실태가 아동의 일반적 특성 및 가족환경 특성을 통제하고도 다문화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인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이 아동의 특성 및 가족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성별, 학년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어머니 출신국가별, 한국거주기간별, 아버지 학력 및 경제활동 참여상태별 차이를 다문화가족 아동만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 절 다문화가족 아동의 일반 특성

본 절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응 실태를 살펴보기 전에, 다문화가족 아동의 일반적 특성 및 부모 특성을 비교해보았다. 또한 다

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모와 관련하여 출신국, 한국어 실력, 자아존중감 등을 파악하였다.

1.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특성⁹⁾

가.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일반적 특성(공통)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 386명과 일반아동 410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¹⁰⁾. 다문화가족 아동의 성별은 남아 52.6%와 여아 47.4%로 남아가 조금 많았으며 일반아동은 남아 47.5%, 여아 52.2%로 남아가 조금 더 많았다. 성별 분포는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에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다문화가족 아동은 초등학교 3~4학년 31.1%, 초등 5~6학년 24.6%, 중학생 44.3%로 나타났으며, 일반아동은 초등학교 3~4학년 29.0%, 초등 5~6학년 45.9%, 중학생 45.9%가 응답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대도시 9.0%, 중소도시 38.0%, 농어촌 53.0%였으며 일반아동은 14.1%, 중소도시 35.9%, 농어촌 50.0%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성별, 학년별, 지역에 따른 차이는 조사방법상 다문화가족 아동 조사시 다문화가족 아동이 다니는 해당학교에서 일반아동을 임의로 추출하여 가능한 동수를 조사하였기에 나타난 결과로 크게 의미있게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조사의 응답자 특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9)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특성 비교는 아동이 직접 응답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참고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 등 유사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과 다문화가족 아동의 모가 응답한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10) 다문화가족 아동은 아동의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로 아동의 아버지는 모두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족 아동으로 국한되었다. 다문화가족 아동과 비교집단으로 설정된 일반아동 집단은 다문화가족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가능한 동수의 아동을 표집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형제순위는 첫째가 55.3%, 둘째가 32.4%였으며 일반아동은 첫째 48.4%, 둘째 40.9%로 둘째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0명을 넘지 못한 결과¹¹⁾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종교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50.8%가 통일교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무교 20.1%, 기독교 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아동의 경우 무교 39.4%, 기독교 37.2%, 불교 1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 아동에게서 높게 나타났던 통일교의 비중은 2.8%로 낮게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인구주택총조사, 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 분포는 불교 43.0%, 기독교(개신교) 34.5%, 천주교 20.6%, 유교 0.5%, 기타 1.0%, 무교 46.5%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종교분포조사에는 개신교에 통일교 등이 포함되어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 가족과 일반아동의 통일교 비중을 비교하기 힘들다. 그러나 일반 아동집단의 종교분포와 통일교를 포함한 개신교의 비중이 80%나 된다는 점에서도 특정종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특성이 다문화 전체집단의 특성인지 다문화가족 아동 집단 내에서도 특정집단의 특성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교별 출신국 분포를 살펴본 결과 통일교의 경우 87.7%가 일본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생각하는 경제적 수준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보통’ 54.2%, ‘잘사는 편’ 20.0%, ‘어려운 편’ 15.8%로 나타났으며 일반아동의 경우 ‘보통’ 56.7%, ‘잘사는 편’ 36.0%, ‘어려운 편’ 7.4%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열악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1) 1983년 2.06명에서 1984년 1.74명으로 낮아진 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74명보다 높았던 적 없음(통계청, 각 연도별 인구동태연보).

〈표 4-1〉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일반 특성

N=(다문화가족 아동 386명, 일반아동 410명)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 아동	
		N	%	N	%
성별	남	203	52.6	196	47.8
	여	183	47.4	214	52.2
	계	386	100.0	410	100.0
학년	초등 3-4학년	120	31.1	119	29.0
	초등 5-6학년	95	24.6	103	25.1
	중학생	171	44.3	188	45.9
	계	386	100.0	410	100.0
지역	대도시/광역시	30	9.0	58	14.1
	중소도시	127	38.0	147	35.9
	농어촌	177	53.0	205	50.0
	합계	334	100.0	410	100.0
형제순위	첫째	208	55.3	193	48.4
	둘째	122	32.4	163	40.9
	셋째	40	10.6	37	9.3
	넷째 이상	6	1.6	6	1.5
	계	376	100.0	399	100.0
종교	기독교	70	19.2	146	37.2
	천주교	17	4.7	25	6.4
	불교	17	4.7	54	13.7
	무교	73	20.1	155	39.4
	통일교	185	50.8	11	2.8
	기타	2	0.6	2	0.5
	계	364	100.0	393	100.0
주관적 경제수준	어려운 편	61	15.8	30	7.4
	보통	247	64.2	230	56.7
	잘 사는 편	77	20.0	146	36.0
	계	385	100.0	406	100.0

※ 결측치가 모두 다름

나.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 아동의 부모 및 가구 특성(공통)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머니의 연령대는 40대가 58.8%, 30대가 2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일반아동의 경우도 40대가 50.5%, 30대가 43.3%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 연령도 다문화가족 아동의 모는 41.8세 일반아동의

어머니는 40.9세로 비교적 비슷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아버지의 연령대는 40대 64.9%, 50대 이상이 30.1%의 순이었으며 일반아동의 경우 40대 68.5%, 30대 18.1%, 50대 이상 13.4%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아버지의 연령대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부의 연령이 평균 47.4세, 일반 아동 아버지의 연령 평균이 44.0세로 일반아동에 비해 약 3세 이상 높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부모의 최종학력을 질문한 결과, 부모의 학력을 모르는 경우가 40%가 넘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응답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상 30.0%, 고졸 22.7%로 나타났으며 일반아동은 대졸 24.6%, 고졸 28.0%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부의 학력의 경우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고졸 26.0%, 대졸 20.2%로 나타났으며 일반아동의 경우 대졸 이상 27.5%, 고졸 25.2%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중졸 이하가 10.5%로 2.5%를 보인 일반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모의 경우 일반아동의 경우보다 대졸이상의 학력이 더 많게 나타난 반면, 아버지의 경우 일반아동의 경우 대졸이상의 학력이 고졸이상의 학력이 더 많게 나타났다.

〈표 4-2〉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부모 및 가구 특성

N=(다문화가족 아동 386명, 일반아동 410명)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 아동	
		N	%	N	%
모의 연령	20대	9	2.5	4	1.0
	30대	108	29.8	174	43.3
	40대	213	58.8	203	50.5
	50대 이상	32	8.8	21	5.2
	계	362	100.0	402	100.0
	평균	41.8세		40.9세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 아동	
		N	%	N	%
부의 연령	20대	-	-	-	-
	30대	18	5.1	72	18.1
	40대	231	64.9	272	68.5
	50대 이상	107	30.1	53	13.4
	계	356	100.0	397	100.0
평균		47.4세		44.0세	
모의 학력	중졸이하	15	3.9	14	3.4
	고졸	87	22.7	114	28.0
	대졸이상	115	30.0	100	24.6
	모름	166	43.3	176	43.2
	안 계심	-	-	3	0.7
	합계	383	100.0	407	100.0
부의 학력	중졸이하	40	10.5	10	2.5
	고졸	99	26.0	103	25.2
	대졸이상	77	20.2	112	27.5
	모름	153	40.2	180	44.1
	안계심	12	3.1	3	0.7
	합계	381	100.0	408	100.0

※ 결측치가 모두 다름

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머니의 특성

1) 출신국과 의사소통 실태

다문화가족 아동 어머니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일본은 47.7%, 중국 (조선족)이 23.3%, 필리핀 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부모 출신국으로는 일본 36.4%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17.3%, 필리핀 17.1%, 조선족 12.1%의 순으로 나타났다¹²⁾. 이는 초·중·고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부모출신국별 현황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일본의

12)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초등학생과 중학생만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부모의 출신국적으로는 일본 32.2%, 필리핀 19.5%, 중국 17.7%, 조선족 12.8%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일본 48.7%, 중국 16.3%, 조선족 11.6%, 필리핀 9.3%로 나타났다.

비율은 높은 반면 한족의 비율은 낮게 조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은 서툰다는 비율은 6.3%로 대부분의 어머니가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잘한다’는 응답은 37.9%, ‘약간 잘함’ 35.6%, ‘보통’ 20.3%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은 어머니와 대부분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한국말과 어머니의 모국어를 섞어 쓰는 경우에는 반반 섞어 쓰는 경우가 16.7%, 모의 출신국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2.9%, 모의 출신국 언어로 대부분 의사소통 하는 경우가 1.7%로 나타났다.

〈표 4-3〉 다문화가족 아동 어머니의 출신국 및 의사소통 실태

N= 386

구분		N	%
모의 출신국	일본	184	47.7
	중국(조선족)	90	23.3
	필리핀	62	16.1
	베트남	11	2.8
	중국(한족)	10	2.6
	태국	9	2.3
	몽골	5	1.3
	캄보디아	5	1.3
	기타	10	2.6
	합계	386	100.0
모의 한국어 수준	매우 서툰	3	0.8
	약간 서툰	21	5.5
	보통	78	20.3
	약간 잘함	137	35.6
	매우 잘함	146	37.9
	합계	385	100.0
모와의 의사소통 언어	한국말로만	168	48.3
	한국말이 대부분	106	30.5
	한국말 + 모의 출신국 언어	58	16.7
	한국말 약간 + 모의 출신국 언어	10	2.9
	모의 출신국 언어로 대부분	6	1.7
	합계	348	100.0

※ 결측치가 모두 다름

2) 다문화가족 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족 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76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차이를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신국가($F=3.539$, $P<.05$), 본인의 학력($F=11.558$, $p<.001$) 배우자의 학력($F=6.267$, $P<.01$), 취업유무($F=10.825$, $p<.001$), 월평균 가구소득($F=3.363$, $p<.05$)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또한 배우자의 학력이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또한 취업하고 있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인 월평균 가구소득도 자아존중감에 차이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소득이 높은 가구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다문화가족 아동 어머니의 출신국적이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보다 오히려 소수의 국적을 가진 어머니들이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추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4〉 다문화가족 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N=334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전체		3.76	0.54	328	-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3.53	0.54	13	1.234
	5-10년 미만	3.98	0.50	13	
	10-15년 미만	3.78	0.53	138	
	15-20년 미만	3.76	0.56	131	
	20년 이상	3.71	0.51	33	
어머니 출신국가	일본 a	3.80	0.49	158	3.539*
	중국동포 및 한족 a	3.73	0.62	85	
	동남아시아 a	3.65	0.50	72	
	기타 b	4.13	0.67	13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본인 학력	중졸이하 a	3.49	0.64	41	11.558***
	고졸 b	3.71	0.51	149	
	대졸이상 c	3.91	0.49	137	
배우자 학력	중졸이하 a	3.57	0.56	74	6.267**
	고졸 b	3.81	0.52	156	
	대졸이상 b	3.84	0.54	87	
취업유무	취업	3.85	0.53	198	10.825***
	미취업	3.65	0.54	115	
배우자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고용주	3.83	0.47	139	1.263
	임시직	3.69	0.65	75	
	자영업자	3.79	0.47	42	
	기타(실업자 등)	3.71	0.66	34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a	3.62	0.61	53	3.363*
	100-200미만 ab	3.72	0.51	109	
	200-300미만 ab	3.79	0.56	78	
	300이상 b	3.92	0.48	64	
지역구분	대도시	3.76	0.72	29	.095
	중소도시	3.78	0.53	125	
	농어촌	3.75	0.51	174	

주: 1) 출신국가: 동남아시아(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기타(대만, 몽골, 러시아, 페루, 과테말라, 홍콩, 방글라데시, 리투아니아 등)

2) *p<.05, **p<.01, ***p<.001

제2절 다문화가족 아동 정서실태

본 절에서는 아동의 고민, 우울정도, 자아존중감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서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우선 다문화 여부, 즉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차이를 비교해본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아동집단 내의 다양한 특성(변인)을 탐색해보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아동만이 가지고 있는 가족 특성에 따른 심리사회 적응 차이를 분석해 본다.

아동의 우울은 Kovacs와 Beck¹³⁾의 아동우울척도(CDI: Children

13) Kovacs, M., & Beck, A.T.(1977). An emperical-clinicla approach toward a definiton of Childhood depression. In J. G. Schulterbrant & A. Raskin(Eds.),

Depression Inventory) 27문항을 사용하였고,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¹⁴⁾ 1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척도의 신뢰도는 .936과 .822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4-5〉 정서 관련 척도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우울	27(27)	1.34	0.34	.936
자아존중감	10(4)	3.64	0.68	.822

주: 1) 우울 척도는 3점 척도로 ‘항상그렇다(1점), 가끔그렇다(2점), 그렇지 않다(3점)’으로 배점하여 점수를 평정화하였음. 분석을 위해 점수는 모두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우울이 높음.
 2) 자아존중감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그렇지않다(1점)’~‘매우그렇다(5점)’으로 배점하여 점수를 평정화하였음.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
 3) ()는 역코딩 문항수

1. 아동의 고민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의 주요고민거리를 비교해보면 두 집단 모두 고민거리가 없다는 비율이 40%이상을 차지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고민거리로는 공부가 26.0%로 가장 많았으며, 장래진로가 18.5%의 순을 차지하였다. 일반아동의 고민거리로는 공부가 29.8%, 장래진로 17.1%로 다문화가족 아동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Depression in Childhood: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pp. 1-25). New York: Raven Press.
 14)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strument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Morris Rosenberg.

〈표 4-6〉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의 주요 고민거리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사례수	%	사례수	%
외모	13	3.4	14	3.4
동성친구	7	1.8	8	2.0
공부	100	26.0	122	29.8
장래진로	71	18.5	70	17.1
부모님(가정불화)	7	1.8	6	1.5
경제적 어려움	12	3.1	6	1.5
이성친구	11	2.9	13	3.2
주변의 냉대와 차별	2	0.5	1	0.2
없음	161	41.9	169	41.2
기타	-	-	1	0.2
계	384	100.0	410	100.0
χ^2	na			

고민을 의논하는 대상으로는 다문화가족 아동은 어머니 38.4%, 친구 26.9%, 형제가 9.4%, 아버지 8.1%의 순이며 일반아동의 경우는 어머니 46.2%, 친구 24.9%, 형제 7.8%, 아버지 6.1%의 순으로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가족원과 상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가족원 중에서도 어머니와 상의하는 비중이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표 4-7〉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의 고민의논 대상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사례수	%	사례수	%
어머니	147	38.4	189	46.2
아버지	31	8.1	25	6.1
형제/자매	36	9.4	32	7.8
친구/선배	103	26.9	102	24.9
할머니/할아버지/친척	7	1.9	8	1.9
선생님	3	0.8	4	1.0
없음	56	14.6	49	12.0
계	383	100.0	409	100.0
χ^2	na			

2. 우울

가.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우울 비교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우울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8〉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 아동의 우울 차이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t값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우울	1.34	.34	386	1.34	.34	410	-.138

아동 및 가구의 특성을 통제하고도 다문화 여부에 따라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 학년, 부의학력, 경제적 수준 네 요인을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인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 여부(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공변인 중에서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아동의 우울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변인 분산분석 결과를 통해 아동의 성별, 학년, 부의학력 영향을 배제하고도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우울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의 경제적 수준도 아동의 우울에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다문화 여부와 경제수준은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4-9〉 다문화 여부에 따른 우울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

변량원(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인	성별	0.09	1	0.09	0.90
	학년	0.13	1	0.13	1.36
	부의학력	0.01	1	0.01	0.09
	경제수준	1.37	1	1.37	14.48***
주효과	다문화 여부	0.44	1	0.44	4.65*
집단내(오차)		41.07	433	0.09	
합계		804.09	439		

〈표 4-10〉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특성에 따른 우울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성별	남	1.36	0.36	203	1.32	0.33	196
	여	1.31	0.32	183	1.36	0.35	214
학년별	초저(3-4학년)	1.40	0.41	120	1.27	0.29	119
	초고(5-6학년)	1.29	0.34	94	1.25	0.29	103
	중(1-3학년)	1.33	0.28	171	1.43	0.38	188
아버지 학력	중졸	1.40	0.37	40	1.43	0.35	10
	고졸	1.27	0.25	99	1.30	0.32	103
	대졸이상	1.30	0.29	77	1.34	0.34	112
주관적 경제수준	어려운 편임	1.41	0.43	61	1.62	0.38	30
	보통	1.33	0.30	247	1.34	0.32	230
	잘 사는 편임	1.33	0.38	77	1.28	0.35	146

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우울 차이 분석

여기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우울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기본적 특성인 성별, 학년에 따른 차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머니의 출신국, 한국거주기간 등 어머니에 특성에 따른 차이, 부의 학력, 경제활동상태 등 아버지의 특성, 가족의 경제적 수준 및 지역 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은 아동의 학년, 어머니 출신국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생보다 우울이 낮았으며,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외 국가인 경우가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

N=334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전체		1.33	.33	334	-
성	남	1.35	0.34	172	.008
	여	1.31	0.32	162	
학년	초저(3-4학년) a	1.38	0.39	98	6.743***
	초고(5-6학년) b	1.27	0.34	74	
	중(1-3학년) a	1.33	0.28	161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1.23	0.20	13	2.043
	5-10년 미만	1.55	0.68	14	
	10-15년 미만	1.32	0.32	141	
	15-20년 미만	1.35	0.28	131	
	20년 이상	1.30	0.32	35	
어머니 출신국가	일본 a	1.35	0.28	161	3.853**
	중국동포 및 한족 a	1.25	0.33	88	
	동남아시아 a	1.35	0.35	72	
	기타 b	1.55	0.55	13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1.31	0.32	42	.164
	고졸	1.34	0.34	151	
	대졸이상	1.33	0.32	140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1.38	0.32	76	1.178
	고졸	1.31	0.33	158	
	대졸이상	1.33	0.33	87	
어머니 취업유무	취업	1.35	0.35	201	1.872
	미취업	1.30	0.29	116	
아버지 경찰상태	상용직, 고용주	1.34	0.34	140	.635
	임시직	1.30	0.29	78	
	자영업자	1.34	0.31	42	
	기타(실업자 등)	1.39	0.43	34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1.27	0.30	56	1.365
	100-200미만	1.36	0.31	110	
	200-300미만	1.37	0.36	78	
	300이상	1.30	0.33	64	
지역구분	대도시	1.28	0.32	30	2.849
	중소도시	1.35	0.37	127	
	농어촌	1.33	0.30	177	

주: 1) 출신국가 :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기타: 대만, 몽골, 러시아, 페루, 과테말라, 홍콩, 방글라데시, 리투아니아 등

2) **p<.01, ***p<.001 / a,b,c 다른 집단임.

2. 자아존중감

가.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 아동의 자아존중감 차이

다문화가족 아동($M=3.60$)과 일반아동($M=3.69$)의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t=-1.997$, $p<.05$)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

〈표 4-12〉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 아동의 자아존중감 차이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t값
	M	SD	N	M	SD	N	
자아존중감	3.60	.65	386	3.69	.70	408	-1.997*

아동 및 가구의 특성을 통제하고도 다문화 여부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공변인 분산분석한 결과 주효과인 다문화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공변인 중에서 아동의 학년과 경제적 수준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변인 분산분석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은 다문화 여부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아동의 학년과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다문화 여부만이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차이를 주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표 4-13〉 다문화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

변량원(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인	성별	0.51	1	0.51	1.18
	학년	3.06	1	3.06	7.06**
	부의학력	1.57	1	1.57	3.64
	경제수준	6.58	1	6.58	15.20***
주효과	다문화 여부	1.21	1	1.21	2.79
집단내(오차)		186.93	432	0.43	
합계		6349.23	438		

주: ** $p<.01$, *** $p<.001$

〈표 4-14〉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성별	남	3.56	0.67	203	3.66	0.67	195
	여	3.63	0.62	183	3.71	0.73	213
학년별	초저(3-4학년)	3.53	0.68	120	3.87	0.76	118
	초고(5-6학년)	3.63	0.68	94	3.87	0.68	103
	중(1-3학년)	3.63	0.61	171	3.48	0.61	187
아버지 학력	중졸	3.46	0.59	40	3.38	0.47	10
	고졸	3.76	0.63	99	3.79	0.73	103
	대졸이상	3.86	0.68	77	3.75	0.70	111
주관적 경제수준	어려운 편임	3.45	0.66	61	3.32	0.59	30
	보통	3.61	0.63	247	3.59	0.63	229
	잘 사는 편임	3.68	0.69	77	3.93	0.75	145

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다문화가족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출신국가, 아버지의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변수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출신국이 중국인 경우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며, 동남아시아와 기타국가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이 중졸인 경우가 고졸이상인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다문화가족 아동의 200만원 미만인 가구인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5〉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N=334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전체		3.60	.65	334	-
성	남	3.56	0.67	172	1.248
	여	3.64	0.63	162	
학년	초저(3-4학년)	3.52	0.69	98	1.176
	초고(5-6학년)	3.67	0.69	74	
	중(1-3학년)	3.61	0.61	161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3.52	0.44	13	1.749
	5-10년 미만	3.56	0.97	14	
	10-15년 미만	3.62	0.68	141	
	15-20년 미만	3.52	0.60	131	
	20년 이상	3.83	0.59	35	
어머니 출신국가	일본 ab	3.62	0.61	161	4.639**
	중국동포 및 한족 a	3.75	0.68	88	
	동남아시아 b	3.39	0.60	72	
	기타 b	3.40	0.94	13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3.56	0.65	42	.946
	고졸	3.55	0.64	151	
	대졸이상	3.66	0.67	140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a	3.41	0.59	76	4.058*
	고졸 b	3.65	0.63	158	
	대졸이상 b	3.65	0.68	87	
어머니 취업유무	취업	3.53	0.63	201	2.247
	미취업	3.64	0.64	116	
아버지 생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3.62	0.66	140	.546
	임시직	3.57	0.62	78	
	자영업자	3.61	0.68	42	
	기타(실업자 등)	3.47	0.55	34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a	3.47	0.63	56	2.597*
	100-200미만 a	3.58	0.64	110	
	200-300미만 ab	3.52	0.61	78	
	300이상 b	3.77	0.69	64	
지역구분	대도시	3.73	0.63	30	1.327
	중소도시	3.53	0.63	127	
	농어촌	3.62	0.66	177	

주 1) 출신국가 :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기타: 대만, 몽골, 러시아, 페루, 파테말라, 홍콩, 방글라데시, 리투아니아 등

2) *p<.05, **p<.01 / a,b,c 다른 집단임.

제3절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지지 실태

본 절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지지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을 가족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미현(1996)의 연구¹⁵⁾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척도¹⁶⁾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각각의 하위 영역은 8문항으로 모두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신뢰도는 .946, .882, .898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6〉 사회적 지지 관련 척도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가족 지지	8(1)	3.99	0.90	.946
친구 지지	8	3.48	0.72	.882
교사 지지	8(2)	3.50	0.81	.898

주: 1) 사회적 지지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그렇지않다(1점)’~‘매우그렇다(5점)’으로 배점하여 점수를 평정화하였음. 점수가 높을 수록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 지지가 높음.

2) ()는 역코딩 문항수.

1. 가족 지지

가.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족지지 비교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족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문화가족 아동($M=3.90$)에 비해 일반아동($M=4.07$)의 가족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t=-2.636$, $p<.01$)

15)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6) Dubow와 Ulman(1989)이 제작한 아동용 사회적 지지척도¹⁾와 Cohen과 Hoberman(1983)이 제작한 대인간 지지평가척도, Lemper와 동료들(1989)의 부모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척도. 자세한 내용은 한미현(1996) 연구 참고

〈표 4-17〉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족지지 차이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t값
	M	SD	N	M	SD	N	
가족지지	3.90	.91	386	4.07	.88	409	-2.636**

주: **p<.01

아동 및 가구의 특성을 통제하고도 다문화 여부에 따라 아동의 가족 지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공변인 분산분석한 결과 주효과인 다문화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공변인 중에서 아동의 학년과 경제적 수준은 아동의 가족 지지에 차이를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변인 분산분석 결과를 통해 가족의 지지는 다문화 여부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아동의 학년과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다문화 여부만이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족지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8〉 다문화 여부에 따른 가족지지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

변량원(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인	성별	0.15	1	0.15	0.20
	학년	5.28	1	5.28	7.14**
	부의학력	0.38	1	0.38	0.51
	경제수준	8.75	1	8.75	11.82***
주효과	다문화 여부	0.29	1	0.29	0.39
집단내(오차)		320.56	433	0.74	
합계		7482.19	439		

주: **p<.01, ***p<.001

〈표 4-19〉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족 지지 차이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성별	남	3.81	0.94	203	4.10	0.85	195
	여	3.99	0.88	183	4.03	0.91	214
학년별	초저(3-4학년)	3.81	1.02	120	4.31	0.81	119
	초고(5-6학년)	4.00	0.99	94	4.23	0.92	102
	중(1-3학년)	3.91	0.79	171	3.83	0.85	188
아버지 학력	중졸	4.01	0.87	40	3.71	0.82	10
	고졸	3.93	0.89	99	4.03	0.88	103
	대졸이상	4.09	0.81	77	4.12	0.94	112
주관적 경제수준	어려운 편임	3.68	0.92	61	3.48	0.72	30
	보통	3.88	0.89	247	3.99	0.86	229
	잘 사는 편임	4.11	0.96	77	4.30	0.88	146

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차이 분석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지지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출신국가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출신의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가족지지가 가장 낮았으며 기타 소수국가 출신의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지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중졸인 경우 가족지지가 가장 낮았으며 고졸이상의 다문화가족 아동의 지지가 가장 높아서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지지

N=334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값
전체		3.91	.90	334	-
성	남	3.82	0.91	172	3.022
	여	3.99	0.88	162	
학년	초저(3-4학년)	3.78	1.01	98	2.781
	초고(5-6학년)	4.10	0.92	74	
	중(1-3학년)	3.89	0.80	161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3.99	0.72	13	.728
	5-10년 미만	3.73	1.18	14	
	10-15년 미만	3.94	0.91	141	
	15-20년 미만	3.84	0.87	131	
	20년 이상	4.08	0.90	35	
어머니 출신국가	일본 ab	3.92	0.85	161	2.580*
	중국동포 및 한족 ab	3.99	0.95	88	
	동남아시아 a	3.69	0.87	72	
	기타 b	4.32	1.09	13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3.87	0.85	42	.111
	고졸	3.89	0.91	151	
	대졸이상	3.93	0.91	140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a	3.73	0.84	76	3.260*
	고졸 ab	3.86	0.96	158	
	대졸이상 b	4.08	0.82	87	
어머니 취업유무	취업	3.90	0.90	201	.001
	미취업	3.90	0.86	116	
아버지 생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4.02	0.86	140	1.518
	임시직	3.79	0.91	78	
	자영업자	3.82	1.00	42	
	기타(실업자 등)	3.78	0.83	34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89	0.83	56	1.721
	100-200미만	3.80	0.93	110	
	200-300미만	3.84	0.93	78	
	300이상	4.11	0.81	64	
지역구분	대도시	4.18	0.97	30	1.586
	중소도시	3.90	0.87	127	
	농어촌	3.86	0.91	177	

주: 1) 출신국가 :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기타: 대만, 몽골, 러시아, 페루, 과테말라, 홍콩, 방글라데시, 라투아니아 등

2) *p<.05 / a,b,c 다른 집단임.

2. 친구지지

가.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친구지지 차이 비교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친구지지는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1〉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친구지지 차이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t값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친구지지	3.48	.74	385	3.49	.69	409	-.269

아동 및 가구의 특성을 통제하고도 다문화 여부에 따라 아동의 가족 지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공변인 분산분석한 결과 주효과인 다문화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공변인 중에서 아동의 경제적 수준은 아동의 친구 지지에 차이를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4-22〉 다문화 여부에 따른 친구지지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

변량원(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인	성별	0.57	1	0.57	1.18
	학년	0.03	1	0.03	0.07
	부의학력	0.12	1	0.12	0.26
	경제수준	1.83	1	1.83	3.79*
주효과	다문화 여부	1.07	1	1.07	2.21
집단내(오차)		209.25	433	0.48	
합계		5823.27	439		

주: *p<.05

〈표 4-23〉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특성에 따른 친구지지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성별	남	3.45	0.74	202	3.43	0.72	195
	여	3.50	0.74	183	3.55	0.67	214
학년별	초저(3-4학년)	3.31	0.84	119	3.51	0.71	119
	초고(5-6학년)	3.55	0.73	94	3.64	0.74	102
	중(1-3학년)	3.54	0.64	171	3.39	0.65	188
아버지 학력	중졸	3.60	0.67	40	3.56	0.78	10
	고졸	3.60	0.67	99	3.56	0.70	103
	대졸이상	3.63	0.73	77	3.51	0.71	112
주관적 경제수준	어려운 편임	3.35	0.75	61	3.15	0.45	30
	보통	3.50	0.71	247	3.46	0.66	229
	잘 사는 편임	3.51	0.81	76	3.61	0.78	146

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친구지지 차이 분석

다문화가족 아동의 친구지지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학년과 지역구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년이 높을수록 친구 지지는 높아져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친구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아동에 비해 친구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다문화가족 아동의 친구지지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전체		3.47	0.73	333	-
성	남	3.44	0.73	171	.777
	여	3.51	0.73	162	
학년	초저(3-4학년) a	3.30	0.81	97	4.095*
	초고(5-6학년) b	3.58	0.74	74	
	중(1-3학년) b	3.52	0.65	161	

N=334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어머니 출신국가	일본	3.50	0.68	161	.937
	중국동포 및 한족	3.50	0.79	88	
	동남아시아	3.41	0.67	71	
	기타	3.20	1.13	13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3.37	0.67	42	.524
	고졸	3.50	0.75	151	
	대졸이상	3.48	0.73	139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36	0.69	76	1.032
	고졸	3.50	0.75	158	
	대졸이상	3.49	0.72	86	
어머니 취업유무	취업	3.43	0.74	201	1.297
	미취업	3.48	0.69	115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3.52	0.79	13	2.119
	5-10년 미만	3.64	1.18	14	
	10-15년 미만	3.37	0.77	140	
	15-20년 미만	3.48	0.64	131	
	20년 이상	3.75	0.56	35	
아버지 생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3.50	0.68	140	.333
	임시직	3.45	0.73	77	
	자영업자	3.41	0.80	42	
	기타(실업자 등)	3.38	0.91	34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36	0.64	56	1.756
	100-200미만	3.54	0.74	110	
	200-300미만	3.33	0.71	77	
	300이상	3.51	0.77	64	
지역구분	대도시 a	3.95	0.67	30	7.364***
	중소도시 b	3.34	0.77	126	
	농어촌 b	3.49	0.67	177	

주: 1) 출신국가 :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기타: 대만, 몽골, 러시아, 페루, 과테말라, 홍콩, 방글라데시, 리투아니아 등

2) *p<.05, ***p<.001 / a,b,c 다른 집단임

3. 교사 지지

가.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교사 지지 차이 분석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교사지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5〉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교사 지지 차이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t값
	M	SD	N	M	SD	N	
교사지지	3.46	.76	386	3.54	.86	409	-1.405

아동 및 가구의 특성을 통제하고도 다문화 여부에 따라 아동의 교사 지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공변인 분산분석한 결과 주효과인 다문화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공변인 중에서 아동의 학년은 아동의 교사지지에 차이를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4-26〉 다문화 여부에 따른 교사지지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

변량원(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인	성별	1.41	1	1.41	2.17
	학년	3.32	1	3.32	5.11*
	부의학력	1.80	1	1.80	2.76
	경제수준	1.93	1	1.93	2.96
주효과	다문화 여부	0.12	1	0.12	0.18
집단내(오차)		281.75	433	0.65	
합계		5948.64	439		

주: * $p<.05$

〈표 4-27〉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교사 지지 차이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M	SD	N	M	SD	N
성별	남	3.38	0.76	203	3.49	0.85	195
	여	3.55	0.74	183	3.59	0.87	214
학년별	초저(3-4학년)	3.39	0.81	120	3.67	0.93	119
	초고(5-6학년)	3.53	0.80	94	3.78	0.85	102
	중(1-3학년)	3.48	0.69	171	3.33	0.77	188
아버지 학력	중졸	3.26	0.83	40	3.35	0.90	10
	고졸	3.61	0.74	99	3.63	0.87	103
	대졸이상	3.65	0.69	77	3.62	0.88	112
주관적 경제수준	어려운 편임	3.32	0.76	61	3.10	0.61	30
	보통	3.49	0.71	247	3.47	0.85	229
	잘 사는 편임	3.45	0.89	77	3.74	0.88	146

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사 지지 차이 분석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사 지지는 아동의 성별,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지지가 높았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농촌에 비해 교사의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표 4-28〉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사지지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전체		3.45	.75	334	-
성	남	3.36	0.78	172	5.713*
	여	3.55	0.71	162	
학년	초저(3-4학년)	3.34	0.80	98	2.016
	초고(5-6학년)	3.58	0.79	74	
	중(1-3학년)	3.46	0.70	161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3.48	0.61	13	.913
	5-10년 미만	3.13	0.75	14	
	10-15년 미만	3.43	0.80	141	
	15-20년 미만	3.47	0.72	131	
	20년 이상	3.58	0.72	35	

N=334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어머니 출신국가	일본	3.47	0.71	161	1.108
	중국동포 및 한족	3.53	0.84	88	
	동남아시아	3.32	0.73	72	
	기타	3.49	0.76	13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3.44	0.67	42	.455
	고졸	3.41	0.77	151	
	대졸이상	3.50	0.76	140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32	0.74	76	1.207
	고졸	3.48	0.76	158	
	대졸이상	3.46	0.76	87	
어머니 취업유무	취업	3.41	0.75	201	.848
	미취업	3.49	0.76	116	
아버지 생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3.46	0.75	140	.555
	임시직	3.47	0.76	78	
	자영업자	3.38	0.79	42	
	기타(실업자 등)	3.30	0.77	34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46	0.75	56	1.520
	100-200미만	3.41	0.72	110	
	200-300미만	3.36	0.71	78	
	300이상	3.61	0.79	64	
지역구분	대도시 a	3.92	0.75	30	7.364***
	중소도시 a	3.46	0.68	127	
	농어촌 b	3.36	0.78	177	

주: 1) 출신국가 :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기타: 대만, 몽골, 러시아, 페루, 과테말라, 홍콩, 방글라데시, 리투아니아 등

2) * $p<.05$, *** $p<.001$ / a,b,c 다른 집단임.

제4절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파악하고자 앞 절의 분석결과와 선행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머니 특성 및 가족환경과 사회적 지지를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어머니 특성 및 가족환경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이 적합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출신국가($\beta=.213$, $p<.001$)와 아버지의 학력($\beta=.213$, $p<.001$)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과 중국 출신의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중졸이하의 저학력 아버지를 둔 아동보다 고졸이상의 학력을 둔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4-29〉 어머니 및 가족환경 특성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β	t	F	R ²
어머니 특성	출신국	.139	2.309*	4.786***	.076
	한국어 실력	.071	1.103		
	자아존중감	.042	.665		
부의 학력		.122	2.077*		
경제적 수준		.098	1.690		

주: *** $p<.001$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가족($\beta=.305$, $p<.001$), 친구($\beta=.244$, $p<.001$), 교사 지지($\beta=.255$, $p<.001$) 모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30〉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β	t	F	R ²
가족 지지	.305	5.768***	83.948***	.428
친구 지지	.244	4.897***		
교사 지지	.255	4.996***		

주: *** $p<.001$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 살펴본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응 실태를 통해 살펴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우울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변인 분산분석결과 공변인 중에서 경제적 수준이 차이를 보인 변수였으며 다문화 여부의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우울은 경제적 수준과 다문화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내에서도 학년과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아동의 우울은 가족의 경제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에 대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과 어머니의 출신국이 비교적 소수인 아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일반아동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단순히 다문화 여부에 따른 차이에 따른 결과라 단정할 수 없다. 공변인 분산분석결과에서는 주관적 경제수준과 부의학력이 오히려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차이를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아동집단 내에서도 부모 및 가족의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를 보인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아동내에서도 어머니의 출신국가, 아버지의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아동 중에서도 부모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아동 및 가족 대상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다른 출신국에 비해 소수만이 한국내 거주하여 살고 있는 국가의 출신이 어머니를 가진 아동,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아동,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자아존중감은 최근 인생의 성공에서 꼭 필요한 핵심요소라 하여 주목될 만큼 아동의 다른 정서발달 및 관계 등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언어발달 지원 혹은 학업성취 지원 프로그램 위주에서 벗어나, 아동의 자아존중감 등 개인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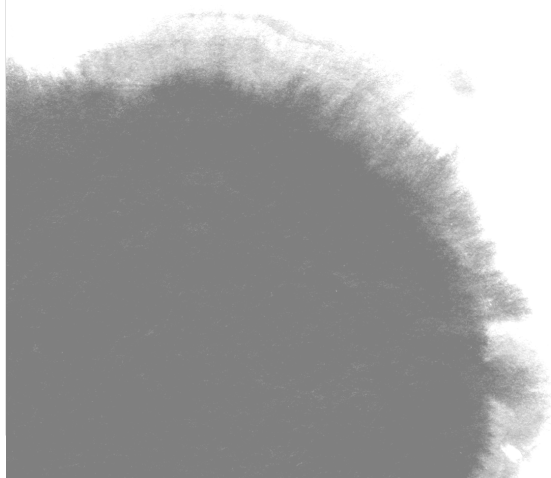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셋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높여주는 것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아동이 겪고 있는 다른 문제들에 대한 지원책으로서도 필요하다.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영유아기와 달리 가족과 더불어 학교에서의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 친구, 교사 지지 모든 변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이 맺고 있는 어느 한 사회적 관계와 지지만을 별개로 떼어내어 지원하는 것보다 총체적으로 접근하면 다문화가족 아동의 전체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족, 친구, 교사 모든 사회적 지지가 아동에게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 지지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가족지지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족지지의 차이는 공변인 분산분석결과 다문화 여부보다 부의학력과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 내에서도 가족지지는 부모의 출신국과 부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출신국이 동남아시아인 아동과 부의 학력이 낮은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

지지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의 지지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노출된 아동을 정서적,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방패나 완충역할을 하기에 아동의 위기나 변화에 적응을 도와준다. 따라서 .심리적 적응력이 낮거나 힘든 아동에게는 반드시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족지지도가 낮은 다문화 가족 내 구성원 특히 부모에게는 가족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05

다문화가족 이동의 가족생활적응 실태



제5장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생활적응 실태

본 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생활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이 높은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가족응집력 및 가족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의 양육환경은 가족과 부모의 특성 및 양육관 등과 관련이 높으므로, 가족형태 및 동거가족 유형, 부모의 일반특성 및 사회경제적 배경,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양육관 및 양육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적응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한 부모자녀관계는 친밀도, 대화·의사소통 정도, 믿고 이해하는 정도, 자녀가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자녀의 여가 및 문화생활 등 5개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부모와의 애착도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머니의 애착도와 아버지의 애착도를 별도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가족적응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인 가족응집력은 가족간의 몰입,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원의 적응력 등 3개 하위영역별로 분석하였고 아동과 비교분석하여 양방에서 가족응집력을 파악하였다. 또한 가족적응의 반대현상인 가족갈등 수준과 요인 등을 파악하여 가족적응의 장애요인을 도출하였다.

제1 절 가족의 양육환경

1. 가족형태 및 자녀규모

본 조사결과 완료된 여성 결혼이민자는 334명¹⁾으로 가족형태 및 자

녀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의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76.7%로 3분의 2 이상이 해당되었고, 3세대 가구는 16.1%로 일부에 불과하였고, 한부모가족과 기타 가족은 미미하였다. 자녀수는 1~2명이 50.3%로 과반수가 해당되었고, 3~4명은 30.9%로 3분의 1에 약간 못 미쳤고, 5명 이상은 약 19%로 거의 5분의 1 정도 해당되었다. 평균 자녀수는 2.7명으로 나타났다.

〈표 5-1〉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형태 및 동거가족 규모

(단위: %, 명)

특성		백분율	사례수
전체		100.0	334
가족유형	부부+자녀	76.7	247
	한부모+자녀	5.9	19
	3세대 가구	16.1	52
	기타	1.2	4
총 자녀수	1~2명	50.3	166
	3~4명	30.9	102
	5명 이상	18.8	62
	평균(표준편차)	2.69(1.122)	

주: 가족유형 기타에는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삼촌, 한부모+자녀+시아머니 포함.

2. 부모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배경

가. 부모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결과 완료된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9.0%에 불과하였고, 중소도시는 36.8%로 3분의 1이 거주하였으며, 농·어촌지역은 54.2%로 과반수 이상이 거주하였다. 결혼 전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일본출신이 49.4%로 거의 과반수에 해당되었고, 중국 조선족 및 한족 출신은 27.0%로 4분의 1 정도 분포하였고, 동남아시아 출신은 22.1%로 5분의 1에 해당되었으며, 기타국가 출신은 미미하였다.

- 17) 본 조사완료된 여성결혼이민자 334명은 우리나라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120,140명의 0.3%의 수준임(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표 5-2〉 다문화가족 아동 부모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년, 세)

특성		백분율	사례수
전체		100.0	334
지역구분	대도시	9.0	30
	중소도시	36.8	123
	농어촌	54.2	181
결혼 전 국적	일본	49.4	161
	중국동포 및 한족	27.0	88
	동남아시아	22.1	72
	기타	1.5	5
한국거주기간	5년 미만	4.0	13
	5-10년 미만	4.3	14
	10-15년 미만	42.9	140
	15-20년 미만	40.2	131
	20년 이상	8.6	28
	평균(표준편차)	14.24(4.18350)	
국적취득여부	국적취득	47.5	155
	국적 미취득	52.5	171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2.4	8
	30~39세	26.5	88
	40~49세	60.5	201
	50~59세	10.5	35
	평균(표준편차)	42.31(5.756)	
배우자 연령	30~39세	6.3	20
	40~49세	63.2	199
	50~59세	30.2	95
	60세 이상	0.3	1
	평균(표준편차)	46.81(4.899)	
결혼상태	유배우	93.4	310
	이혼	1.8	6
	별거	0.9	3
	사별	3.9	13
종교	기독교	13.5	43
	천주교	5.6	18
	불교	5.6	18
	무교	21.3	68
	이슬람	0.9	3
	통일교	52.0	166
	기타	0.9	3

주: 1) 결혼 전 국적 및 해당자녀 출생 국가 기타: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포함,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포함; 2) 종교 기타에는 선단, 여호와의 증인 포함.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일본에 편중되며 일부는 중국 조선족 및 한족 그리고 동남아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¹⁸⁾와는 다르게 나타나서 일본이 과대 표집되었고, 중국조선족과 한족은 과소표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은 10년 미만이 8.3%에 불과하였고, 10~15년 미만은 42.9%, 15~20년 미만이 40.2%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83.1%가 10~20년 정도 거주하였고,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8.6%로 미미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14.24년으로 나타나서 우리사회 적응측면이나 결혼생활도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평균 거주기간인 5.1년보다 약 3배 정도 오래 거주한 집단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표집 되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여부는 국적을 취득한 비율이 47.5%, 미취득은 52.5%로 과반수를 초과하여 거주기간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모국적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분포는 30대와 40대 연령층이 87.0%로 대다수에 해당되었고, 특히 40대 연령층이 60.5%로 과반수를 훨씬 초과하였으며, 나머지 연령층은 미미하였다. 평균 연령은 42.3%세로 대부분이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¹⁹⁾. 배우자 연령은 40대와 50대 연령층이 93.4%로 대다수가 분포하였고, 특히 40대 연령층이 63.2%로 과반수를 넘어서 여성 결혼이민자와 비슷하였고, 나머지 연령층은 낮았다²⁰⁾. 평균연령은 46.8세로 대다수가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 표집된 여성 결혼이민

18)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결과, 중국(조선족)은 3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국한족(27.5%), 베트남 21.0%, 필리핀(7.1%), 일본(4.3%), 기타(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19)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별 분포는 29세 이하 연령층이 41.3%, 30대와 40대 연령층은 52.4%, 50세 이상은 6.4%로 나타났다.

20)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연령분포는 29세 이하 연령층이 41.4%, 30대와 40대 연령층은 52.7%, 50세 이상은 5.8%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과 유사한 분포를 보임.

자와 배우자의 연령분포는 전체보다 연령층이 높았는데 이는 거주기간과 동일한 이유로 설명된다. 부부간의 연령 차이는 4.5세로 한국부부와 비슷한 연령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간의 연령차이인 9.9세의 절반에 불과하여 최근으로 오면서 부부간의 연령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짐작된다. 결혼 상태는 유배우가 93.4%로 대다수가 해당되었고, 이혼·별거·사별 등 해체가족은 6.6%로 상당히 미미하여서 다수의 가족이 안정적인 결혼형태를 보였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종교는 유교가 78.7%이었고, 무교는 21.3%로 유교가 약 4배 많았고, 종교 중에서는 통일교가 52.0%로 과반수를 초과하였는데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과반수가 일본 출신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기독교는 13.5%, 천주교와 불교는 모두 5.6%에 불과하였다.

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본 조사결과 완료된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57.9%, 대졸 이상이 45.3%로 고졸이하의 저학력자가 다소 많았다. 전체 여성결혼이민자는 고등학교 이하가 78.4%, 대학 이상은 20.6%로 표집된 여성결혼이민자가 전체보다 대졸이상이 약 2배 높았다.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72.9%, 대졸 이상이 27.1%로 고졸 이하의 저학력소지자가 2.7배 많았다.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는 고졸 이하가 78.3%, 대졸 이상이 21.7%로 유사하였다. 부부간의 학력차이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소지자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배우자보다 1.7배 높아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수준이 배우자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학력차이는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에 부(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가족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5-3〉 다문화가족 아동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단위: %, 명)

특성		백분율	사례수
전체		100.0	334
응답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12.6	42
	고졸	45.3	151
	대졸이상	42.0	140
배우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23.7	76
	고졸	49.2	158
	대졸이상	27.1	87
응답자 취업유무	취업	63.4	201
	비취업	36.6	116
배우자 경황상태	상용직, 고용주	47.6	140
	임시직	9.5	28
	자영업자	14.3	42
	기타(실업자 등)	28.6	84
배우자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7.5	23
	사무종사자	5.2	16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11.1	34
	기능원 및 장치	11.1	3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6.0	49
	단순노무자 및 기타	49.2	151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18.2	56
	100-200미만	35.7	110
	200-300미만	25.3	78
	300이상	20.8	64
주관적 경제수준	어려운 편임	47.9	156
	보통	46.9	153
	잘 사는 편임	5.2	17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수급	13.7	38
	비수급	86.3	240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유무는 취업이 63.4%로 과반수를 초과하였고, 비취업보다 1.7배 높았다. 전체 여성결혼이민자는 취업이 36.9%로 표집된 여성결혼이민자가 전체보다 1.7배 높았다.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자는 71.4%이었고, 비취업은 28.6%로 취업자가 2.5배 높았다.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취업은 85.6%로 표집된 여성결혼이민자보다 14.2%p 높았다. 취업자 중에서 상용직과 고용주의 비율은 47.6%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영세자영업자와 임시직은 23.8%로 나타나서 5분의 1 정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짐작된다. 배우자

의 직업은 단순노무자 및 기타가 49.2%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16.0%, 서비스·판매종사자와 기능원·장치 기계 조작 종사자는 22.2% 등이 분포하였으며,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배우자의 직업은 단순노무직에 편중되며 일부는 농림어업, 서비스판매 그리고 기능원·장치 기계조작 종사업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53.9%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200~300만원 미만은 25.3%로 4분의 1 정도이었으며, 300만원 이상은 20.8%로 5분의 1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조사 완료된 다문화가족의 과반수 정도는 경제상태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여성결혼이민자는 200만원 미만이 68.8%, 200~300만원 미만 21.2%, 300만원 이상은 10.1%로 표집된 여성결혼이민자는 전체보다 200만원 미만은 적는데 반해 300만원 이상은 높아서 소득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어려운 편이다가 47.9%, 보통도 46.9%로 비슷하였으며, 잘 사는 편은 5.2%에 불과하여 조사 완료된 다문화가족의 94.8%는 주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거나 보통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완료된 다문화가족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 비수급 가구는 86.3%로 수급이 상당히 낮았는데 월 평균 가구소득과 주관적인 경제수준에서 볼 때 다문화가족의 과반수 정도는 경제수준이 열악함에도 다수가 수급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빈곤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

본 조사결과 완료된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자녀 출산여부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출산한 경우는 95.3%로 대다수가 해당되었고, 여성 결혼이민자가 직접 출산하지 않은 경우는 4.7%에 불과하였다. 해당자녀의 출생 국가는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는 89.5%로

다수가 해당되었고,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는 10.5%로 10명 중 1명은 해외에서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일본이 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국, 동남아시아 순이었다.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의 입국년도는 2000년 이전이 39.3%로 거의 5분의 2에 해당되었고, 2000년 이후가 60.7%로 1.5배 많았다.

〈표 5-4〉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

(단위: %, 명)

특성		백분율	사례수
해당 자녀 출산 여부	본인이 출산	95.3	305
	본인이 출산하지 않음	4.7	15
해당자녀의 출생 국가	일본	6.2	20
	중국동포 및 한족	1.9	6
	동남아시아	1.2	4
	한국	89.5	290
	기타	1.2	4
해당자녀 입국년도	1990-1994년	3.6	1
	1995-1999년	35.7	10
	2000-2004년	39.3	11
	2005년 이후	21.4	6

주: 해당자녀의 출생국가 중 기타에는 러시아, 페루, 홍콩, 뉴질랜드 등이 포함됨.

3. 다문화가족의 건강상태 및 언어생활

가. 건강상태

여성 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는 3.12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였다.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여성 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는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지역, 결혼전 국적, 한국거주기간, 결혼이민자의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및 취업유무, 배우자의 결혼상태 및 직업은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건강상태가 2.96~3.33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건강상태

(단위: 점, 명)

특성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전체		3.12	.744	328	
지역구분	대도시	3.37	.809	30	1.950
	중소도시	3.07	.736	118	
	농어촌	3.12	.734	180	
결혼 전 국적	일본	3.17	.683	156	.704
	중국동포 및 한족	3.05	.843	88	
	동남아시아	3.07	.699	72	
	기타	3.00	1.225	5	
한국거주 기간	5년 미만	3.31	.947	13	1.561
	5-10년 미만	3.46	.967	13	
	10-15년 미만	3.14	.775	138	
	15-20년 미만	3.03	.667	131	
	20년 이상	3.24	.663	25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3.13	.835	8	1.293
	30~39세	3.23	.831	87	
	40~49세	3.11	.720	199	
	50~59세	2.94	.619	32	
결혼상태	유배우	3.12	.756	305	-0.387
	이혼·별거·사별	3.18	.588	22	
응답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2.95	.854	42	1.290
	고졸	3.14	.679	147	
	대졸 이상	3.16	.776	138	
응답자 취업유무	취업	3.16	.699	201	1.488
	비취업	3.04	.808	114	
배우자 경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3.24	.695	140	1.951
	임시직	3.04	.744	28	
	자영업자	3.07	.565	41	
	기타(실업자 등)	3.01	.843	84	
배우자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6	.541	23	0.700
	사무종사자	3.25	.775	16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2.94	.788	33	
	기능원 및 장치	3.09	.753	3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16	.688	49	
	단순노무자 및 기타	3.11	.776	151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2.96	.713	56	3.422*
	100-200미만	3.03	.642	110	
	200-300미만	3.18	.823	77	
	300이상	3.33	.736	64	

주: 1) 건강상태는 매우 나쁨, 나쁜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말함; 2) 결혼 전 국적에서 동남아시아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가 포함되며, 기타에는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가 포함됨; 3) 가족유형에서 기타에는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삼촌, 한부모+자녀+시아머니 포함.

나. 언어생활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말 실력수준은 3.46점으로 보통을 다소 상회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말 실력수준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 전 국적, 한국거주기간 및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지역, 결혼상태 및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6〉 여성 결혼이민자 특성별 한국말 실력 정도

		(단위: 점, 명)			
특성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전체		3.46	.862	329	
지역구분	대도시	3.30	1.149	30	2.421
	중소도시	3.36	.851	119	
	농어촌	3.56	.807	180	
결혼 전 국적	일본	3.46	.722	156	18.686***
	중국동포 및 한족	3.92	.925	88	
	동남아시아	2.97	.731	72	
	기타	3.20	1.643	5	
한국거주기간	5년 미만	2.62	1.193	13	3.632**
	5-10년 미만	3.54	1.050	13	
	10-15년 미만	3.54	.862	139	
	15-20년 미만	3.44	.776	131	
	20년 이상	3.52	.770	25	
응답자 연령	15~29세	2.50	.756	8	6.472***
	30~39세	3.60	.865	88	
	40~49세	3.50	.828	199	
	50~59세	3.09	.893	32	
결혼상태	유배우	3.50	.847	305	2.931
	이혼·별거·사별	2.95	.899	22	
응답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3.31	1.070	42	0.804
	고졸	3.49	.869	148	
	대졸이상	3.49	.776	138	
응답자 취업유무	취업	3.56	.865	201	2.301
	비취업	3.33	.856	115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27	1.036	56	1.314
	100-200미만	3.49	.798	110	
	200-300미만	3.55	.882	77	
	300이상	3.52	.756	64	

주: 1) 한국말 실력 정도는 매우 서툰, 서툰 편, 보통, 잘하는 편, 매우 잘함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말 실력이 높은 것을 말함; 2) 결혼 전 국적에서 동남아시아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가 포함되며, 기타에는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가 포함됨.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 전 국적별로는 중국동포 및 한족 출신이 3.9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 기타 국가, 동남아시아 출신 순

으로 한국말 실력수준이 높았다. 한국 거주기간별로는 5~10년 미만과 10~15년 미만이 모두 3.5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년 이상, 15~20년 미만 순으로 높아서 거주기간이 오래된 경우와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39세 연령층이 3.6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49세, 50~59세 그리고 15~29세 순으로 높아서 중장년층의 한국말 실력이 높았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와의 대화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73.8%로 3분의 2 이상이 해당되었고, 한국어와 모국어를 혼용하는 경우는 24.9%로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부부의 언어생활은 다수가 한국어를 사용하였고, 일부만이 한국어와 모국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이 오래되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다른 측면에서 부부간의 결혼생활 또는 부부관계가 다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이 아닌 동화주의적인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배우자와 대화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집단 간에 차이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자녀와 대화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60.7%로 절반 이상이었고, 한국어와 모국어를 혼용하는 경우는 36.4%로 3분의 1 정도이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부모와 아동의 언어생활은 과반수 이상이 한국어만을 사용하였고, 3분의 1 정도는 한국어와 모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 언어생활을 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이중 언어 생활은 아동에게 정체감 혼란을 야기하여 사회적응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자녀와 대화 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집단 간에 차이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표 5-7〉 부모특성별 배우자와 대화 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

(단위: %, 명)

특성		모국어만	거의 모국어, 가끔 한국어	모국어와 한국어 비슷	거의 한국어, 가끔 모국어	한국어만	계(수)
전체		1.3	2.7	5.6	16.6	73.8	100.0(301)
지역구분	대도시	3.8	3.8	11.5	19.2	61.5	100.0 (26)
	중소도시	0.0	2.8	5.5	15.6	76.1	100.0(109)
	농어촌	1.8	2.4	4.8	16.9	74.1	100.0(222)
결혼 전 국적	일본	1.4	0.7	4.1	16.4	77.4	100.0(146)
	중국동포 및 한족	1.2	2.5	2.5	9.9	84.0	100.0 (81)
	동남아시아	1.6	4.8	12.7	25.4	55.6	100.0 (63)
	기타	0.0	0.0	0.0	20.0	80.0	100.0 (5)
한국거주 기간	5년 미만	18.2	9.1	27.3	9.1	36.4	100.0 (11)
	5-10년 미만	0.0	0.0	9.1	18.2	72.7	100.0 (11)
	10-15년 미만	0.0	4.7	3.9	18.1	73.2	100.0(127)
	15-20년 미만	0.8	0.0	4.1	15.6	79.5	100.0(122)
	20년 이상	4.2	4.2	8.3	16.7	66.7	100.0 (24)
응답자 연령	15~29세	14.3	0.0	28.6	28.6	28.6	100.0 (7)
	30~39세	0.0	4.9	4.9	11.0	79.3	100.0 (82)
	40~49세	0.6	2.2	5.6	17.3	74.3	100.0(179)
	50~59세	6.5	0.0	3.2	25.8	64.5	100.0 (31)
결혼상태	유배우	1.3	2.7	5.6	16.6	73.8	100.0(301)
	이혼·별거·사별	-	-	-	-	-	-
응답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0.0	2.8	11.1	19.4	66.7	100.0 (36)
	고졸	0.7	2.2	3.7	11.1	82.2	100.0(135)
	대졸이상	2.3	3.1	6.2	20.9	67.4	100.0(129)
가족유형	부부+자녀	1.7	2.5	5.9	17.2	72.8	100.0(239)
	한부모+자녀	0.0	33.3	0.0	0.0	66.7	100.0 (3)
	3세대 가구	0.0	2.0	6.0	14.0	78.0	100.0 (50)
	기타	0.0	0.0	0.0	0.0	100.0	100.0 (1)
응답자 취업유무	취업	1.6	2.7	4.3	15.6	75.8	100.0(186)
	비취업	1.0	2.9	7.7	17.3	71.2	100.0(104)
배우자 경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1.5	0.7	5.2	18.5	74.1	100.0(135)
	임시직	0.0	4.0	8.0	24.0	64.0	100.0 (25)
	자영업자	2.4	2.4	2.4	12.2	80.5	100.0 (41)
	기타(실업자 등)	1.3	5.1	6.3	13.9	73.4	100.0 (79)
배우자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0.0	0.0	4.5	18.2	77.3	100.0 (22)
	사무종사자	0.0	0.0	6.7	20.0	73.3	100.0 (15)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0.0	3.0	0.0	21.2	75.8	100.0 (33)
	기능원 및 장치	3.0	3.0	6.1	12.1	75.8	100.0 (3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0	2.1	2.1	27.1	68.8	100.0 (48)
	단순노무자 및 기타	2.1	3.5	7.1	13.5	73.8	100.0(141)
	100미만	2.3	2.3	4.7	25.6	65.1	100.0 (43)
월평균 가구소득	100-200미만	0.0	1.0	5.9	17.6	75.5	100.0(102)
	200-300미만	1.3	2.7	4.0	10.7	81.3	100.0 (75)
	300이상	3.1	4.7	9.4	12.5	70.3	100.0 (64)

주: 1) 결혼 전 국적에서 동남아시아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가 포함되며, 기타에는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가 포함됨.; 2) 가족유형에서 기타에는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삼촌, 한부모+자녀+시아머니 포함.;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를 제시하지 않음.

〈표 5-8〉 특성별 자녀와 대화 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

(단위: %, 명)

특성		모국어만	거의 모국어, 가끔 한국어	모국외와 한국어 비슷	거의 한국어, 가끔 모국어	한국어만	계(수)
전체		2.8	2.8	6.2	27.4	60.7	100.0(321)
지역구분	대도시	3.4	6.9	10.3	27.6	51.7	100.0 (29)
	중소도시	1.7	3.4	8.5	32.5	53.8	100.0(117)
	농어촌	3.4	1.7	4.0	24.0	66.9	100.0(175)
결혼 전 국적	일본	2.5	1.3	5.7	38.6	51.9	100.0(158)
	중국동포 및 한족	1.2	1.2	2.3	9.3	86.0	100.0 (86)
	동남아시아	5.8	7.2	10.1	23.2	53.6	100.0 (69)
	기타	0.0	20.0	20.0	20.0	40.0	100.0 (5)
한국거주 기간	5년 미만	15.4	15.4	0.0	15.4	53.8	100.0 (13)
	5-10년 미만	7.7	0.0	15.4	30.8	46.2	100.0 (13)
	10-15년 미만	1.5	2.3	5.3	27.3	63.6	100.0(132)
	15-20년 미만	2.3	1.6	6.3	28.1	61.7	100.0(128)
	20년 이상	3.7	3.7	7.4	29.6	55.6	100.0 (27)
응답자 연령	15~29세	12.5	12.5	0.0	25.0	50.0	100.0 (8)
	30~39세	3.6	4.8	3.6	16.9	71.1	100.0 (83)
	40~49세	1.0	1.5	7.7	31.3	58.5	100.0(195)
	50~59세	9.1	0.0	6.1	33.3	51.5	100.0 (33)
결혼상태	유배우	3.0	2.7	5.7	26.8	61.7	100.0(298)
	이혼·별거·사별	0.0	4.8	14.3	28.6	52.4	100.0 (21)
응답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2.4	2.4	4.9	14.6	75.6	100.3 (41)
	고졸	0.7	2.7	3.4	27.4	65.8	100.0(146)
	대졸이상	5.3	2.3	9.8	31.6	51.1	100.0(133)
가족유형	부부+자녀	3.0	2.5	6.8	28.3	59.5	100.0(237)
	한부모+자녀	0.0	5.3	10.5	26.3	57.9	100.0 (19)
	3세대 가구	3.7	3.7	3.7	22.2	66.7	100.0 (54)
	기타	0.0	0.0	0.0	50.0	50.0	100.0 (2)
총 자녀수	1~2명	3.8	2.5	7.6	24.1	62.0	100.0(158)
	3명	3.0	3.0	5.0	25.0	64.0	100.0(100)
	4명 이상	0.0	3.4	5.1	40.7	50.8	100.0 (59)
응답자 취업유무	취업	2.1	3.1	4.7	26.9	63.2	100.0(193)
	비취업	4.5	1.8	9.0	29.7	55.0	100.0(111)
배우자 경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3.8	2.3	6.1	27.5	60.3	100.0(131)
	임시직	3.7	0.0	11.1	29.6	55.6	100.0 (27)
	자영업자	2.4	2.4	2.4	31.7	61.0	100.0 (41)
	기타(실업자 등)	1.2	4.8	4.8	22.9	66.3	100.0 (83)
배우자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0.5	0.0	10.5	42.1	36.8	100.0 (19)
	사무종사자	0.0	0.0	18.8	25.0	56.3	100.0 (16)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3.0	0.0	6.1	39.4	51.5	100.0 (33)
	기능원 및 장처	9.4	9.4	0.0	18.8	62.5	100.0 (3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0	2.0	2.0	20.4	75.5	100.0 (49)
	단순노무자 및 기타	2.1	3.4	8.2	25.3	61.0	100.0(146)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1.9	1.9	7.5	28.3	60.4	100.0 (53)
	100-200미만	0.9	3.7	4.6	26.6	64.2	100.0(109)
	200-300미만	4.1	1.4	6.8	28.4	59.5	100.0 (74)
	300이상	4.9	4.9	8.2	24.6	57.4	100.0 (61)

주: 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결혼 전 국적 및 해당자녀 출생 국가 기타: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포함,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포함; 3) 가족유형 기타에는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삼촌, 한부모+자녀+시아머니 포함.

4. 부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부관계 만족도 척도는 장현섭 외(1994)와 김승권 외(2009)가 활용한 8개 영역²¹⁾ 중에서 6개 영역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6개 영역은 부부간의 대화·의사소통, 부부사이 애정·친밀감, 부부간의 믿고 이해하는 정도,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 및 문화생활 정도,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총 6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신뢰도는 .920으로 높았다.

6개 영역으로 측정된 부부관계 만족도는 3.65점으로 보통을 상회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정도에 근접한다.

〈표 5-9〉 부부관계 만족도의 문항

	문항번호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부부관계 만족도	21-1, 21-2, 21-3. 21-4, 21-5, 21-6	6	3.65	.042	.920

주: 부부관계 만족도는 5점 척도로 매우 불만(1점), 대체로 불만(2점), 그저 그렇(3점), 대체로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으로 점수를 평점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을 것을 말함.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부부관계 만족도는 거주지역과 월평균 가구소득 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결혼이민자의 결혼 전 국적, 한국거주 기간,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유무, 배우자의 생활상태 및 직업 그리고 가족유형 및 총 자녀수 등은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 부부관계 만족도는 3.51~3.88점으로 대도시 지역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어촌, 중소도시 순으로 높았으며, 지역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 만족도는 3.51~3.91점으로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대도시거주자, 고소득층인 경우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았고, 중소도시거주자, 저소득층인 경우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21) 장현섭 외(1994)와 김승권 외(2009)는 부부관계만족도를 8개 영역 즉 배우자의 애정·이해도,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양), 부부의 성생활,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 배우자의 소비성향, 부부간의 대화, 부부간의 문화생활,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을 활용하여 측정함.

〈표 5-10〉 부모특성별 부부관계 만족도

(단위: 점, 명)

특성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전체		3.65	.042	303	
지역구분	대도시	3.88	.879	25	3.716*
	중소도시	3.51	.696	110	
	농어촌	3.71	.730	168	
결혼 전 국적	일본	3.66	.751	146	0.679
	중국동포 및 한족	3.68	.690	81	
	동남아시아	3.53	.785	65	
	기타	3.83	.816	5	
한국거주기간	5년 미만	3.92	.835	11	1.040
	5-10년 미만	3.83	.687	11	
	10-15년 미만	3.60	.702	129	
	15-20년 미만	3.60	.752	121	
	20년 이상	3.79	.797	25	
응답자 연령	15~29세	3.98	.874	7	1.750
	30~39세	3.78	.667	83	
	40~49세	3.59	.730	180	
	50~59세	3.59	.886	31	
응답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3.53	.800	37	2.990
	고졸	3.57	.743	135	
	대졸이상	3.77	.701	130	
응답자 취업유무	취업	3.65	.788	185	-.109
	비취업	3.66	.673	107	
배우자 생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3.76	.684	137	1.602
	임시직	3.53	.774	25	
	자영업자	3.65	.731	42	
	기타(실업자 등)	3.55	.829	79	
배우자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73	.659	23	1.916
	사무종사자	4.07	.494	16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3.82	.744	33	
	기능원 및 정치	3.61	.633	3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61	.652	48	
	단순노무자 및 기타	3.56	.815	141	
가족유형	부부+자녀	3.65	.744	241	.268
	한부모+자녀	3.33	.577	3	
	3세대 가구	3.63	.759	50	
	기타	4.00	.	1	
총 자녀수	1~2명	3.63	.751	150	.160
	3명	3.38	.691	97	
	4명 이상	3.62	.790	53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55	.811	43	4.433**
	100-200미만	3.51	.716	103	
	200-300미만	3.63	.740	75	
	300이상	3.91	.634	64	

주: 1)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영역의 측정은 매우 불만, 대체로 불만, 그저 그렇,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말함.; 2) * $p<0.5$, ** $p<.01$, *** $p<.001$; 3) 결혼 전 국적에서 동남아시아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가 포함되며, 기타에는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가 포함됨.; 4) 가족유형에서 기타에는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삼촌, 한부모+자녀+시아머니 포함.

만족도가 높은 부부관계는 결혼 및 가족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가족적응과 가족기능을 제고한다. 따라서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아동은 만족도가 낮은 아동에 비해 가족생활적응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은 중소도시 거주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5. 자녀양육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녀양육관 척도는 Schaefer(1959)의 MBRI(Maternal Research Instrument)를 수정 보완한 황선명(1994)의 어머니 양육태도 척도에서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4개 영역은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 등으로 총 4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개 영역으로 측정된 자녀양육태도는 2.51~3.57점으로 중간 전후의 분포를 보였다. 애정적 태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통제적 태도, 자율적 태도, 거부적 태도 순으로 높았다. 다수의 다문화가족은 애정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 그리고 자율적 태도의 자녀양육관을 보였으며, 일부는 자녀에 대한 거부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자녀양육태도 척도의 문항

	문항번호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애정적 태도	27-1	1	3.57	.898
거부적 태도	27-2	1	2.51	.998
자율적 태도	27-3	1	3.24	.817
통제적 태도	27-4	1	3.51	.867

주: 자녀양육태도는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음(1점), 그렇지 않음(2점), 보통(3점), 그림(4점), 매우 그림(5점)으로 점수를 평점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태도 정도가 높은 것을 말함.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부모의 애정적 태도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 전 국적, 한국 거주기간, 연령, 결혼상태 그리고 가족유형 및 총 자녀수

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지역, 교육수준, 배우자의 경찰상태 및 직업 그리고 해당자녀 중도입국여부,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 전 국적별로는 3.38~4.20점으로 실수가 적은 기타 국가를 제외하고 중국동포 및 한족 출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 동남아시아 순으로 높았다. 한국 거주기간별로는 3.21~4.07점으로 5~10년 미만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10~15년 미만과 15~20년 미만이 높은 편이었으며 일정하지 않았다. 또한 연령별로는 3.00~3.84점으로 30대와 40대 연령층이 높았으며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가 3.60점, 이혼·별거·사별은 3.14점으로 유배우자가 다소 높았다. 가족유형별로는 3.11~4.00점으로 실수가 적은 기타를 제외하고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형태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세대 가구, 한부모가족 순으로 높았다. 총 자녀수별로는 3.32~3.68점으로 자녀가 적을수록 애정적 태도가 높았다(표 5-12 참조).

부모의 애정적 자녀양육관은 아동의 가족생활적응에 정(正)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대로 부모의 애정적 자녀양육관이 낮은 경우 아동의 가족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정적 태도가 낮은 동남아시아 출신, 장기거주자, 이혼·별거·사별자, 결혼가족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부모의 거부적 태도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 전 국적과 배우자의 직업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13 참조).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 전 국적별로는 2.19~2.57점으로 실수가 적은 기타 국가를 제외하고 동남아시아 출신이 자녀의 거부적 태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 중국동포 및 한족 순으로 높았다.

〈표 5-12〉 특성별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한 인식: 애정적 태도

(단위: 점, 명)

특성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전체		3.57	.898	333	
지역구분	대도시	3.63	.999	30	0.405
	중소도시	3.52	.902	122	
	농어촌	3.60	.880	181	
결혼 전 국적	일본	3.45	.844	161	5.041**
	중국동포 및 한족	3.81	.856	88	
	동남아시아	3.38	.916	71	
한국 거주기간	기타	4.20	1.304	5	4.050**
	5년 미만	3.23	1.013	13	
	5-10년 미만	4.07	.730	14	
	10-15년 미만	3.72	.843	139	
	15-20년 미만	3.48	.914	131	
응답자 연령	20년 이상	3.21	.957	28	5.401**
	15~29세	3.00	1.069	8	
	30~39세	3.84	.926	87	
	40~49세	3.53	.866	201	
응답자 교육수준	50~59세	3.26	.817	35	1.874
	중졸이하	3.33	.902	42	
	고졸	3.60	.896	151	
결혼상태	대졸이상	3.63	.886	139	2.873**
	유배우	3.60	.3898	309	
응답자 취업유무	이혼·별거·사별	3.14	.710	22	0.503
	취업	3.59	.897	200	
배우자 생활상태	비취업	3.54	.859	116	0.785
	상용직, 고용주	3.63	.809	139	
	임시직	3.43	1.260	28	
	자영업자	3.67	.816	42	
	기타(실업자 등)	3.50	.925	84	
배우자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65	.832	23	0.851
	사무종사자	3.69	.793	16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3.38	.922	34	
	기능원 및 장치	3.48	.834	3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76	.855	49	
	단순노무자 및 기타	3.58	.934	151	
가족유형	부부+자녀	3.64	.864	246	2.919*
	한부모+자녀	3.11	.567	19	
	3세대 가구	3.43	1.002	54	
	기타	4.00	1.414	2	
총 자녀수	1-2명	3.68	.901	166	3.752*
	3명	3.53	.843	101	
	4명 이상	3.32	.937	62	
해당자녀 중도입국여부	중도입국	3.65	.774	34	0.241
	중도입국 아님	3.57	.907	289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43	1.024	56	0.546
	100-200미만	3.58	.871	110	
	200-300미만	3.57	.834	77	
	300이상	3.62	.864	64	

주: 1) 결혼 전 국적 및 해당자녀 출생 국가 기타: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포함,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포함; 2) 가족유형 기타에는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삼촌, 한부모+자녀+시아머니 포함; 3)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럼, 매우 그럼의 5점 척도. * $p<0.5$, ** $p<.01$, *** $p<.001$

〈표 5-13〉 특성별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한 인식: 거부적 태도

(단위: 점, 명)

특성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전체		2.51	.998	331	
지역구분	대도시	2.72	1.192	29	0.806
	중소도시	2.46	.904	121	
	농어촌	2.50	1.025	181	
결혼 전 국적	일본	2.57	.943	160	5.566**
	중국동포 및 한족	2.19	.993	88	
	동남아시아	2.80	.987	70	
한국 거주기간	기타	2.20	1.304	5	0.346
	5년 미만	2.54	1.050	13	
	5-10년 미만	2.57	1.222	14	
	10-15년 미만	2.54	1.041	138	
	15-20년 미만	2.45	.932	130	
응답자 연령	20년 이상	2.68	1.056	28	2.335
	15~29세	2.88	.835	8	
	30~39세	2.44	1.086	87	
	40~49세	2.46	.947	199	
응답자 교육수준	50~59세	2.89	1.051	35	0.507
	중졸이하	2.52	.862	42	
	고졸	2.56	1.000	150	
결혼상태	대졸이상	2.44	1.039	138	-1.957
	유배우	2.48	1.001	307	
	이혼·별거·사별	2.91	.921	22	
응답자 취업유무	취업	2.50	.051	2.50	-0.220
	비취업	2.53	.927	2.53	
배우자 생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2.47	.980	139	0.231
	임시직	2.50	1.072	28	
	자영업자	2.34	.938	41	
	기타(실업자 등)	2.48	.988	84	
가족유형	부부+자녀	2.45	.978	244	1.107
	한부모+자녀	2.84	.898	19	
	3세대 가구	2.50	1.060	54	
	기타	3.00	1.414	2	
총 자녀수	1-2명	2.41	1.008	164	1.904
	3명	2.65	1.014	101	
	4명 이상	2.52	.919	62	
해당자녀 중도입국여부	중도입국	2.51	.998	288	0.920
	중도입국 아님	2.33	.854	33	
배우자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70	1.105	23	2.260*
	사무종사자	2.00	.966	16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2.35	.849	34	
	기능원 및 장치	2.45	1.003	3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22	.985	49	
	단순노무자 및 기타	2.61	.989	150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2.63	1.054	56	1.302
	100-200미만	2.55	.921	108	
	200-300미만	2.42	1.018	77	
	300이상	2.31	.974	64	

주: 1) 결혼 전 국적 및 해당자녀 출생 국가 기타: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포함,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포함; 2) 가족유형 기타에는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삼촌, 한부모+자녀+시아머니 포함; 3)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럼, 매우 그럼의 5점 척도. * $p<0.5$, ** $p<0.1$

배우자의 직업별로는 2.00~2.70점으로 관리자·전문직 종사자가 자녀의 거부적 태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단순노무자, 기능원 및 장치 기계조작, 서비스·판매종사자 순으로 높았으나 일정하지 않았다(표 5-13 참조).

부모의 거부적 자녀양육관은 아동의 가족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적응을 초래하여 건강한 세대육성과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취약한 저소득 결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 치료가 필요하며 건강한 가족기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부모의 자율적 태도는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지역, 결혼 전 국적, 한국 거주기간, 연령, 결혼상태 및 취업유무, 배우자의 생활상태 및 취업 그리고 가족유형 및 총 자녀수, 해당자녀 중도입국여부 및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5-14 참조).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별로는 2.95~3.31점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율적 태도가 높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율적 태도가 낮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2.93~3.45점으로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자율적 태도가 높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자율적 태도가 낮은 편이었다.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부모의 통제적 태도는 지역,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 전 국적, 한국 거주기간 및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15 참조).

지역별로는 3.36~3.62점으로 농어촌 지역이 통제적 태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높았으며 지역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 전 국적별로는 3.38~4.20점으로 실수가 적은 기타 국가를 제외하고 중국동포 및 한족 출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동남아시아, 일본 순으로 높았다. 한국 거주기간별로는 3.35~3.66점으로 10~15년 미만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5~10년 미만이 높은

편이었으나 일정하지 않았다. 또한 연령별로는 3.37~3.75점으로 30대와 50대 연령층이 높았으며 나머지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5-14〉 특성별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한 인식: 자율적 태도

(단위: 점, 명)

특성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전체		3.24	.817	331	
지역구분	대도시	3.20	.997	30	0.194
	중소도시	3.27	.710	120	
	농어촌	3.22	.854	181	
결혼 전 국적	일본	3.29	.732	159	0.915
	중국동포 및 한족	3.22	.877	88	
	동남아시아	3.11	.838	71	
	기타	3.00	1.581	5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3.08	.954	13	0.638
	5-10년 미만	3.29	.914	14	
	10-15년 미만	3.18	.836	139	
	15-20년 미만	3.31	.766	130	
	20년 이상	3.33	.832	27	
응답자 연령	15~29세	2.88	.991	8	0.756
	30~39세	3.20	.874	87	
	40~49세	3.27	.789	200	
	50~59세	3.21	.808	34	
결혼상태	유배우	3.23	.827	307	-0.211
	이혼·별거·사별	3.27	.703	22	
응답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2.95	.697	42	3.163*
	고졸	3.26	.815	149	
	대졸이상	3.31	.841	139	
응답자 취업유무	취업	3.27	.838	199	0.875
	비취업	3.18	.779	115	
배우자 경찰상태	상용직, 고용주	3.29	.838	139	0.926
	임시직	3.07	.604	28	
	자영업자	3.30	.687	40	
	기타(실업자 등)	3.17	.862	84	
배우자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43	.662	23	1.235
	사무종사자	3.00	1.095	16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3.33	.777	33	
	기능원 및 장처	3.27	.876	3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04	.789	49	
	단순노무자 및 기타	3.26	.806	150	
가족유형	부부+자녀	3.25	.835	244	0.646
	한부모+자녀	3.16	.602	19	
	3세대 가구	3.26	.782	54	
	기타	4.00	1.414	2	
총 자녀수	1-2명	3.23	.874	165	0.163
	3명	3.27	.747	101	
	4명 이상	3.30	.715	61	
해당자녀 중도입국여부	중도입국	3.24	.823	288	0.049
	중도입국 아님	3.27	.761	33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2.93	.828	56	4.708**
	100-200미만	3.30	.776	109	
	200-300미만	3.24	.831	76	
	300이상	3.45	.711	64	

주: 1) 결혼 전 국적 및 해당자녀 출생 국가 기타: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포함,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포함; 2) 가족유형 기타에는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삼촌, 한부모+자녀+시아머니 포함; 3)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림, 매우 그림의 5점 척도. * p<0.5, ** p<0.1

〈표 5-15〉 특성별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한 인식: 통제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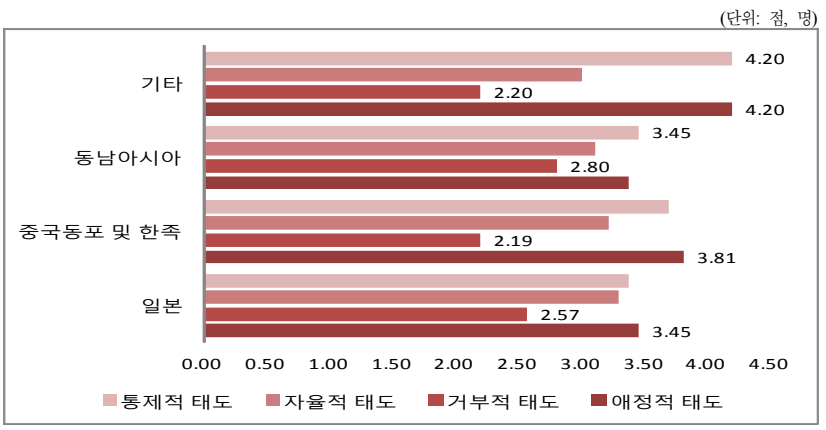
(단위: 점, 명)

특성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전체		3.51	.867	332	
지역구분	대도시	3.47	.681	30	3.434*
	중소도시	3.36	.815	121	
	농어촌	3.62	.915	181	
결혼 전 국적	일본	3.38	.831	160	3.766*
	중국동포 및 한족	3.69	.822	88	
	동남아시아	3.45	.923	71	
	기타	4.20	.837	5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3.38	.768	13	2.415*
	5-10년 미만	3.64	1.008	14	
	10-15년 미만	3.66	.889	139	
	15-20년 미만	3.35	.833	130	
	20년 이상	3.46	.838	28	
응답자 연령	15~29세	3.38	.744	8	4.442**
	30~39세	3.75	.918	87	
	40~49세	3.37	.853	200	
	50~59세	3.69	.718	35	
응답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3.67	.816	42	1.558
	고졸	3.43	.877	150	
	대졸이상	3.55	.870	139	
결혼상태	유배우	3.52	.878	308	1.067
	이혼·별거·사별	3.32	.716	22	
응답자 취업유무	취업	3.58	.895	199	1.609
	비취업	3.41	.835	116	
배우자 생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3.45	.918	139	1.418
	임시직	3.79	.833	28	
	자영업자	3.61	.737	41	
	기타(실업자 등)	3.50	.799	84	
배우자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74	.810	23	1.054
	사무종사자	3.38	1.204	16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3.44	.860	34	
	기능원 및 정처	3.45	.794	3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73	.930	49	
	단순노무자 및 기타	3.50	.841	150	
가족유형	부부+자녀	3.52	.885	245	1.403
	한부모+자녀	3.26	.653	19	
	3세대 가구	3.57	.860	54	
	기타	4.00	1.414	2	
총 자녀수	1-2명	3.55	.865	165	2.458
	3명	3.59	.862	101	
	4명 이상	3.31	.781	62	
해당자녀 중도입국여부	중도입국	3.64	.859	33	-0.864
	중도입국 아님	3.50	.871	289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61	.908	56	1.228
	100-200미만	3.50	.801	109	
	200-300미만	3.55	.897	77	
	300이상	3.33	.837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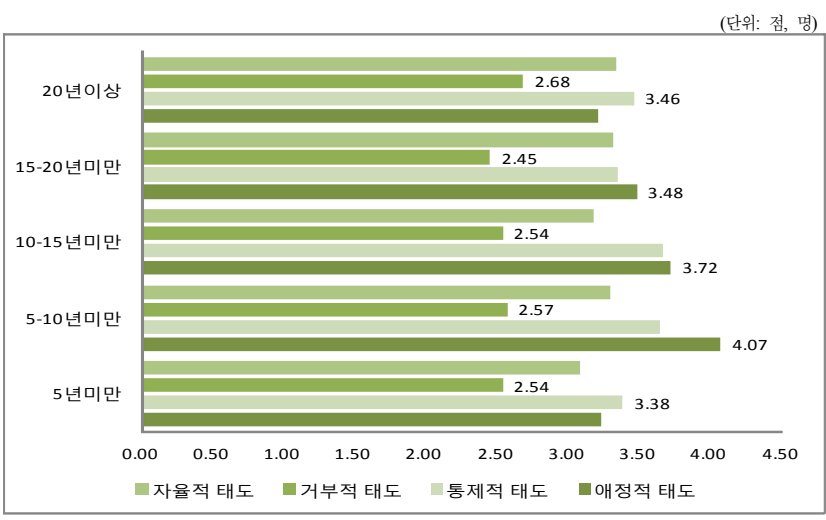
주: 1) 결혼 전 국적 및 해당자녀 출생 국가 기타: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포함,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포함; 2) 가족유형 기타에는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삼촌, 한부모+자녀+시아머니 포함; 3)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림, 매우 그림의 5점 척도.. * $p<0.5$, ** $p<0.01$

부모의 통제적 자녀양육관은 아동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부 아동에게는 가족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일방적인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양육방식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 전문기관 및 자조모임 등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1]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자녀양육관



[그림 5-2]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별 자녀양육관



6. 양육실태

가. 자녀양육담당자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담당자는 어머니인 비율이 72.3%로 3분의 2 이상이 해당되었고, 아버지는 16.4%로 일부만이 해당되었고, 나머지는 미미하나 조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가족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한편,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서 일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실효성 있는 일 가정 양립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16〉 부모특성별 자녀 양육 담당자

(단위: %, 명)

특성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형제자매	기타	계(수)
전체		72.3	16.4	3.3	0.3	7.6	100.0(329)
결혼 전 국적	일본	79.5	10.6	1.9	0.0	8.1	100.0(161)
	중국동포 및 한족	78.2	9.2	4.6	1.1	6.9	100.0 (87)
	동남아시아	48.5	41.2	4.4	0.0	5.9	100.0 (68)
	기타	20.0	20.0	20.0	0.0	40.0	100.0 (5)
응답자 연령	15~29세	42.9	57.1	0.0	0.0	0.0	100.0 (7)
	30~39세	67.1	18.8	7.1	0.0	7.1	100.0 (85)
	40~49세	77.1	13.4	2.0	0.5	7.0	100.0(201)
	50~59세	62.9	20.0	2.9	0.0	14.3	100.0 (35)
결혼상태	유배우	72.5	16.4	2.6	0.3	8.2	100.0(305)
	이혼·별거·사별	72.7	13.6	13.6	0.0	0.0	100.0 (22)
응답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53.7	31.7	7.3	0.0	7.3	100.0 (41)
	고졸	74.5	14.8	3.4	0.0	7.4	100.0(149)
	대졸이상	76.1	13.0	2.2	0.7	8.0	100.0(138)
응답자 취업유무	취업	72.6	15.2	4.1	0.5	7.6	100.0(197)
	비취업	70.4	19.1	2.6	0.0	7.8	100.0(115)
배우자 생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77.0	15.1	1.4	0.7	5.8	100.0(139)
	임시직	66.7	14.8	3.7	0.0	14.8	100.0 (27)
	자영업자	80.5	9.8	2.4	0.0	7.3	100.0 (41)
	기타(실업자 등)	62.2	22.0	7.3	0.0	8.5	100.0 (82)
가족유형	부부+자녀	73.0	17.2	0.8	0.4	8.6	100.0(244)
	한부모+자녀	89.5	10.5	0.0	0.0	0.0	100.0 (19)
	3세대 가구	64.2	13.2	17.0	0.0	5.7	100.0 (19)
	기타	100.0	0.0	0.0	0.0	0.0	100.0 (2)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73.2	21.4	1.8	0.0	3.6	100.0 (56)
	100~200미만	71.3	15.7	3.7	0.9	8.3	100.0(108)
	200~300미만	78.9	9.2	5.3	0.0	6.6	100.0 (76)
	300이상	67.2	18.8	0.0	0.0	14.1	100.0 (64)

주: 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결혼 전 국적 및 해당자녀 출생 국가 기타: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포함,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포함; 3) 가족유형 기타에는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삼촌, 한부모+자녀+시아머니 포함.

다문화가족의 특성별로 자녀양육담당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집단 간에 차이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는 아버지가 양육담당자인 비율이 다소 높았다.

나. 자녀양육상의 어려움

다문화가족은 자녀양육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90.6%이었고, 어려움이 없다는 9.4%로 대다수의 다문화가족은 자녀양육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용의 부담이 56.2%로 절반 이상 이었고, 다음은 한국어 소통미흡이 12.8%로 5분의 1 정도이었으며, 이외에 자녀와의 갈등이 7.9%, 자녀양육방식으로 가족과의 갈등이 4.9%, 문화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이 4.6%, 방과 후 자녀 맡길 곳이 없다는 3.3%로 다양한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양육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 경감 방안이 요구되며, 가족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문적인 언어교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간의 갈등해소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녀양육에 대한 전문지식·기술 공유 그리고 방과후 돌봄 장치 등 다각적인 제도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족의 특성별로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집단 간에 차이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결혼 전 국적, 거주기간 및 연령별로는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이 다르게 나타나서 생애주기 및 국적별로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17〉 특성별 자녀 양육 어려움(1순위)

특성		아려움 없음	한국어 소통 능력 미흡	방과후 자녀 맡길 곳 없음	자녀 양육방식으로 남편/부모와 갈등	자녀와의 갈등	양육비, 교육비 부담	문화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	기타	계(수)	x2
전체		9.4	12.8	3.3	4.9	7.9	56.2	4.6	0.9	100.0(329)	
지역 구분	대도시	10.3	10.3	13.8	0.0	6.9	51.7	3.4	3.4	100.0 (29)	
	중소도시	13.4	14.3	1.7	5.0	10.9	48.7	5.0	0.8	100.0(119)	-
	농어촌	6.6	12.2	2.8	5.5	6.1	61.9	4.4	0.6	100.0(181)	
결혼 전 국적	일본	11.2	10.6	0.6	5.6	10.6	56.5	3.7	1.2	100.0(161)	
	중국·동포 및 한족	8.0	4.5	1.1	3.4	6.8	71.6	3.4	1.1	100.0(88)	-
	동남아시아	7.4	30.9	11.8	5.9	4.4	32.4	7.4	0.0	100.0 (68)	
	기타	20.0	0.0	20.0	0.0	0.0	60.0	0.0	0.0	100.0 (5)	
한국거주 기간	5년 미만	8.3	50.0	0.0	0.0	16.7	16.7	8.3	0.0	100.0 (12)	
	5-10년 미만	23.1	7.7	0.0	15.4	15.4	23.1	15.4	0.0	100.0 (13)	
	10-15년 미만	7.2	15.1	6.5	5.0	3.6	55.4	6.5	0.7	100.0(139)	-
	15-20년 미만	10.1	9.3	1.6	5.4	10.9	59.7	2.3	0.8	100.0(129)	
	20년 이상	10.7	7.1	0.0	0.0	10.7	71.4	0.0	0.0	100.0 (28)	
응답자 연령	15~29세	0.0	57.1	0.0	0.0	14.3	28.6	0.0	0.0	100.0 (7)	
	30~39세	11.6	8.1	5.8	3.5	7.0	59.3	4.7	0.0	100.0 (86)	-
	40~49세	9.5	13.4	2.5	6.0	7.0	55.2	5.0	1.5	100.0(201)	
	50~59세	5.9	11.8	2.9	2.9	14.7	58.8	2.9	0.0	100.0 (34)	
	60세 이상	9.8	12.4	3.6	5.2	7.8	55.6	4.6	1.0	100.0(306)	-
결혼 상태	이혼·별거·사별	4.8	14.3	0.0	0.0	9.5	66.7	4.8	0.0	100.0 (21)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이하	4.8	11.9	4.8	0.0	9.5	61.9	7.1	0.0	100.0 (42)	
	고졸	9.4	12.8	2.0	6.0	5.4	59.1	4.0	1.3	100.0(149)	-
	대졸이상	10.9	13.1	4.4	5.1	10.2	51.1	4.4	0.7	100.0(137)	
해당자녀 종도입국 여부	종도입국	18.1	15.2	3.0	3.0	9.1	42.4	6.1	3.0	100.0 (33)	-
	종도입국 아님	8.0	12.5	3.5	4.9	8.0	57.8	4.5	0.7	100.0(287)	

(단위: %, 명)

특성		어려움 없음	한국어 소통 능력 미흡	방과후 자녀 맡길 곳 없음	자녀 양육방식으로 남편/시부모와 갈등	자녀와의 갈등	양육비, 교육비 부담	문화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	기타	계수	χ^2
응답자 취업유무	취업	8.2	12.2	3.1	4.1	8.7	58.7	4.6	0.5	100.0(196)	3.993
	비취업	11.2	13.8	4.3	6.0	7.8	50.0	5.2	1.7	100.0(116)	
	상용직, 고용주	13.0	10.0	5.1	4.3	5.8	52.9	7.2	1.4	100.0(138)	-
	임시직	0.0	21.4	10.7	3.6	14.3	50.0	0.0	0.0	100.0 (28)	
	자영업자	16.7	7.1	0.0	7.1	9.5	54.8	2.4	2.4	100.0 (42)	
배우자 경황상태	기타(실업자 등)	4.9	15.9	1.2	6.1	6.1	62.2	3.7	0.0	100.0 (82)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6.1	8.7	4.3	0.0	0.0	52.2	4.3	4.3	100.0 (23)	
	사무종사자	18.8	0.0	0.0	6.3	12.5	50.0	12.5	0.0	100.0 (16)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14.7	11.8	8.8	8.8	8.8	47.1	0.0	0.0	100.0 (34)	
	기능원 및 정채	19.1	21.2	0.0	0.0	6.1	57.6	3.0	3.0	100.0 (33)	
배우자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6.1	6.1	0.0	10.2	12.2	57.1	8.2	0.0	100.0 (49)	-
	단순노무자 및 기타	6.1	16.9	4.7	4.1	7.4	56.1	4.1	0.7	100.0(148)	
	부부+자녀	9.4	12.3	4.1	3.7	6.1	58.6	4.9	0.8	100.0(244)	
	한부모+자녀	10.5	0.0	0.0	0.0	10.5	73.7	5.3	0.0	100.0 (19)	
	3세대 가구	7.5	17.0	1.9	9.4	13.2	45.3	3.8	1.9	100.0 (53)	
총 자녀수	기타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2)	-
	1~2명	10.5	12.3	4.3	4.3	7.4	54.9	4.9	1.2	100.0(162)	
	3명	6.9	16.8	3.0	5.0	8.9	53.5	5.0	1.0	100.0(101)	
	4명 이상	11.3	6.5	1.6	6.5	8.1	62.9	3.2	0.0	100.0 (6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미만	3.6	14.3	1.8	8.9	3.6	60.7	7.1	0.0	100.0 (56)	-
	100~200미만	1.8	10.1	4.6	2.8	6.4	68.8	4.6	0.9	100.0(109)	
	200~300미만	12.0	14.7	5.3	5.3	9.3	48.0	4.0	1.3	100.0 (75)	
	300이상	21.9	14.1	1.6	4.7	12.5	40.6	3.1	1.6	100.0 (64)	

주: 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결혼 전 국적 기타: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포함,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포함; 3) 가족 유형 기타에는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삼촌, 한부모+자녀+시어머니 포함.

제2절 부모자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척도는 김승권 외(2009)가 활용한 척도²²⁾에 장혜경 외(2003)가 활용한 척도 중 일부를 보완하여 6개 영역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6개 영역은 부모자녀간의 친밀정도, 부모자녀간의 대화·의사소통 정도, 부모자녀간의 믿고 이해하는 정도, 자녀가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 참여, 자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등으로, 총 6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신뢰도는 .886으로 높았다.

6개 영역으로 측정된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는 3.81점으로 보통을 상회하여 대체로 만족에 근접하였다.

〈표 5-18〉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의 문항

	문항번호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24-1, 24-2, 24-3, 24-4, 24-5, 24-6	6	3.81	.036	.886

주: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는 5점 척도로 매우 불만(1점), 불만(2점), 그저 그렇(3점), 대체로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으로 점수를 평정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부모자녀간의 만족도는 결혼이민자의 결혼전 국적, 연령, 및 교육수준, 가족유형 및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지역, 한국거주기간, 결혼상태 및 취업유무, 배우자의 경찰상태 및 직업, 그리고 총 자녀수 등은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 전 국적별 부모자녀간의 만족도는 3.56~4.21점으로 실수가 적은 기타 국가를 제외하고 중국동포 및 한족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 동남아시아 순으로 높았다.

22) 김승권 외(2003)가 활용한 척도는 4개 영역으로 자녀와의 대화정도, 자녀와의 문화생활, 자녀들이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정도,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이며, 장혜경 외(2003)가 활용한 척도는 총 5개 영역으로 부모님께 인정받음, 신뢰도,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장래희망지지, 부모님의 도움 등으로 구성됨.

〈표 5-19〉 특성별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단위: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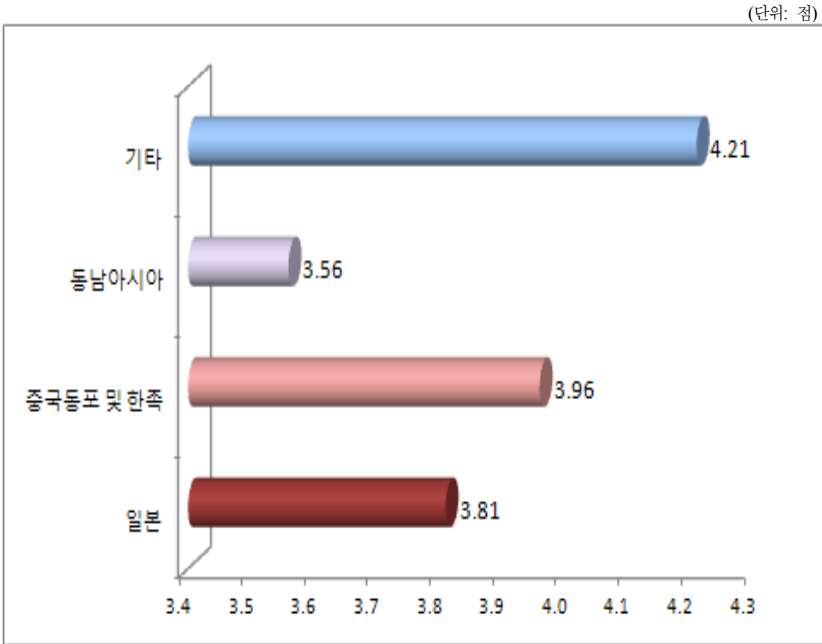
특성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전체		3.81	.036	323	
지역구분	대도시	3.87	.833	28	.649
	중소도시	3.76	.602	118	
	농어촌	3.83	.632	177	
결혼 전 국적	일본	3.81	.584	159	5.756***
	중국동포 및 한족	3.96	.654	84	
	동남아시아	3.56	.652	69	
	기타	4.21	1.066	4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3.71	.759	12	.435
	5-10년 미만	3.96	.726	14	
	10-15년 미만	3.84	.623	132	
	15-20년 미만	3.78	.635	130	
	20년 이상	3.77	.683	27	
응답자 연령	15~29세	3.43	.738	7	4.718**
	30~39세	4.02	.614	83	
	40~49세	3.75	.634	198	
	50~59세	3.71	.613	34	
결혼상태	유배우	3.84	.638	299	2.900
	이혼·별거·사별	3.43	.558	22	
응답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3.56	.631	38	3.495*
	고졸	3.83	.596	149	
	대졸이상	3.87	.671	135	
응답자 취업유무	취업	3.82	.633	191	.530
	비취업	3.78	.648	115	
배우자 경황상태	상용직, 고용주	3.86	.609	136	2.126
	임시직	3.72	.658	26	
	자영업자	4.02	.643	41	
	기타(실업자 등)	3.74	.657	82	
배우자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85	.566	23	.989
	사무종사자	4.11	.570	16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3.69	.617	33	
	기능원 및 장치	3.81	.662	3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81	.689	47	
	단순노무자 및 기타	3.81	.624	145	
가족유형	부부+자녀	3.85	.613	236	3.092*
	한부모+자녀	3.39	.479	19	
	3세대 가구	3.79	.739	54	
	기타	3.92	1.532	2	
총 자녀수	1-2명	3.83	.682	159	.652
	3명	3.81	.607	99	
	4명 이상	3.72	.576	62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59	.625	54	4.875**
	100-200미만	3.73	.556	107	
	200-300미만	3.94	.700	75	
	300이상	3.94	.585	61	

주: 1) 결혼 전 국적 및 해당자녀 출생 국가 기타: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포함,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포함; 2) 종교 기타에는 불교, 이슬람, 선단, 여호와의 증인 포함; 3) 가족유형 기타에는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삼촌, 한부모+자녀+시아머니 포함; 4) 매우 불만, 대체로 불만, 그저 그렇,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의 5점 척도..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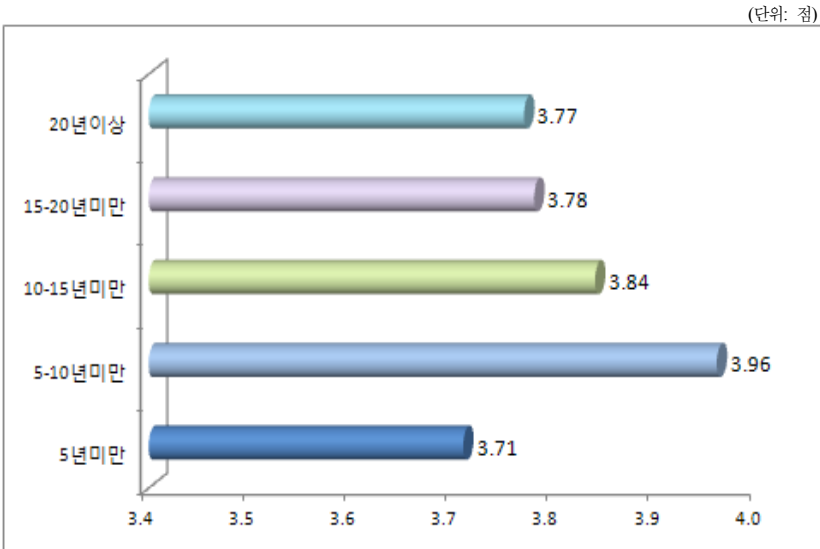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3.43~4.02점으로 30대 연령층이 높았으며 나머지는 일정하지 않았다. 교육수준별 만족도는 3.56~3.87점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가족유형별로는 3.39~3.92점으로 실수가 적은 기타 가구를 제외하고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3세대가구, 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결손가족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3.59~3.94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정리하면 부모자녀간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중국동포 및 한족 출신, 30대 연령층, 고학력소지자, 핵가족, 고소득층이었으며, 부모자녀간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동남아 출신, 저연령층, 저학력소지자, 결손가족,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그림 5-3]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부모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그림 5-4]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별 부모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1.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는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또는 또래 애착 정도 개정본(IPPA-R)을 사용하였다. IPPA-R(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또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총 6개 문항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 3개 문항, 아버지에 대한 애착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신뢰도는 .758과 .838로 높은 편이었다.

3개 문항으로 측정된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머니 애착도는 3.52점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한 수준이었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3.31점으로 중간 이상이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 애착보다 약간 더 높았다.

〈표 5-20〉 부모와의 애착 척도의 문항

	문항번호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어머니에 대한 애착	25-1, 25-2, 25-3	3	3.52	0.71	.758
아버지에 대한 애착	25-4, 25-5, 25-6	3	3.31	0.80	.838

주: 어머니 및 아버지 애착도는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음(1점), 그렇지 않음(2점), 보통(3점), 그럼(4점), 매우 그럼(5점)으로 점수를 평점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도가 높은 것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지역, 결혼이민자의 연령 및 해당자녀의 중도입국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21 참조).

지역별로는 3.42~3.83점으로 대도시 지역이 어머니 애착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어촌, 중소도시 순으로 높았으며 지역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28~3.74점으로 30대 연령층이 높았으며 나머지는 일정하지 않았으며, 해당자녀의 중도입국여부는 비슷하였다.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해당자녀의 중도입국 여부, 배우자의 직업 및 월평균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지역, 결혼 전 국적, 한국거주기간, 연령, 결혼상태, 취업유무, 배우자의 경찰상태 및 가족유형, 총 자녀수 등은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5-22 참조).

교육수준별로는 3.05~3.45점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애착도가 높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애착도가 낮았다. 배우자의 직업별로는 3.17~3.70점으로 관리자·전문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및 사무종사자인 경우 아버지에 대한 애착도가 높았다. 해당자녀의 중도입국여부별로는 유사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3.15~3.52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애착도가 높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애착도가 낮았다.

〈표 5-21〉 특성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단위: 점, 명)

특성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전체		3.52	.710	329	
지역구분	대도시	3.83	.950	29	4.087*
	중소도시	3.42	.659	120	
	농어촌	3.53	.687	180	
결혼 전 국적	일본	3.49	.685	164	2.478
	중국동포 및 한족	3.55	.776	85	
	동남아시아	3.48	.666	73	
	기타	4.33	.667	5	
한국거주기간	5년 미만	3.64	.775	13	2.077
	5-10년 미만	3.62	.794	14	
	10-15년 미만	3.63	.719	135	
	15-20년 미만	3.39	.677	131	
	20년 이상	3.46	.669	28	
응답자 연령	15~29세	3.50	.976	8	4.654**
	30~39세	3.74	.724	83	
	40~49세	3.46	.683	201	
	50~59세	3.28	.664	35	
결혼상태	유배우	3.52	.713	306	0.518
	이혼·별거·사별	3.44	.693	22	
응답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3.30	.758	40	2.640
	고졸	3.51	.672	149	
	대졸이상	3.59	.729	139	
응답자 취업유무	취업	3.53	.711	198	0.690
	비취업	3.47	.731	114	
배우자 경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3.53	.670	138	0.554
	임시직	3.60	.795	27	
	지역일자	3.57	.672	42	
	기타(실업자 등)	3.44	.771	84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65	.615	23	
배우자 직업	사무종사자	3.52	.720	16	1.860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3.34	.583	34	
	기능원 및 장치	3.46	.850	3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76	.737	48	
	단순노무자 및 기타	3.47	.703	149	
	부부+자녀	3.56	.703	243	1.218
가족유형	한부모+자녀	3.39	.621	19	
	3세대 가구	3.38	.730	54	
	기타	3.67	1.414	2	
총 자녀수	1~2명	3.53	.751	163	0.310
	3명	3.50	.682	100	
	4명 이상	3.45	.633	62	
해당자녀 중도입국여부	중도입국	3.51	.721	285	-0.270*
	중도입국 아님	3.54	.580	34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53	.798	55	1.056
	100-200미만	3.42	.650	109	
	200-300미만	3.60	.754	76	
	300이상	3.52	.674	64	

주: 1) 결혼 전 국적 및 해당자녀 출생 국가 기타: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포함,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포함; 2) 종교 기타에는 불교, 이슬람, 선단, 여호와의 증인 포함; 3) 가족유형 기타에는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삼촌, 한부모+자녀+시아머니 포함; 4)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럼, 매우 그렇음의 5점 척도.. * $p<0.5$, ** $p<0.1$

〈표 5-22〉 특성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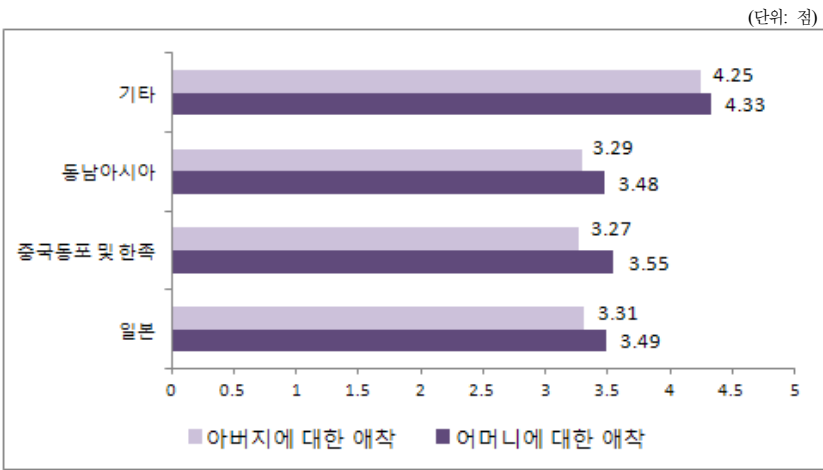
(단위: 점, 명)

특성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전체		3.31	.807	321	
지역구분	대도시	3.57	1.154	27	1.788
	중소도시	3.24	.721	119	
	농어촌	3.31	.795	175	
결혼 전 국적	일본	3.31	.814	160	1.968
	중국동포 및 한족	3.27	.818	83	
	동남아시아	3.29	.722	71	
	기타	4.25	.877	4	
한국거주기간	5년 미만	3.14	1.24	12	2.318
	5-10년 미만	3.60	.859	14	
	10-15년 미만	3.41	.755	134	
	15-20년 미만	3.16	.814	126	
	20년 이상	3.38	.677	28	
응답자 연령	15~29세	3.48	1.069	7	1.933
	30~39세	3.45	.835	83	
	40~49세	3.29	.796	195	
	50~59세	3.08	.697	34	
결혼상태	유배우	3.33	.795	304	1.014
	이혼·별거·사별	3.11	.888	15	
응답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3.05	.734	37	4.668*
	고졸	3.24	.781	145	
	대졸이상	3.45	.833	138	
응답자 취업유무	취업	3.25	.835	192	-1.211
	비취업	3.37	.780	114	
배우자 생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3.34	.724	138	2.041
	임시직	3.29	.795	25	
	지역업자	3.48	.881	423	
	기타(실업자 등)	3.14	.870	83	
배우자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70	.710	23	3.742**
	사무종사자	3.54	.851	165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3.31	.651	34	
	기능원 및 장치	3.17	.741	3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56	.851	48	
	단순노무자 및 기타	3.15	.780	146	
가족유형	부부+자녀	3.31	.784	241	2.514
	한부모+자녀	2.96	.677	15	
	3세대 가구	3.31	.841	52	
	기타	5.00	.	1	
총 자녀수	1-2명	3.23	.832	158	1.682
	3명	3.32	.732	99	
	4명 이상	3.44	.811	60	
해당자녀 중도입국여부	중도입국	3.28	.796	277	-0.270*
	중도입국 아님	3.37	.828	34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22	.916	51	3.070*
	100-200미만	3.15	.774	106	
	200-300미만	3.31	.754	75	
	300이상	3.52	.722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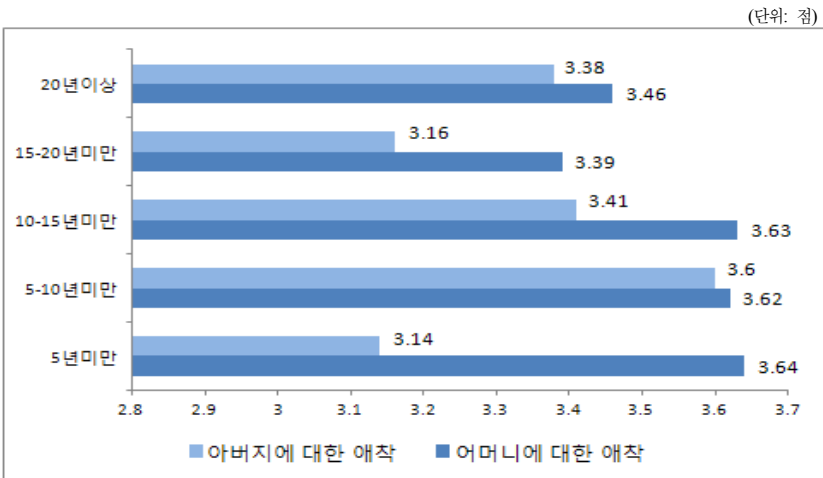
주: 1) 결혼 전 국적 및 해당자녀 출생 국가 기타: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포함,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포함; 2) 종교 기타에는 불교, 이슬람, 선단, 여호와의 증인 포함; 3) 가족유형 기타에는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삼촌, 한부모+자녀+시아머니 포함; 4)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림, 매우 그림의 5점 척도.. * $p<0.5$

정리하면 어머니 애착은 대도시거주자, 30대 연령층인 경우 높았고, 아버지 애착은 고학력자, 배우자의 직업이 관리직·전문직, 고소득층인 경우 높았으며, 공통적으로 자녀가 중도입국인 아닌 경우 부모 애착이 높아서 어머니와 아버지 애착에 영향을 주는 특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5-5]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자녀의 부모애착도



[그림 5-6]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별 자녀의 부모애착도



제3절 가족응집력 및 가족갈등

1. 가족응집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응집력 척도는 어은주 외(1995)가 개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34개 문항 중에서 15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하위영역은 가족간의 몰입,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원의 적응력 등 3개로 가족간의 몰입 6개 문항, 가족간의 의사소통 6개 문항, 가족원의 적응력에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족간의 몰입과 가족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가족원의 적응력의 신뢰도는 .852와 .884 그리고 .932로 높은 편이었다.

6개 문항으로 측정된 모의 가족간의 몰입은 3.60, 가족간의 의사소통은 3.67 그리고 3개 문항으로 측정된 가족원의 적응력은 3.61점으로 모두 중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높았고, 가족간의 몰입과 가족원의 적응력은 비슷하였다. 아동은 가족간의 몰입이 3.59점, 가족간의 의사소통 3.62점, 가족원의 적응력은 3.55점으로 3개 영역에서 중간 이상이었고,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족간의 몰입, 가족원의 적응력 순으로 높았다. 모와 아동을 비교하면 3개 영역에서 모가 아동보다 다소 응집도가 높았고, 공통적으로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높았다.

〈표 5-23〉 가족생활 응집성 척도의 문항

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모	아동	모	아동	
가족간의 몰입	32-2, 32-4, 32-7 32-11, 32-13, 32-15	6	3.60	3.59	0.63	.852	.852
가족간의 의사소통	32-1, 32-3, 32-5, 32-8, 32-10, 32-12	6	3.67	3.62	0.63	.841	.884
가족원의 적응력	32-6, 32-9, 32-14	3	3.61	3.55	0.62	.851	.932
전체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2-10, 32-11, 32-12 32-13, 32-14, 32-15	15	3.63	3.59	0.59	.816	0.954

주: 가족간의 몰입, 가족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가족원의 적응력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음(1점), 그렇지 않음(2점), 보통(3점), 그림(4점), 매우 그림(5점)으로 점수를 평점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도가 높은 것을 말함.

가. 가족간의 몰입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모의 가족간의 몰입은 결혼 전 국적과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지역, 한국거주기간, 연령, 결혼 상태, 교육수준 및 취업유무, 배우자의 경찰상태 및 직업, 가족유형 및 총 자녀수, 해당자녀 중도입국 유무 등은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5-24 참조).

결혼 전 국적별 모의 가족간 몰입은 3.50~4.20점으로 실수가 적은 기타 국가를 제외하고 중국동포 및 한족 출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동남아시아, 일본 순으로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3.51~3.69점으로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간의 몰입이 높은 편이었고,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간의 몰입이 낮은 편이었다.

한편 아동의 가족간 몰입은 지역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모의 결혼전 국적, 한국거주기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및 취업유무, 부의 경찰상태 및 직업, 가족유형 및 총 자녀수, 해당자녀 중도입국 유무, 월평균 가구소득 등은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24 참조).

지역별 아동의 가족간 몰입은 3.46~3.92점으로 대도시지역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어촌, 중소도시 순으로 높았으며 지역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모와 아동을 비교하면 모는 중국동포 및 한족 출신, 고소득자인 경우 가족간 몰입이 높았고, 아동은 모가 대도시지역 거주자인 경우 높았다.

〈표 5-24〉 특성별 가족생활 응집성: 가족간의 몰입

(단위: 점, 명)

특성		부모				아동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전체		3.60	.628	329		3.59	.852	334	
지역구분	대도시	3.80	.749	29	2.652	3.92	.860	30	3.847*
	중소도시	3.52	.610	121		3.46	.848	123	
	농어촌	3.61	.614	179		3.62	.840	181	
결혼 전 국적	일본	3.50	.591	162	4.601**	3.57	.827	164	1.171
	중국동포 및 한족	3.74	.687	87		3.72	.901	88	
	동남아시아	3.57	.573	73		3.48	.791	74	
	기타	4.20	.691	5		3.77	1.001	5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3.67	.739	13	2.118	3.74	.568	13	1.292
	5-10년 미만	3.79	.780	14		3.27	1.139	14	
	10-15년 미만	3.68	.606	138		3.67	.855	140	
	15-20년 미만	3.49	.607	129		3.49	.819	131	
	20년 이상	3.53	.598	28		3.55	.903	28	
응답자 연령	15~29세	3.63	.647	8	2.245	3.88	.510	8	2.172
	30~39세	3.75	.615	87		3.72	.810	88	
	40~49세	3.55	.644	197		3.50	.852	201	
	50~59세	3.50	.530	35		3.74	.879	35	
	60세 이상	3.61	.627	307		3.58	.865	310	
결혼상태	유배우	3.61	.627	307	2.240	3.58	.865	310	-0.720
	이혼·별거·사별	3.29	.574	20		3.71	.683	22	
응답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3.51	.646	41	1.717	3.50	.726	42	0.277
	고졸	3.55	.632	148		3.60	.867	151	
	대졸이상	3.67	.617	139		3.60	.876	140	
응답자 취업유무	취업	3.62	.646	198	1.180	3.55	.878	201	-0.467
	비취업	3.53	.612	115		3.60	.777	116	
배우자 생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3.58	.569	139	1.624	3.66	.880	140	1.281
	임시직	3.60	.740	28		3.59	.735	28	
	자영업자	3.68	.652	41		3.56	.919	42	
	기타(실업자 등)	3.57	.687	84		3.43	.861	84	
배우자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67	.485	23	1.631	3.84	.625	23	1.096
	사무종사자	3.79	.469	16		3.68	1.012	16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3.56	.529	34		3.49	.864	34	
	기능원 및 장치	3.46	.602	34		3.41	.834	3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65	.699	48		3.70	.928	49	
가족유형	단순노무자 및 기타	3.57	.645	149	2.241	3.54	.827	151	1.276
	부부+자녀	3.64	.619	244		3.57	.875	247	
	한부모+자녀	3.28	.526	17		3.68	.543	19	
	3세대 가구	3.52	.686	54		3.51	.850	54	
총 자녀수	기타	3.25	.825	2	0.293	4.67	.000	2	0.934
	1~2명	3.62	.671	163		3.62	.865	166	
	3명	3.57	.581	101		3.58	.829	102	
해당자녀 중도입국유무	4명 이상	3.57	.608	61	-0.117	3.45	.847	62	0.662
	중도입국	3.59	.634	32		3.60	.824	290	
	중도입국 아님	3.60	.480	287		3.50	.968	34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51	.666	54	3.640*	3.71	.715	56	2.458
	100-200미만	3.52	.598	109		3.46	.841	110	
	200-300미만	3.69	.663	77		3.46	.932	78	
	300이상	3.61	.582	63		3.74	.836	64	

주: 1) 결혼 전 국적 및 해당자녀 출생 국가 기타: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포함,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포함; 2) 종교 기타에는 불교, 이슬람, 선단, 여호와의 증인 포함; 3) 가족유형 기타에는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삼촌, 한부모+자녀+시아머니 포함; 4)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럼, 매우 그럼의 5점 척도.. * p<0.5

나. 가족간의 의사소통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모의 가족간의 의사소통은 결혼 전 국적과 연령 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지역, 한국거주기간, 결혼상태, 교육수준 및 취업유무, 배우자의 생활상태 및 직업, 가족유형 및 총 자녀수, 해당 자녀 중도입국 유무, 월평균 가구소득 등은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유사하였다(표 5-25 참조).

결혼 전 국적별 모의 가족간의 의사소통은 3.58~4.30점으로 실수가 적은 기타 국가를 제외하고 중국동포 및 한족 출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 동남아시아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3.56~3.87점으로 30대 연령층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40대 순으로 높아서 일정하지 않았다.

한편 아동의 가족간의 의사소통은 지역, 모의 연령 및 해당자녀 중도입국 유무, 월평균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결혼전 국적, 한국거주기간, 결혼상태, 교육수준 및 취업유무, 부의 생활상태 및 직업, 가족유형 및 총 자녀수 등은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25 참조).

지역별 아동의 가족간의 의사소통은 3.51~4.05점으로 대도시지역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어촌, 중소도시 순으로 높았으며 지역 간에 차이를 보였다. 모의 연령별로는 3.53~4.10점으로 50대 연령층을 제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해당자녀 중도입국 유무별로는 자녀가 중도입국하지 않은 경우 3.80점으로 중도입국한 경우의 3.65점보다 다소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3.45~3.78점으로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높았다.

모와 아동을 비교하면 모는 중국동포 및 한족 출신, 중장년층인 경우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높았고, 아동은 모가 대도시지역 거주자, 젊은 연령층, 아동이 비중도입국자, 고소득자인 경우 높았다.

〈표 5-25〉 특성별 가족생활 응집성: 가족간의 의사소통

(단위: 점, 명)

특성		부모				아동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전체		3.67	.630	331		3.62	.841	328	
지역구분	대도시	3.90	.720	29	2.195	4.05	.917	29	5.097**
	중소도시	3.64	.623	123		3.51	.813	121	
	농어촌	3.66	.615	179		3.64	.827	178	
결혼 전 국적	일본	3.61	.622	164	1.087**	3.62	.827	162	1.617
	중국동포 및 한족	3.80	.637	86		3.74	.906	84	
	동남아시아	3.58	.549	73		3.50	.762	74	
	기타	4.30	1.003	5		4.10	.641	5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3.76	.757	13	1.274	3.97	.641	13	2.052
	5-10년 미만	3.88	.726	14		3.17	1.149	13	
	10-15년 미만	3.72	.619	139		3.68	.774	137	
	15-20년 미만	3.59	.616	130		3.54	.843	129	
	20년 이상	3.65	.563	28		3.61	.941	28	
응답자 연령	15~29세	3.56	.549	8	3.833*	4.10	.666	8	2.839*
	30~39세	3.87	.635	87		3.77	.752	85	
	40~49세	3.60	.628	199		3.53	.847	198	
	50~59세	3.62	.575	35		3.75	.908	35	
	60세 이상	3.68	.629	309		3.61	.849	304	
결혼상태	유배우	3.68	.629	309	1.234	3.61	.849	304	-0.931
	이혼·별거·사별	3.500	.628	20		3.79	.742	22	
응답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3.54	.611	41	1.950	3.54	.747	40	0.222
	고졸	3.65	.621	149		3.63	.860	149	
	대졸이상	3.74	.637	140		3.64	.853	138	
응답자 취업유무	취업	3.71	.629	200	1.396	3.58	.874	196	-0.886
	비취업	3.61	.640	115		3.67	.741	115	
배우자 생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3.65	.605	140	0.464	3.69	.871	137	1.653
	임시직	3.66	.680	28		3.77	.725	25	
	자영업자	3.77	.685	42		3.64	.852	42	
	기타(실업자 등)	3.63	.645	83		3.45	.854	84	
배우자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75	.619	23	0.841	3.88	.702	23	1.268
	사무종사자	3.92	.594	15		3.72	.969	16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3.64	.602	34		3.49	.805	33	
	기능원 및 장치	3.56	.577	34		3.47	.902	3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67	.930	49		3.76	.845	49	
	단순노무자 및 기타	3.64	.594	151		3.56	.819	148	
가족유형	부부+자녀	3.71	.616	246	1.660	3.62	.869	241	0.856
	한부모+자녀	3.42	.507	17		3.78	.619	19	
	3세대 가구	3.59	.696	54		3.52	.815	54	
	기타	3.33	.943	2		4.25	.118	2	
총 자녀수	1~2명	3.69	.689	164	0.069	3.64	.860	162	0.324
	3명	3.67	.568	101		3.62	.810	100	
	4명 이상	3.65	.577	62		3.54	.837	62	
해당자녀 중도입국유무	중도입국	3.65	.626	287	-1.396	3.65	.627	287	-0.075*
	중도입국 아님	3.80	.539	34		3.80	.539	34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55	.670	54	1.936	3.75	.692	55	2.800*
	100-200미만	3.59	.589	109		3.45	.827	108	
	200-300미만	3.74	.689	78		3.59	.885	76	
	300이상	3.75	.551	64		3.78	.861	63	

주: 1) 결혼 전 국적 및 해당자녀 출생 국가 기타: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포함,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포함; 2) 종교 기타에는 불교, 이슬람, 선단, 여호와의 증인 포함; 3) 가족유형 기타에는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삼촌, 한부모+자녀+시아머니 포함; 4)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럼, 매우 그럼의 5점 척도. * $p<0.5$, ** $p<0.1$

다. 가족원의 적응력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모의 가족원의 적응력은 한국 거주기간, 연령,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지역, 결혼 전 국적, 결혼상태 및 취업유무, 배우자의 경찰상태 및 직업, 가족유형 및 총 자녀수, 해당자녀 중도입국 유무, 월평균 가구소득 등은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유사하였다(표 5-26 참조).

한국 거주기간별로는 모의 가족원의 적응력은 3.49~3.98점으로 5~10년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10~15년 미만, 20년 미만 순으로 높으나 일정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48~3.79점으로 15~29세를 제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3.42~3.69점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원의 적응력이 높았다.

한편 아동의 가족원의 적응력은 지역, 모의 연령 및 해당자녀 중도입국 유무, 월평균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결혼전 국적, 한국 거주기간, 결혼상태, 교육수준 및 취업유무, 부의 경찰상태 및 직업, 가족유형 및 총 자녀수 등은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26 참조).

지역별 아동의 가족원의 적응력은 3.42~3.90점으로 대도시지역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어촌, 중소도시 순으로 높았으며 지역 간에 차이를 보였다. 모의 연령별로는 3.46~3.92점으로 15~29세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연령, 30대 연령층 순으로 나타나 일정하지 않았다. 해당자녀 중도입국 유무별로는 자녀가 중도입국하지 않은 경우 3.73점으로 중도입국한 경우의 3.59점보다 다소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3.40~3.75점으로 1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원의 적응력이 높았다.

모와 아동을 비교하면 모는 5~10년 미만 거주자, 젊은 연령층, 고학

력자인 경우 가족원의 적응력이 높았고, 아동은 모가 대도시지역 거주자, 젊은 연령층, 아동이 비중도입국자, 고소득자인 경우 높았다.

〈표 5-26〉 특성별 가족생활 응집성: 가족원의 적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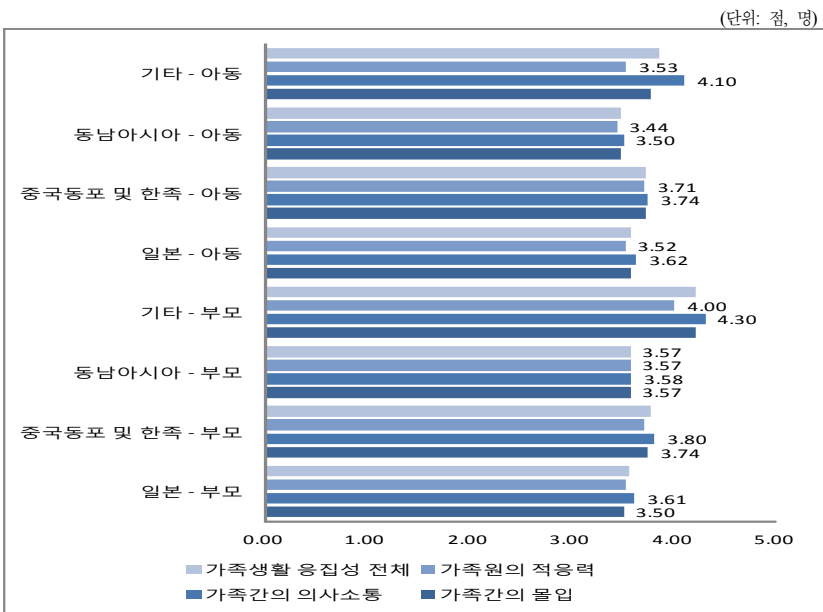
(단위: 점, 명)

특성		부모				아동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전체		3.61	.621	329		3.55	.851	331	
지역구분	대도시	3.79	.692	29	1.449	3.90	.952	30	4.136*
	중소도시	3.59	.617	121		3.42	.822	122	
	농어촌	3.59	.610	179		3.58	.839	179	
결혼 전 국적	일본	3.53	.556	161	2.229	3.52	.827	162	1.489
	중국동포 및 한족	3.71	.687	87		3.71	.940	88	
	동남아시아	3.57	.633	73		3.44	.774	73	
	기타	4.00	.527	5		3.53	.989	5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3.56	.798	13	2.787*	3.92	.735	13	0.961
	5-10년 미만	3.98	.673	14		3.43	1.082	14	
	10-15년 미만	3.66	.639	138		3.56	.809	138	
	15-20년 미만	3.49	.564	129		3.47	.835	130	
	20년 이상	3.63	.547	28		3.58	1.021	28	
응답자 연령	15~29세	3.63	.677	8	3.820*	3.92	.772	8	2.662*
	30~39세	3.79	.636	88		3.67	.800	87	
	40~49세	3.55	.618	196		3.46	.838	200	
	50~59세	3.48	.519	35		3.76	.923	34	
결혼상태	유배우	3.01	.611	308	0.558	3.54	.867	307	-0.748
	이혼·별거·사별	3.53	.764	19		3.68	.654	22	
응답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3.42	.667	41	3.243*	3.48	.837	42	0.210
	고졸	3.58	.624	149		3.55	.873	149	
	대졸이상	3.69	.596	138		3.58	.837	139	
응답자 취업유무	취업	3.64	.637	199	1.077	3.45	.864	201	-0.954
	비취업	3.56	.617	114		3.59	.783	113	
배우자 생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3.65	.596	139	0.635	3.61	.822	140	1.822
	임시직	3.49	.657	28		3.69	.745	27	
	자영업자	3.64	.625	41		3.57	.863	42	
	기타(실업자 등)	3.58	.642	84		3.36	.949	82	
배우자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67	.582	22	0.924	3.75	.629	23	1.031
	사무종사자	3.54	.665	16		3.71	.833	16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3.47	.493	34		3.38	.857	34	
	기능원 및 장치	3.58	.610	34		3.44	.865	3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74	.751	48		3.67	.900	49	
	단순노무자 및 기타	3.60	.577	150		3.50	.856	149	
가족유형	부부+자녀	3.64	.625	245	1.139	3.56	.883	246	0.382
	한부모+자녀	3.46	.698	16		3.60	.492	19	
	3세대 가구	3.51	.567	54		3.43	.833	54	
	기타	3.33	.471	2		3.67	.47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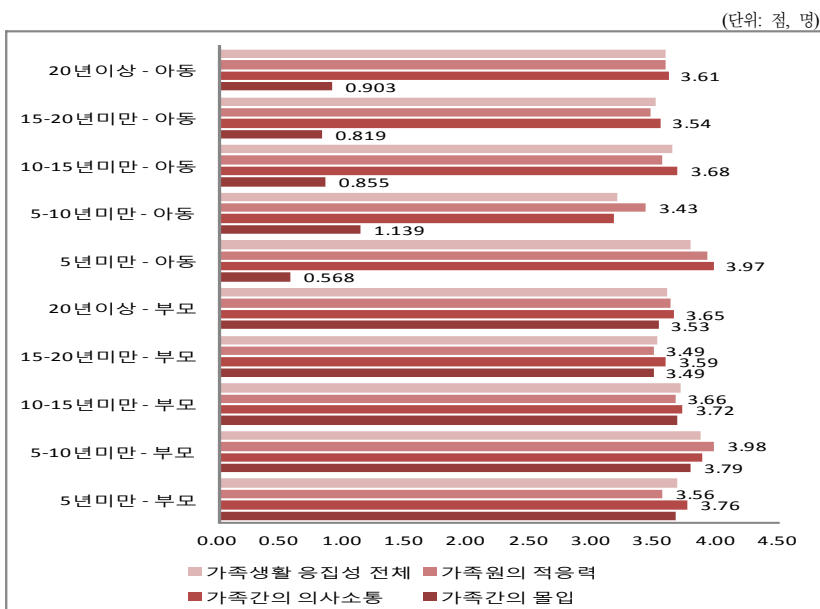
특성		부모				아동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F
총 자녀수	1-2명	3.64	.674	164	0.495	3.57	.867	163	0.154
	3명	3.60	.555	100		3.53	.858	102	
	4명 이상	3.55	.593	61		3.51	.793	62	
해당자녀 중도입국여부	중도입국	3.59	.613	287	-1.258	3.59	.613	287	0.346*
	중도입국 아님	3.73	.511	32		3.73	.511	32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47	.744	53	1.974	3.65	.742	56	3.040*
	100-200미만	3.53	.582	110		3.40	.842	108	
	200-300미만	3.67	.608	77		3.45	.895	77	
	300이상	3.69	.558	63		3.75	.742	64	

주: 1) 결혼 전 국적 및 해당자녀 출생 국가 기타: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포함,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포함; 2) 종교 기타에는 불교, 이슬람, 선단, 여호와의 증인 포함; 3) 가족유형 기타에는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삼촌, 한부모+자녀+시아머니 포함; 4)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림, 매우 그림의 5점 척도. * p<0.5

[그림 5-7] 모의 국적별 다문화가족의 응집도



[그림 5-8] 모의 거주기간별 다문화가족의 응집도



2. 가족갈등

본 연구에서 가족갈등은 김승권 외(2009)가 활용한 척도 중에서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4개 영역은 배우자와의 갈등,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경제적 갈등 등이다. 배우자와의 갈등의 하위영역은 배우자와의 성격·생활방식 차이, 배우자의 음주 또는 늦은 귀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도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 하위영역은 배우자부모와의 불화 1개 영역, 자녀와의 갈등은 자녀문제와 가사 및 육아부담 등 2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한다. 경제적 갈등은 경제문제 1개 영역으로 구성한다. 배우자와의 갈등과 자녀와의 갈등의 신뢰도는 .745와 .769로 높은 편이었다.

다문화가족의 갈등은 경제적 갈등이 2.98점으로 가장 심각하였고, 다음은 자녀와의 갈등이 3.08점, 배우자와의 갈등 3.82점 그리고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이 3.98점 순으로 심각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경제적 문제와 자녀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편이었고,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은 심각도가 다소 낮은 편이었다.

〈표 5-27〉 가족갈등 정도의 문항

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배우자와의 갈등	22-4, 22-5, 22-6	3	3.82	.789	.745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	22-7	1	3.98	1.018	
자녀와의 갈등	22-1, 22-3	2	3.08	.848	.769
경제적 갈등	22-2	1	2.98	.973	

주: 배우자와의 갈등,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 갈등은 5점 척도로 매우 어려움(1점), 약간 어려움(2점), 보통(3점), 별문제 없음(4점), 전혀 문제없음(5점)으로 점수를 평점화하였고, 점수가 낮을수록 갈등이 심각한 것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배우자와의 갈등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전 국적 및 취업유무, 배우자의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유사하였다(표 5-28 참조).

결혼 전 국적별 배우자와의 갈등은 3.40~4.17점으로 실수가 적은 기타 국가를 제외하고 동남아시아 출신이 가장 심각하였고, 다음은 중국동포 및 한족, 일본 순으로 높았다. 취업유무별로는 취업한 여성 결혼 이민자는 배우자와의 갈등이 3.77점으로 비취업자의 3.89점보다 약간 더 심각하였다. 배우자의 직업별로는 3.68~4.27점으로 단순노무자 및 기타 직업이 3.68점으로 배우자와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였고, 다음은 기능원 및 장치,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순으로 단순육체노동적인 경우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각한 편이었고, 기술직과 전문직인 경우 그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3.50~4.16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각한 경향을 보였다.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

혼전 국적, 한국 거주기간, 가족유형 및 취업유무, 배우자의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28 참조).

결혼 전 국적별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은 3.55~4.31점으로 실수가 적은 기타 국가를 제외하고 동남아시아 출신이 가장 심각하였고, 다음은 일본, 중국동포 및 한족 순으로 높았다. 한국 거주기간별로는 3.78~4.50점으로 일정하지 않았으나 5~10미만을 제외하고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가 오래된 경우보다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이 심각한 경향을 보였다. 가족유형별로는 3.33~3.50점으로 실수가 적은 기타 가구를 제외하고 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결손가족이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였고, 다음은 3세대 가구 그리고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순으로 나타나서 일정하지 않았다. 취업유무별로는 취업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이 3.92점으로 비취업자의 4.00점보다 다소 더 심각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3.73~4.34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이 심각한 경향을 보였다.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자녀와의 갈등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배우자의 생활상태, 월평균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유사하였다(표 5-28 참조).

〈표 5-28〉 부모특성별 가족간의 갈등

(단위: 점, 명)

특성		배우자와의 갈등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경제적 갈등	사례수
전체		3.82	3.98	3.08	2.81	303
지역구분	대도시	4.12	3.92	3.15	3.00	26
	중소도시	3.83	4.05	3.03	2.85	110
	농어촌	3.78	3.94	3.10	2.75	167
결혼 전 국적	일본	3.95	4.00	3.12	2.96	146
	중국동포 및 한족	3.88	4.31	3.06	2.57	81
	동남아시아	3.40	3.55	2.95	2.70	65
	기타	4.17	4.00	3.40	2.40	5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3.67	3.82	3.27	3.09	11
	5-10년 미만	3.85	4.50	3.10	3.10	11
	10-15년 미만	3.74	3.78	3.05	2.72	129
	15-20년 미만	3.86	4.12	3.05	2.78	122
	20년 이상	4.10	4.13	3.27	3.17	24
응답자 연령	15~29세	3.56	3.86	3.50	3.14	7
	30~39세	3.95	4.12	3.15	2.83	83
	40~49세	3.76	3.92	3.02	2.75	180
	50~59세	3.97	4.00	3.24	3.06	31
응답자 교육수준	중졸이하	3.64	3.89	2.86	2.83	37
	고졸	3.80	3.93	2.98	2.72	136
	대졸이상	3.90	4.05	3.26	3.03	129
응답자 취업유무	취업	3.77	3.92	3.04	2.73	186
	비취업	3.89	4.00	3.15	2.97	106
배우자 경황상태	상용직, 고용주	3.96	4.01	3.23	3.04	136
	일시직	3.67	3.96	2.68	2.32	25
	자영업자	3.83	4.02	3.11	2.95	42
	기타(실업자 등)	3.68	3.94	2.92	2.49	79
배우자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4.10	4.26	3.22	3.30	23
	사무종사자	4.27	4.20	3.47	3.40	15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3.95	3.97	3.27	3.03	33
	기능원 및 장차	3.71	3.87	3.20	2.81	3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81	3.81	2.99	2.58	48
	단순노무자 및 기타	3.68	3.95	2.96	2.70	142
가족유형	부부+자녀	3.84	4.09	3.08	2.82	241
	한부모+자녀	3.67	3.33	2.33	2.67	3
	3세대 가구	3.78	3.50	3.09	2.66	50
	기타	4.00	5.00	4.00	3.00	1
총 자녀수	1-2명	3.80	3.85	3.12	2.70	150
	3명	3.80	4.04	3.10	2.94	98
	4명 이상	3.94	4.21	2.92	2.83	53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50	3.73	2.61	2.09	44
	100-200미만	3.75	3.86	2.84	2.49	103
	200-300미만	3.78	3.97	3.28	2.87	75
	300이상	4.16	4.34	3.44	3.58	64

주: 1) 결혼 전 국적 및 해당자녀 출생 국가 기타: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포함,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포함; 2) 가족유형 기타에는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삼촌, 한부모+자녀+시아머니 포함; 3) 배우 어려움, 약간 어려움, 보통, 별 문제 없음, 전혀 문제 없음의 5점 척도; 4) 배우자와의 갈등에서 결혼전 국적(7.666***), 취업유무(-1.317**), 배우자 직업(2.277*), 월평균 가구소득(7.036****)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배우자 부모와의 불화에서는 결혼전 국적(7.088****), 한국거주기간(2.743*), 가족유형(5.560**), 취업유무(-0.640**), 월평균 가구소득(4.240**) 등이 유의함; 5) 자녀와의 갈등에서 교육수준(5.079**), 배우자 경황상태(4.331**), 월평균 가구소득(14.598****)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경제문제는 결혼 전 국적(3.090*), 교육수준(7.076**), 배우자 경황상태(7.267****), 배우자 직업(3.315**), 월평균 가구소득(30.166****) 등이 유의함.

교육수준별 자녀와의 갈등은 2.86~3.26점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각한 경향을 보였고, 배우자의 생활상태별로는 2.68~3.23점으로 임신직인 경우가 자녀와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였고, 다음은 기타, 자영업자 그리고 상용직 및 고용주 순으로 나타나서 고용불안이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2.61~3.44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심각한 경향을 보였다.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경제적 갈등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전 국적 및 교육수준, 배우자의 생활상태 및 직업,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28 참조).

결혼 전 국적별 경제적 갈등은 2.40~2.96점으로 실수가 적은 기타 국가를 제외하고 중국동포 및 한족이 가장 심각하였고, 다음은 동남아시아, 일본 순으로 높았다. 교육수준별 경제적 갈등은 2.83~3.03점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각한 경향을 보였고, 배우자의 생활상태별로는 2.32~3.04점으로 임신직인 경우가 경제적 갈등이 가장 심각하였고, 다음은 기타, 자영업자 그리고 상용직 및 고용주 순으로 나타나서 고용불안이 경제적 갈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배우자의 직업별로는 2.58~3.40점으로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경제적 갈등이 가장 심각하였고, 다음은 단순노무자 및 기타 직업, 기능원 및 장치,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순으로 단순육체노동적인 경우 경제적 갈등이 심각한 편이었고, 기술직과 전문적인 경우 그 정도가 낮아서 배우자의 직업이 경제적 갈등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2.09~3.58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갈등이 심각한 경향을 보였다.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적응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다문화가족의 경우 아동 돌봄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중간정도이나 권위적인 측면이 많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전한 자녀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가족 안전망 장치가 요구된다.

다문화가족의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3분의 2 이상이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63%인 절반 이상이 취업자임에도 자녀양육담당자의 72%가 어머니에 편중되어서 맞벌이 다문화가족의 경우 다문화가족 아동의 방과 후 자녀돌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문화가족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3.65점으로 보통을 상회하나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및 취업유무 등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부간의 학력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며, 언어생활 또한 다수가 한국어만을 사용하여 배우자의 권위적인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부부관계에 부(負)로 작용하여, 아동의 가족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부관계의 균형적 개선을 위한 각종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약 71%로 높은 편이나 고용상태가 임시·자영업 등으로 불안정하였고, 다문화가족의 과반수 정도는 경제수준이 열악함에도 다수가 비수급가구로 나타나서 빈곤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지표인 만족도와 애착도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서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은 차별적 요인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는 만족도와 애착도를 중심으로 측정한 결

과,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는 3.81점으로 보통을 상회하여 대체로 만족에 근접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머니 애착도는 3.52점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한 수준이었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3.31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 애착보다 약간 더 높았다.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와 애착도는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및 고용상태, 가구소득 그리고 가족형태 등 다문화가족의 인구사회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가족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아동의 가족생활 적응의 제고를 위해서는 부모자녀관계의 올바른 정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적응 증진을 위해 부모자녀관계 정립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이는 다문화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에서 일부 발견되는 거부적 및 통제적 양육관은 아동의 가족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문화가족 전문기관 및 자조모임 등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족의 4개의 영역에 걸쳐 측정된 자녀양육관은 2.51~3.57점으로 중간 전후의 분포를 보였다. 다수의 다문화가족은 애정적, 통제적 그리고 자율적 태도의 자녀양육관을 보였으며, 일부는 자녀에 대한 거부적 태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애정적 및 자율적 양육관은 고학력, 고소득 및 핵가족형태를 가진 비교적 양호한 다문화가족에서 나타났고, 거부적 및 통제적 양육관은 저학력, 저소득 및 결손가족 형태를 가진 취약한 다문화가족에서 나타났다. 부모의 거부적 및 통제적 자녀양육관은 아동의 가족생활적응에 부적응을 초래하여 건강한 세대육성과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문기관 및 자조모임 등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등을 공유하고 적용하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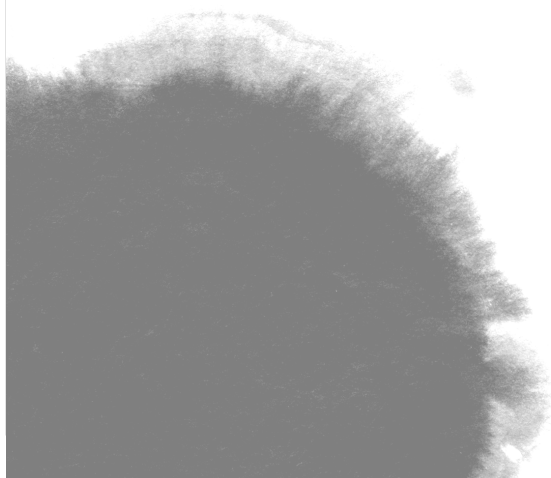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원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생활적응의 측정 지표인 가족응집력은 가족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이를 반영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가족응집과 밀접한 가족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생활적응을 측정하는 지표인 가족응집력을 3개 영역에 걸쳐 측정한 결과, 모의 가족응집도는 3.60~3.67점이고, 아동은 3.55~3.62점으로 가족간의 몰입,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원의 적응력 등 3개 영역에서 모가 아동보다 응집도가 높았고, 모와 아동 모두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높았다. 통계적 분석결과, 가족응집도는 거주지역, 부모의 연령, 출신국, 학력 및 소득 등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양호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가족응집력이 높았다. 아동의 가족생활적응은 가족응집과 밀접하고 가족응집력은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양호할 때 높으므로 가족응집력 제고를 위해 가족특성을 반영한 가족관계 향상과 함께 가족응집과 관련이 높은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06

다문화가족 이동의 학교생활적응 실태



제6장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실태

본 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적응 정도, 학교생활전반에 있어서 만족정도,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히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비교집단으로 일반아동을 설정하여 각 집단별 아동의 성별, 학년별, 주관적 경제수준별, 아버지 학력별에 따른 적응 정도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특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별, 가구소득별, 어머니 출신국가별, 한국 거주기간별, 아버지 학력 및 경제활동 참여상태별로 구분하여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의 성별, 학년별, 주관적 경제수준별, 아버지 학력별에 따른 적응 실태를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제1 절 학교생활 적응 정도

본 절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구특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을 파악해보고 다문화가족과 일반아동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아영(2002)이 표준화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보완·수정하여 다음의 <표 6-1>과 같이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교사관계 .84, 친구관계 .78, 학교수업 .75, 학교규칙 .68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6-1〉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문항번호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교사관계	1,7,10,13	4	3.55	0.87	.84
친구관계	2,6,9,12,16*	5	3.79	0.76	.78
학교수업	3,5,8,14*	4	3.32	0.82	.75
학교규칙	4,11,15	3	3.76	0.80	.68

주: 1)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그렇지않다(1점)’~‘매우그렇다(5점)’으로 배점하여 점수를 평정화하였음.

2) *는 역코딩 문항임.

1. 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중 ‘교사관계’를 알아본 결과, 전체 평균 각각 3.53점, 3.57점인 것으로 나타나 교사관계 정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별, 주관적 경제수준별, 아버지 학력별에 따른 교사관계는 약 3.5점대 전후의 분포를 보여 전반적으로 아동의 교사관계 정도는 보통이상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2〉 다문화 및 일반아동의 교사관계

(단위: 점)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전체		3.53	383	3.57	406
성별	남	3.45	203	3.48	193
	여	3.62	180	3.66	213
학년별	초저(3-4학년)	3.45	119	3.60	118
	초고(5-6학년)	3.59	93	3.84	103
	중(1-3학년)	3.55	171	3.41	185
주관적 경제수준	어려운 편임	3.39	61	3.25	30
	보통	3.52	244	3.49	229
	잘 사는 편임	3.63	77	3.78	143
아버지 학력	중졸	3.38	40	3.25	10
	고졸	3.66	98	3.66	101
	대졸이상	3.70	77	3.78	111

주: 다문화가족 아동의 케이스는 조사에 전체 참여한 아동의 인원임.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사관계정도는 다음의 <표 6-3>과 같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사관계는 전체 평균 3.53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특성 및 가족특성별 교사관계 정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아동의

성별과 아동의 거주지역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보다 여아의 적응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의 학년별에 따른 적응 정도는 초고생(5-6학년)이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 외에도 한국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교사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특성은 지역별에 따른 적응의 차이로 중소도시, 농어촌보다 대도시의 아동의 교사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10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6-3〉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사관계

구분		M	SD	N	(단위: 점, 명) t, F
전체		3.53	0.83	332	-
성	남	3.43	0.85	172	-2.388*
	여	3.65	0.80	160	
학년	초저(3-4학년)	3.40	0.97	97	2.450
	초고(5-6학년)	3.68	0.88	73	
	중(1-3학년)	3.54	0.71	161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3.56	0.66	13	.719
	5-10년 미만	3.43	1.02	14	
	10-15년 미만	3.49	0.92	139	
	15-20년 미만	3.54	0.75	131	
	20년 이상	3.77	0.73	28	
어머니 출신국가	중국	3.50	0.80	161	1.611
	필리핀	3.67	0.83	88	
	일본	3.41	0.83	70	
	기타	3.73	1.13	13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3.54	0.69	41	.364
	고졸	3.49	0.85	150	
	대졸이상	3.58	0.85	140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44	0.80	75	.775
	고졸	3.58	0.85	157	
	대졸	3.53	0.85	87	
어머니 취업유무	취업	3.53	0.84	199	.215
	미취업	3.51	0.83	116	
아버지 생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3.54	0.83	138	.337
	임시직	3.53	0.75	78	
	자영업자	3.53	0.93	42	
	기타(실업자 등)	3.38	0.93	34	

구분		M	SD	N	t, F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58	0.77	56	1.215
	100-200미만	3.51	0.76	109	
	200-300미만	3.41	0.90	77	
	300이상	3.65	0.77	64	
지역구분	대도시	4.10	0.76	30	8.045***
	중소도시	3.50	0.77	122	
	농어촌	3.46	0.85	180	

주: 1) * $p<.05$, *** $<.001$

2) 전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케이스는 386명이나 다문화가족 및 부모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부모와 매칭되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케이스는 334명만 추출하여 조사하였음.

2. 학교생활적응: 친구관계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중 ‘친구관계’를 알아본 결과, 전체 평균 각각 3.75점, 3.83점인 것으로 나타나 친구관계 정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별, 주관적 경제수준별, 아버지 학력별에 따른 친구관계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3.6~3.9점대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반아동의 경우 3.7~4.0점대로 비교적 다문화가족 아동보다 친구관계정도가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아동의 친구관계 정도는 보통이상 적응하고 있는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6-4〉 다문화 및 일반아동의 친구관계

(단위: 점)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전체		3.75	384	3.83	405
성별	남	3.71	201	3.86	193
	여	3.79	183	3.80	212
학년별	초저(3-4학년)	3.63	120	3.98	116
	초고(5-6학년)	3.76	94	4.03	103
	중(1-3학년)	3.82	170	3.62	186
주관적 경제수준	어려운 편임	3.63	61	3.47	30
	보통	3.76	245	3.75	227
	잘 사는 편임	3.78	77	4.03	144
아버지 학력	중졸	3.91	40	3.66	10
	고졸	3.87	98	3.86	102
	대졸이상	3.85	77	3.93	110

〈표 6-5〉 다문화가족 아동의 친구관계

(단위: 점, 명)

구분		M	SD	N	t, F
전체		3.76	0.80	333	-
성	남	3.69	0.79	171	-1.724
	여	3.84	0.80	162	
학년	초저(3-4학년)	3.65	0.89	98	1.283
	초고(5-6학년)	3.81	0.80	74	
	중(1-3학년)	3.80	0.73	160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3.89	0.87	13	1.507
	5-10년 미만	3.70	1.29	14	
	10-15년 미만	3.71	0.83	140	
	15-20년 미만	3.73	0.72	131	
	20년 이상	4.09	0.53	28	
어머니 출신국가	중국	3.81	0.74	160	4214**
	필리핀	3.90	0.81	88	
	일본	3.58	0.75	72	
	기타	3.26	1.24	13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3.61	0.73	42	.836
	고졸	3.79	0.80	151	
	대졸이상	3.78	0.82	139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69	0.78	76	.434
	고졸	3.79	0.81	157	
	대졸	3.79	0.80	87	
어머니 취업유무	취업	3.74	0.83	201	-.279
	미취업	3.76	0.75	115	
아버지 생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3.79	0.85	140	.911
	임시직	3.75	0.63	77	
	자영업자	3.86	0.83	42	
	기타(실업자 등)	3.57	0.96	34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63	0.72	56	1.501
	100-200미만	3.79	0.76	110	
	200-300미만	3.65	0.82	77	
	300이상	3.88	0.89	64	
지역구분	대도시	4.05	0.70	30	3.558*
	중소도시	3.64	0.85	122	
	농어촌	3.80	0.77	181	

주: 1) *p<.05, **0<.01

2) 전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케이스는 386명이나 다문화가족 및 부모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부모와 매칭되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케이스는 334명만 추출하여 조사하였음.

다문화가족 아동의 친구관계는 전체 평균 3.76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특성 및 가족특성별 교사관계 정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 출신국가별 및 아동의 거주지역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보다 여아의 적응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4.09점으로 거주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출신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필리핀인 경우가 가장 높은 적응도를 보였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장 적응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교사관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특성은 지역별에 따른 적응의 차이로 중소도시, 농어촌보다 대도시의 아동의 교사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05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 학교생활적응: 학교수업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수업’의 적응을 알아본 결과, 학교수업의 적응이 다른 영역의 적응보다 적응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각각 3.24점, 3.39점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수업적응은 다문화가족 아동보다 일반아동이 더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별, 주관적 경제수준별, 아버지 학력별에 따른 학교수업적응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3.0~3.4점대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아동의 경우 3.3~3.7점대로 비교적 다문화가족 아동보다 학교수업 적응 정도가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 특성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요인은 아동학년별과 아버지학력별에 따른 적응의 차이로 아동의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수업의 적응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아버지의 학력은 높을수록 아동이 학

교수업에 대한 적응을 더 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아동의 학교수업의 적응은 보통 정도 적응하고 있었다.

〈표 6-6〉 다문화 및 일반아동의 학교수업

(단위: 점)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전체		3.24	379	3.39	407
성별	남	3.16	200	3.37	195
	여	3.33	179	3.40	212
학년별	초저(3-4학년)	3.33	116	3.70	117
	초고(5-6학년)	3.34	94	3.68	102
	중(1-3학년)	3.12	169	3.03	188
주관적 경제수준	어려운 편임	3.01	59	3.07	30
	보통	3.22	245	3.30	229
	잘 사는 편임	3.49	74	3.60	144
아버지 학력	중졸	2.98	40	3.13	10
	고졸	3.37	97	3.44	103
	대졸이상	3.44	77	3.50	110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수업에서의 적응은 전체 평균 3.26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특성 및 가족특성별 교사관계 정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아동의 성별, 한국 거주기간별, 아버지 학력별, 거주지역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보다 여아의 적응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의 학년별에 따른 적응 정도는 중학생보다 초등 학생의 적응도가 더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 외에도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아버지의 생활상태별 차이에서도 상용직이나 고용주일 경우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특성은 지역별에 따른 적응의 차이로 중소도시, 농어촌보다 대도시의 아동의 학교수업 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65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6-7〉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수업

(단위: 점, 명)

구분		M	SD	N	t, F
전체		3.26	0.77	327	
성	남	3.16	0.81	169	-2.400*
	여	3.36	0.72	158	
학년	초저(3-4학년)	3.35	0.74	94	4.271*
	초고(5-6학년)	3.40	0.71	73	
	중(1-3학년)	3.13	0.81	159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3.19	0.59	12	4.036**
	5-10년 미만	3.14	0.75	14	
	10-15년 미만	3.42	0.73	136	
	15-20년 미만	3.07	0.78	130	
	20년 이상	3.41	0.86	28	
어머니 출신국가	중국	3.24	0.75	160	.870
	필리핀	3.31	0.92	87	
	일본	3.17	0.56	67	
	기타	3.50	0.97	13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3.12	0.82	42	1.374
	고졸	3.24	0.81	147	
	대졸이상	3.33	0.71	137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07	0.82	73	3.154*
	고졸	3.33	0.76	156	
	대졸	3.31	0.74	85	
어머니 취업유무	취업	3.24	0.79	198	-.558
	미취업	3.29	0.75	112	
아버지 생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3.30	0.81	136	.417
	임시직	3.18	0.72	75	
	자영업자	3.21	0.78	42	
	기타(실업자 등)	3.21	0.95	34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28	0.75	55	1.228
	100-200미만	3.28	0.80	108	
	200-300미만	3.13	0.74	74	
	300이상	3.38	0.77	64	
지역구분	대도시	3.65	0.64	29	4.999**
	중소도시	3.15	0.73	120	
	농어촌	3.27	0.80	178	

주: 1) * $p < .05$, ** $0 < .01$

2) 전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케이스는 386명이나 다문화가족 및 부모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부모와 매칭되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케이스는 334명만 추출하여 조사하였음.

4. 학교생활적응: 학교규칙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을 알아본 결과, 전체 평균 각각 3.72점, 3.79점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은 다문화가족 아동보다 일반아동이 약간 더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별, 주관적 경제수준별, 아버지 학력별에 따른 학교수업적응은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 3.7~4.0점대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동 특성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요인은 주관적 경제수준별과 아버지학력별에 따른 적응의 차이로 아동의 인지하는 주관적인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이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을 더 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아동의 학교규칙준수에 대한 적응은 보통이상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8〉 다문화 및 일반아동의 학교규칙준수

(단위: 점)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전체		3.72	382	3.79	409
성별	남	3.69	200	3.67	196
	여	3.75	182	3.90	213
학년별	초저(3-4학년)	3.68	117	3.93	118
	초고(5-6학년)	3.82	95	3.97	103
	중(1-3학년)	3.70	170	3.60	188
주관적 경제수준	어려운 편임	3.62	61	3.52	30
	보통	3.68	245	3.72	230
	잘 사는 편임	3.94	75	3.96	145
아버지 학력	중졸	3.72	40	3.83	10
	고졸	3.76	98	3.78	102
	대졸이상	3.96	76	3.88	112

〈표 6-9〉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규칙준수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M	SD	N	t, F
전체		3.73	0.80	331	
성	남	3.68	0.83	170	-0.956
	여	3.77	0.76	161	
학년	초저(3-4학년)	3.66	0.86	96	1.702
	초고(5-6학년)	3.87	0.76	74	
	중(1-3학년)	3.69	0.77	160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3.90	0.57	13	1.565
	5-10년 미만	4.00	0.57	14	
	10-15년 미만	3.69	0.87	139	
	15-20년 미만	3.66	0.74	130	
	20년 이상	3.98	0.81	28	
어머니 출신국가	중국	3.74	0.80	159	2.655**
	필리핀	3.86	0.79	88	
	일본	3.51	0.77	71	
	기타	3.77	0.82	13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3.60	0.86	42	1.391
	고졸	3.69	0.76	150	
	대졸이상	3.81	0.81	138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60	0.82	75	1.207
	고졸	3.75	0.75	157	
	대졸	3.78	0.86	86	
어머니 취업유무	취업	3.70	0.75	201	-0.446
	미취업	3.75	0.86	113	
아버지 생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3.78	0.83	139	0.719
	임시직	3.66	0.76	77	
	자영업자	3.61	0.75	42	
	기타(실업자 등)	3.65	0.94	34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67	0.76	56	3.431*
	100-200미만	3.76	0.70	109	
	200-300미만	3.55	0.86	76	
	300이상	3.96	0.79	64	
지역구분	대도시	4.25	0.65	28	6.948**
	중소도시	3.66	0.80	122	
	농어촌	3.69	0.79	181	

주: 1) * $p<.05$, ** $p<.01$

2) 전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케이스는 386명이나 다문화가족 및 부모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부모와 매칭되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케이스는 334명만 추출하여 조사하였음.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은 전체 평균 3.73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특성 및 가족특성별 교사관계 정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출신국가별, 월평균 가구소득별 및 아동의 거주지역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준수의 적응은 다른 특성변수들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적응도가 더 높아졌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특성은 지역별에 따른 적응의 차이로 중소도시, 농어촌보다 대도시의 아동의 학교규칙의 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25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5. 학교생활적응: 전체

이상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본 결과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준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3점(보통)이상으로 학교적응을 어느정도 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영역에서의 적응은 다문화가족 아동보다 일반아동의 적응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 아동 모두 학교규칙준수 및 친구관계에 대한 적응이 제일 높게 나타난 반면,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은 다른 영역의 적응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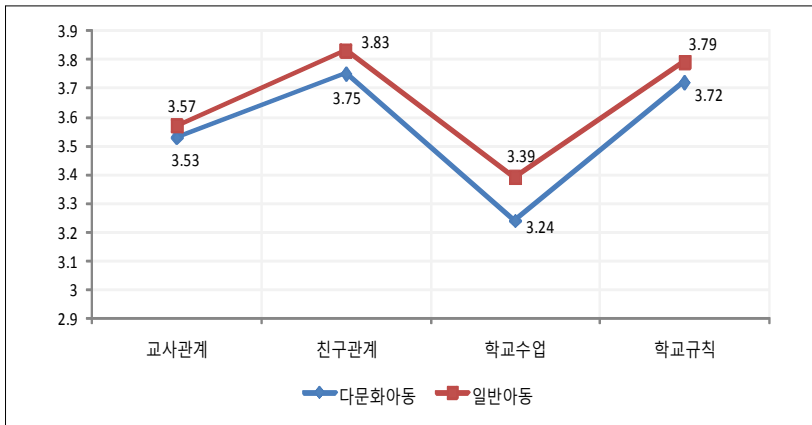
〈표 6-10〉 다문화 및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단위: 점)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교사관계	3.53	383	3.57	406
친구관계	3.75	384	3.83	405
학교수업	3.24	379	3.39	407
학교규칙	3.72	382	3.79	409

주: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례수는 응답한 전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례수임(부모조사 미 실시 아동의 사례수 포함).

[그림 6-1] 다문화 및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제2절 학교생활 전반

본 절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의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학교생활 만족

다문화가족 및 일반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우 불만족(1점)’~‘매우만족(5점)’으로 배점하여 평균점수를 파악한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 3.63점, 일반아동 3.75점으로 다문화가족 아동보다 일반아동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아동 및 가족특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 고학년일수록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더 높을수록 아동의 만족도는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1〉 다문화 및 일반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단위: 점)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전체		3.63	386	3.75	410
성별	남	3.62	203	3.77	196
	여	3.66	183	3.74	214
학년별	초저(3-4학년)	3.73	120	3.99	119
	초고(5-6학년)	3.68	95	3.95	103
	중(1-3학년)	3.54	171	3.49	188
주관적 경제수준	어려운 편임	3.30	61	3.30	30
	보통	3.64	247	3.62	230
	잘 사는 편임	3.91	77	4.06	146
아버지 학력	중졸	3.35	40	3.80	10
	고졸	3.82	99	3.68	103
	대졸이상	3.74	77	4.00	112

주: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불만족(1점)’~‘매우만족(5점)’으로 배점하여 점수를 평정화하였음.

다문화가족 아동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별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평균 3.63점으로 학교생활만족도에 있어서 보통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특성 및 가족특성별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취업유무별, 아버지의 경찰상태별, 그리고 아동의 거주지역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보다 여아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년이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6-12〉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M	SD	N	t, F
전체		3.63	0.90	334	-
성	남	3.59	0.97	172	-.753
	여	3.67	0.81	162	
학년	초저(3-4학년)	3.70	0.88	98	1.384
	초고(5-6학년)	3.70	0.93	74	
	중(1-3학년)	3.54	0.89	161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3.69	0.75	13	1.528
	5-10년 미만	3.43	1.16	14	
	10-15년 미만	3.75	0.89	140	
	15-20년 미만	3.50	0.86	132	
	20년 이상	3.68	1.02	28	
어머니 출신국가	중국	3.60	0.85	161	1.775
	필리핀	3.78	0.93	88	
	일본	3.47	0.79	72	
	기타	3.77	1.54	13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3.52	1.02	42	.322
	고졸	3.65	0.87	151	
	대졸이상	3.63	0.89	140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51	0.84	76	.834
	고졸	3.67	0.87	158	
	대졸	3.61	0.92	87	
어머니 취업유무	취업	3.52	0.91	201	-2.702**
	미취업	3.79	0.81	116	
아버지 생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3.65	0.90	140	4.536**
	임시직	3.74	0.81	78	
	자영업자	3.62	0.70	42	
	기타(실업자 등)	3.12	0.91	34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3.59	0.93	56	.398
	100-200미만	3.55	0.87	110	
	200-300미만	3.63	0.82	78	
	300이상	3.70	0.95	64	
지역구분	대도시	4.10	0.71	30	4.665*
	중소도시	3.59	0.93	123	
	농어촌	3.57	0.88	181	

주: 1) * $p < .05$, ** $p < .01$

2) 전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케이스는 386명이나 다문화가족 및 부모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부모와 매칭되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케이스는 334명만 추출하여 조사하였음.

이 외에도 어머니가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특성은 지역별에 따른 적응의 차이로 중소도시, 농어촌보다 대도시의 아동의 학교규칙의 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10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제3절 학교생활의 어려움

본 절에서는 아동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하여 숙제 및 준비물을 누가 챙겨주는 지,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은 무엇인 지, 학교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 지, 마지막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숙제 및 준비물 챙겨주는 사람

아동의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는 사람은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 아동 모두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는 아버지, 형제/자매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동이 가족의 도움보다는 아동이 스스로 숙제나 준비물을 준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3〉 다문화가족 아동의 숙제 및 준비물 챙겨주는 사람

(단위: %, 명)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어머니	28.8	111	26.8	110
아버지	5.4	21	2.7	11
형제/자매	2.3	9	1.2	5
주로 내가 함	59.6	230	66.3	272
기타	3.9	15	2.9	12
계	100.0	386	100.0	410

2.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

아동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 ‘수학’을 가장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다문화가족 아동은 34.7%, 일반아동은 23.2%로 일반아동에 비해 다문화가족 아동의 비율이 비교적 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영어, 일반아동의 경우 사회/국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4〉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

(단위: %, 명)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국어	3.4	13	2.2	9
수학	34.7	134	23.2	95
과학	4.4	17	8.5	35
영어	20.7	80	16.3	67
사회/국사	16.8	65	21.5	88
기타	13.5	52	18.3	75
없음	6.5	25	10.0	41
계	100.0	386	100.0	410

주: 기타의 경우 기술·가정, 도덕, 음악·미술·체육, 한문 등이 해당됨.

3.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아동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 ‘학교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가 각각 26.2%, 1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숙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준비물을 잘 챙겨오지 못한다’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업에 대한 부담, 숙제 및 준비물을 챙기는데에서 오는 어려움 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표 6-3-1>와 같이 숙제 및 준비물을 챙기는 데 있어서 아동이 가족이나 기타 친인척 및 사회적 도움보다는 아동 스스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35%에 해당해 비교적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5>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학교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	26.2	101	18.8	77
학교친구들과 친하게 어울리지 못한다	4.7	18	4.6	19
학교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힌다	3.9	15	5.4	22
선생님이 불친절하고 나를 차별한다	0.5	2	3.2	13
숙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13.5	52	14.4	59
준비물을 잘 챙겨오지 못한다	7.8	30	10.0	41
기타	7.3	28	9.5	39
없다	36.3	140	34.1	140
계	100.0	386	100.0	410

(단위: %, 명)

4.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이 학교를 그만 두고 싶은 충동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1.6%, 56.3%인 것으로 절반이상의 아동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의 경우 모두 ‘공부하기 싫어서’ 충동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1%, 15.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공부가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를 볼 때, 아동 모두 현재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6〉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

(단위: %, 명)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놀림을 받기 때문에	5.7	22	5.1	21
차별과 불공평 때문에	2.8	11	2.9	12
공부하기 싫어서	17.1	66	15.1	62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0	4	0.7	3
공부가 어려워서	11.1	43	8.3	34
선생님 또는 아이들이 싫어서	3.6	14	4.9	20
그만두고 싶은 충동 느낀적 없음	51.6	199	56.3	231
기타	7.0	27	6.6	27
계	100.0	386	100.0	410

제4절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번에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문화가족 아동(모델 1)과 일반아동(모델 2)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이위해 종속변

수는 학교생활적응척도와 학교생활만족도 문항을 합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서 요인적재량이 적거나 여러 요인에 요인적재량이 높은 점수를 보이는 문항인 문항1, 14, 16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는 합하여 학교생활적응이라고 명명하였다. 독립변수는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을 거의 유사하게 하였는데 성, 학년, 어머니 학력, 아버지학력, 월평균소득(일반아동: 주관적 경제수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거주지역, 그리고 사회적지지 특성으로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를 모델에 포함시켰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는 어머니 결혼 전 국적과 한국어실력을 넣어 국가별 차이와 언어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표 6-17〉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모델1: 다문화가족 아동		모델2: 일반아동	
	b	beta	b	beta
(Constant)	.444		.937	
성 (여자=0)	.097	.070+	-.056	-.040
학년	-.006	-.092*	-.013	-.179***
모의 결혼전 국적(기타=0)				
일본	-.057	-.041	-	-
중국	-.049	-.031	-	-
동남아시아	.041	.024	-	-
모의 한국어실력	.057	.076+	-	-
모의 학력	.036	.035	-.014	-.035
부의 학력	.036	.036	.000	-.001
월평균소득/경제수준	-.023	-.033	.011	.011
거주지역 (농어촌=0)	.082	.058	.085	.061+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	.065	.074	.091	.100*
친구지지	.442	.460***	.429	.431***
교사지지	.323	.306***	.314	.292***
F	24.605***		49.476***	
R ²	.530		.531	
N	298		403	

주: +p<1.0, *p<.05, ***p<.001

우선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성, 학년, 모의 한국어실력,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여아에 비해 남아가, 학년이 낮을수록, 모의 한국어실력이 좋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았다. 사회적지지 특성에서는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유의하였다. 친구의 지지도가 높고 교사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았다. 반면 모의 결혼전 국적, 모 및 부의 학력, 월평균소득, 거주지역 및 가족지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아동의 경우는 학년, 거주지역, 3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였다. 학년이 낮을수록, 농어촌에 비해서 도시거주 아동이, 그리고 가족, 친구, 교사지지가 많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았다. 반면, 성, 모 및 부의 학력,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로써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 고학년의 학교생활적응도가 낮음을 알 수 있고, 학교생활적응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친구의 지지는 2모델에서 모두 가장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는 가족이나 교사보다도 친구의 지지에 의해서 학교생활적응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의 지지는 유의하지 않은 특성을 보인다. 일반아동의 경우는 농어촌거주 아동보다 도시아동의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아 농어촌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 살펴본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실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수업 및 학교규칙준수에 대한 적응 정도를 알아본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은 3.2점~3.7점의 분포를 보였고, 일반아동은 3.4점~3.8점의 분포를 보여 비교적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적응력이 약간 낮음을 알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의 이상으로 적응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 학교생활적응 영역 중에서는 친구관계, 학교규칙준수에 대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별에 따른 적응수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아동의 거주지역별에 따른 차이가 가장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의 아동들이 적응 정도가 비교적 높았다. 대도시의 아동보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각각 3.6점, 3.8점으로 비교적 평균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아동특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고학년보다 저학년일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거주지역별 만족도 차이 역시 존재하였으며 대도시의 아동보다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느끼는 학교생활만족이 더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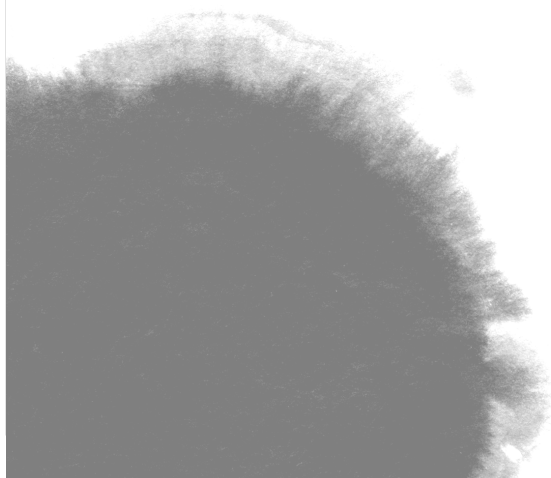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셋째,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알아본 결과, 다문화가족 및 일반아동 모두 학교공부에 대한 부담, 숙제 및 준비물을 챙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적응 정도에서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도가 제일 낮은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학교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일반아동에 비해 다문화가족 아동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의 이유도 ‘학업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한 주된 요인이었다. 이에 향후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학업에 대한 지원

및 숙제, 준비물을 챙기는 것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본 결과, 다문화 가족 아동의 경우 성, 학년, 모의 한국어 실력,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일반아동의 경우 학년, 거주지역,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친구지지가 가장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족 및 일반아동 모두 고학년의 학교생활적응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의 연령별에 따른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확대와 함께 특히 고학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친구의 지지 및 또래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이 학교생활의 적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07

다문화가족 이동의 문화적응실태



제7장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실태

본 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모의 문화적응 실태와 일반아동의 문화개방성 정도도 파악하였다. 문화적응은 Cortes와 그의 동료가 개발한 이중문화척도를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참작하여 모의 문화적응 정도도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아동의 문화적응은 다문화가족 아동 당사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일반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시각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일반아동이 얼마나 다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인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반아동의 다문화 개방성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아동과 어머니가 어떠한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서비스 유형 및 기관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제1 절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 정도

1. 아동의 문화적응 정도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Mezzich와 그녀의

동료들(2009)이 개발한 20개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를 CRM-BS라고 하는데 이는 개발자의 이름을 딴 것이다. 즉 Cortes, Rogler and Malgady의 이중문화 척도(Bicultural Scale)이다. 제2장의 이론적 고찰에서도 소개했듯이 본 고에서는 이 척도를 다문화가족 이동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표 7-1>에 제시하였듯이 척도는 크게 다문화가족 모의 본국에 대한 적응도와 소속한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도로 나뉜다. 어머니나라 적응도를 측정하는 문항 10개의 신뢰도 값은 .90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한국문화 적응을 측정하는 10개 문항의 신뢰도도 .906으로 똑같이 높았다.

문항별로 보았을 때, 3점 척도로 측정하여 2개 유형의 적응도의 총점은 30점이 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머니 나라의 문화적응도 청중은 18.82(3점척도 기준, 1.82)이고, 한국문화 적응도는 22.82(3점척도 기준, 2.24)로 한국문화 적응도가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문화적응도 점수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머니 나라 문화적응도에서는 2점 이상의 항목이 4개로 어머니 나라가 자랑스럽고, 어머니가 외국에서 태어날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어머니 나라의 음식을 먹고, 어머니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편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어머니 나라의 명절 지내는 것이나, 한국어를 잘 못하는 어머니나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어머니 나라 사용에 있어서는 낮은 적응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문화와 관련해서는 어머니나라 문화보다 높은 적응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인 2점대 후반으로 나타났고, 1점대는 2개 항목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점수가 낮은 항목은 어머니나라 언어를 할 줄 모르는 한국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편안하다와 한국인은 친절하고 인심이 좋다는 항목이다. 반면 한국인이어서 자랑스러움, 한국어를 즐겨 사용함, 한국

친구가 소중한, 한국 TV를 즐겨봄, 한국이 자랑스러움 등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7-1〉 아동의 문화 적응정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1. 어머니 나라가 자랑스럽다	2.23	.75	386
2. 어머니 나라의 방식으로 명절을 지내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1.61	.85	384
3. 내게는 어머니 나라 문화가 중요하다	1.84	.80	385
4.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어머니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다	1.46	.96	386
5. 나의 어머니가 외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	2.01	.83	386
6. 나는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즐겨 사용한다	1.53	1.01	386
7. 나는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즐겁다	1.99	.84	386
8. 나는 어머니 나라 음식을 먹는 게 좋다	2.15	.88	386
9. 어머니 나라 사람들은 친절하고 인심이 좋다	2.16	.78	386
10. 내게 어머니 나라 출신 친구들이 소중하다	1.87	.86	384
어머니나라 문화적응도: 소계 (Cronbach's Alpha: .906)	18.82 (1.82)	5.19	386
11. 전통한국식으로 명절을 지내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2.09	.74	385
12. 한국이 자랑스럽다	2.33	.67	382
13. 어머니 나라 언어를 할 줄 모르는 한국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다	1.87	.84	385
14. 나는 한국인이어서 자랑스럽다	2.28	.67	384
15. 나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즐겁다	2.17	.72	385
16. 한국인은 친절하고 인심이 좋다	1.99	.80	385
17. 나는 한국 TV를 즐겨 본다	2.41	.69	386
18. 나는 한국어를 즐겨 사용한다	2.53	.62	385
19. 나는 한국음식을 먹는 게 좋다	2.39	.65	386
20. 내게는 한국인 친구가 소중하다	2.42	.66	386
한국문화 적응도: 소계 (Cronbach's Alpha: .906)	22.82 (2.24)	6.29	386

주: 척도는 0, 1, 2, 3의 3점 척도임. ()의 수치는 3점척도로 환산한 점수임.

2. 아동의 특성별 문화적응 정도

이번에는 이중문화척도를 3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원래는 4유형인데, 분석결과 2유형은 속한 사례수가 적어서 묶었다. 유형은 다음과 같다. 주변적 및 전통적 유형, 동화유형, 이중문화유형이 그것이다. 주변적 및 전통적 유형은 어머니나라 문화적응 점수가 15점 이상이고 한국문화 적응 점수는 15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동화유형은 어머니나라 문화 적응 점수는 15점 미만이고, 한국문화 적응 점수는 15점 이상인 경우이다. 이중문화 유형은 어머니나라 문화적응 점수도 15점 이상이고, 한국 문화적응 점수도 15점 이상인 것으로 양문화에 모두 적응을 잘하는 유형을 말한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의 대부분이 이중문화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의 78.1%가 이중문화적이고, 동화는 18.0%이고 주변화 및 전통적 유형은 3.9%에 불과하다. 문화적응의 집단별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7-2〉 다문화 적응유형별 적응정도

(단위: 점)

구분		주변화 전통적	동화	이중문화	전체	사례 수	χ^2
전체		3.9	18.0	78.1	100.0	334	
성	남	5.2	19.2	75.6	100.0	172	2.230
	여	2.5	16.7	80.9	100.0	162	
학년	초저(3-4학년)	5.0	15.8	79.2	100.0	120	-
	초고(5-6학년)	2.1	24.5	73.4	100.0	94	
	중(1-3학년)	2.9	19.3	77.8	100.0	171	
모의 한국 거주 기간	5년 미만	.0	30.8	69.2	100.0	13	-
	5-10년 미만	.0	35.7	64.3	100.0	14	
	10-15년 미만	3.6	20.7	75.7	100.0	140	
	15-20년 미만	6.1	14.4	79.5	100.0	132	
	20년 이상	.0	7.1	92.9	100.0	28	
어머니 출신국	일본	5.0	14.3	80.7	100.0	161	-
	중국동포 및 한족	4.5	19.3	76.1	100.0	88	
	동남아시아	1.4	26.4	72.2	100.0	72	
	기타	.0	7.7	92.3	100.0	13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4.8	14.3	81.0	100.0	42	1.459
	고졸	3.3	20.5	76.2	100.0	151	
	대졸이상	4.3	16.4	79.3	100.0	140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1.3	22.4	76.3	100.0	76	-
	고졸	3.8	19.0	77.2	100.0	158	
	대졸이상	5.7	11.5	82.8	100.0	87	
어머니 취업	취업	4.5	17.4	78.1	100.0	201	.291
	미취업	3.4	19.0	77.6	100.0	116	
아버지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고용주	4.3	17.1	78.6	100.0	140	-
	임시직	5.1	28.2	66.7	100.0	78	
	자영업자	.0	16.7	83.3	100.0	42	
	기타(실업자 등)	2.9	8.8	88.2	100.0	34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6	23.2	73.2	100.0	56	-
	100-200만원 미만	6.4	19.1	74.5	100.0	110	
	200-300만원 미만	3.8	16.7	79.5	100.0	78	
	300만원 이상	1.6	12.5	85.9	100.0	64	
거주 지역	대도시	3.3	6.7	90.0	100.0	30	-
	중소도시	4.9	19.5	75.6	100.0	123	
	농어촌	3.3	18.8	77.9	100.0	181	

주: 출신국가 -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기타: 대만, 몽골, 러시아, 페루, 파테말라, 홍콩, 방글라데시, 리투아니아 등 - : 셀의 빈도가 5미만이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를 제시하지 못함.

아동의 성, 학년, 모의 한국거주기간, 모의 출신국가, 아버지의 학력, 아버지의 경제활동상태, 월평균 가구소득, 지역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대부분이 이중문화 유형이고, 일부는 동화, 소수만이 주변화 및 전통적 유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아동은 매우 문화적 적응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소수만이 주변화 및 전통적 특성을 보여 적응 상의 어려움을 보인다. 남아의 5.2%, 초등학교 저학년 5.0%, 어머니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15-20년 정도 된 경우 6.1%, 일본어머니를 둔 경우의 5.0%, 중졸이하 모을 둔 아동의 4.8%, 대졸이상 아버지를 둔 경우의 5.7%, 아버지가 임시직 경우의 5.1%, 가구 소득이 100-200만원인 경우의 6.4%, 중소도시 거주 아동의 4.9% 등이 그들이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포용정책이 필요하다.

제2절 다문화가족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1. 항목별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결혼이주 여성, 즉 아동의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전체는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연구진이 10개문항을 선정하여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0개 문항별 평균은 다음 <표 7-3>과 같다. 문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한국 사람들이 내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다는 항목과 한국 사람들은 내 문화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항목이다. 반면, 한국음식 및 외모로 인한 차별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는 1.9 점대로 낮은 편이다.

〈표 7-3〉 다문화가족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단위: 명)

문항	최소값	최대값	평균	사례수
1.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1	5	2.46	328
2. 나는 한국음식에 적응하는 것이 불편하다	1	5	1.93	327
3.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	1	5	2.33	323
4. 나는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	1	5	2.31	328
5. 한국 사람들이 내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다	1	5	2.87	327
6. 한국 사람들은 내 문화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1	5	2.57	327
7. 나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의 가치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1	5	2.28	326
8. 나는 외모 때문에 부당하게 취급받는다	1	5	1.93	327
9. 나는 이곳에서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1	5	2.32	327
10. 나는 내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 사귀려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1	5	2.04	328

이 항목들을 요인분석을 통해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2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이를 각각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본국문화 물이에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전자는 총 4문항이 포함되고, 후자는 총 2문항이 포함된다. 요인에 포함된 항목은 <표 7-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신뢰도는 각 .815와 .70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각 요인별 항목을 더하여 제4절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7-4〉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분석

문항	스트레스 1: 한국문화 적응 스트레스	스트레스 2: 본국문화몰이해 스트레스
8. 외모 때문에 부당하게 취급받는다	<u>.799</u>	
2. 한국음식에 적응하는 것이 불편하다	<u>.760</u>	
10. 나와 사귀려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u>.743</u>	
4.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	<u>.737</u>	
7. 한국의 새로운 문화의 가치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	-
3. 사회적 상황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	-	-
9. 이곳에서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	-
1.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	-
5. 내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다		<u>.865</u>
6. 내 문화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u>.803</u>
Cronbach's Alpha (신뢰도)	.815	.705

주: - 항목은 요인적재량이 낮거나 적절하지 않아 제외된 항목임. varimax rotation

2. 모의 특성별 문화적응 스트레스

<표 7-5>와 <표 7-6>은 2유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정도를 모의 특성별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정도는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가 5점 만점에서 2.05로 낮은 편이었다. 즉 스트레스가 약한 편으로 파악되었다. 본국문화 몰이해에 대한 스트레스는 2.71은 전자보다 높은 편으로 파악되었으나, 중간 점수인 3점보다는 약간 낮은 편으로 스트레스가 많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한국인들이 결혼이주 여성의 본국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5〉 모의 특성별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구분		평균	사례수	X ²
전체		2.05	328	
자녀 성	남	1.99	150	-1.876
	여	2.15	133	
자녀 학년	초저(3-4학년)	2.09	96	.201
	초고(5-6학년)	2.05	74	
	중(1-3학년)	2.03	158	
한국 거주 기간	5년 미만	1.58	10	1.690
	5-10년 미만	1.80	11	
	10-15년 미만	2.06	115	
	15-20년 미만	2.12	115	
	20년 이상	2.05	25	
어머니 출신국가	일본	2.06	136	.214
	중국동포 및 한족	2.09	76	
	동남아시아	2.01	59	
	기타	2.17	12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2.19	35	1.407
	고졸	2.10	131	
	대졸이상	1.98	116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2.06	63	.052
	고졸	2.06	131	
	대졸이상	2.03	77	
어머니 취업유무	취업	2.08	174	1.925
	미취업	2.04	92	
아버지 생활상태	상용직, 고용주	1.99	115	1.401
	임시직	2.20	74	
	자영업자	2.07	34	
	기타(실업자 등)	1.99	2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10	47	.119
	100-200만원 미만	2.07	100	
	200-300만원 미만	2.06	62	
	300만원 이상	2.01	52	
지역구분	대도시	2.02	26	.164
	중소도시	2.04	96	
	농어촌	2.08	161	

주: 척도 5점 척도임.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상에서 집단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단, 본국문화 몰이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녀의 학년별 차이만이 유의하였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다는 경우 이 스트레스가 2.9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중학교, 초저의 순이었다. 즉, 결

혼이주여성의 특성과 상관없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7-6〉 모의 특성별 본국문화 몰이해 스트레스 정도

구분		평균	사례수	X ²
전체		2.71	328	
자녀성	남	2.62	150	-1.690
	여	2.79	133	
자녀학년	초저(3-4학년)	2.63	96	3.314*
	초고(5-6학년)	2.94	74	
	중(1-3학년)	2.66	158	
한국거주 기간	5년 미만	2.40	10	1.241
	5-10년 미만	2.27	11	
	10-15년 미만	2.69	115	
	15-20년 미만	2.78	115	
	20년 이상	2.78	25	
출신국가	일본	2.71	136	.516
	중국동포 및 한족	2.71	76	
	동남아시아	2.62	59	
	기타	2.96	12	
본인 학력	중졸이하	2.77	35	.144
	고졸	2.68	131	
	대졸이상	2.69	116	
배우자 학력	중졸이하	2.68	63	.162
	고졸	2.69	131	
	대졸이상	2.75	77	
본인 취업유무	취업	2.72	174	.203
	미취업	2.70	92	
배우자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고용주	2.46	115	.499
	임시직	2.58	74	
	자영업자	2.37	34	
	기타(실업자 등)	2.48	2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70	47	1.445
	100-200만원 미만	2.80	100	
	200-300만원 미만	2.67	62	
	300만원 이상	2.49	52	
거주지역	대도시	2.65	26	.111
	중소도시	2.68	96	
	농어촌	2.72	161	

주: 척도 5점 척도임. *p<.05

제3절 일반아동의 다문화개방 정도

1. 다문화에 대한 개방 정도

본 절에서는 일반아동이 다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적인가를 살펴 보았다. <표 7-7>에는 일반아동의 다문화개방 정도를 측정하는 11개의 항목별 평균 점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 지표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10)에서 경기도지역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의 생활실태를 파악할 때 개발한 도구이다. 이 지표는 부정적인 문항 5개와 긍정적인 문항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이상의 점수를 보이는 것은 다문화학생 친구가 있다면 타문화를 배울 수 있다 3.19, 다문화학생을 새롭게 알면 친해질 것이다 3.21, 다문화학생과 같은 반이라면 잘 대해주고 싶다 3.18등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문화를 보는 항목들이었다. 반면 점수가 낮은 항목은 다문화학생에게 거부감을 느낀다 1.80, 다문화학생과 친한 친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1.94 등으로 부정적인 항목들이었다. 즉 일반아동은 다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지도는 높고, 부정적인 인지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7-7〉 일반아동의 다문화 개방성 정도

문항	최소값	최대값	평균	사례수
1. 나는 다문화학생에게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	1	4	2.75	408
2. 모습이 다르고 한국말이 서툰 다문화학생과 함께 있으면 어색할 것 같다	1	4	2.24	408
3. 다문화학생 친구가 있다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1	4	3.19	408
4. 다문화학생은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인과 다를 것이다	1	4	2.20	407
5. 다문화학생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1	4	3.21	408
6. 우리와 다른 다문화학생의 모습은 조금 낯설게 느껴진다	1	4	2.25	407
7. 다문화학생과 같은 반이라면 잘 대해주고 도와주고 싶다	1	4	3.18	408
8. 나는 다문화학생에게 왠지 거부감을 느껴서 피하게 된다	1	4	1.80	406
9. 다문화학생과 친구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 같다	1	4	2.71	407
10. 나는 다문화학생과 친한 친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1	4	1.94	408
11. 다문화학생과 친한 친구가 된다면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1	4	2.56	408

<표 7-8>에서는 이 11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서 지표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항목의 요인적재량이 .5이상이어서 적절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항목들은 2개 요인으로 묶여서 이를 긍정적 수용성과 부정적 수용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명과 항목의 내용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은 더하여 제4절에서 일반 아동의 문화개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긍정적 수용성 요인의 신뢰도는 .757, 부정적 수용성 요인의 신뢰도는 .810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7-8〉 일반아동의 다문화 개방성 정도에 대한 요인분석

	부정적 수용성	긍정적 수용성
3. 다문화학생 친구가 있다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u>.760</u>
5. 다문화학생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u>.736</u>
7. 다문화학생과 같은 반이라면 잘 대해주고 도와주고 싶다		<u>.720</u>
9. 다문화학생과 친구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 같다		<u>.695</u>
1. 다문화학생에게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		<u>.637</u>
11. 다문화학생과 친한 친구가 된다면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u>.520</u>
8. 다문화학생에게 왠지 거부감을 느껴서 피하게 된다	<u>.807</u>	
10. 다문화학생과 친한 친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u>.787</u>	
6. 우리와 다른 다문화학생의 모습은 조금 낯설게 느껴진다	<u>.780</u>	
2. 모습이 다르고 한국말이 서툰 다문화학생과 함께 있으면 어색할 것 같다	<u>.714</u>	
4. 다문화학생은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인 과 다를 것이다	<u>.637</u>	
Cronbach's Alpha (신뢰도)	.810	.757

주: varimax rotation

2.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수용성

<표 7-9>에서는 일반아동의 특성별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성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긍정적 수용성 정도의 전체 평균은 3.01로 보통을 수준이었다. 즉, 일반아동은 보통 수준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집단별 차이에 있어서는 학년별, 주관적 경제수준별, 다문화인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학년별로는 저학년일수록 다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고,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다문화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 다문화인에 태도에 있어서는 다문화인도 한국인이라고 인지할수록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반면, 성별, 아버지 학력별, 지역별, 해외여행경험별, 해외이민의향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7-9〉 일반아동의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성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일반아동		t, F 값
		평균	사례수	
전체		3.01	408	-
성별	남	2.97	195	-1.157
	여	3.04	213	
학년별	초저(3-4학년)	3.11	118	6.422**
	초고(5-6학년)	3.09	103	
	중(1-3학년)	2.90	187	
주관적 경제수준	어려운 편임	2.85	30	4.238*
	보통	2.96	229	
	잘 사는 편임	3.11	145	
아버지 학력	중졸	2.72	10	1.422
	고졸	3.03	103	
	대졸이상	3.03	111	
거주지역	대도시	3.17	57	2.654
	중소도시	2.97	147	
	농어촌	2.99	204	
다문화인도 한국인인가?	예	3.09	190	10.063***
	아니오	2.46	17	
	한국인/외국인	2.98	201	
해외여행경험	예	2.99	98	-.275
	아니오	3.01	307	
해외거주의향	예	2.98	102	-.561
	아니오	3.02	301	

주: 1)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2) *p<.05, **p<.01, ***p<.001

<표 7-10>에서는 일반아동의 특성별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수용성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정적 수용성 정도의 전체 평균은 2.08로 낮은 편이었다. 즉, 일반아동은 다문화에 대해서 약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집단별 차이에 있어서는 학년별 및 다문화인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차이만이 유의하였다. 학년별로는 고학년일수록 다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저학년일수록 다문화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약했다. 다문화인에 태도에 있어서는 다문화인은 한국인이 아니라

고 인지할수록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성별, 주관적 경제 수준별, 아버지 학력별, 지역별, 해외여행경험별, 해외이민의향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7-10〉 일반아동의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수용성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일반아동		t, F 값
		평균	사례수	
전체		2.08	408	
성별	남	2.14	195	1.602
	여	2.03	213	
학년별	초저(3-4학년)	1.92	118	7.748***
	초고(5-6학년)	2.03	103	
	중(1-3학년)	2.21	187	
주관적 경제수준	어려운 편임	2.33	30	2.567
	보통	2.07	229	
	잘 사는 편임	2.03	145	
아버지 학력	중졸	2.18	10	.373
	고졸	2.08	103	
	대졸이상	2.16	111	
거주지역	대도시	1.99	57	.719
	중소도시	2.09	147	
	농어촌	2.10	204	
다문화인도 한국인인가?	예	1.95	190	11.877***
	아니오	2.62	17	
	한국인/외국인	2.17	201	
해외여행경험	예	2.20	98	2.048
	아니오	2.04	307	
해외거주의향	예	2.19	102	1.969
	아니오	2.05	301	

주: 1)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2) ***p<.001

3. 다문화학생에 대한 친밀도

일반아동의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친밀도를 파악하여서 얼마나 다문화인에 거리낌없이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7-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일반아동들의 가장 많은 응답은 기회가 된다면 친한 친구가 되어도 좋다고 과반수인 52.2%가 응답하였다. 다음은 같은 학교에 다녀도 좋다고 13.0%이고, 우리 가족이 되어도 좋다고는 응답도 10.5%에 이르고 있다. 반면 전혀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1.7%로 소수에 불과하였다. 특성별로는 성별을 제외하고는 다른 특성별, 즉 학년, 부의 학력, 주관적 경제수준, 거주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포용비율이 더 높았다.

<표 7-11> 일반아동의 다문화 학생과의 친밀도

항목	백분율 (%)	빈도 (명)
① 전혀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다	1.7	7
② 같은 동네에 살아도 좋다	5.4	22
③ 같은 학교에 다녀도 좋다	13.0	53
④ 같은 반에서 짝이 되어도 좋다	17.2	70
⑤ 기회가 된다면 친한 친구가 되어도 좋다	52.2	213
⑥ 우리 가족이 되어도 좋다	10.5	43
계	100.0	408

주: 평균: 4.44 (6점 척도)

일반아동의 다문화 학생이 한국인인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한국인도 되고 외국인도 된다는 응답은 49.4%이었고, 한국인이라는 응답은 46.5%로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표 7-12 참조). 한국인이 아니라는 응답도 4.2%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지적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다. 아동의 특성별로는 학년별 및 경제수준별 차이만이 유의하였다. 학년별로는 초등학생일수록 다문화학생을 한국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반면,

중학생은 한국인도 되고 외국인도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경제수준별로 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학생을 한국인으로 보고 있었고, 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한국인도 되고 외국인도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아울러 경제수준이 어려운 경우 한국인이 아니라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7-12〉 일반아동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지 (한국인여부)

구분		네	아니오	한국인/ 외국인	전체	사례수	X ²
전체		46.5	4.2	49.4	100.0	409	-
성	남	52.3	3.1	44.6	100.0	195	5.513
	여	41.1	5.1	53.7	100.0	214	
학년	초저(3-4학년)	52.9	4.2	42.9	100.0	119	11.361*
	초고(5-6학년)	53.4	5.8	40.8	100.0	103	
	중(1-3학년)	38.5	3.2	58.3	100.0	187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60.0	0.0	40.0	100.0	10	4.987
	고졸	47.6	6.8	45.6	100.0	103	
	대졸이상	45.0	1.8	53.2	100.0	111	
주관적 경제수준	어려운 편임	30.0	10.0	60.0	100.0	30	11.874*
	보통	43.5	3.0	53.5	100.0	230	
	잘 사는 편임	55.2	4.8	40.0	100.0	145	
거주 지역	대도시	56.9	3.4	39.7	100.0	58	5.308
	중소도시	40.1	4.1	55.8	100.0	147	
	농어촌	48.0	4.4	47.5	100.0	204	

주: *p<.05

4. 해외여행 경험 및 해외거주의향

아동의 해외여행경험 등은 다른 문화에 접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 다문화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예측된다. <표 7-13>에 는 일반아동의 해외여행 경험여부를 파악하였다. 일반아동은 전체의 24.1%가 해외여행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4분의 3인 75.9%는 해외여행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특성별로는 성, 학년, 경제수준, 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차이만이 유의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이 도졸 이상인 경우가 중졸이하인 경우보다 해외여행의 경험이 4배가량 많은 40.9%에 달하고 있다. 반면 주관적 경제수준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부모의 경제적 여력보다는 해외여행에 대한 시각이 자녀의 해외여행과 상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7-13〉 일반아동의 해외여행 경험

구분		네	아니오	전체	사례수	χ^2
전체		24.1	75.9	100.0	406	-
성	남	25.4	74.6	100.0	193	.314
	여	23.0	77.0	100.0	213	
학년	초저(3-4학년)	22.7	77.3	100.0	119	1.519
	초고(5-6학년)	20.8	79.2	100.0	101	
	중(1-3학년)	26.9	73.1	100.0	186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10.0	90.0	100.0	10	17043***
	고졸	16.7	83.3	100.0	102	
	대졸이상	40.9	59.1	100.0	110	
주관적 경제수준	어려운 편임	23.3	76.7	100.0	30	4.393
	보통	20.2	79.8	100.0	228	
	잘 사는 편임	29.7	70.3	100.0	145	
거주 지역	대도시	29.8	70.2	100.0	57	2.139
	중소도시	25.9	74.1	100.0	147	
	농어촌	21.3	78.7	100.0	202	

주: ***p<.001

이번에는 아동들이 해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지를 파악하였는데, <표 7-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거주외향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분의 1인 25.2%이고, 나머지 4분의 3인 74.8%는 해외거주 외향이 없었다. 특성별로는 학년별 차이만이 유의하였다. 초등학생에 비해서 중학생의 해외거주 희망 비율이 높았다. 초저는 10.2%에 불과한 반면 중학생은 36.4%나 되고 있다.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많기 때

문에 국내보다는 해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표 7-14〉 일반아동의 해외거주의향

구분		네	아니오	전체	사례수	χ^2
전체		25.2	74.8	100.0	404	-
성	남	24.0	76.0	100.0	192	.322
	여	26.4	73.6	100.0	212	
학년	초저(3-4학년)	10.2	89.8	100.0	118	26.762***
	초고(5-6학년)	22.5	77.5	100.0	102	
	중(1-3학년)	36.4	63.6	100.0	184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40.0	60.0	100.0	10	.958
	고졸	26.5	73.5	100.0	102	
	대졸이상	30.0	70.0	100.0	110	
주관적 경제수준	어려운 편임	36.7	63.3	100.0	30	2.268
	보통	24.2	75.8	100.0	227	
	잘 사는 편임	24.3	75.7	100.0	144	
거주 지역	대도시	10.3	89.7	100.0	58	8.364*
	중소도시	26.0	74.0	100.0	146	
	농어촌	29.0	71.0	100.0	200	

주: *p<.05, ***p<.001

다음에서는 다문화 적응 및 문화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4절 다문화 적응 및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모델을 3개 구성하였다. 모델 1에서는 어머니나라 문화적응도, 모델

2에서는 한국문화 적응도, 모델 3에서는 2개를 합한 전체 문화적응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아동의 성, 학년, 거주지역과 같은 인구사회적 특성과 부모의 특성인 모의 한국거주기간, 모의 결혼전 국적, 모의 연령 및 학력, 부의 학력, 가구월평균소득과 함께 모의 한국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2개(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 본국문화몰이해 스트레스)로 나누어 포함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사회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를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나누어서 모델에 포함시켰다.

우선 어머니나라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표 7-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가 유의하였다. 가족의 지지가 많고, 교사의 지지도 많을수록 어머니나라 문화적응도가 높다는 것이다. 반면, 아동의 성, 학년, 모의 한국거주기간, 결혼전 국적, 연령, 학력, 부의 학력, 월평균가구소득, 거주지역, 모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어머니나라 문화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한국문화 적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표 7-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로 나타났다.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모두 많을수록 다문화가족 아동이 한국문화 적응에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아동의 특성 및 어머니와 가구의 특성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2개 유형의 적응도를 합한 전체 모델에서는 가족지지와 교사지지가 유의하였고, 모의 결혼전 국적 중 중국이 유의하였다. 즉, 가족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는 높을수록 문화적응도가 높았고, 기타 출신국 모보다 중국출신 모를 둔 자녀의 문화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7-15〉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1)

	모델1: 어머니나라 문화 적응도		모델2: 한국문화 적응도		모델3: 전체 문화적응도	
	b	beta	b	beta	b	beta
(Constant)	.227		9.762		9.989	
성 (여자=0)	.253	.021	-.752	-.071	-.500	-.026
학년	-.058	-.100	.002	.004	-.056	-.062
한국거주기간	.515	.071	-.131	-.021	.384	.034
결혼전국적(기타=0)						
일본	-.629	-.052	-2.314	-.218	-2.944	-.154
중국	-2.458	-.177	-2.546	-.210	-5.004	-.230+
동남아시아	-1.719	-.113	-1.321	-.100	-3.040	-.128
모의 연령	.104	.097	-.011	-.012	.092	.055
모의 학력	.212	.023	.452	.056	.664	.046
부의 학력	-.223	-.026	-.535	-.072	-.758	-.057
월평균소득	-.018	-.003	.020	.004	.002	.000
거주지역 (농어촌=0)	-.621	-.050	-.628	-.058	-1.249	-.064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	1.482	.190*	.695	.102	2.177	.179*
친구지지	.100	.012	2.641	.357***	2.742	.206
교사지지	2.639	.282***	1.756	.215**	4.395	.300***
모의 스트레스						
한국문화적응	-.378	-.046	-.195	-.027	-.573	-.044
본국문화몰이해	.435	.063	-.332	-.055	.103	.009
F	4.291***		7.381***		7.488***	
R ²	.234		.344		.347	
N	242		242		242	

주: +p<1.0, *p<.05, **p<.01, ***p<.001

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번에는 다문화자고 아동의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자녀양육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로는 자녀의 성, 학년을 포함하였고, 본인의 결혼전 국적, 한국어실력, 교육수준, 월평균가구소득과 함께 개인의 사회심리적인 특성인 자존감과 부부관계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모델은 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 모델과 본국문화 몰이해 스트레스모델로 구성하였다.

<표 7-1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델 1의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는 한국어실력, 자존감, 부부관계 만족도가 유의한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즉,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자존감 및 부부관계 만족도도 낮을수록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의 성, 학년, 결혼전 국적, 교육수준,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델 2의 본국문화 몰이해로 인한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수준, 자존감, 부부관계만족도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 및 부부관계는 낮을수록 본국문화 몰이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 밖에 다른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어실력이 제고되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자존감과 부부관계만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은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주목해야 할 결과이다.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의 차별과 냉대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이 불식되어야 한다.

〈표 7-16〉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모델1: 한국문화 적응 스트레스		모델2: 본국문화 몰이해 스트레스	
	b	beta	b	beta
(Constant)	5.525		4.769	
자녀 성 (여자=0)	.049	.033	.129	.073
자녀 학년	-.001	-.011	-.002	-.021
결혼전 국적 (기타=0)				
일본	-.050	-.034	-.240	-.136
중국 및 한족	.000	.000	-.206	-.106
동남아시아	-.204	-.112	-.376	-.172
한국어실력	-.247	-.281***	-.109	-.104
교육수준	.023	.035	.110	.137*
월평균소득	-.023	-.031	-.097	-.112
거주지역 (농어촌=0)	-.082	-.055	-.145	-.082
지존감	-.569	-.418***	-.328	-.202**
부부관계 만족도	-.155	-.166**	-.176	-.158*
F	14.292***		3.433***	
R ²	.412		.144	
N	236		236	

주: *p<.05, **p<.01, ***p<.001

3. 일반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마지막으로 일반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17>에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모델을 2개로 구성하였는데, 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긍정적 수용성 모델과 다문화에 대해 불편함이나 거리를 느끼는 부정적 수용성 모델로 나누었다. 독립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성, 학년, 아버지 학력, 거주지역, 주관적 경제수준, 다문화 학생과의 친밀정도, 해외여행 경험유무,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한국인인가의 여부)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긍정적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년, 주

관적 경제수준, 다문화인에 대한 인지중 비한국인인지에 있었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을 높을수록, 다문화인에의 친밀도는 높고, 다문화인이 한국인이 아니라고 보는 아동에 비해서 한국인도 되고 외국인도 된다고 보는 아동의 경우가 다문화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변수인 성, 아버지 학력, 거주지역, 경제수준, 해외여행경험 등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에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더니, 학년, 다문화인에의 친밀도, 해외여행경험, 다문화인에 대한 인지도가 유의하였다. 고학년일수록, 다문화에의 친밀도가 낮을수록, 해외여행 경험에 있는 경우가, 다문화인을 한국인으로 보는 아동보다는 한국인도 되고 외국인도 된다고 보는 아동이 다문화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성, 아버지 학력, 거주지역, 경제수준은 유의하지 않았다. 해외여행경험은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와,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7-17〉 일반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모델1: 긍정적 수용성		모델2: 부정적 수용성	
	b	beta	b	beta
(Constant)	1.647		3.319	
성 (여자=0)	.058	.050	-.084	-.064
학년	-.007	-.123**	.010	.149**
아버지 학력	-.001	-.004	-.014	-.037
거주지역 (농어촌=0)	.007	.006	-.017	-.013
경제 수준	.121	.148**	-.060	-.065
다문화에의 친밀도	.211	.407***	-.208	-.359***
해외여행경험(아니오=0)	-.032	-.024	.139	.091*
다문화 인지 (둘다=0)				
한국인	.070	.060	-.170	-.130**
비한국인	-.351	-.118*	.272	.082
F	13.892***		11.658***	
R ²	.243		.212	
N	400		400	

주: *p<.05, **p<.01, ***p<.001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분석을 살펴보았을 때 다문화가족 아동가족 아동의 문화적응 양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응에 있어서 어머니 나라 문화에의 적응보다는 한국문화에의 적응도가 더 높았다. Cortes, Rogler and Malgady의 이중문화 척도(Bicultural Scale) Berry에 기초하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아동은 어머니나라 및 한국문화 모두 적응도 높은 이중문화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연령상 모가 한국사회에의 적응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여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자녀의 적응 상에도 커다란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일부 아동만이 주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아동에 대해서는 각별한 배려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모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이 한국 거주기간이 90%이상이 10년 이상인 상황이어서 한국문화에의 적응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본인이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스트레스보다 한국인이 본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컸다. 따라서 한국인이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포용력을 제고해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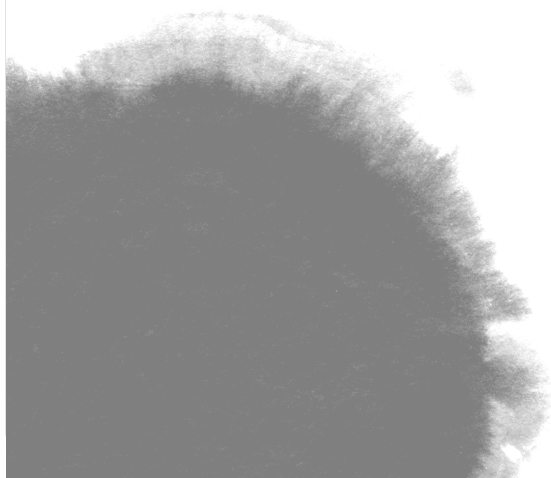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일반아동은 비교적 다문화에 대해서 긍정적 수용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부정적 태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측면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성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특이하게도 외국문화에의 노출이 문화개방성에 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고학년이 될수록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외이주의향도 높았다. 이는 학습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중장기적으로 학업에 대한 부다 완화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검증된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도가 제고됨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존감과 부부관계 만족도이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부관계만족도를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어실력이 중요한 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 규명된 바,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국생활적응이 유연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학력 여성이 본국 문화를 한국인들이 수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학력 여성을 배려한 정책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일반아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문화개방적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아동은 다문화에 대해 긍정성은 높고 부정성은 낮음을 감안하여 다문화친화적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을 한국인으로 인식할수록 긍정적 수용성이 높으므로 한민족에 범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족 아동과의 접촉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교육과 경험의 장 마련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08

다문화가족 이동의 복지욕구 실태



제8장 다문화가족 아동의 복지욕구 실태

제1 절 다문화가족 아동의 복지욕구실태 비교

1. 다문화 및 일반아동의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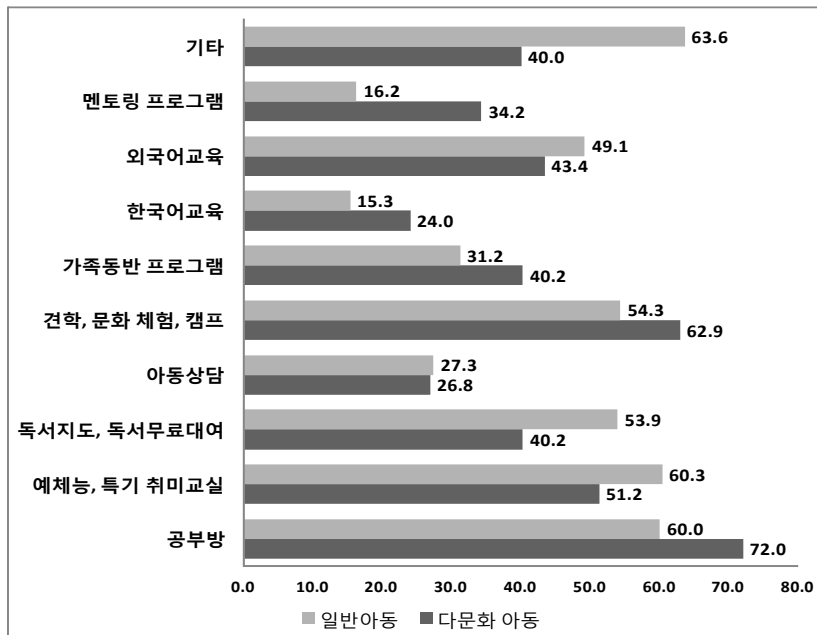
아동복지서비스 유형별 다문화가족아동과 일반아동의 이용비율을 <표 8-1> [그림 8-1]에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은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이용비율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공부방은 다문화가족 아동이 72.0%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비해 일반아동은 60.0%만을 이용하고 있었고, 반면 예체능 및 특기 취미교실 등은 일반아동의 이용비율이 60.3%로 다문화가족 아동 51.2%보다 높았다. 아동상담은 두 집단 모두 20%대로 낮은 편이었고, 견학, 문화체험, 캠프 등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이용율이 62.9%로 일반아동 54.3%보다 높았다. 가족동반프로그램도 다문화가족 아동이 40.2%로 일반아동 31.2%보다 높았다. 한국어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유의하게 다문화가족 아동의 이용율이 높았다. 다만 외국어교육은 비슷한 40%대를 보이고 있다.

〈표 8-1〉 아동복지서비스 이용률 비교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전체	χ^2
전체	사례수	379	395	774	-
	백분율	100.0	100.0	100.0	
공부방		72.0	60.0	65.9	12.458***
예체능, 특기 취미교실		51.2	60.3	55.8	6.384**
독서지도, 독서무료대여		40.2	53.9	47.2	14.651***
아동상담		26.8	27.3	27.0	.025
건강, 문화 체험, 캠프		62.9	54.3	58.5	5.758*
가족동반 프로그램		40.2	31.2	35.6	6.802**
한국어교육		24.0	15.3	19.6	9.167**
외국어교육		43.4	49.1	46.3	2.538
멘토링 프로그램		34.2	16.2	25.0	33.331***
기타		40.0	63.6	56.3	.780

주: *p<.05, **p<.01, ***p<.001

〔그림 8-1〕 아동복지서비스 이용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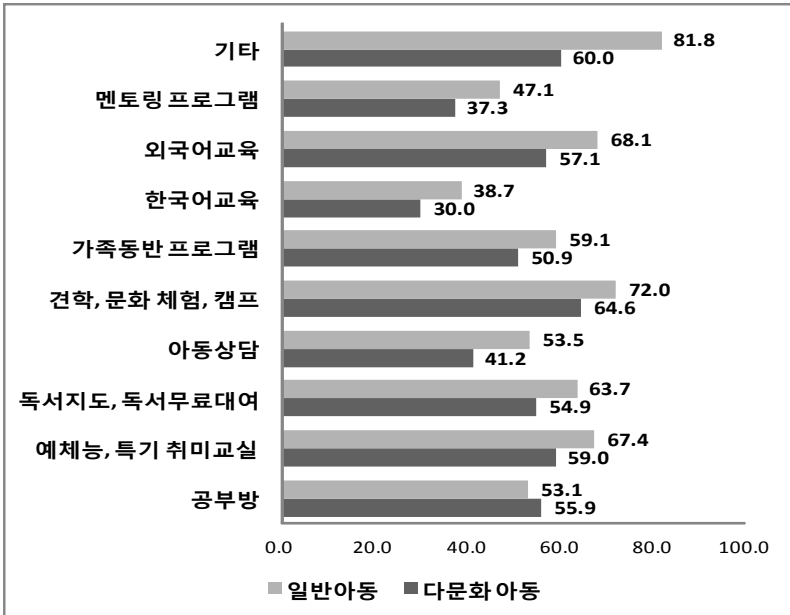
이번에는 같은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집단간 비교하여 보았다. 필요도는 전체적으로 50%~70%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편이었다(표 8-2, 그림 8-2 참조). 특히 예체능, 특기 취미교실, 독서지도, 견학 및 문화체험, 외국어교육의 필요도를 높게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어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의 필요도는 낮은 편이다. 집단별로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동시에 차이가 유의한 모든 항목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에 비해서 일반아동의 필요도가 높았다. 일반아동은 견학 및 문화, 외국어교육, 예체능 및 취미교실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다문화가족 아동은 견학 및 문화체험, 예체능 및 취미교실, 외국어교육, 공부방, 독서지도의 순으로 필요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필요도 상의 차이는 이용도 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아동은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비교적 높은 필요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표 8-2〉 아동복지서비스 필요율 비교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전체	X ²
전체	사례수	376	393	758	-
	백분율	100.0	100.0	100.0	
공부방		55.9	53.1	54.5	.622
예체능, 특기 취미교실		59.0	67.4	67.4	5.901**
독서지도, 독서무료대여		54.9	63.7	63.7	6.020**
아동상담		41.2	53.5	47.5	11.443***
견학, 문화 체험, 캠프		64.6	72.0	68.7	5.716*
가족동반 프로그램		50.9	59.1	55.2	5.187*
한국어교육		30.0	38.7	34.5	6.449**
외국어교육		57.1	68.1	62.8	9.926**
멘토링 프로그램		37.3	47.1	42.4	7.419**
기타		60.0	81.8	75.0	.873

주: *p<.05, **p<.01, ***p<.001

[그림 8-2] 아동복지서비스 필요율 비교



2. 다문화 및 일반아동의 서비스기관 이용 및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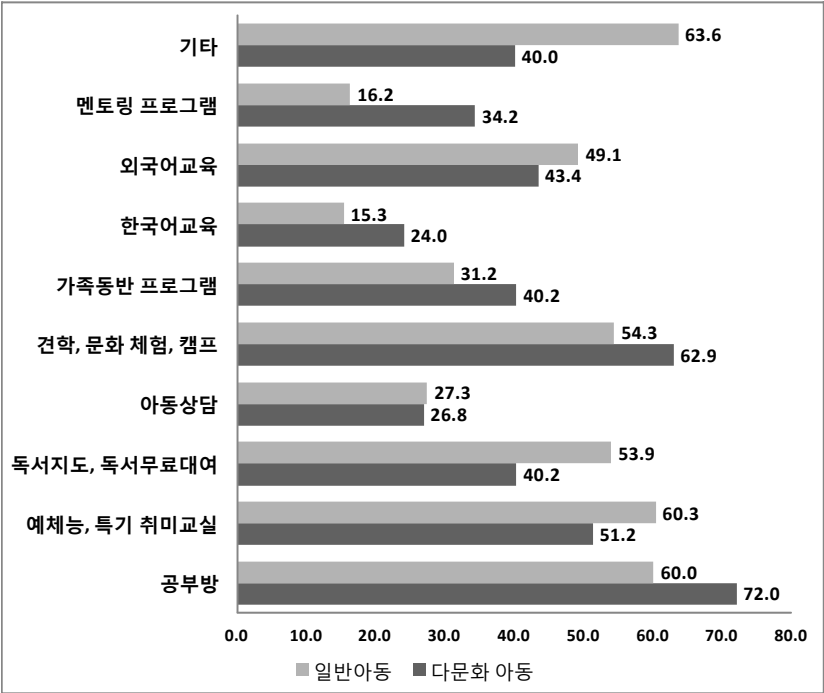
이번에는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도와 필요도를 알아보았다.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설학원, 방과후 학교, 공부방 등을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이용도와 필요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표 8-3> [그림 8-3]에서 제시하였듯이 이용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서비스는 도서관, 방과후 학교, 사설학원, 공부방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모두 70% 전후의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용율이 낮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상담기관과 복지관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는 사설학원, 공부방, 상담기관, 복지관, 도서관의 경우가 유의하였다.

〈표 8-3〉 아동복지서비스 기관 이용율 비교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전체	χ^2
전체	사례수	376	393	769	-
	백분율	100.0	100.0	100.0	
사설학원		56.1	67.1	61.7	9.980**
방과후 학교		70.7	75.4	73.1	2.210
공부방		57.0	47.1	51.9	7.563**
상담기관		25.4	19.8	22.5	3.465*
복지관		25.7	16.7	21.1	9.274**
문화센터 체육관		47.2	51.4	49.4	1.333
도서관		77.3	83.8	80.6	5.290*
기타		66.7	75.0	71.4	.058

주: * $p<.05$, ** $p<.01$, *** $p<.001$

〔그림 8-3〕 아동복지서비스 기관 이용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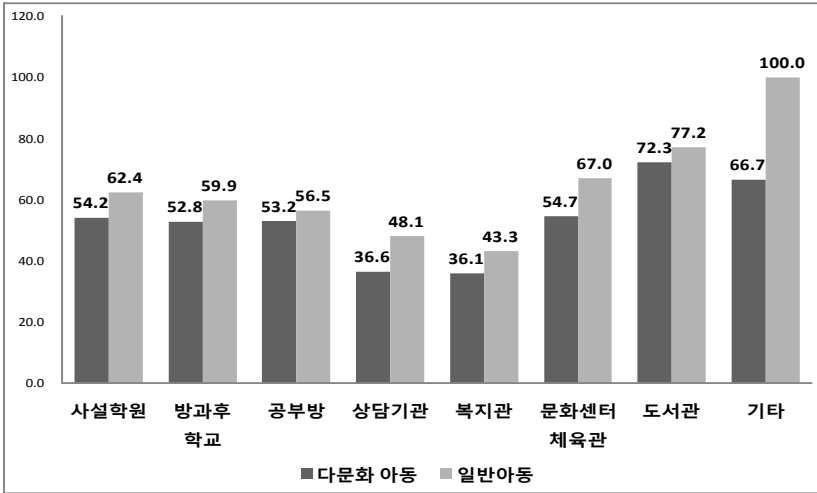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의 필요도는 <표 8-4> [그림 8-4]에 제시되었듯이 전체적으로는 도서관과 문화센터·체육관, 사설학원, 공부방 등의 순으로 많았다. 두 집단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일반아동의 필요도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필요도보다 높았다. 두 집단 아동이 선호하는 시설은 도서관, 문화센터·체육관, 사설학원, 방과후 학교의 순으로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제공이 취약계층에 한정되고 있어서 일반아동이 제외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아동복지서비스는 일반아동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이용이 용이하고 가족단위로도 접근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표 8-4> 아동복지서비스 기관 필요율 비교

구분		다문화가족 아동	일반아동	전체	X ²
전체	사례수	376	393	769	-
	백분율	100.0	100.0	100.0	
사설학원		54.2	62.4	58.3	5.287*
방과후 학교		52.8	59.9	56.5	3.851*
공부방		53.2	56.5	54.9	.809
상담기관		36.6	48.1	42.4	10.173**
복지관		36.1	43.3	39.7	4.076*
문화센터 체육관		54.7	67.0	60.9	12.163***
도서관		72.3	77.2	74.8	2.414
기타		66.7	100.0	85.7	1.556

*p<.05, **p<.01, ***p<.001

[그림 8-4] 아동복지서비스 기관 필요율 비교



제2절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욕구

1.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대상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실태

다문화가족 아동의 모인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필요성 등의 시각도 다문화가족 아동의 복지확충에 중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의 욕구도 파악하였다. 우선 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도를 학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서비스에는 한국어교육, 학습지도, 기초교과지도, 무료급식, 학비지원, 예체능교육, 상담 심리검사, 문화여가활동, 컴퓨터교육 등이 있다.

<표 8-5> [그림 8-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녀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무료급식으로 65.8%으로 파악되었고, 그 다음은 문화여가활동으로 48.2%이었다. 나머지 서비스의 이용율은 20-30%대로 별로 높은 편은 아니다. 서비스 이용에서 학년별 차이를 보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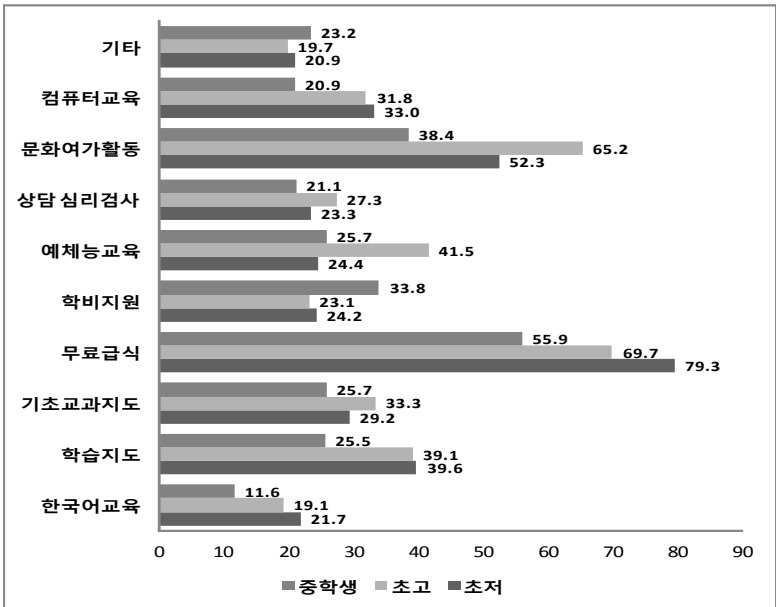
은 학습지도, 무료급식, 예체능교육, 문화여가활동이다. 대부분 중학생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의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8-5〉 결혼이주여성 자녀대상 복지서비스 이용율

구분		초저	초고	중학생	전체	χ^2
전체	사례수	92	69	155	316	-
	백분율	100.0	100.0	100.0	100.0	
한국어교육		21.7	19.1	11.6	16.2	4.910
학습지도		39.6	39.1	25.5	32.6	6.867*
기초교과지도		29.2	33.3	25.7	28.3	1.382
무료급식		79.3	69.7	55.9	65.8	14.542**
학비지원		24.2	23.1	33.8	28.7	3.818
예체능교육		24.4	41.5	25.7	28.7	6.724*
상담 심리검사		23.3	27.3	21.1	23.1	1.009
문화여가활동		52.3	65.2	38.4	48.2	13.976**
컴퓨터교육		33.0	31.8	20.9	26.8	5.316
기타		20.9	19.7	23.2	21.8	.378

주: *p<.05, **p<.01

〔그림 8-5〕 결혼이주여성 자녀대상 복지서비스 이용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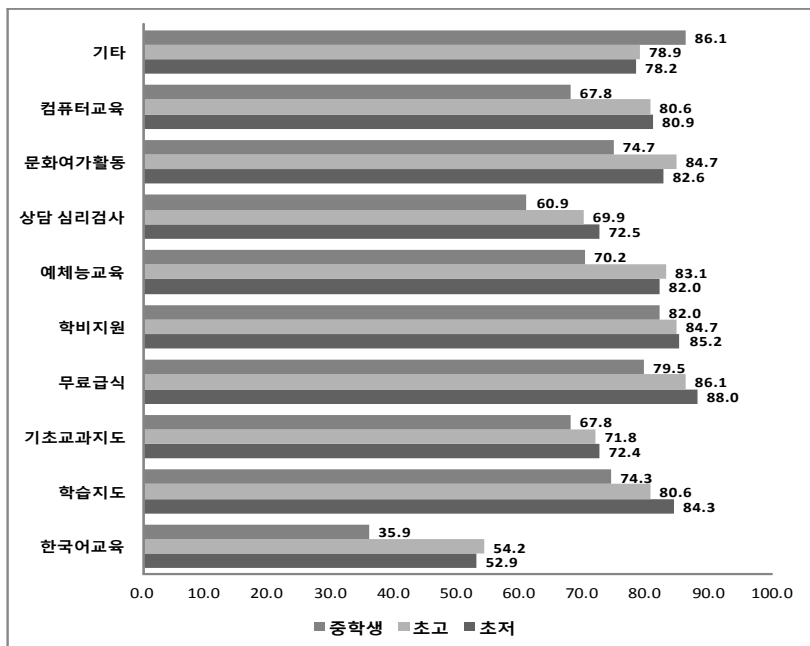
<표 8-6> [그림 8-6]에서는 자녀대상 이동복지서비스의 필요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서비스의 이용도에 비해서 서비스에 대한 모의 필요 인식은 매우 높았다.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필요도가 60-70%이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용의향이 높은 서비스는 무료급식, 학비지원, 학습지원, 문화여가활동, 예체능교육, 컴퓨터교육 등으로 70-80%대이다. 다른 서비스에 대한 모의 욕구도 한국어교육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년별 차이에 있어서는 한국어교육, 예체능교육, 컴퓨터교육이 유의하였다. 대체적으로 중학생학부모보다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이 분야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았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학습지도와 무료급식은 초등학교 저학년 모, 예체능교육과 문화여가활동은 초등학교 고학년모의 욕구가 더 높았다.

<표 8-6> 학령별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복지서비스별 필요율

구분		초저	초고	중학생	전체	X ²
전체	사례수	92	69	155	307	-
	백분율	100.0	100.0	100.0	100.0	
한국어교육		52.9	54.2	35.9	45.1	9.513**
학습지도		84.3	80.6	74.3	78.6	3.502
기초교과지도		72.4	71.8	67.8	70.0	.703
무료급식		88.0	86.1	79.5	83.3	3.297
학비지원		85.2	84.7	82.0	83.5	.514
예체능교육		82.0	83.1	70.2	76.5	6.570*
상담 심리검사		72.5	69.9	60.9	66.3	3.948
문화여가활동		82.6	84.7	74.7	79.2	3.901
컴퓨터교육		80.9	80.6	67.8	74.5	6.847*
기타		78.2	78.9	86.1	82.2	3.071

주: *p<.05, **p<.01

[그림 8-6] 결혼이주여성 자녀대상 복지서비스 필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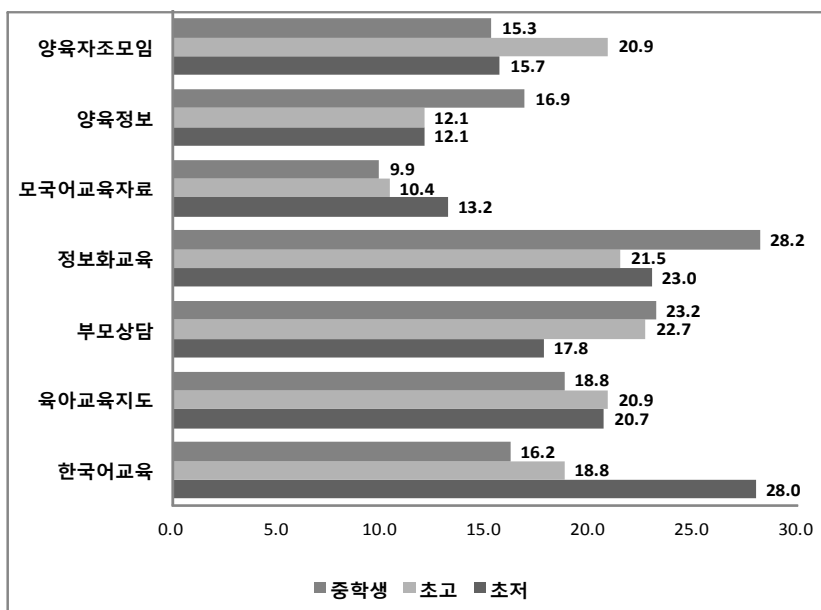
2.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도

<표 8-7> [그림 8-7]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본인을 위한 서비스의 이용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와 자문회의를 통해서 분석대상 서비스로 선정된 서비스는 한국어교육, 육아교육지도, 부모상담, 정보화교육, 모국어교육자료, 양육정보, 양육자조모임 등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도는 별로 높지는 않았다. 거의 모든 서비스의 이용도는 10-20%대로 낮은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서비스는 정보화교육 25.2%, 부모상담 21.5%, 한국어교육 20.3%의 순이다. 다른 서비스의 이용도는 낮은 편이다. 자녀의 학년별 서비스 이용도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년별로 학부모를 위해서 차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은 높지 않다. 대신에 낮은 서비스 이용의 원인을 규명하고 부모의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 8-7〉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서비스 이용률

구분		초저	초고	중학생	전체	χ^2
전체	사례수	92	69	155	316	-
	백분율	100.0	100.0	100.0	100.0	
한국어교육		28.0	18.8	16.2	20.3	5.043
육아교육지도		20.7	20.9	18.8	19.8	.184
부모상담		17.8	22.7	23.2	21.5	1.050
정보화교육		23.0	21.5	28.2	25.2	1.392
모국어교육자료		13.2	10.4	9.9	11.0	.641
양육정보		12.1	12.1	16.9	14.4	1.416
양육자조모임		15.7	20.9	15.3	16.7	1.111

〔그림 8-7〕 결혼이주여성 복지서비스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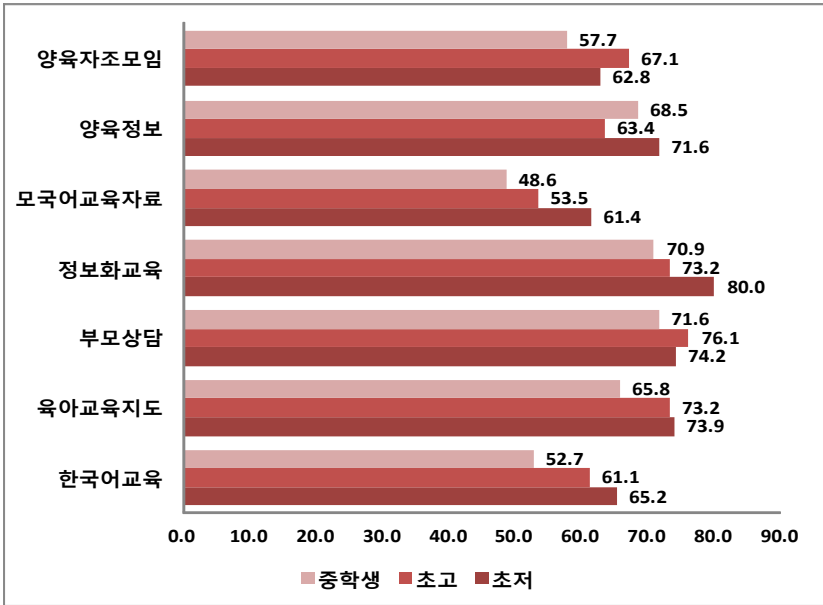
<표 8-8> [그림 8-8]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본인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낮은 서비스 이용도와는 달리 서비스 필요도는 한국어교육과 모국어 교육자료를 제외하고는 60-70%대로 높은 편이다. 한국어교육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곳이 많아서 필요도가 낮은 것

으로 추정되고, 모국어교육자료는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못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보화교육, 부모상담, 육아교육지도, 양육정보 등에서는 수요가 많아 이러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8〉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서비스 필요율

구분		초저	초고	중학생	전체	χ^2
전체	사례수	92	69	155	306	-
	백분율	100.0	100.0	100.0	100.0	
한국어교육		65.2	61.1	52.7	58.3	3.818
육아교육지도		73.9	73.2	65.8	69.8	2.223
부모상담		74.2	76.1	71.6	73.4	.522
정보화교육		80.0	73.2	70.9	74.1	2.428
모국어교육자료		61.4	53.5	48.6	53.4	3.578
양육정보		71.6	63.4	68.5	68.2	1.231
양육자조모임		62.8	67.1	57.7	61.3	1.894

〔그림 8-8〕 결혼이주여성 복지서비스 필요율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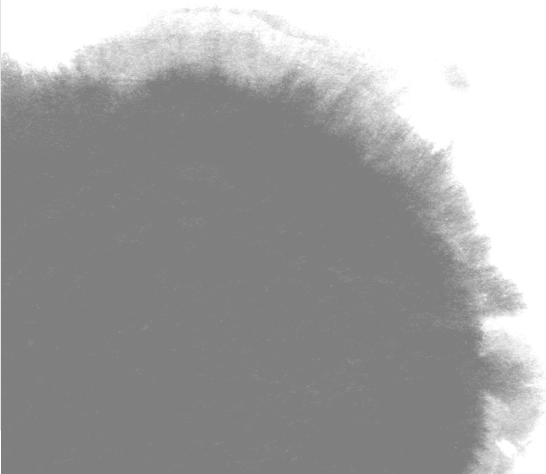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은 복지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의 이용도가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아동도 대동소이하나, 일반아동은 다문화가족 아동에 비해서 복지서비스 이용율이 낮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은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율이 낮았다. 즉, 양자는 다른 측면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필요도는 양자 모두 높은 편으로 파악되어, 서비스 이용과 필요 간에 갭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아동의 복지에 대한 필요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일반아동이 서비스 및 제공기관에 대한 기대가 더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복지 제공기관 확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기관 확충이 필요하되,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적 프로그램 및 시설도 필요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상황에 따라서는 특화된 서비스도 필요하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부모를 위해서는 각종 지원이 필요하되, 자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적한 기초교육 학습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모의 경우 상담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인데, 최근 아동의 정서적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09

기관실무자 FGI 결과



제9장 기관실무자 FGI 결과

제1절 조사개요

본장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아동복지서비스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현재 국내 다문화가족 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각 기관별 지원서비스 현황 및 지원방안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며 나아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FGI 참석 기관 및 대상으로는 서울시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사업 담당 실무자 2인과 서울 지역 내 초등학교 다문화가족 아동 담당교사 1인, 그리고 다문화가족 및 아동 관련 센터장 및 관련 담당자 2인 총 5인으로 구성되었다.

FGI를 통해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주요 문제(사회심리, 가족, 학교, 문화적 측면)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기관별로 아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 자원활용 방안에 대하여 파악해보고자 하였으며, 끝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지원 정책 및 서비스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9-1>과 같다.

〈표 9-1〉 FGI 실시 일시 및 내용

일시	2011년 10월 19일 15~17시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상자 (총 5인)	서울시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사업 담당 실무자 2인 초등학교 다문화가족 아동 담당교사 1인 다문화가족 및 아동 관련 센터장 및 관련 담당자 2인
내용	• 다문화가족 아동의 주요 문제 - 사회심리적 적응면(자존감, 우울감 등) - 가족생활면(아동적응과 관련하여 부모들의 고민과 욕구 등) - 학교생활면(담임교사 및 교우관계 등) - 문화적 측면(문화갈등, 가치갈등 등) • 아동 지도 및 지원 상의 어려움 - 기관(센터 및 학교 등) 내 다문화가족 아동 지도 및 지원 상의 어려움 및 애로사항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여부 - 다문화가족 아동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 기관간 네트워크 여부 및 방법 •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정책 및 서비스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제2절 조사결과

1. 다문화가족 아동의 주요 문제

다문화가족 아동이 처한 주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4가지 생태체계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즉, 사회심리적 적응면(자존감, 우울감 등), 가족생활면 (아동적응과 관련하여 부모들의 고민과 욕구 등), 학교생활면 (담임교사 및 교우관계 등), 문화적 측면(문화갈등, 가치갈등 등) 등이다.

가. 사회심리적 적응 (자존감, 우울감 등)

다문화가족 아동이 겪는 문제 중 사회심리적 적응과 관련한 문제는 타문화권과의 충돌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정서영역에 영향을 받게 되며, 부모의 이주배경 및 외모차이 등으로 인한 문화적응의 혼란을 겪게되면서 동시에 심리적 위축, 우울감 등을 느끼고 있다. 또한 부모의 지지체계 부족으로 인한 정서적 결핍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슬람권 부모의 경우 한국문화에서 제약사항이 많아, 문화적 충돌과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예,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교복을 입어야 하는 경우 등), 이주배경 부모의 외모차이, 자신의 외모차이로 인한 내재되고 지속적인 심리적 위축 및 우울감 등을 겪기도 한다. 또한, 부모의 지지체계가 취약하고 사회적 활동이 협소함에 따라 자녀들의 지지체계의 범위역시 적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정서적 지지부족 등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A기관)

한편, 타 기관에서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유 자체가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가족이 처한 환경적인 요인이 아동의 심리·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의 사례와 같이 가족 내에서 겪게 되는 폭력이나 가족의 빈곤, 가족의 분리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심리·정서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이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 기관에서 이중언어 지원사업을 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심리발달 평가결과,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보여지는 아동들간의 우울감이나 자존감이 낮은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반면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 중에서도, 가족 내의 폭력, 저소득, 가족의 분리 등의 외적 환경으로 인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은 있다. (B기관)

또한, 아동의 심리사회적응과 관련하여 아동의 학교생활 중 학교 공부에 대한 부진이나 부적응으로 인해 아동의 자존감과 우울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서 학교생활에 특히 학교교과과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자존감과 우울감 등을 표시하는 아동들이 30% 정도된다. 대부분 초등저학년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을 많이 표시하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는다(C기관)

특히, 학교 내 다문화가족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학교 라는 집단 내에서의 아동에게 주어진 역할이 또래집단 사이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의 적응이 아동의 심리사회적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들의 자존감이 높은 편은 아니나, 이는 학교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6학년 다문화학생 한 명은 조선족 어머니가 있어서 다문화학생이라는 티가 잘 나지 않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학생의 자존감은 높은 편이다(D기관)

이 외에도 부모의 가출로 인한 부모의 부재를 통해 겪게 되는 부모와의 분리 경험이나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성장과 심리정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가출 경험을 갖고 있는 아동들은 어머니와의 분리불안증을 갖고 있어 어머니가 옆에 없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지식 부족으로 언어발달이 느리고, 그로인해 유치원에 가서 위축되는 아이들이 발생하곤 한다. 또한, 가족에서는 엄마도 아빠도 한국사회에 적응을 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잘 보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자존감이 상실된 아동들이 많다(E기관)

나. 가족생활면(아동적응과 관련하여 부모들의 고민과 욕구 등)

다문화가족 아동이 겪는 문제 중 가족생활 내 아동적응과 관련하여 부모들의 고민과 문제는 다음의 의견과 같이 가족 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아동의 심리, 문화, 교육적 측면에 파생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많은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부모의 역할 및 양육기술 부족으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 기관의 의견과 같이 자녀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미흡함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보호자로서 담당해야 할 중요한 안전 및 영양 등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많은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심리적, 문화적, 교육적 어려움 겪고 있다. 특히 자녀들의 학교생활 지원에 있어 학부모로서, 보호자로서 위축감 및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역할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자녀에 대한 영양, 안전, 치아관리, 성교육 등에 대한 양육기술 또한 부족하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에 가입되기 어려운 유학, 난민, 미등록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 출산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함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한다(A기관)

마찬가지로 다음의 사례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타국 출신으로 인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족, 가족환경적 요인, 부모역할 부족 및 경제활동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자녀에 대한 교육 열의부족으로 자녀가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가족 내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가족생활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엄마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에 심리적 어려움を 보이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남성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남성들이 많이 있기도 하거니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도 학벌이 높지 않고 나이가 어린 경우 이들 중 일부는 자기관리 및 생활관리가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편이다. 가족방문을 해보면, 집안정리 및 아이 교육에 대한 열의부족(교육시에도 같은 국가권 사람들을 데려다가 떠돌고 놀고 있음), 집안에서의 도박, 및 흡연 등, 자녀폭행, 시간약속 지키지 못하는 등 아동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에 의해 자녀양육 및 자녀양육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다문화 가족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도시의 다문화 가족의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의 정직원의 활동보다는 일용직 혹은 3교대의 어려운 일들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녀양육은 외국에서 온 외조모, 혹은 친조모가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B기관)

또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여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도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들 중에는 타국가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아동도 있으며 학령기의 아동들 중에는 아버지와의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언어습득 면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를 많이 무시하는 아동들이 50% 정도 된다. 학령전기까지 아버지와 애착관계가 많았던 아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동도 있으나 학령기에 있는 아동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표시하는 아동들도 있다. 또한, 아동들의 열악한 문해환경으로 인하여 아동들이 책을 잘 읽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C기관)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학부모로서 학교활동 참여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자녀를 위한 체험 및 방과후 학교 지원 등과 같이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부모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부모로서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들께서 학교에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나, 앞으로 드러내는 것을 많이 꺼려한다. 아무래도 자신으로 인하여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험활동, 방과후 학교 지원 등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D기관)

다. 학교생활면(담임교사 및 교우관계 등)

다문화가족 아동이 겪는 문제 중 학교생활에서의 적응과 관련한 문제는 무엇보다 학교 내에서 소통하게 되는 담임교사나 또래관계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과 부모의 언어장벽으로 인한 자녀의 학교생활지원의 어려움 등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 기관의 의견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담임교사의 인식부족에 의한 경우로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언행으로 인해 아동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부모의 역할 부족이나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아동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학교 준비물을 챙기는 부분이나 학습 및 과제에 대한 어려움이 수반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담임교사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낙인 언행이 있을 때가 있다. 또한, 준비물, 학습 등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및 지원체계 부족 또는 정보습득의 기회가 부족하다(A기관)

마찬가지로 다음의 B기관에서 제시한 문제도 앞서 살펴본 A기관에서의 문제와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소통 미흡으로 인한 자녀의 학교준비도 부족과 일반아동과 교사의 인식부족으

로 인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왕따, 차별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국가권과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아동 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부모의 국가권과 경제적 환경으로 인한 차이가 존재한다. 베트남, 중국의 국가의 경우, 자녀교육에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 어머니의 경우 교육열도 매우 높아서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중국과 베트남, 몽골처럼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긴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까지도 다문화 가족이라는 언어 또한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반면 외모적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학교에서 일반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차별로 인하여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많이 보이고 있으며, 도시의 경우,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어머니의 교육열이 높아서 사교육 등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은 아동들의 경우는 학교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β기관)

학교 준비도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모 중 한국인이(주로 아버지) 아동의 교육을 주되게 신경써주지 않는 경우,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한국어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 또한 언어발달이 되지 않고 다른 아동들에 비해 학교준비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 학교 적응에 있어서 일반가족의 아동들 보다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은 학교 준비물, 학교일정에 대한 아동 준비도등도 당연히 한국 어머니보다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β기관)

일반아동과 교사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 아동의 개인적 역량과 환경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학교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응의 어려움은 일반아동들과 교사의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왕따, 차별 등이 오히려 다문화 가족아동이 학교적응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겠다(β기관)

다음 사례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서의 적응과 관련하여, 한국어 소통이 자녀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의 학교 준비물 챙기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외에도 결혼

이주여성이 타국적으로 인한 학교교사 및 동료 학부모들과의 소통이나 관계형성의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어머니가 준비물 챙겨주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초등 저학년까지 아동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어머니들은 학교 담임선생님과 상담의 어려움 또한 공개수업 시 다른 어머니들과의 교류의 어려움 등도 교육 아동의 60% 정도 표시하고 있다(C기관)

학교 내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제시된 어려움으로는 담임교사와의 관계나 학업성취도에 대한 측면을 들고 있다. 한국어 사용 미흡으로 인한 담임교사와의 소통의 장벽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학업성취도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문화학생이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탈북아동이 한 명 있을 때에는 조금 다른 언어사용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당황스러운 적이 많다고 한다. 학업성취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다(D기관)

특히,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한국어 사용 부진으로 인한 학업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집안의 위생 상태나 자녀의 건강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맞벌이로 인한 가족 위생관리 및 자녀 양육 및 건강관리의 소홀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한국어를 몰라 일단 학업생활을 진행할 수 없어 대부분 바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들어가도 자신의 학력보다 낮게 들어가지만 한국어를 못하는 아이로서는 그것 또한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고학력으로 올라갈수록 정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아이들은

다체적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으며, 일반 가족의 아동보다는 학업적으로 더 우월한 아이들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아이들에게 문화적 갈등이나 어려움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엄마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집안의 위생 상태나 아이들 건강 등을 잘 챙기지 못함을 볼 때 아이들의 건강이 매우 우려가 된다(E기관)

라. 문화적 측면(문화갈등, 가치갈등 등)

다문화가족 아동이 겪는 문제 중 문화적 측면에서의 적응과 관련한 문제는 다문화로 인한 역차별과 문화갈등으로 인한 고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아동이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차별,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이주배경 아동들의 고립화 되는 현상이 있고 양육기술의 문화적 차이가 한국의 일반문화와 충돌할 경우 아동들의 혼란 등으로 인해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느낀다(A기관)

특히 한국사회 내 단일민족국가라는 신념 아래 이중문화로 인한 상대적인 열등감을 경험하고 있어 이에 한국인들의 인식제고가 절실히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중언어, 이중문화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나 단일민족국가라는 한국사회의 불필요하지만 중요한 신념아래에서 자신들이 이중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상대적인 열등감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한국인들이 인식이 변하여 다양한 문화와 언어 및 다양한 외모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B기관)

문화적응에 있어 언어차이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며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문화차이로 인한 문화충격 등을 경험하고 있다.

본 사례는 기관 내에서의 개별사례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일 수 있다.

중국에서 중도 입국한 3학년 아동에게 벽시계 선물을 주려하는데 받지 않으려 하여서 이유를 물어보니 '엄마가 죽었다' 라는 발음과 벽시계의 발음이 유사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표현하였고, 몽골 어머니가 남자아이의 머리를 낚을 잡아서 잘라주어서 남자 아동인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다는 것과 양말을 실내에서도 벗지 못하게 하는 등의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문화적인 충격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C기관)

한편 다음의 사례는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국적이 다른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경우이다.

학생들이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예를 들어, 러시아 어머니를 가진 아동과 롯데월드에서 체험학습을 갔을 때, 공연을 하는 사람들 중 어머니 친구들이 있다며 인사해본 적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함) (D기관)

2. 아동 지도 및 지원 상의 어려움

각 기관별 다문화가족 아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사회적 자원 및 지원 예산의 부족, 민간센터로서의 지원/역할의 한계성, 사업실행기관 사이의 네트워크의 부족, 복지의 사각지대 현상 발생, 다문화의 인식부족, 문화차이로 인한 개입의 어려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가. 사회적 자원 및 예산의 부족

다문화가족 아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사회적 자원 및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이들을 관리하는 사례관리자의 고용의 불안정을 들 수 있다. 특히 사례관리자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해 아동을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안내자료 등의 번역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을 통합하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 두 배 이상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기가 어려워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A기관)

한국사회 지지체계가 취약한 이주배경 가족들을 사례관리 하다보면 이러한 가족들이 일반 빈곤위기가족보다 사례관리자 또는 기관에 심리적인 의지가 훨씬 더 강하지만, 예산부족은 사례관리자의 안정적 고용에 어려움을 가져온다(A기관)

다문화가족 아동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교육자료, 홍보자료, 안내자료 등의 다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되어야 하나 번역에 대한 인력과 예산, 검수에 대한 자원들이 부족하여 다른 유관기관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와 예산을 필요로 한다(A기관)

나. 민간센터로서의 지원의 한계성

현재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간에서 감당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원이 국내 정책 및 제도와 연관되어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등록, 무국적, 난민 등 체류 상에서 불안정할 경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데 많은 한계를 느낀다. 이는 정책 및 제도와 많은 부분 결부되어 있어 민간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부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주 기초적인 생활조차 어려워 아동들이 그 안에서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경우 기본적인 영양과 교육적인 측면이 부모의 국적체류와 별개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어 민간 센터로서의 지원의 한계성이 있다(A기관)

다. 사업실행기관 사이의 네트워크의 부족

다문화가족 및 이동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기관들 사이의 사례공유 및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 않아 사업에 대한 공유 및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중복수혜 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 가족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기관의 경우, 업무량과다 및 특화사업 선점 및 독보적 기관이 되기 위하여 사례공유 및 네트워크 등이 되고 있지 않아서, 좋은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중복수혜 방지 등의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법인의 사업을 수혜 받던 아동의 심리검사를 의뢰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공유조차 해주지 않아서 공유 받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리며 설득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논의하자고 방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호응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부분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B기관)

라. 복지의 사각지대 현상 발생

현재 다문화가족 이동들 중 대부분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현실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부모의 정보 부족 혹은 맞벌이로 인해 자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

고 있다.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내 대상자 발굴,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아동들이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는 지원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보육시설로 파견을 나가게 되는 경우는 실적과 실제 현실과의 사이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됨(A어린이집에는 언어능력이 많이 뒤쳐진 아동이 한 명 있을 때 B어린이집에는 언어능력이 조금 뒤쳐진 아동이 세 명 있는 경우 언어발달지도사는 B어린이집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서비스 제한을 생활연령 만12세 까지로 제한하므로 중도입국 아동이 많아지는 현재에는 지원에 사각지대가 놓이게 된다(초등학교 4학년이나 생활연령은 만 13세인 경우), 그 밖에 언어지원에 있어서 중복수혜를 금지하므로 방문지도사와 언어발달지도사가 동시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이 있다(C기관)

아동의 가족환경의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싶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부모들의 지식부재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거나 중요부분으로 생각하지 못해 아이들이 센터로 나오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E기관)

엄마들이 취업의 목적과 경제활동이 더 중요하여 아이들에게 진행되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E기관)

마. 다문화에 대한 인식부족

다문화가족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당국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다문화가족 아동이 처한 문제보다,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아무래도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아동에 비례하여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과 행사들이 산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동들에게 교육

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부모들은 한 두번씩 경제적 지원이나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보면서 학교의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아동 자체의 문제보다는 일반아동들이 다문화가족 아동을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인식개선에 노력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D기관)

바. 문화차이로 인한 개입의 어려움

국적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종교적인 것과 맞물린 문화적 충돌 시 개입이 어렵다(A기관)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여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기관 간 네트워크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가. 지역사회 자원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지역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복지서비스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 센터 내 희망이웃, 무한돌봄센터 등(A기관)

다문화 가족의 경우, 국가권이 다르고, 또 살고 있는 지역 또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행사성 사

업을 제외하고, 질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기관의 다문화 사업은 다문화 가족아동들이 이중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 기관으로서 이 사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초등의 경우는 학교와, 그밖의 기관으로는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복지관등으로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나, 위에서 언급한 한계들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다(B기관)

보육시설이나 학교, 교육청, 경찰서 외사계, 지역 회사들의 지원, 재능 기부, 인근대학교의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C기관)

본교 근처에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학생들 1:1 멘토링제도 및 여러 체험학습들을 진행하고 있다(D기관)

지역사회 스카웃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교실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사업을 진행하는 복지관과,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은평구내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E기관)

나. 네트워크 여부 및 방법

각 기관별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지역사회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는 방안, 외부 기업체 및 기관 등을 통해 발생되는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연계하는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공식적 네트워크로는 1. 정보 및 사업 네트워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이주민 지원분과, 2. 사례관리 네트워크 : 안산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네트워크센터를 통해 정기적 네트워크 활동 참여, 3. '희망이웃' 네트워크 : 안산 지역 내 건강, 의료, 교육, 생활과 관련한 60여개 기관 및 상점이 본 센터와 희망이웃으로 네트워크를 맺고 있으며,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다양한

자조모임,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지역 공동체들과의 네트워크 활동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A기관)

여러 지역 사회 기관과 MOU체결하여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행사 위주의 일회성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C기관)

은평구 내 아동을 위한 지역기관 네트워크 협약보다는 기업체, 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을 통해 발생하는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E기관)

4.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정책 및 서비스의 한계 및 개선방안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정책 및 서비스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 문한 결과, 현 다문화가족 아동과 관련한 정책의 개선 및 보완, 사례관 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예방적 접근, 전달체계 확립 및 네트워크 형성, 부모교육 및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가. 현 다문화가족 아동 관련 정책 개선/보완

다문화가족 및 아동 정책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의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정책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및 가족환경으로 인한 자녀의 심리정서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문화 가족을 지원함에 있어서, 획일적이기 보다 차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도 다문화 가족이기에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르는 선별적 지원을 해야할 것이며, 도시와 농

촌의 다문화 가족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이 제공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B기관)

아이들의 공부나 언어적인 부분, 문화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 대부분 이지만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화로 아동의 불안한 심리를 다루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E기관)

또한,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 및 저소득가구 등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대상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아동의 범위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대해 그 외의 유학, 미등록, 난민 등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 및 일반 저소득 아동들에게 확대 적용 필요.(A기관)

학교 진입 자체에 대한 벽이 높고 아동들의 환경이 매우 다양하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증가되고 있어 공식적인 학교교육의 진입문턱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을 필요 있음..(A기관)

중도입국 다문화 가족의 아동 / 다문화 가족 아동들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유아들을 위한 사업도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B기관)

중도입국자녀들이 학교가 아니어도 학업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제라고 있거나, 다문화 자녀들의 대안학교가 많이 생겨나야 할 것 같음(E기관)

나.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 서비스의 예방적 접근, 서비스의 지속화 및 중복 방지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예방적 접근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

에 있어 현재 지원되는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의 일회성 사업이거나 단기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대상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서비스 지속화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과 서비스들이 방대하게 운영되다보니 중복서비스를 수혜하는 경우도 있다라 발생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합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주배경의 영유아들에 대한 건강, 안전, 위생 등에 대한 부모교육, 예방접종 지원, 안전키트 지원, 의료자원 네트워크 등 기본발달에 필요한 예방적 접근 필요.(A기관)

일회성 프로그램을 통한 역차별 발생을 유의하고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보다 예방적이고 전문적,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 확대 필요..(A기관)

행사성, 일시적 지원방안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의 계획하게 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B기관)

일회성 행사위주의 지원정책과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정책이 대부분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보인다. 어머니의 언어능력이나 정보력 센터 참여도에 따라서 아동들이 받는 서비스에도 차별이 나타난다(C기관)

다문화가족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 너무 많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복서비스를 수혜하고 있음, 사업을 한 부처에서 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E기관)

다.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및 네트워크 형성

정부와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연령의 증가에 대한 준비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에 있어 통합, 전문, 맞춤형 정책의 개발 및 전달체계 필요, (A기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의 경우 회기가 정해져 있으며 매우 병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언어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언어치료가 접근하는 것은 매우 의외적임) 회기는 풀어서 아동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학습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필요하다면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는 방법도 좋겠음 (B기관)

정부와 민간기관과의 연계이다. 다문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인 정부주도형 사업개발을 통한 진행보다도 기존에 민간기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나누고 정부에서 지원하여 민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진행하고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들은 MOU, 혹은 정부기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존 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기관의 다문화 사업들간의 많은 정보교환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B기관)

라. 다문화가족 부모 교육

다문화가족 아동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함으로써 부부관계 및 부모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부교육 및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입학 전 또는 최소 1학년 학부모들을 위한 예비 학부모 교육 및 다국어 안내자료 등 지원 필요, (A기관)

이주 어머니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 및 장을 개발하여 한국사회에서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개발 및 확대, (A기관)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 결혼이주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다양한 문화권으로 구성된 가족을 위한 문화가 존중되는 가족을 위한 지원 및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B기관)

마.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다문화사회에 발 맞추어 일반인들을 위한 다문화에 대한 인식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다문화 수용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다문화 가족의 문제는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이기 때 문이라기보다, 경제적인 문제와 다문화 가족의 부모들의 역량부족, 그리고 일 반인들의 인식부족의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파생된 문제가 더 많다고 판단 되어 진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교육 부부교육은 물론, 일반 인들을 위한 인식교육 및 캠페인등이 이루어져서 다문화를 당연하게 다양함으 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B기관)

현재 나라에서 우려하고 있는 다문화학생들의 잠재적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 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과 학생들에 대한 케어도 중요하지만 절대다수인 일 반아동의 인식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다문화가족 아동자체 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일반아동의 인식개선에도 여러 가지 정책의 손 길이 미쳤으면 한다(D기관)

효과적인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 아동들에게 다문화 감수성을 심 어줄 수 있는 사업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E기관)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다문화가족 아동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동이 처한 문제를 볼 때,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하여 이주 배경 및 외모차이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나 우울감 및 문화적 충돌과 정체성 혼란, 부모의 지지체계가 취약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정서적 지지부족 등의 결핍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적응과 관련하여 부모의 역할 및 양육기술 부족으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교사 및 일반아동의 다문화 수용 및 인식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녀의 학교 준비도 부족, 교사 및 학부모들과의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역차별,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이주배경 아동들의 고립화 되는 현상이 있으며, 문화적 차이가 충돌할 경우 아동들의 혼란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생태체계별 적응과 관련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을 지원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애로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사회적 자원 및 지원 예산의 부족, 민간센터로서의 지원/역할의 한계성, 사업실행기관 사이의 네트워크의 부족, 복지의 사각지대 현상 발생, 다문화의 인식부족, 문화차이로 인한 개입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인 자원 및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실행기관의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

해 다문화 수용 및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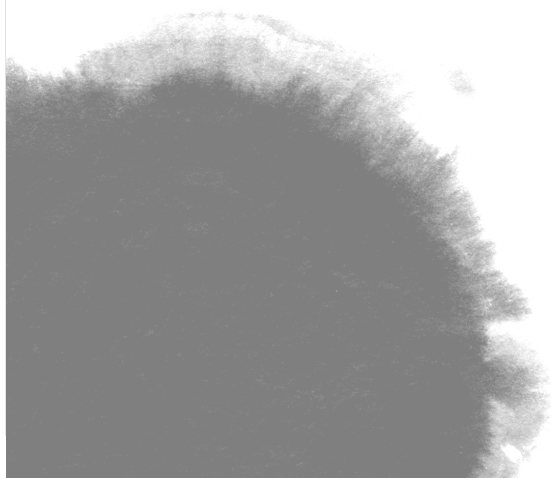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셋째,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여부에 대해 파악해 본 결과, 일부 기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지역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복지서비스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각 기관별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지역사회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는 방안, 외부 기업체 및 기관 등을 통해 발생하는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연계하는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기관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사업실행기관 사이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경우 부모의 출신국가가 다양하고 거주지역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에 각 지역사회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자원 연계와 네트워크망이 좀 더 효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각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별 적극적인 협조 및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정책 및 서비스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현 다문화가족 아동과 관련한 정책의 개선 및 보완, 사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예방적 접근, 전달체계 확립 및 네트워크 형성, 부모교육 및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등이 필요하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실무자 FGI를 통해서 수렴된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상태가 앞장들에서 분석된 실태조사 결과보다 더 낮게 파악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실무자들이 지원하고 있는 아동이 복지 욕구가 많은데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즉 다문화가족 아동 전체의 적응 상태는 양호하나, 개별 아동으로 접근하면 적응상에 문제가 있는 아동이 많다는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10

결론 및 정책제언



제10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 다문화가족 아동의 일반적 특성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종교, 경제적 수준, 부의 연령, 부의 학력 등이었다. 그 중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 것은 종교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절반이상(50.8%)이 통일교로 나타났으며, 통일교의 87.7%가 어머니의 출신국이 일본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생각하는 주관적 경제수준은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 아동의 부의 연령은 일반아동보다 높았으며 학력은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신국으로는 일본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특성은 다문화 가족 초등학생의 32.2%, 중학생의 48.7%의 어머니가 일본 출신국으로 나타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고하고 있는 ‘2010년 다문화가족 자녀현황’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 어머니는 대부분이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과 의사소통을 할 때 78.8%가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2. 심리사회 적응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주요 고민거리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고민을 의논하는 상대로 가족구성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로 응답한 경우가 다문화가족 아동 38.4%, 일반아동 46.2%로 다문화가족 아동이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우울은 차이를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동의 성별, 학년, 부의학력, 경제수준을 공변인으로 하여 분산분석한 결과 경제수준과 다문화 여부가 우울에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가족 아동 집단내에서도 아동의 우울은 학년, 어머니 출신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일반아동보다 낮았으나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배제한 결과 다문화 여부에 따른 차이보다는 주관적 경제적 수준과 부의학력에 따른 차이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 집단내에서도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 출신국가와 아버지의 학력, 가구평균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비교한 결과 친구지지와 교사 지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다문화가족 아동이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여부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변인별 가족지지를 공변인 분산분석한 결과, 다문화 여부와 학년은 동시에 가족지지에 차이를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 집단내에서도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지지는 어머니 출신국가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특성 중에서는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교사 지지 모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생활 적응

다문화가족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3.65점으로 보통을 상회하나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및 취업유무 등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부간의 학력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며, 언어생활 또한 다수가 한국어만을 사용하여 배우자의 권위적인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부부관계에 부(負)로 작용하여, 아동의 가족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약 71%로 높은 편이나 고용상태가 임시·자영업 등으로 불안정하였고, 다문화가족의 과반수 정도는 경제수준이 열악함에도 다수가 비수급가구로 나타나서 빈곤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는 만족도와 애착도를 중심으로 측정한 결과,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는 3.81점으로 보통을 상회하여 대체로 만족에 근접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머니 애착도는 3.52점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한 수준이었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3.31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 애착보다 약간 더 높았다.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와 애착도는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및 고용상태, 가구소득 그리고 가족형태 등 다문화가족의 인구사회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4개의 영역에 걸쳐 측정된 자녀양육관은 2.51~3.57점으로 중간 전후의 분포를 보였다. 다수의 다문화가족은 애정적, 통제적 그리고 자율적 태도의 자녀양육관을 보였으며, 일부는 자녀에 대한 거부적 태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애정적 및 자율적 양육관은 고학력, 고소득 및 핵가족형태를 가진 비교적 양호한 다문화가족에서 나타났고, 거부적 및 통제적 양육관은 저학력, 저소득 및 결손가족 형태를 가진 취약한 다문화가족에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생활적응을 측정하는 지표인 가족응집력을 3개 영역에 걸쳐 측정한 결과, 모의 가족응집도는 3.60~3.67점이고, 아동은 3.55~3.62점으로 가족간의 몰입,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원의 적응력 등 3개 영역에서 모가 아동보다 응집도가 높았고, 모와 아동 모두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높았다. 통계적 분석결과, 가족응집도는 거주지역, 부모의 연령, 출신국, 학력 및 소득 등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양호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가족응집력이 높았다.

다문화가족의 갈등은 2.98~3.98점으로 경제적 갈등이 가장 심각하였고, 다음은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갈등,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 순으로 심각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갈등은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및 취업여부, 배우자의 직업 및 고용상태, 소득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비교적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적응력이 약간 낮음을 알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의 이상으로 적응하고 있음이 파악되었고,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 친구관계, 학교규칙준수에 대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거주지역별에 따른 차이가 가장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도시의 아동들의 적응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에 있어서는 비교적 평균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아동특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저학년일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거주지역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역시 존재하였

으며 대도시의 아동보다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느끼는 학교생활만족이 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알아본 결과, 다문화가족 및 일반아동 모두 학교공부에 대한 부담, 숙제 및 준비물을 챙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적응 정도에서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도가 제일 낮은 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학교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일반아동에 비해 다문화가족 아동의 비율이 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의 이유도 학업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한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학업에 대한 지원 및 숙제, 준비물을 챙기는 것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본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친구지지가 가장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및 일반아동 모두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의 학교생활적응도가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5.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과 일반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가족 아동은 문화적응에 있어서 어머니나라 문화에의 적응보다는 한국문화에의 적응도가 더 높았다. Cortes, Rogler and Malgady의 CRM-BS(Bicultural Scale)에 기초하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아동은 어머니나라 및 한국문화 모두 적응도 높은 이중문화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연령상 모가 한국사회에의 적응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여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 아동

의 모의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이 한국 거주기간이 90%이상이 10년 이상인 상황이어서 한국문화에의 적응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적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아동은 다문화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 수용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부정적 태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항목에서는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 성향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외국문화에의 노출이 문화개방성에 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었고, 고학년이 될수록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외이주의향도 높아, 연령대별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판명되었고, 일반아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은 자존감과 부부관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6. 다문화가족 아동의 복지욕구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은 복지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의 이용도가 낮았다. 일반아동은 다문화가족 아동에 비해서 복지서비스 이용률이 낮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은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률이 낮았다. 즉, 양자는 다른 측면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필요도는 양자 모두 높은 편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일반아동의 복지에 대한 필요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으로, 이는 일반아동이 서비스 및 제공기관에 대한 기대가 더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2절 정책제언

1. 정책의 기본방향

세계화 및 다문화시대에 걸맞는 인재의 양성은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준비를 통해 향후 도래한 남북통일을 무리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배경을 가진 가족과 아동에게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의 인프라가 확충되었을 때 통일 후의 충격이 훨씬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가. 다문화사회에서의 국가적 정책방향 수립

일본에서는 중앙에서는 다문화공생정책을 마련하여 다문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지자체단위로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다문화정책의 구심점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다문화시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다문화정책을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준비는 초기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다문화정책도 중반기에 접어들게 되어 보다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이 사회에의 적응력이 제고되어 사회에 잘 통합되기 위해서는 다문화시대에서 국가차원에서 정책방향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통합적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적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즉, 미국과 같이 melting pot 전략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채

택하여 이주민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한국문화를 동시에 수용하도록 할 것인지 기본방향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설정 후 모든 정책에서 이를 주축으로 한 내용이 마련되어야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결혼이주여성의 욕구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여 어떠한 방향의 수립이 더 이들의 삶의 질과 동시에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은 다양한 정책의 기초가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문화의 특성을 살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지원은 생애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즉, 특정연령만의 특화된 사업이 아니라 18세미만까지의 전 아동기에 걸친 연령대에 맞는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지원은 모의 출신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중문화적일수록 개인은 더많은 역량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의 뿌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보다 건강한 인격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사업은 중심축이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용자의 혼선은 최소화하고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분야별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가. 사회심리적응 제고방안

1) 취약 다문화가족 아동 가구 우선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 가구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한다.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과의 사회심리적 적응의 차이는 단순히 다문화여부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다문화 가족이 지닌 사회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 집단내에서도 더 취약한 집단을 판별하여 그들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지원의 우선대상을 선별하여 집중적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족 집단내에서도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경제적 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족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2) 어머니의 출신국별 세분화된 지원

현재 소수만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출신국의 어머니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 중국과 같이 비교적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일 출신국의 어머니들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어머니들은 한국사회의 적응이 더 어려울 것이다. 즉 출신국에 따라 다문화 가족집단 내에서도 이질감과 소외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를 출신국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소수국의 어머니들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지가 필요하다.

3) 사회심리 부적응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정책 개발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언어발달 지원과 학업지원 프로그램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함께 자존

감 향상, 리더십 향상 등 아동의 개인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높은 고위험군 다문화가족 아동을 선별하여 전문적 심리·상담 치료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의 일환인 지역사회투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정서 치료 프로그램 지원(바우처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4)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프로그램 병행

다문화 가족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부모일수록 한국어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언어 외에 아동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외국인 부모를 위한 한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아직 한국어에 미숙하여 자녀와의 대화나 언어 상호작용이 미숙한 외국인 부모를 위한 다양한 대안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5) 멘토링 등 일대일 맞춤형 지도 및 또래상담 활성화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아동별로 정서적 지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족 아동이 겪는 사회심리적 적응 문제가 개인적 특성,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및 출신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는 맞춤형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활성화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고민의 상담대상이 일반아동보다 가족원인 경우가 적으며 가족지지도 낮은 것을 감안하여 가족자원 외에 친구 및 학교의 지지를 높여야 한다. 특히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시기에는 또래에게서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또래상담동아리나 다문화가족 아동이 많은 학교에서는 직접 또래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또래상담도우미를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이 친구와 학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일률적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야 하며, 다문화가족 아동을 하나의 동질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가구별 아동개인별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정책은 단순히 ‘다문화’라는 타이틀로 다문화가족 아동이 가진 다양한 배경과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일률적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모의 사회적 배경, 아동의 발달적 시기 등 다문화가족 아동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와 우선적 지원 집단을 선별하여 맞춤형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가족생활적응 제고방안

1) 다문화가족 아동의 의사소통 지원 및 이중언어 활용도 제고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은 가족을 서로 연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자원이 되어 가족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낮은 학업성취와 학교부적응은 미숙한 한국어실력과 무관하지 않음이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생활의 적응력 제고를 위해 한국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됨과 동시에 이들이 지닌 강점

을 활용하는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첫째, 다문화가족간 의사소통지원을 위해 맞춤형 언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언어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간대별 제공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어능력 수준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언어능력을 사전 검사하여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언어교육서비스의 홍보·안내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신문, 기관 및 방송,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모국어습득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지속적인 이중언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성 제고를 위한 심리정서 서비스 제공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족은 언어소통 및 문화갈등 등으로 인해 부부 및 자녀관계 등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심화될 경우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족간의 갈등은 가족응집력에 부적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가족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갈등해소 및 건강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 간의 역동적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여 심리·정서적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다문화가족간의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지지 자원을 확대토록 한다. 다문화가족 간에 결혼생활의 어려움, 가족갈등 및 위기 극복 사례,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고 멘토-멘티의 관계를 형성하여 가족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형성한다.

3) 친밀한 부모자녀관계 정립 및 부모애착도 향상

연구결과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는 3.81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가족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아동의 가족생활 적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부모자녀관계 정립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하고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부모국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자긍심 향상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다문화가족 아동의 부모애착은 3.31~3.52점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생활적응은 부모자녀간의 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부모자녀간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아동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모자녀 관계 스트레스를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 상황을 역할극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하여 자녀와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리고 가족 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반영적 경청’, ‘I-message 사용하기’ 등 자녀와의 대화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다문화가족 관계증진 및 가족지지를 통한 가족응집력 제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응집력은 3.60~3.67점이고, 아동은 3.55~3.67점으로 중간정도 수준이었다. 가족응집도는 다문화가족의 인구사회 경제적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양호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가족응집력이 높았다. 아동의 가족생활적응은 가족응집과 밀접하고 가족응집력은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양호할 때 높으므로 가족응집력 제고를 위해 가족특성을 반영한 가족관계 향상과 함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관계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스트레스와 역경을 이해하고 적응하여 가족응집력을 증진시키는 신념체계를 활용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의사소통 가족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편, 가족의 지지를 경험한 아동은 가족생활적응능력이 향상되어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적응능력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간에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훈련, 의견을 지지하는 훈련 등을 통해 가족지지능력을 제고한다.

5) 맞춤형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체감 확립

다문화가족 아동은 양부모의 외모 차이와 이중 문화가 혼재된 가족교육 등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특히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출신국가에서 경험한 가족문화와 한국의 가족문화 차이로 갈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 아동은 다른 외모, 이중언어 그리고 이중문화로 인해서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며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생활 적응에 부(負)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체감 확립을 통한 가족생활적응 제고를 위해서 다문화 이해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제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구사회배경을 반영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학교생활적응 제고방안

1)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 서비스 통합 및 전달체계 효율화

현재 학교, 다문화지원센터 등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육 및 학교적응과 관련한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재정비하여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여 정책의 사각지대 계층을 해소해야 한다. 학교 간·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학력을 증진하는 데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개인 및 가족특성별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배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학년별에 따른 적응실태와 부모의 학력별, 가구의 경제수준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아동의 거주지역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다문화가족 아동이 처한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별에 따른 정책 지원 및 서비스 지원에 있어 특성별 지원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3) 다문화 중·고교생을 위한 특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본 조사에서 파악된 다문화가족 아동의 연령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도를 알아본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만족 정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학교생활적응 영역 중 학교수업 적응도나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가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현재 교과부에서는 2011년도 다문화 거점학교를 지정('10

년 60개교→'11년 80개교)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 맞춤형 교육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중·고등학생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특화정책을 마련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점차 확대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습방법과 자료를 활용하여 영상매체를 활용한 활동 중심 학습을 통해 교과와 언어학습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학교 내 파견할 수 있는 다문화 담당 전문 상담가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진학·취함에 대한 상담과 적극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대학생, 학습도우미 등을 활용한 멘토·멘티제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지원 확충 및 사례관리의 체계화

현재 외국에서 출생·성장한 동반, 중도입국 자녀를 위해 다문화청소년지역센터('10년 5개 지역→'11년 8개 지역)등을 통해 상담, 학습지원, 모국 정체감 프로그램,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고 초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확대 중에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반,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부모의 출신국별, 아동의 연령별 및 가족특성별에 따른 학교 내·외부적으로 지속적 사례관리 및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활성화함으로써 학교생활에 대한 올바른 적응을 통해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5) 부모-자녀 관계 향상 및 부모 교육프로그램 지원

결혼이주여성 출신국별 특성을 반영한 자녀관계 및 상호작용 등 부모

의 역할을 고려해야 하며 부모-자녀 관계 및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 내 부모-자녀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나아가 자녀의 학습지원 및 학교 준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이 호소한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 및 숙제 및 준비물 챙기기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문화가족센터 방문교육 서비스를 통해 취학자녀의 학교알림장 읽기, 준비물 챙기기 등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또래, 학습도우미 등 교우관계 멘토-멘티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학부모와의 언어 소통 능력 향상 및 다문화가족 학부모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사회적 역량 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6) 일반아동 및 교사에 대한 다문화 수용 및 인식제고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적응 및 만족 등에 있어 일반아동에 비해 다문화가족 아동이 더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아동에게 있어서 학교생활적응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인들의 다문화 수용과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일반아동, 교사, 학부모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 및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제공을 통해 사회통합 및 세계의민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문화적응 제고방안

1)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력 제고

대체적으로 학령기에 도달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일반아동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문화적응면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아동이 한국문화에 통합된 상태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다만 매우 소수 아동만이 모국 및 한국문화 모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주변화된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아동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겠고,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정책보다는 일반아동과 같은 맥락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FGI 결과에서도 실무자들은 통합교육 및 정책을 강조하고 있었고, 차별적이고 다문화가족 아동만의 낙인을 주는 별도의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지역사회의 민간기관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별도의 특화교육이 필요하고,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통합적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지역사회 기관의 경우는 결혼으로 이주한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아동 개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 지원, 상담, 특기적성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서 제공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때는 일반아동과 분리하여 다문화의 맥락에서 접근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 어느 정도 모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제고되었다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도 일반아동과 통합된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사회에는 주로 초등학생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중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이는 비단 다문화가족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연속성을 가

질 수 있도록 기관 확충이 필요하다.

독일 및 일본에서는 모두 이중언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모국어를 익히는 것은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모국문화에 대한 자긍심 제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중언어는 주말을 활용하여 민간기관에서 담당하는 체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2) 모의 사회적응 제고

모의 문화적응은 아동의 문화적응 등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모의 문화적응 분석결과 주지는 않았으나,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동의 문화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다른 측면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모의 문화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부관계만족도를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존감 제고를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직업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응력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보는 본인의 자존감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자녀의 모에 대한 존경심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다.

부부관계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부부간의 문화차 및 연령차 극복방안, 부부갈등 해소방안 제공, 부부상담 확대, 다문화여성 자조모임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실효성있는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어실력이 중요한 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 규명된 바,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국생활적응이 유연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모의 한국어실력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도 관계가 있었으므로, 이는 가족의 건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각종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이 주로 초급자를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어 고학력 및 장기체류자를 위한 고급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양성하고 있는 한국어강사수를 늘리고 지역의 주부와 같은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과 빈번한 교류를 통해서 언어습득이 용이할 수 있고, 각종 도움 및 사회적 지지도 받을 수 있는바, 한국인과의 교류의 장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인 국공립 도서관에서는 다문화를 위한 코너를 마련하고 독서지도 등의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고학력 여성이 본국 문화를 한국인들이 수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학력 여성을 배려한 정책도 필요하다. 고학력 여성은 가족관계 및 삶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김미숙·이주연, 2011). 이는 이들은 한국인으로부터 오는 차별 및 냉대의식으로 기인된 것이라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학력 여성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한국사회에서 발휘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여성을 활용하는 취업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사회는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포용력을 제고해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만이라도 다국어 통역사를 두어 다문화여성들이 어려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필요

한 지원을 받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3) 일반아동의 문화수용 교육

일반아동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다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임을 감안하여, 고학년 아동에게는 문화개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아동은 다문화에 대해 긍정성이 높고 부정성은 낮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친화적 교육이 필요함을 입증하고 있다.

일반아동은 다문화가족 아동을 ‘한국인’으로 인식할수록 긍정적 수용성이 높으므로 한민족에 범주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아동과의 접촉경험을 높이기 위한 통합교육과 경험의 장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아지고, 일반아동은 고학년일수록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학업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상급학교일수록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력제일주의는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은 국가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상급학교에서의 다문화 관련 교육의 확충은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마. 복지서비스 강화방안

다문화가족의 부모를 위해서는 각종 지원이 필요하되, 자녀를 위해서는 기초교육 학습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아동과 같이 학습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이 원활하게 학습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아동은 모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문

제를 갖기 쉽다. 따라서 상담지원과 같은 조기개입을 통해서 여러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모의 경우 상담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아동의 정서적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결혼이주여성이나 가족의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이용도와 필요도 간에 갭이 큰데 이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 모두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및 복지제공기관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기관을 확충하되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적 프로그램 및 시설도 필요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상황에 따라서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들이 확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3유형의 실태조사와 실무자 FGI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 적응 실태를 살펴보았다. 전국적 표본을 추출하려 하였으나, 다문화가족 아동에의 접근이 어려워 대표성있는 학교선정이 어려웠다. 향후에는 2009년에 실시된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같이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아동의 성장 발달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아동의 경우는 부모 조사를 하지 못하였는데, 향후에는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다문화가족과의 차이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양육관이나 가족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아동과 외국인근로자 아동을 포함시키지 못한 제한점을 갖고 있는데, 이 또한 후속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강신임(1999).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교육의 과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28, pp.203-228.
- 강희순(2010). 다문화 가정의 사회·심리적 변인과 가정생활적응 간의 경로모형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3), pp.157-171.
- 강희원·강성철(2010). 2010독일의 이주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 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4): 291-316.
- 고 은(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모형 제안. **교육의 이론과 실천**, 15(2): 1-24.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 곽금주(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 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권명희(201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0년도 공동학술대회자료집**, pp.2174-2197.
- 권복순(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1(2), pp.5-32.
- 김귀옥(2000). **월남인의 생활환경과 정체성**.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기덕·박민서(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8(1), pp.97-121.

- 김명숙(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숙·이주연(2011). 결혼이주여성의 보유자원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1.06.11
- 김상무(2009). 독일 다문화교육정책의 전개, **교육정책포럼**, 196, pp.16-20.
- _____(2010). 독일의 상호문화교육정책이 한국 다문화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 **교육사상연구**, 24(3), pp.65-89.
- 김선영(2009). 한국과 독일이 다문화 비교: 다문화정책 환경과 정책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1), pp.175-194.
- 김수연(2010).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실태분석과 정부지원정책 방안**.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순규(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pp.247-272.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이섭(2010). 유럽과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관한 고찰 - 사회갈등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독어교육**, 47, pp.409-436.
- 김이천(2011). 다문화 사회에서 독일의 통합과정, **독일언어문학**, 51, pp.267-297.
- 김정남(2007).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교적응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 김현숙(2005). **영유아 보육·교육과 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 영유아 보육 교육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조세연구원

- 김희정(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pp.58-79.
- 남은영·박수정·김영빈(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여가와 문화적응의 탐색, **교육문화연구**, 16(1), pp.169-195.
- 남윤주·이 숙(2009).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아동의 모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3), pp.357-367.
- 노충래·홍진주(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연구. **한국이동복지학**, 22, pp.128-159.
- 류윤석(2010). 다문화가정 학생 적응지원을 위한 학급경영 전략, **한국교육논단**, 9(1), pp.165-184.
- 박경자·김송이(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한국이동학회지**, 28(5), pp.91-158.
- 박계란·이지민(2011).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pp.89-99.
- 박명숙(2010).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아동이지각한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pp.193-218.
- 박성혁 외(2008). **다문화교육정책 국제 비교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박성희(2011). 아동·청소년의 행복 보장을 위한 독일의 교육복지 개념 고찰, **한독사회과학논총**, 21(2), pp.3-263.
- 박재규(2009).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및 남편의 가족생활 적응 연구: 경가지역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6, pp.137-163.
- 박주희·남지숙(2010).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21(2), pp.279-152.

- 박주희·정진경(2007).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pp.395-432.
- 박재영(2008). **유럽 다문화사회의 문화충돌: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다문화의 이해:경진.
- 박형원(2010).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해외이주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8), pp.1-25.
- 법무성(2010).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 평성 22년판
- 변시민(1988). **사회학개론**. 서울: 율영사.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신혜정(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상환·서유정(2009). 독일의 다문화 언어교육정책에 대한 분석적 고찰, **특어교육**, 46, pp.7-35.
- 신재주(2010). 일본, 독일, 호주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다문화정책의 특성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7(3), pp.5-37.
- 안은미(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준희·조정희(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분석: 충청남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지**, 32, pp.137-176.
- 양순미(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교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pp.559-576.
- 여성가족부(2010).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 및 2011년 사업안내**.
- _____ (2010).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자료**(2010. 12. 22).

-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협동(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1년도 시행계획(안) 요약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오경석(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옥경희·박미정(2009).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경험과 학교
 생활 적응 등에 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YMCA.
- 왕비비(2009).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전략 유형에 따른 인터넷 이
 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선애(2010). 일본과 한국의 다문화사례 비교연구. 지방자치법연구. 고려
 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 윤선영(2006). **다문화청소년 알아가기: 독일의 이주 청소년 정책**. (재)
 무지개청소년센터.
- 은선경(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한 연구.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 33, pp.37-74.
- 이규영·김경미(2010). 독일의 이주민 정책과 이주민의 참정권, **국제지역
 연구**, 14(1), pp.153-178.
- 이용승(2007). 독일의 다문화 가족 정책, **민족연구**, 31, pp.113-128.
- 이재분·김혜원·변종임·채재운(2009). **다문화가족 역량계발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분·김혜원·오성배(2009). **학교에서의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실태 및
 요구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회지**,
 28(1), pp73-106.
- 임경혜(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혜·김혜영·정승화·김효정·조소영(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서해정·구현아·이현주(2009). **경기도 다문화가족 이동을 위한 보육지원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전경숙(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1), pp.167-185.
- 전경숙·임양미·양정선·이의정(2010).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가족여성연구원.
- 전은애(2008).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어머니 문화적응 차원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2007).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명희(2011).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 스트레스 발생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국제지역연구**, 15(2), pp.451-481.
- 정미애(2011). 일본의 단일민족국가관에서 다문화공생으로의 인식변화와 다문화공생의 거버넌스 **한국정치학회보**, 25(4).
- 정윤정(2007). **결혼이민자 가정의 특성과 아동들의 학교적응: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희(2010). 독일, 베를린의 다문화 정책 사례: 배제에서 통합으로 **국토**, 342, pp.46-57.
- 정재훈(2008). 최근 독일 가족정책 변화의 시사점. **젠더리뷰**, 8, pp.70-74.
- 정진경·양계민(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34(1), pp.101-136.
- 조혜영 외(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한숙(2010).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0년도 공동학술대회자료집**, pp.645-673.
- 차유림(2001). **이등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총무성(2006).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신고서**, 2006년 3월
- 최금해(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정혜(2010). 다문화가족 연구동향분석: 2005년-2010년 발간된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22, pp.79-97.
- 최혜지(2008).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1(1), pp.163-194.
- 하밍타이(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관한 연구-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건수(2006). 연구보고: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19(1), pp.195-219.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8). **일본의 외국인 시책과 과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해외연구보고서 2008.
- 한상우(2010). 독일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과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20(3), pp.65-86.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 현·이동주(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Adams, H. E.(1972). Psychology of adjustment. The Ronald Press

Company.

Bacallao, Martica L., and Paul R. Smokowski(2005). Entre Dos Mundos: Bicultural Skills Training with Latino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6(6), pp.485-509.

Bates, K, Luster T., & Vandebelt, M.(2000). Factors related to successful outcomes among preschool children born to low-income adolescent moth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1), pp.133-147.

Benet-MartiLnez & Haritatos(2005). Bicultural Identity Integration(BII): Components and Psychosocial Antecedents. *Journal of Personality*, 73(4), pp.1043-1050.

Benet-MartiLnez, Leu, Lee, & Morris(2002). Negotiating biculturalism: Cultural frame-switching in biculturals with oppositional vs. compatible cultural identit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pp.492-516.

Berry, J. W.(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culture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Sage/Halsted.

_____(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M.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ies, models and findings*(pp. 9-25). Boulder, CO: Westview.

_____(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 (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pp. 232-253). Newbury Park, CA:Sage.

_____(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pp.5-68.
- _____(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pp.615-631.
- Bierman, K. L.(1994). School adjustment. In R. J. Corsin(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NJ: John Wiley&Sons.
- Buenning, M., & Tollefson, N.(1987). The cultural gap hypothesis as an explanation for the achievement patterns of Mexican-American students. *Pshchology in the Schools*, 24, pp.264-272.
- Campbell, M. E. and Eggerling-Boeck, Jennifer(2006). What about the childre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Well-Being of Multiracial Adolescents. *The Sociological Quarterly*, 47, pp.147-173.
- Cheng, C. Y., Sanchez-Burks, J., & Lee, F.(2008). Connecting the dots within: Creative performance and identity integration. *Psychological Science*, 19(11), pp.1178-1184.
- Cheng, Simon and Kathryn J. Lively(2009). Multiracial Self-Identification and Adolescent Outcomes: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Marginal Man Theory. *Social Forces*, 88, pp.61-98.
- Chi-Ying Cheng, Fiona Lee(2009). Conflict and Distance among Multiracial Individuals. *Journal of Social Issues*, 65(1), pp.51-68.
- Choi, Y., Harachi, T. W., Gillmore, M. R., & Catalano, R. F.(2006). Are multiracial adolescents at greater risk? Comparison of rates, patterns, and correlates of substance use and violence between monoracial and multiracial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 pp.86-97.
- Coll C. G., & Pachter, L. M.(2002). Ethnic and minority

- parenting. in Bornstein. M. H. (Ed), *Handbook of Parenting*, pp.1-20.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ortes, Dharma E., Lloyd H. Rogler, and Robert G. Malgady(1994). Biculturalism among Puerto Rican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 pp.707-721.
- Federal Ministry of Interior-BMI(독일연방내무부, 2008). Migration and Integration: Residence law and policy on migration and integration in Germany.(www.bmi.bund.de/)
- Gonzales, R. R., & Roll, S.(1985).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cognitive style, and intelligence: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6, pp.190-205.
- Kim, Han, & McCubbin(2007). Korean American maternal acceptance-rejection, acculturation,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Fam Community Health, Supplement 2*, 30(25), pp.33-45.
- LaFromboise, T., Coleman, H. L. K., Gerton, J.(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 pp.395-412.
- Lazarus. R. S.(1976). *Pattern of adjustment*. McGraw-Hill inc.
- Lopez, Ehly, and Garcia-Vazquez.(2002). Acculturation, Social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exican and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An Explorative Study. *Psychology in the Schools*. 39(3): 245-257.
- McRoy, R. and Freeman, E.(1986). Racial identity issues among

- mixed race children. *Social Work in Education*, 8, pp.164-174.
- Mezzich, J. E., Caracci, G., Fabrega, H., Kirmayer, L. J.(2009). Cultural Formulation Guidelines, *Transcultural Psychiatry*, 26: 383, pp.383-405.
- Mezzich, J. E., Ruiperez, M. A., Yoon, G., Liu, J., Zapata-Vega, M. I.(2009). Measuring Cultural Identity: Validation of a Modified Cortes, Rogler and Malgady Bicultural Scale in Three Ethnic Groups in New York. *Cult Med Psychiatry*, 33, pp.451-472.
- Michael Harris Bond. (2008) *Journal of Personality*, 76(4), August 2008: pp.803-838.
- Milan, Stephanie and Margaret K. Keiley(2000). Biracial Youth and Families in Therapy: Issues and Interventions. *Journal of Matital and Family Therapy*, 26, pp.305-315.
- Ogbu, J. L., & Matute-Bianchi, M.(1986). Uderstanding sociocultural factors: Knowledge, identity, and school adjustment. *In Beyond languag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in schooling language minority students*. Los Angeles: State University Evaluation, Dissemination and Assessment Center. pp.74-142.
- Padilla, A. M.(1994). Bicultural development: A theoretical and empirical examination. In R. Malgady & O. Rodriguez(Eds.), *Theoretical and conceptual issues in Hispanic mental health*(pp.20-51). Melbourne, FL: Krieger Publishing Co., Inc.
- Park, Robers E.(1928). Human Migration and the Marginal M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3(6), 881-893.
- _____(1931). Mentality of Racial Hybri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6(4), 534-551.

- Phinney, J. S., & Devich-Navarro, M.(1997). Variations in bicultural identification among Afric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7, pp.3-32.
- Rashid, H. M.(1984). Promoting Biculturalism in Young African-American Children. *Young Children*, 39, pp.13-23.
-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1936). Insanity,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49, pp.701-708.
- Romero, Andrea J., Martinez, Daniel & Carvajal, Scott C. (2007). Bicultural Stress and Adolescent Risk Behaviors in a Community Sample of Latinos and Non-Latino European Americans. *Ethnicity & Health*, 12(5), pp.443-463.
- Rumbaut, R. G.(1997). Paradoxes(and orthodoxies) of assimilat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40, pp.483-511.
- Rumbaut, R. G.(1997). The ties that bind. In A. Booth, A. Crouter, & Landale(Eds.), *Immigration and the family: Research and policy on U. S. immigrant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 Clauss & B. Nauck.(2009). *The Situation Among Children of Migrant Origin in Germany*. Chemnitz University of Technology.
- Sandhu, s. d., & Asrabadi, R. B.(1994). Development of and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pp.435-448.
- Seong, S.H. 2008. Multicultural Education in Europ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17, pp.95-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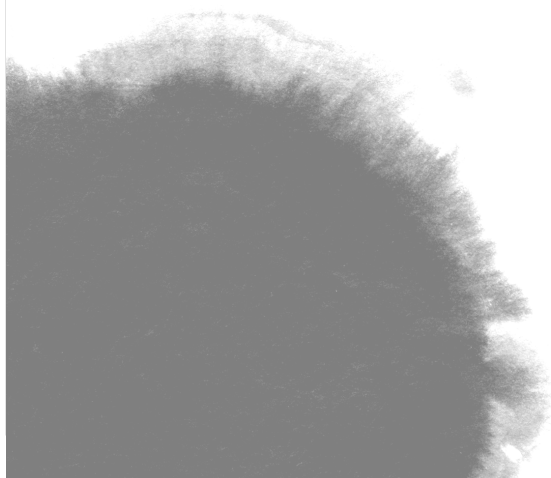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Sylvia Xiaohua Chen, Vero'nica Benet-Martí'nez, and Michael Harris Bond(2008). Bicultural Identity, Bilingualism,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Societies: Immigration-Based and Globalization-Based Accultu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76(4), pp.803-837.

Szapocznik, Jose, William M. Kurtines, and Tatjana Fernandez(1980). Bicultural Involvement in Hispanic American Youth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4, pp.353-365.

Vega, William A., Richard L. Hough, and Annelisa, Romero(1983). *Family Life Patterns of Mexican-Americans*. In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Minority Group Children*. G. J. Powell, J. Yamamoto, A. Romero, and A. Morales, eds., pp.194-215. New-York: Brunner/Mazel.

Whaley, A. L., & Francis, K.(2006). Behavioral health in multiracial adolescents: The role of Hispanic/Latino ethnicity. *Public Health Reports*, 121, pp.169-174.

부 록



부록 1. “2011년 다문화부모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조사표



Marketing Research
Public-Private Partnership
100-1000 Development Company
Corporate Center (7/2011)

2011년 다문화부모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R&R-2011091402-0	학교번호			ID-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입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향후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 성수미 연구원
 조사기관 : (주)리서치앤리서치 이윤진 주임 (Tel: 02-3484-3018)
 (주)리서치앤리서치 강양연 대리 (Tel: 02-3484-3086)

ISO 9001 품질관리체계 국제공인기관 / ☎ 137-90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6-3 SL B/D

귀하께서 사시는 지역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거주지역	① 대도시·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
응답아동 학교이름	

A. 부모의 특성

1. 결혼 전 국적	① 중국(조선족) ② 중국(한족, 기타 민족) ③ 베트남 ④ 필리핀 ⑤ 일본 ⑥ 대만 ⑦ 몽골 ⑧ 태국 ⑨ 캄보디아 ⑩ 우즈베키스탄 ⑪ 러시아 ⑫ 기타()
2. 한국에 거주기간	년 개월
3. 국적취득 여부	① 국적취득 ② 국적 미취득
4. 응답자 연령(생년월)	만 세(년 월)
5. 배우자 연령(생년월)	만 세(년 월)
6. 결혼상태	① 유배우(동거포함) ② 이혼 ③ 별거 ④ 사별
7. 응답자의 교육수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대학 ⑦ 대학원 이상

8. 배우자의 교육수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대학 ⑦ 대학원 이상
9. 응답자 취업 여부	① 취업 ② 미취업
10.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 ,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1인고용인)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⑨ 비경제활동인구(가정주부, 연로자, 심신장애인 등)
11. 배우자의 직업	① 관리자 (고위직, 관리직)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교수, 교사, 의사, 약사, 토목기술자) ③ 사무종사자 (경영, 회계, 법률, 금융) ④ 서비스종사자 (경찰 및 소방, 이미용, 운송, 음식점) ⑤ 판매종사자 (영업직, 매장판매, 노점상)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축산, 임업, 어업 숙련직)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식품가공, 목재, 금속, 운송기계, 전기전자, 영상 기능직)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식품가공기계, 섬유신발기계, 화학기계, 상하수도 기계 등 조작) ⑨ 단순노무자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농림어업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⑩ 군인, 주부, 학생 ⑪ 실업자 ⑫ 기타
12. 월평균 가구소득	① 50만원 미만 ② 50 ~ 100만원 미만 ③ 100 ~ 200만원 미만 ④ 200 ~ 300만원 미만 ⑤ 300 ~ 400만원 미만 ⑥ 400 ~ 500만원 미만 ⑦ 500만원 이상 ⑧ 모르겠음
13. 주관적 경제적 수준	① 매우 어렵다(하) ② 어려운 편이다 (중-하) ③ 보통이다(중) ④ 잘 사는 편이다(중-상) ⑤ 매우 잘 산다(상)
14. 종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이슬람 ⑥ 통일교 ⑦ 기타()
15. 가족유형	① 부부+자녀 ② 한부모+자녀 ③ 3세대 가구 ④ 기타()
16. 총 자녀수	()명
17. 해당 자녀의 출산 여부	① 본인이 출산함 ② 본인이 출산하지 않음
17-1. 해당자녀의 출생국가	① 중국(조선족) ② 중국(한족, 기타 민족) ③ 베트남 ④ 필리핀 ⑤ 일본 ⑥ 대만 ⑦ 몽골 ⑧ 태국 ⑨ 캄보디아 ⑩ 우즈베키스탄 ⑪ 러시아 ⑫ 한국 (문18로) ⑬ 기타()
17-2. 해당자녀의 입국 년도	() 년 () 월 (문17-1, ⑬ 한국 응답자 외 모두 응답)
1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① 수급받음 ② 수급받지 않음 ③ 모름

19. 귀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20. 귀하의 한국어말 실력(말하기, 읽기, 쓰기 포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서툴다 ② 서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한다

B. 부부관계

※ 귀하의 결혼상태가 유배우인 경우는 21번부터 응답하시고, 이혼 및 별거인 경우는 C. **부모-자녀관계**로 가시오.

21. 귀하는 현재 부부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①매우 불만이다	②대체로 불만이다	③그저 그렇다	④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⑤매우 만족한다
21-1. 부부간의 대화·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21-2. 부부사이의 애정·친밀감	①	②	③	④	⑤
21-3. 부부간의 믿고 이해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21-4.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	①	②	③	④	⑤
21-5.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 및 문화생활 정도	①	②	③	④	⑤
21-6.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로 현재 남편과 어느 정도 갈등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①매우 어렵다	②약간 어렵다	③보통이다	④별문제 없다	⑤전혀 문제없다
22-1. 경제문제	①	②	③	④	⑤
22-2. 자녀문제(교육, 생활방식)	①	②	③	④	⑤
22-3. 가사 및 육아부담	①	②	③	④	⑤
22-4. 배우자와 성격·생활방식 차이	①	②	③	④	⑤
22-5. 배우자의 음주 또는 늦은 귀가	①	②	③	④	⑤
22-6. 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도	①	②	③	④	⑤
22-7. 배우자 부모와의 불화	①	②	③	④	⑤

23. 귀하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주로 쓰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모국어만	② 거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가끔 한국어 사용
③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슷하게 사용	④ 거의 한국어를 쓰고 가끔 모국어 사용
⑤ 한국어만	

24. 귀하는 해당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25. 다음은 해당자녀가 생각하는 부모님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는 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26. 귀하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주로 어떤 언어로 하십니까?

- #### D. 자녀양육 및 가족생활

다문화부모 - 3

28. 귀댁에서 주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조부모 ④ 형제자매 ⑤ 기타(_____)

29. 귀댁에서 양육문제는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 ① 부부가 서로 합의 ② 어머니 ③ 아버지 ④ 기타(_____)

30. 귀댁은 양육문제에 대해서 부부간에 의견이 얼마나 일치합니까?

- ① 항상 불일치 한다 ②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일치 한다 ⑤ 항상 일치 한다

31.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표시하여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 ①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흡함 ② 방과후 자녀를 맡길 곳이 없음
③ 자녀양육방식으로 남편/시부모와의 갈등 ④ 자녀와의 갈등(반항, 다름 등) ⑤ 양육비, 교육비 부담
⑥ 문화 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 ⑦ 기타(_____)

32. 다음은 평소에 가족들과의 생활에서 느끼는 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2-1. 우리가족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2-2. 우리가족은 서로를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32-3.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32-4. 우리가족은 화목하다	①	②	③	④	⑤
32-5.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6. 우리가족은 갑작스런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⑤
32-7. 주말에 우리가족은 부지런하게 모두 함께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32-8.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2-9. 우리는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2-10. 어떤 결정할 일이 생기면 가족 모두가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2-11. 우리가족은 서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32-12. 우리는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2-13. 누군가 힘들어 하면 가족 중 다른 사람도 그 이유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14. 우리 가족은 생각의 차이를 줄이기가 쉽다	①	②	③	④	⑤
32-15. 우리는 서로에 대해 사랑을 표현 한다	①	②	③	④	⑤

E. 자녀의 학교생활

33. 귀댁은 해당자녀의 학교준비물 및 학교숙제를 주로 누가 챙겨줍니까?

- ① 어머니(나) ② 아버지 ③ 조부모 ④ 자녀가 직접 ⑤ 자녀의 친구 어머니 ⑥ 기타()

34. 귀하는 자녀의 학교준비물 또는 숙제를 챙겨주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쉬운 편이다 ⑤ 매우 쉽다

35. 귀하는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에 어느 정도 적극적이십니까?

문항	①매우 소극적이다	②소극적이다	③보통이다	④적극적이다	⑤매우 적극적이다
35-1. 담임교사 면담	①	②	③	④	⑤
35-2. 참관수업	①	②	③	④	⑤
35-3. 학부모 회의	①	②	③	④	⑤
35-4. 학부모 교육	①	②	③	④	⑤
35-5. 1일교사	①	②	③	④	⑤

36. 자녀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다 (문 36-1로) ↓ ② 별로 적응을 못하고 있다 (문 36-1로) ↓
③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 ④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 36-1. (①②적응을 못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적응을 못하니까?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만 표시하여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학업내용 ② 의사소통 ③ 교사와의 관계 ④ 또래친구와의 관계
⑤ 학교 교육방식 ⑥ 많은 준비물 ⑦ 교육기관의 규칙과 지시 ⑧ 기타()

37. 자녀는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문 37-1로) ↓ ② 아니오 (문 38로)

37-1. (①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특별한 이유 없음
② 내 아이의 외모가 다른 아이와 다르기 때문에
③ 내 아이의 태도와 행동이 다른 아이와 다르기 때문에
④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⑤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신이어서
⑥ 기타()

F. 심리적응 및 문화적응

38. 귀하는 다음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8-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8-2. 나는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8-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8-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38-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8-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 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38-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8-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다음은 문화적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9-1.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⑤
39-2. 나는 한국음식에 적응하는 것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39-3.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9-4. 나는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	①	②	③	④	⑤
39-5. 한국 사람들이 내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39-6. 한국 사람들은 내 문화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9-7. 나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의 가치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39-8. 나는 외모 때문에 부당하게 취급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9-9. 나는 이곳에서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9-10. 나는 내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 사귀려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G. 복지욕구

40. 다음은 자녀 관련 복지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댁의 해당자녀는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또한 앞으로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서비스	이용여부(모두 응답)		필요여부(모두 응답)	
	①이용함	②이용 안함	①필요	②불필요
40-1 한국어교육서비스	①	②	①	②
40-2 학습지도서비스(국어, 영어, 수학, 과학 및 숙제 지도)	①	②	①	②
40-3 기초교과 지도(부진과목 등에 대한 방과후 보육)	①	②	①	②
40-4 무료급식	①	②	①	②
40-5 학비지원(장학금 등)	①	②	①	②
40-6 예체능교육서비스(음악·미술·체육 등)	①	②	①	②
40-7 아동·청소년 상담, 심리검사, 집단 프로그램(성격, 행동, 정서문제 등)	①	②	①	②
40-8 문화 및 여가 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건축, 방학 중 캠프 등)	①	②	①	②
40-9 컴퓨터 교육	①	②	①	②
40-10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진학지도	①	②	①	②

41. 다음은 부모관련 복지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또한 앞으로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서비스	이용여부(모두 응답)		필요여부(모두 응답)	
	①이용함	②이용 안함	①필요	②불필요
41-1 한국어교육	①	②	①	②
41-2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제공	①	②	①	②
41-3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①	②	①	②
41-4 컴퓨터 및 정보화 교육	①	②	①	②
41-5 모국어판 보육·양육 자료 제공	①	②	①	②
41-6 양육정보 제공	①	②	①	②
41-7 자녀양육을 위한 이주민 자조 모임 지원	①	②	①	②

42. 귀하는 자녀가 어떤 학교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일반 한국학교 ② 일반 한국학교 내 별도반 운영 혼용
③ 대안학교 ④ 국제학교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자 및 설문지 관리 정보]		☞ 마지막에 진행할 것		
응답자	성명:	주소 : 시(도) 구(군) 동(읍)		
	전화 :) -	Mail: @		
면접원	성명 : / Code	일시 :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Editing	성명 : / 결과 :	검증원	성명 : / 결과 :	

부록 2. “2011년 사회적응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다문화아동)” 조사표

2011년 사회적응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다문화아동)

R&R-2011091402-0	학교번호			ID-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입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향후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 성수미 연구원
 조사기관 : (주)리서치앤리서치 이윤진 주임 (Tel: 02-3484-3018)
 (주)리서치앤리서치 강양연 대리 (Tel: 02-3484-3086)

ISO 9001 품질관리체계 국제공인기관 / ☎ 137-90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6-3 SL B/D

사는 지역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지역구분	① 대도시·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
학교이름	

A. 아동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

1.~12.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에 O표 또는 ()안에 자세한 내용을 써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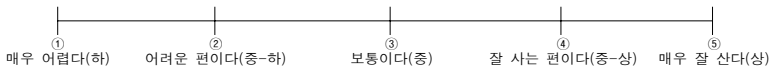
1. 성 별	① 남 ② 여
2. 학 년	① 초등학교(학년) ② 중학교(학년)
3.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4. 신체특성	신장 (키) cm 몸무게 kg
5. 형제관계	()남 ()녀 중 ()째
6. 종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이슬람 ⑥ 통일교 ⑦ 기타()
7. 어머니 국가	① 중국(조선족) ② 중국(한족) ③ 베트남 ④ 필리핀 ⑤ 일본 ⑥ 대만 ⑦ 몽골 ⑧ 태국 ⑨ 캄보디아 ⑩ 우즈베키스탄 ⑪ 러시아 ⑫ 기타()
8. 아버지 국가	① 중국(조선족) ② 중국(한족) ③ 베트남 ④ 필리핀 ⑤ 일본 ⑥ 대만 ⑦ 몽골 ⑧ 태국 ⑨ 캄보디아 ⑩ 우즈베키스탄 ⑪ 러시아 ⑫ 기타() ⑬ 한국

9. 어머니 연령	만	세
10. 아버지 연령	만	세
11. 어머니 직업	()	
12. 아버지 직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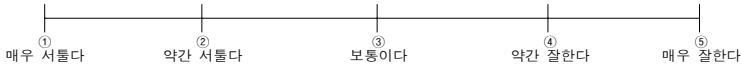
13 여러분 부모님의 학력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해당 번호에 O표 해 주세요.

구분	① 중졸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4년제)	⑤ 대학원졸 (석사, 박사)	⑥ 모름	⑦ 안계심
13-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우리 집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15.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에 대한 질문으로 해당되는 곳에 O 표 해 주세요.



16. 어머니와 어느 나라 말로 대화를 하나요?

- ① 한국말로만 ② 한국말이 대부분이고 어머니나라 말은 약간
③ 한국말과 어머니나라 말 반반 ④ 한국말은 약간이고 어머니나라 말이 대부분
⑤ 어머니나라 말로만

B. 학교생활 적응

1. 아래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것에 O표 해 주세요.

	문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약간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1-1	나는 선생님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1)	(2)	(3)	(4)	(5)
1-2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1)	(2)	(3)	(4)	(5)
1-3	나는 학교생활 중 수업시간이 가장 즐겁다	(1)	(2)	(3)	(4)	(5)
1-4	나는 당번 활동을 열심히 한다	(1)	(2)	(3)	(4)	(5)
1-5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1)	(2)	(3)	(4)	(5)
1-6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 할 친구가 많다	(1)	(2)	(3)	(4)	(5)
1-7	선생님들은 나를 귀엽게 여기신다	(1)	(2)	(3)	(4)	(5)
1-8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흥미 있는 것들이 많다	(1)	(2)	(3)	(4)	(5)
1-9	학교에서 친구들과 간에 인기가 많다	(1)	(2)	(3)	(4)	(5)
1-10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	(1)	(2)	(3)	(4)	(5)
1-11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잘 지킨다	(1)	(2)	(3)	(4)	(5)
1-12	내가 어려울 때 도와 줄 친구가 많다	(1)	(2)	(3)	(4)	(5)
1-13	나는 선생님들과 잘 지내는 편이다	(1)	(2)	(3)	(4)	(5)
1-14	나는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많이 한다	(1)	(2)	(3)	(4)	(5)
1-15	나는 등교시간을 잘 지킨다	(1)	(2)	(3)	(4)	(5)
1-16	나는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1)	(2)	(3)	(4)	(5)

2.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3. 학생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 ① 국어 ② 수학 ③ 과학 ④ 영어
 ⑤ 사회·국사 ⑥ 기술·가정 ⑦ 도덕 ⑧ 음악·미술·체육
 ⑨ 한문 ⑩ 없음

4. 숙제를 봐주거나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는 사람은 주로 누구입니까? (하나만 선택)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형제/자매 ④ 친척(조부모포함)
 ⑤ 학원 또는 과외선생님 ⑥ 주로 내가 함 ⑦ 기타(_____)

5.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 ① 학교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 ② 학교친구들과 친하게 어울리지 못한다
 ③ 학교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힌다 ④ 선생님이 불친절하고 나를 차별한다
 ⑤ 숙제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⑥ 준비물을 잘 챙겨오지 못한다
 ⑦ 기타(_____)

6. 만일 학교를 그만 두고 싶은 충동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 ① 놀림을 받기 때문에 ② 차별과 불공평 때문에
 ③ 공부하기 싫어서 ④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가 어려워서 ⑥ 선생님 또는 아이들이 싫어서
 ⑦ 그만 두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 없음 ⑧ 기타(_____)

C. 가정생활적응

1. 아래는 가족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O표 해 주세요.

문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약간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1-1 우리가족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가족은 서로를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가족은 화목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가족은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⑤
1-7 주말에 우리가족은 부지런하게 모두 함께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는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0 어떤 결정할 일이 생기면 가족 모두가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11 우리가족은 서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12 우리는 서로의 말을 주의깊게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13 누군가 힘들어 하면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그 이유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4 우리 가족은 생각의 차이를 줄이기가 쉽다	①	②	③	④	⑤
1-15 우리는 서로에 대해 사랑을 표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형제/자매 ④ (외)할아버지
⑤ (외)할머니 ⑥ 삼촌/(이)고모 ⑦ 기타(_____)

D. 심리적응

1.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 ① 외모 ② 동성친구 ③ 공부 ④ 장래 진로
⑤ 부모님(가정불화) ⑥ 경제적 어려움 ⑦ 주변의 냉대와 차별 ⑧ 이성
⑨ 특별한 고민 없음

2. 고민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만 선택**)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형제/자매 ④ 친구/선배
⑤ 할머니/할아버지 ⑥ 친척 ⑦ 선생님(사회복지사포함) ⑧ 없음

3. 다음 문항을 읽고, 요즈음 자신의 기분에 해당하는 곳에 빠짐없이 O표 하여 주세요.

	문항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3-1	나는 언제나 슬프다	①	②	③
3-2	나는 어떤 일이든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①	②	③
3-3	나는 모든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3-4	어떤 일도 재미가 없다	①	②	③
3-5	나는 항상 성격이나 행동이 좋지 못하다	①	②	③
3-6	나에게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①	②	③
3-7	내 자신이 밉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3-8	잘못된 일은 거의 내 탓이다	①	②	③
3-9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①	②	③
3-10	나는 매일 울고 싶다	①	②	③
3-11	나는 언제나 숙제 같은 것 때문에 괴롭다	①	②	③
3-12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싫다	①	②	③
3-13	나는 어떤 일에 대해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3-14	나는 남보다 못 생겼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3-15	나는 늘 학교 공부에 시달리며 헤어지지 못한다	①	②	③
3-16	나는 매일 밤 잠들기가 어렵다	①	②	③
3-17	나는 항상 피곤하다	①	②	③
3-18	나는 어떤 음식도 먹기 싫고 맛도 잘 모른다	①	②	③
3-19	나는 항상 아픈 곳 때문에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3-20	나는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3-21	나는 학교생활에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3-22	나는 정말 친한 친구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3-23	나는 전에 잘했던 과목을 지금은 매우 못한다	①	②	③
3-24	나는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3-25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위해 주지 않는다	①	②	③
3-26	나는 남이 말한 것을 잘 듣지 않는다	①	②	③
3-27	나는 남과 잘 싸운다	①	②	③

4. 아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O표 해 주세요.

문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4-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4-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4-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

1. 아래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것에 O표 해 주세요.

문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1-1 어머니 나라가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1-2 어머니 나라의 방식으로 명절을 지내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1-3 내게는 어머니 나라 문화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1-4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어머니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1-5 나의 어머니가 외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즐겨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어머니 나라 음식을 먹는 게 좋다	①	②	③	④
1-9 어머니 나라 사람들은 친절하고 인심이 좋다	①	②	③	④
1-10 내게 어머니 나라 출신 친구들이 소중하다	①	②	③	④
1-11 전통 한국식으로 명절을 지내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1-12 한국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1-13 어머니 나라 언어를 할 줄 모르는 한국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1-14 나는 한국인이어서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1-15 나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1-16 한국인은 친절하고 인심이 좋다	①	②	③	④
1-17 나는 한국 TV를 즐겨 본다	①	②	③	④
1-18 나는 한국어를 즐겨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1-19 나는 한국음식을 먹는 게 좋다	①	②	③	④
1-20 내게는 한국인 친구가 소중하다	①	②	③	④

G. 서비스 수혜경험 및 필요정도

1.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문항	이용여부(모두응답)		필요여부(모두응답)	
		①이용한 적 없음	②이용한 적 있음	①필요함	②필요하지 않음
1-1	공부방(방과 후 학습지도)	①	②	①	②
1-2	예체능교실, 특기 및 취미 교실	①	②	①	②
1-3	독서지도서비스 및 무료 도서대여	①	②	①	②
1-4	아동상담 프로그램(성격·정서·친구문제 상담)	①	②	①	②
1-5	건강, 문화체험(연극·영화), 캠프 등의 문화프로그램	①	②	①	②
1-6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교육, 상담 및 견학)	①	②	①	②
1-7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1-8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영어, 중국어 등)	①	②	①	②
1-9	멘토링 프로그램(일대일 상담 및 조언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1-10	기타 _____	①	②	①	②

2.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 기관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문항	이용여부(모두응답)		필요여부(모두응답)	
		①이용한 적 없음	②이용한 적 있음	①필요함	②필요하 지 않음
2-1	시설학원(학습, 예체능 등)	①	②	①	②
2-2	초등학교 내 방과후 학교	①	②	①	②
2-3	공부방(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아카데미, 000교실 등)	①	②	①	②
2-4	상담기관(심리상담, 놀이(미술·음악)치료 및 가족상담 등)	①	②	①	②
2-5	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관 등)	①	②	①	②
2-6	문화센터, 체육관	①	②	①	②
2-7	도서관	①	②	①	②
2-8	기타 _____	①	②	①	②

H. 사회적 지지

1. 아래는 여러분이 친구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O표 해주세요.

	문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약간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1-1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도와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래는 여러분이 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O표 해 주세요.

	문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약간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2-1	우리 가족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가족은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가 힘들어 할 때 우리 가족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6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7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8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래는 여러분이 선생님(학교 선생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O표 해주세요.

	문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약간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3-1	나는 우리 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2	우리 선생님은 날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4	우리 선생님은 내 기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5	우리 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6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7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선생님은 날 걱정해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8	우리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바깥선 중에도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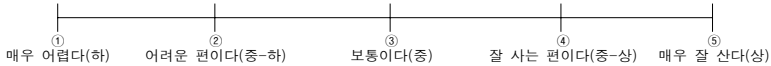
[응답자 및 설문지 관리 정보]		※ 마지막에 진행할 것	
응답자	성명:	주소 :	시(도) 구(군) 동(읍)
	전화 :) -	Mail: @	
면접원	성명 : / Code	일시 :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Editing	성명 : / 결과 :	검증원	성명 : / 결과 :

[illegible]

13. 여러분 부모님의 학력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해당 번호에 O표 해 주세요.

구분		① 중졸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4년제)	⑤ 대학원졸 (석사, 박사)	⑥ 모름	⑦ 안계심
13-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우리 집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B. 학교생활 적응

1. 아래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것에 O표 해 주세요.

문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약간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1-1 나는 선생님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학교생활 중 수업시간이 가장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당번 활동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 할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7 선생님들은 나를 귀엽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1-8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흥미 있는 것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9 학급에서 친구들 간에 인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10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1-11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1-12 내가 어려울 때 도와 줄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13 나는 선생님들과 잘 지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4 나는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5 나는 등교시간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1-16 나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3. 학생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 ① 국어 ② 수학 ③ 과학 ④ 영어
⑤ 사회·국사 ⑥ 기술·가정 ⑦ 도덕 ⑧ 음악·미술·체육
⑨ 한문 ⑩ 없음

4. 숙제를 봐주거나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는 사람은 주로 누구입니까? (하나만 선택)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형제/자매 ④ 친척(조부모포함)
⑤ 학원 또는 과외선생님 ⑥ 주로 내가 함 ⑦ 기타()

5.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 ① 학교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 ② 학교친구들과 친하게 어울리지 못한다
③ 학교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힌다 ④ 선생님이 불친절하고 나를 차별한다
⑤ 숙제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⑥ 준비물을 잘 챙겨오지 못한다
⑦ 기타()

6. 만일 학교를 그만 두고 싶은 충동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 ① 놀림을 받기 때문에 ② 차별과 불공평 때문에
③ 공부하기 싫어서 ④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가 어려워서 ⑥ 선생님 또는 아이들이 싫어서
⑦ 그만 두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 없음 ⑧ 기타()

C. 가정생활적응

1. 아래는 가족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O표 해 주세요.

	문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약간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1-1	우리가족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가족은 서로를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가족은 화목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가족은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⑤
1-7	주말에 우리가족은 부지런하게 모두 함께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는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0	어떤 결정할 일이 생기면 가족 모두가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11	우리가족은 서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12	우리는 서로의 말을 주의깊게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13	누군가 힘들어 하면 가족 중 다른 사람도 그 이유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4	우리 가족은 생각의 차이를 줄이기가 쉽다	①	②	③	④	⑤
1-15	우리는 서로에 대해 사랑을 표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형제/자매 ④ (외)할아버지
⑤ (외)할머니 ⑥ 삼촌/(이)고모 ⑦ 기타(_____)

D. 심리적적응

1.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 ① 외모 ② 동성친구 ③ 공부 ④ 장래 진로
⑤ 부모님(가정불화) ⑥ 경제적 어려움 ⑦ 주변의 냉대와 차별 ⑧ 이성
⑨ 특별한 고민 없음

2. 고민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만 선택**)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형제/자매 ④ 친구/선배
⑤ 할머니/할아버지 ⑥ 친척 ⑦ 선생님(사회복지사포함) ⑧ 없음

3. 다음 문항을 읽고, 요즘 자신의 기분에 해당하는 곳에 빠짐없이 O표 하여 주세요.

	문항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3-1	나는 언제나 슬프다	①	②	③
3-2	나는 어떤 일이든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①	②	③
3-3	나는 모든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3-4	어떤 일도 재미가 없다	①	②	③
3-5	나는 항상 성격이나 행동이 좋지 못하다	①	②	③
3-6	나에게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①	②	③
3-7	내 자신이 밉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3-8	잘못된 일은 거의 내 탓이다	①	②	③
3-9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①	②	③
3-10	나는 매일 울고 싶다	①	②	③
3-11	나는 언제나 숙제 같은 것 때문에 괴롭다	①	②	③
3-12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싫다	①	②	③
3-13	나는 어떤 일에 대해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3-14	나는 남보다 못 생겼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3-15	나는 늘 학교 공부에 시달리며 헤어지지 못한다	①	②	③
3-16	나는 매일 밤 잠들기가 어렵다	①	②	③
3-17	나는 항상 피곤하다	①	②	③
3-18	나는 어떤 음식도 먹기 싫고 맛도 잘 모른다	①	②	③
3-19	나는 항상 아픈 곳 때문에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3-20	나는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3-21	나는 학교생활에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3-22	나는 정말 친한 친구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3-23	나는 전에 잘했던 과목을 지금은 매우 못한다	①	②	③
3-24	나는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3-25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위해 주지 않는다	①	②	③
3-26	나는 남이 말한 것을 잘 듣지 않는다	①	②	③
3-27	나는 남과 잘 싸운다	①	②	③

4. 아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O표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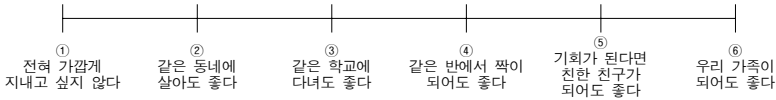
문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4-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4-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4-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

1. 한국에 살고 있는 또래 다문화학생(혼혈인) 대한 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O표 해 주세요.

문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1-1 나는 다문화학생에게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1-2 모습이 다르고 한국말이 서툰 다문화학생과 함께 있으면 어색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1-3 다문화학생 친구가 있다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1-4 다문화학생은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인과 다를 것이다	①	②	③	④
1-5 다문화학생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1-6 우리와 다른 다문화학생의 모습은 조금 낯설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1-7 다문화학생과 같은 반이라면 잘 대해주고 도와주고 싶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다문화학생에게 왠지 거부감을 느껴서 피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9 다문화학생과 친구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1-10 나는 다문화학생과 친한 친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①	②	③	④
1-11 다문화학생과 친한 친구가 된다면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여러분은 다문화학생(혼혈인)과 어느 정도로 가깝게 지낼 수 있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3. 여러분은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학생(혼혈인)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네 ② 아니요 ③ 한국인도 되고 외국인도 된다.

4. 여러분은 여행 혹은 연수 등의 이유로 외국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네 (문 4-1로) ↓ ② 아니요 (문 5로)

4-1. ① 외국에 나간 경우만) 외국에 나가 있었던 기간은 모두 합쳐서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 ① 2주 미만 ② 2주 ~ 1개월 미만 ③ 1개월 ~ 6개월 미만
④ 6개월 ~ 1년 미만 ⑤ 1년 ~ 2년 미만 ⑥ 2년 이상

5. 여러분은 앞으로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살고 싶습니까?

- ① 네 ② 아니요

G. 서비스 수혜경험 및 필요정도

1.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문항	이용여부(모두응답)		필요여부(모두응답)	
		①이용한 적 없음	②이용한 적 있음	①필요함	②필요하지 않음
1-1	공부방(방과 후 학습지도)	①	②	①	②
1-2	예체능교실, 특기 및 취미 교실	①	②	①	②
1-3	독서지도서비스 및 무료 도서대여	①	②	①	②
1-4	아동상담 프로그램(성격·정서·친구문제 상담)	①	②	①	②
1-5	건강, 문화체험(연극·영화), 캠프 등의 문화프로그램	①	②	①	②
1-6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교육, 상담 및 건강)	①	②	①	②
1-7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1-8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영어, 중국어 등)	①	②	①	②
1-9	멘토링 프로그램(일대일 상담 및 조언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1-10	기타 _____	①	②	①	②

2.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 기관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문항	이용여부(모두응답)		필요여부(모두응답)	
		①이용한 적 없음	②이용한 적 있음	①필요함	②필요하지 않음
2-1	사실학원(학습, 예체능 등)	①	②	①	②
2-2	초등학교 내 방과후 학교	①	②	①	②
2-3	공부방(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아카데미, 000 교실 등)	①	②	①	②
2-4	상담기관(심리상담, 놀이(미술·음악)치료 및 가족상담 등)	①	②	①	②
2-5	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관 등)	①	②	①	②
2-6	문화센터, 체육관	①	②	①	②
2-7	도서관	①	②	①	②
2-8	기타 _____	①	②	①	②

H. 사회적 지지

1. 아래는 여러분이 친구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O표 해주세요.

	문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1-1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도와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래는 여러분이 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O표 해주세요.

	문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2-1	우리 가족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가족은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가 힘들어 할 때 우리 가족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6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7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8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래는 여러분이 선생님(학교 선생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O표 해 주세요.

	문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3-1	나는 우리 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2	우리 선생님은 날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4	우리 선생님은 내 기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5	우리 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6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7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선생님은 날 걱정해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8	우리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자 및 설문지 관리 정보]		※ 마지막에 진행할 것	
응답자	성명: _____	주소: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동(읍)
	전화: _____) _____ - _____	Mail: _____ @ _____	
면접원	성명: _____ / Code _____	일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_____ 시 _____ 분 ~ _____ 시 _____ 분)	
Editing	성명: _____ / 결과: _____	검증원 _____	성명: _____ / 결과: _____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303)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Yes24 http://www.yes24.com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2011년	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9,000원
	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미정
	11-03	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6,000원
	11-04	약제비 자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미아	5,000원
	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야채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7,000원
	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농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7,000원
	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6,000원
	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6,000원
	11-09	인구집단 의료이용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6,000원
	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방안	황나미	미정
	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7,000원
	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7,000원
	11-13	사회보장제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5,000원
	11-14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7,000원
	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6,000원
	비발간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제공	강유구	미정
	11-16-1	선진국의 아동사태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6,000원
	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 수준에 관한 연구	고경환	6,000원
	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8,000원
	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7,000원
	11-17-4	2011 보건복지 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10,000원
	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미정
	11-17-6	사회복지재정 추계모형개발	원종욱	8,000원
	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5,000원
	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 정책 개선 방안	이태진	6,000원
	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7,000원
	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6,000원
	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10,000원
	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6,000원
	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7,000원
	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8,000원
	비발간	2011 기초보장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이태진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모니터링 및 현장보고	최현수	미정
	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미정
	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제검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12,000원

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10,000원
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5,000원
11-29	장애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7,000원
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6,000원
11-31	사회복지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강혜규	미정
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분석	이삼식	7,000원
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5,000원
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6,000원
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6,000원
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11,000원
11-37-1	출산율 예측모형 개발	이삼식	6,000원
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 (외부)	미정
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 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7,000원
11-37-4	소득계층별 출산 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6,000원
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 (외부)	미정
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7,000원
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6,000원
11-37-8	외국의 이민정책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 (외부)	미정
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정희	9,000원
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모색: OECD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소정	5,000원
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5,000원
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8,000원
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1)	오영희	6,000원
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7,000원
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8,000원
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이삼식	5,000원
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정희	7,000원
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각지대 분석	이소정	8,000원
11-37-19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10,000원
비발간	국제신포자음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사회연구관련 학술대회	이삼식	미정
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홍 (외부)	미정
11-37-21	북한연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이삼식	미정
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방안	(미정) (외부)	미정
11-37-23	저출산고령화대응영세자영업자생활실태연구	박종서	미정
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8,000원
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10,000원
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 지원	김동진	11,000원
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의 정책동향	최은진	10,000원

	11-39-4	건강영향평가 DB구축	김동진	10,000원
	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9,000원
	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8,000원
	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8,000원
	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홍석표	5,000원
	11-42	취약·위험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2차년도)	김승권	11,000원
	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김미숙	13,000원
	11-44-1	한국의 복지실태	남상호	16,000원
	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옥	8,000원
	비발간	한국의 사회복지분석	남상호	미정
	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7,000원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정책방향 모색	박실바아	미정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분석	조재국	미정
	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7,000원
	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6,000원
■ 2010년	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원
	10-02	화개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바아	5,000원
	10-03	해외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7,000원
	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기혜	6,000원
	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7,000원
	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박노성	7,000원
	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선	5,000원
	10-08	간담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식	7,000원
	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5,000원
	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원
	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원
	10-12	한국 제3세대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원
	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원
	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원
	10-15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원
	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원
	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원
	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원
	10-19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원
	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원
	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8,000원
	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원
	10-23	민간 복지지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원
	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원
	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원
	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원
	10-28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	장영식	10,000원
	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원

10-30-1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17,000원
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원
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원
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원
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원
10-30-6	저출산의 가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원
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 (외부)	6,000원
10-30-8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원
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원
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6,000원
10-30-11	임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10,000원
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장수	6,000원
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원
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원
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원
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30-17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원
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원
10-30-19	에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원
10-30-20	신노년층(에비노년층)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신우덕	5,000원
10-30-21	신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7,000원
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원
10-31-2	2010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원
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원
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자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6,000원
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원
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원
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원
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원
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원
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5,000원
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원
10-33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3년차)	오영호	9,000원
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원
10-35	취약위험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10,000원
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원
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원
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삼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원
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11,000원
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Ⅰ)	정영호	7,000원
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원
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원